

자료집을 펴내며

어찌 보면 영유아기는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바탕을 기르는 더 없이 소중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이들을 영유아기 때부터 과잉 조기교육으로 경쟁에 내몰리게 하여 건강하게 영유아기를 누릴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양육, 교육의 책임과 비용을 부모에게만 돌리는 현실에 절망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모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부모, 아이, 가족, 어린이집 등 교육의 주체와 환경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를 수 있게 하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이 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부모로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펴내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나, 아이를 보육시설 등 기관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이 자료집을 참고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기 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 구성을 하였습니다.

둘, 보육시설에서 부모참여와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서 보육시설에서 부모교육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 특히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육 아 어린이집은 부모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부모들이 스스로 참여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 자료집은 새로운 부모교육의 안을 만들기보다 그동안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해왔던 부모교육의 실천사례와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동육아협동 조합에서의 부모교육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 습니다.

내용구성을 보면 1부에서는 부모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서술했으며 2~3부에서는 부모교육의 목 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이 되는 주제와 자료를 실었습니다. 4부에서는 교육을 효과 있게 진행하 기 위해서 어떤 교육방식이 필요한지를 서술했습니다. 특히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부모들이 맡고 있 는 역할을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협동조합의 발전주기에 따라 어떤 교육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서술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을 조화롭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목차

| | |
|--|-----|
| 1부. 부모교육, 왜 하나요 | 8 |
| 1. 부모교육, 이래서 필요해요 | 8 |
| 2. 부모교육, 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 10 |
| 2부. 부모교육, 무엇을 하나요 | 14 |
| 1. 우리 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14 |
|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 공동육아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 14 |
| 어린이 권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22 |
| 미로 같은 아이들의 세계, 어떻게 이해하나요 | 36 |
| 아이와 어떻게 해야 친해지나요 | 50 |
| 아이들과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 61 |
| 유아기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9 |
| 2. 가족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 83 |
|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가 | 83 |
| 도시 속 마을 만들기와 함께 키우기 | 93 |
| 3. 한국사회 교육현실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 104 |
| 공동육아로 함께 살기 | 104 |
| 학벌사회에 대안은 없다 | 110 |
| <한반도>에 나타난 <괴물>, <한미 FTA> | 114 |

| | |
|--------------------------------|-----|
| 4. 희망을 만드는 보육이 되자 | 119 |
| 5. 아이들에게 놀이는 무엇인가요 | 124 |
| 놀이 · 노래는 어떻게 하나요 | 124 |
| 공동육아 아이들의 놀이와 놀잇감 | 132 |
| 6.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좋을까요 | 153 |
| 어린이에게 어떤 책을 보여 줄까 | 153 |
| 그림책 세계로 쏘옥 들어가기 | 158 |
| 7.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해요 | 164 |
| 우리 아이의 미래와 양성평등육아 | 164 |
|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 169 |
| 8. 먹을거리가 궁금해요 | 180 |
|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 180 |
| 세시와 절기속의 먹을거리 | 195 |
| 9.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 209 |
| 10. 문자언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 221 |

| | |
|---------------------------------------|-----|
| 3부. 공동육아를 알고 싶어요 | 228 |
| 1. 공동육아 역사와 철학을 알고 싶어요 | 228 |
| 대안교육의 길을 찾아서 : 야학에서 공동육아까지 | 228 |
| 공동체주의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나요 | 252 |
| 2. 공동육아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 259 |
| 공동육아운동론 | 259 |
| 3. 공동육아 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요 | 277 |
| 미래 유아교육 방향으로서의 협력교육 : ‘공동육아’ 사례 | 277 |
|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 | 281 |
| 공동육아 하루일과와 생활교육 들여다보기 | 293 |
| 생태나들이로 자연을 만나는 아이들 | 300 |
| 세시와 한해 흐름은 무엇인가요 | 330 |
| 아이들에게 이야기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 338 |
| 다양한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자 | 353 |
|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삶 | 359 |
| 4.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요 | 365 |
| 협동조합은 그냥 조합이 아니다 | 365 |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 369 |

| | |
|---------------------------------------|------------|
| 공동육아 이사가 된다는 것 : 유쾌, 상쾌, 통쾌한 경험 | 373 |
| 5. 부모참여, 이렇게 하면 신나요 | 381 |
| 공동육아, 누군가의 짐이면서 뺄이 되는 따뜻한 등짐 | 381 |
| 공동육아는 아이뿐 아니라 아빠도 건강하게 키우는 공간이다 | 388 |
| 6. 공동육아 관계맺기, 이렇게 하면 살맛나요 | 390 |
| 4부. 부모교육 어떻게 하나요 | 396 |
| 1. 부모교육 이렇게 해 보세요 | 396 |
| 2. 신입조합원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요 | 400 |
| 3. 조합운영진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요 | 402 |
| 4. 조합의 주기에 따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04 |
| 5부. 부록 | 408 |
| 1. 참고도서 | 408 |
| 2. 사이트 | 411 |
| 3. 회보 여는 글(권두언), 특집(시론) 목록 | 412 |
| 4. 보육권리 선언 | 418 |

1부

부모교육, 왜 하나요

1. 부모교육, 이래서 필요해요
2. 부모교육, 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1부. 부모교육, 왜 하나요

1. 부모교육, 이래서 필요해요

첫째,
아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되려면 먼저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낳아 기르면서 이해를 높여가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앞서 아이를 길러 본 부모의 이야기도 듣고 아이의 발달을 연구하는 교육전문가의 이야기와 보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이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교육은 아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식을 제공합니다.

둘째,
아이를 둘러싼
교육현실을
제대로 알아
부모역할을
잘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부모의 일관된 가치관과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들만큼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없지요. 부모가 주변의 영향을 받아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수시로 흔들릴 때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일관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교육은 아이를 둘러싼 교육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줍니다.

**셋째,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아이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보다 발달을 앞당기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습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교육 즉, 과잉조기교육과 특기교육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과잉조기교육, 특기교육이 아이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교육은 아이가 유아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넷째,
부모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노릇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노릇을 잘하는 것일까? 부모노릇을 묻는 물음에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에 따라 여러 답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이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합니다. 이 노력은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노릇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교육은 부모노릇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부모교육, 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첫째,
공동육아의
철학과 이념을
이해하게 합니다.**

공동육아의 철학은 조합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해하게 되지만 참여를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교육은 공동육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들의 참여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도와 주어 공동육아의 철학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생활과
교육활동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고 깊은 공감을 보낼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이해하고, 생활을 통해 발견되도록 하는 공동육아 교육활동의 철학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생활이 갖는 의미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담긴 의미를 잘 전달해서 부모들이 아이가 변한 모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들의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좁혀줍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공동육아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뜻을 같이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하게 모여 있다는 것은 조합을 살아있고 힘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원들의 동의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합의되지 않는 다양성은 조합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조합원들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은 조합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모교육은 개개인이 가진 생각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네째,
협동조합에서
만나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결합이 매우 높은 집단입니다. 육아를 매개로 만난 집단이기 때문에 조합 구성원들의 만남과 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지요. 만남과 소통은 구성원들에게는 기쁨과, 조합의 발전을 가져다주지만 막히기 시작하면 큰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교육은 어떻게 하면 막힘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지 조합원들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린이집을 중심에 놓고 함께 아이를 기르고 생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부모들이 자발적 의지로 만들고 꾸려온 곳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참여의지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깊이 있게 공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감은 가치가 생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지요. 그러므로 부모교육은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가치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부모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섯째,
조합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능력 즉, 민주적인 소양을 갖추는 길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하는 교육은 부모들이 조합을 이해하고 조합을 이끌어 가는 원칙-자주적, 민주적, 협동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부

부모교육, 무엇을 하나요

1. 우리 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 가족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3. 한국 사회 교육현실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4. 희망을 만드는 보육이 되자
5. 아이들에게 놀이는 무엇인가요
6.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좋은가요
7.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해요
8. 먹을거리가 궁금해요
9. 미디어교육, 이렇게 해요
10. 문자언어교육, 이렇게 해요

2부. 부모교육, 무엇을 하나요

1. 우리 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공동육아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¹⁾

이 기 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육아 방향과 방식이 결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어떤 사회가 한 형태의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이다. 한 사회 안에서도 계급과 계층, 지역, 종교, 가계 따위에 따라 인식의 형태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아이들을 악마나 마녀 따위의 위험한 존재로도 인식하였던 서양의 고대, 중세 사회로부터 ‘근대화’되었다는 사회의 육아 방향과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인식의 틀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1) 이 글은 『함께 크는 우리 아이』, 1994, <공동육아연구회 펴냄,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에 수록된 원고입니다.

근대의 어린이 인식의 틀은 아이들을 백지의 상태로 보는 것이다. children as tabula rasa (deMause 1975).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빼곡하게 채워야 할 백지이고, 육체는 바람직한 훈련으로 구조해야 할 진흙이나 기계와 같다. 즉 아이들의 백지와 같은 마음과 기계와 같은 육체는 ‘정상적’으로 단련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 대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인 육아이다. 육아는 대상인 아이들의 육체를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체벌함으로써 ‘정상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과정이며, 또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꿰뚫고, 검사함으로써 ‘정상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다(Foucault, 1979).

이 인식의 틀 안에서 육아의 목적은 아이들이 이미 질서 정연하게 조직되어 있는 세계에서 어른들의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조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아이들의 입장과 욕구는 없다. 아이들은 단지 양육되어야 할 대상이며 객체이다. 세계는 이미 기존의 가치에 의하여 질서 정연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정상’이라고 주입하는 가치와 의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하여서, 그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은 체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는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육아의 대상에서 배제하면 그만이다.

효율적인 육아 방식과 기술이 요구되었고, 그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범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정리하자면 첫째, 근대 어린이 인식의 틀은 아이들을 철저하게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그 틀 안에서 육아의 목표는 기존 질서에 적합하도록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구조하는 것이었다. 셋째, 근대 육아의 방법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근대의 어린이 인식은 영유아 살해나 방기를 뒷받침하였던 그 이전 시대의 인식보다는 인도주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육의 방법도 육체보다는 마음을, 체벌보다는 학습과 훈련을, 그리고 강제와 복종보다는 자발성을 수련하는 기술을 점차로 개발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감에 따라 더 인도주의적으로 되었다. 육아 기술과 방법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되는 만큼 육아도 더욱 더 인도주의적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철저하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틀과 아이들을 기존 질서에 철저하게 꿰어 맞추려는 육아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류의 효율성이 보장하는 인도주의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은 아마도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제시한 첨단 육아 방식이라면 과장일까? 그 육아 방식은 기존의 방식이 마치 물방울이 단단한 대리석에 구멍을 뚫는 과정이라면, 물방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마개를 봉하는 촛농 같은 방울이다. 떨어진

물건 위에 정착하여 외피를 덮고, 최후에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방울이다.

드디어 아이들의 정신이 이러한 암시가 되어버리며, 암시의 총계가 아이들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릴 때까지. 더군다나 단순히 아이들의 정신뿐만이 아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 일생을 통하여 판단하고, 요구하며, 결정하는 정신은 - 죄다 이러한 암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암시는 우리들 자신의 암시다. 국가에 바치는 암시다.(헉슬러, 1972, p33)

우리 사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인식의 틀 그리고 육아의 목표와 방식은 무엇일까? 구태여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위에서 이야기한 근대의 인식과 육아에서 우리의 현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사회의 요구대로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도록 자라야 하고, 부모의 요구대로 입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자라야 하는 대상이다. 아이들이 구체적 일상에서 형성하는 관심과 요구를 무시할수록 그 목표에 가까워진다. 물론 방식에서 차이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의 차별성과 선택의 근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기술의 효율성일 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의 관찰을 부정할 수도 있다. 근대 유아 교육에는 위의 인식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던 프뢰벨, 몬테소리 그리고 니일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도 프뢰벨식 교과 과정, 몬테소리식 유아원, 니일식의 열린 교육, 미국과 영국식의 아동 중심 교육을 실행하는 유아원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들이 얼마나 근대의 어린이 인식과 육아의 틀을 극복하였는지는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유아 교육에는 프뢰벨식의 교육, 몬테소리의 교육, 아동 중심의 교육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들에게 평가의 잣대는 그러한 방식들이 아이들을 특정 목표대로 생각해 내는 데 얼마만큼 더 효율성이 있는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모방은 있을지라도 그 대안적 방식들의 토대, 즉 그것들이 극복하고 지향하는 인식의 틀과 교육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화가 무리인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의 육아는 아이를 대상화하는 근대적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아이를 어른들의 요구대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 도입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양 근대 육아의 모순을 우리 사회가 주체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이거나 조기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이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많은 보육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를 인식하는 틀이 바뀌고 그에 더하여 육아의 목표가 바뀔 때에 방식의 변화가 육아의 변화로 연결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인식은 아이들을 백지 상태로 보는 것에서 세계를 백지 상태로 보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는 공동육아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육아가 추구해야 할, 세계를 백지상태 world as tabula rasa로 보는 인식의 틀은 이것이다. 그것은 각 세대의 아이들이 애초에는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대상으로 가득 찬 세계에 태어난다고 본다. 그 세계 안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양육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계가 의미 있는 세계로 된다고 생각한다(deMause, 1975).

새로운 인식의 틀에서 아이들은 단지 어른들이 의미 있다고 주입하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어서 어른들의 뜻대로 구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 자신이 육아와 교육의 주체이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단계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하여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존 세계의 의미와 가치와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인식의 틀에서 육아의 목표는 아이들이 그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들이 그 이해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대한 공동육아의 방식은 아이들에게 기존 의미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기존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그 삶의 터전은 주입과 숙련 형태의 육아 효율, 능률,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어서는 안 된다. 그 터전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이되, 그 안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구성된 일상세계이어야 한다(Habermas 1970).

그 터전에서 활동의 축은 아이와 어른, 아이와 아이, 그리고 아이와 환경의 관계를 여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일 것이다(정유성, 1994).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인간과 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기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의 틀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수정하고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공동육아의 터전은 열린 관계를 지향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들이 기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세계에 ‘능동적 적응’을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수정,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총체적인 삶의 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육아의 목표는 공동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육아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계발하고 실험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 작업에 아이들만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부모들과 보육 종사자들도 그것을 구성할 뿐 아니라 참여해야 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또 더 바람직한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육 종사자들은 함께 토의하고 활동해야 한다. 또 아이들의 삶에 함께 하는 가운데 그들의 독특하고 확대되는 요구에 교감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의 입장을 수정하고 터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뜻을 같이 하는 교사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마련한 장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육아는 육아와 교육 기술의 도입과 계발에 면허장을 가지고 있었던 유아 교육 전문가와 종사자뿐 아니라, 총체적 삶의 터전을 계발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는 부모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할 공동육아는 열린 공동체에서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육아는 이러한 공동체이되, 진보적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같은 세대에 그들 고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기존의 가치와 의미가 부적절하게 되고 새로운 세대의 목적에 맞게 변화되어, 사회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육아 형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 변화와 직결되는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열린 공동체와 열린 연대

공동육아는 열린 공동체에 의해 가능하고 그것을 지향한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다양한 의미

를 이해하고 수정, 확대하는 과정은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지역 혹은 문화 공동체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MacIntyre, 1988). 그러나 어떤 형태의 공동체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문화 공동체가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동체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분화되었다. 우리는 공동의 의미와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개개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적 기능을 맡아서 하는 공동체를 대부분 잃게 된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육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육아 기능을 상당 부분 제공해 주었던 공동체가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분화된 가족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급변하는 사회맥락을 읽어 내고, 그에 적합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가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힘겹고도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대안은 공동육아이다. 공동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핵가족들이 고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그와 밀접한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계기이다(정병호, 1993; 조혜정, 1991).

그러나 공동육아는 혈연이나 지역 혹은 과거의 문화적 전통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공동육아는 삶과 육아의 가치와 의미의 문화 공동체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인식의 전환에 더하여 아이들이 자라기에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가치와 의미를 교류하고 조정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물론 육아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공동육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더 강력한 응집력이 있는 생활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공동육아의 공동체는 아이들이 자랄 삶의 터전을 만드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터전에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를 지향하되, 공동체가 내부와 외부에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속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리지 않은 공동체는 억압적일 것이다. 외부적으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식 we-feeling의 강한 일체감은 항상 폐쇄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내부적으로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거를 유지해야 한다. 첫째 준거는 포용성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이 그들이 영향 받을 모든 교육 방향과 환경의 토의, 실현, 평가에 참여하여 논의해야 한다. 둘째는 개방성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동과 논의에서 성, 계층과 계급, 지역, 장애 정도의 차별이 구조화한 지배와 억압의 체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표현성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동과 논의에서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해치지 않는 한 각자에게 적합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넷째는 개방성이다.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다섯째는 자기 성찰성이다.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의 다른 의견과 행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여섯째는 상호 주관성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동과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의견일치보다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성과 정당성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예를 들자면 상호 이해, 수정, 조정, 협상, 동의, 유보 따위에 합의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얻어낸 공동의 결론-비록 잠정적일지라도-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입장과 다른 공동체에 대하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동육아 공동체가 생산하고 유지하는 가치와 의미가 항상 적절하거나 일관성이 있을 수는 없다. 공동체 자체 내의 자기 성찰을 통하여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혹은 상이한 가치, 지역의 다른 육아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에 대하여 개방성을 유지함으로써 도전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이기범, 1994).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한 어른과 아이들에게 적절한 길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육아 공동체는 개방성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다른 공동체들과 ‘차이 속의 연대’와 ‘연대 속의 차이’를 추구해야 한다. 많은 육아 공동체들이 ‘차이 속의 연대’와 ‘연대 속의 차이’를 추구함으로써 각기의 공동체 발전은 물론 공동육아 가치와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육아 공동체는 그 프로그램과 운영에서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에 그 구성원들이 속박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실험정신, 그리고 대안적 삶과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닫혀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공동체를 통하여 아이와 어른이 함께 그들 스스로를 형성하여 가되, 그 형성 과정은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되 바로 거기가 비어 있어서 그릇으로 쓸 수 있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방을 만들되 바로 거기가 비어 있어서 방을 쓸 수가 있다.”는 노자도덕경의 이치와 같이 어른과 아이 모두가 잠재력을 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열린 공동체로서의 공동육아의 가치와 의미는 어른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터전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프로그램으로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느냐보다는 그러한 가치와 의미

가 공동육아 공동체의 정념(ethos)이요, 삶의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기범, 1994, <참여민주주의와 공교육, 한국교육철학연구회 편,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정유성, 1994, 《사람, 삶, 되살림》, 한울.

정병호, 1993,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와 바람직한 공동육아-인류학적 시각>,

《21세기의 영유아 보육》,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편, 한울.

조혜정, 1991, <우리 가정 환경, 과연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가>,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양육을 걱정하는 모임편, 《우리 아이들의 육아 현실과 미래》, pp33-43, 한울.

헉슬리, 알더스, 1972, 《멋진 신세계》, 권세호 역, 서문문고.

어린이 권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²⁾

이 부 미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교육권은 학습권과 함께 그 정의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인간적 성장과 발달의 욕구가 강력한 어린이의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로 개념화 할 수 있다.³⁾ 이러한 개념의 어린이 교육권은 1990년 유니세프, 유엔디피, 유네스코, 세계은행이 공동 주체로 선언한 “만인을 위한 교육 세계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과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the 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에서 이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⁴⁾ 이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의 4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매 5년마다 아동권리의 개선상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2) 이 글은 ‘어린이 교육에 관한 권리(The Right to Education for Childre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3) 교육권과 학습권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다. 첫째, 교사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고 학생은 학습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 교육권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시킬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셋째, 교육권을 교육 받을 권리로 보고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에 학습자의 능동성을 더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김재웅, 2000. 아동권리연구, 제4권2호, pp57-75). 세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김정래(1998, 아동권리연구 제2권1호, pp5-24)는 교육받을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일종의 복지권(welfare right)으로서 누구나 수혜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universal right)로 보고 있다. 그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규정하는 근거로 1985년의 유네스코 성인교육 국제회의 ‘파리선언’과 1990년 유네스코 성인교육 국제회의 ‘함부르크 선언’을 들고 있다.

4)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인데,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제7조, 1976년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13조, 1989년 아동권리협약 제28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다(권영복, 아동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동국대 대학원. 2000).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사상 최대의 저 출산 현상을 겪은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으며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책임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유아교육계에서의 대표적인 사안이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었다. 2003년 한 해는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 관련 법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였고 이를 둘러싼 관련 집단 간의 갈등 또한 첨예했던 시기였다.⁵⁾ 어린이를 위한 법 제정과 개정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유아교육을 형식적 교육으로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보면 교육권적으로 진일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의 생존·성장·발달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양육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적 관심과 인식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이다.⁶⁾

따라서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생존·보호·발달의 원칙이라는 시각에서 봄으로써, 제도적인 유아교육 또는 보육이라는 형식교육 이외의 가정과 사회의 비형식교육 영역의 문제들까지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에는 유엔의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과 유니세프의 ‘만인을 위한 교육 세계 선언’을 논의의 근거로 삼는다.⁷⁾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아동은 0~18세 사이를 말하지만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의 연령은 0~13세로 보되 초점은 영유아기(0~7세)에 맞추기로 한다.

1. 생존권 측면에서 본 어린이의 교육권⁸⁾

5) 2004년 1월 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6) 아동의 생존·성장·발달권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7조 제1항, 국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실시무를 규정한 제34조 제4항 등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권영복, 2000, 상계서).

199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 제출(2000.5.1) 결과,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1 회의에서 심의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일반이행조치-협약홍보행에서 위원회는 어린이, 일반국민, 어린이 관련 전문가들이 협약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어린이의 권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7) 권영복(2000, 상계서)은 아동의 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서 아동권리협약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지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아동의 권리장전인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상으로도 헌법전을 보완하는 법률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8) 2004년 1월 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시설 환경이 어린이들의 생존과 성장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유아교육기관, 보육 시설에서의 청결과 위생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은 집단 생활하는 공간인지라 어린이들이 단순한 감기에서 수두, 홍역 등까지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들의 위생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2003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위생관리 측면에서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선 교육·보육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사례로 경남 창원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생 7명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어 고열과 설사로 치료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급히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 조치를 내렸다.⁹⁾ 또한 2003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의 공기 중 병원성 세균 오염이 일반 가정의 실내 공기 평균치보다 최고 7.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32곳을 대상으로 공기 중 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비해 학교 교실은 5.2배, 학교 조리실은 2.4배가량 높았으며 어린이집 놀이방은 7.9배, 어린이집 조리실은 4.2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¹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바깥놀이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교사들은 실내놀이 외에도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바깥놀이를 하루 일과에 편성한다. 어린이들은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의 바깥놀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바깥놀이 시설의 모래가 비위생적이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원, 성남, 안양의 어린이집 놀이터 23곳을 조사하였더니 7곳(30%)에서 설사 등을 일으키고 간,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생충이 검출되었다.¹¹⁾ 어린이들에게 흙과 모래는 친근한 자연 놀잇감이지만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놀잇감이 되고 있다.

(2) 어린이 통행 안전권

어린이 통학로 안전 측면에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초등학교 부근 일정구

9) 연합뉴스, 2003. 10. 21.

10) 연합뉴스, 2003. 9. 23.

11) 연합뉴스, 2003. 3. 3.

역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어린이집 인근으로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전국 1,300여개 어린이집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에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치원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어린이집까지 확장되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동법 제3조에 따라 유치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 군 교육감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에 비해 이번 조치는 정부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적극성을 보였는데 이는 어린이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시범개선사업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등 28개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서울시내 초등학교 등 86개교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¹²⁾ 부천시도 7개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51곳을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³⁾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의 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였고¹⁴⁾ 경기도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114억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⁵⁾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2 규정에 준한 것으로 동법 제48조 4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사문화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의 통학버스는 불법 임대 차량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일반 차량을 가진 운전자가 여러 학원을 운행하는 것으로 시간에 쫓겨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유치원 통학버스는 안전지도교사가 동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승율이 저조하여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¹⁶⁾

어린이의 통행 안전권은 교통 환경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및 체계, 통행안전지식 등을 이해하고 통행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런

12) 연합뉴스, 2003. 9. 25.

13) 연합뉴스, 2003. 12. 9.

14) 연합뉴스, 2003. 11. 27.

15) 연합뉴스, 2003. 11. 28.

16) www.safekids.or.kr. - 세이프키즈코리아

문제의식 속에서 각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交通安全교육을 2개월당 1회 이상(연간 12시간 이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이交通安全지식을 습득하고交通安全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交通安全교육장’ 등을 설치할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안산시는 어린이들의交通安全교육을 위해 어린이交通安全교육장을 2004년 말까지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교육장에는 시청각실, 전시실, 체험실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교통법규와 수칙을 익힐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¹⁷⁾ 제주도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3억 원을 들여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3) 어린이 안전사고

① 교육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현황

2003년 어린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줄여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무색하게 2003. 9. 23. UNICEF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선진국의 아동학대 사망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화재 등 상해로 인한 아동 사고 사망률(10만 명당 25.6명)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다. 가장 안전한 국가 스웨덴(10만 명당 5.2명)보다 무려 5배나 높았고 2위를 차지한 멕시코(10만 명당 19.8%)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곳이 못된다. 2003. 6. 25.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2002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119 구조대가 출동한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전체 사건 4,637건 중 178건으로 4번째로 안전하지 못한 공간임이 드러났다. 또 다른 통계자료인 ‘도시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¹⁸⁾를 보면, 안전사고 장소별 발생빈도에서 총 응답건수 506건 중 사고발생이 가장 많았던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256건(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은 123건(24.3%)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17) 연합뉴스, 2003. 9. 20.

18) 이은숙, 김정남(2003). 도시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1): pp.96-112. 한국보건간호학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으로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운동 및 놀이시간으로 17.9%이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장소별로 살펴보면, 운동장, 마당이 43.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놀이영역 등 특별교실은 20.3%의 빈도를 보였다. 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았고 상해 부위가 다리, 손과 팔 등의 순으로 찰과상(피부가 벗겨짐), 절상(칼에 베임), 타박상, 염좌(뺨), 자상(찢림) 등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불량한 시설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24개 영유아보육시설(국공립시설 12개, 민간시설 12개)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더니 교실 내 교구장 모서리가 뾰족해 다칠 위험이 있으며 신발장과 사물함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곳이 29.2%에 불과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비상구에 안내등이 없거나 장애물이 쌓여 있는 등 관리 부족도 지적하였다.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피해사례 28건을 분석한 결과, 가구에 부딪히는 사고와 놀이기구에 의한 사고가 각각 28.6%이었으며, 기타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17.9%, 음식물과 약물 사고는 각각 7.1% 등이었다.¹⁹⁾ 어린이들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실내외 환경 및 시설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② 어린이 안전사고 보상 보험 가입률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²⁰⁾ 전국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비해 안전관련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유치원들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은 유치원에 비해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가입률이 높는데 그 이유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19) 연합뉴스, 2003. 8. 12.

20) 연합뉴스, 2003. 9. 19.에 따르면 “교육부 집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97년 9,265건, 1999년 1만5983건, 2001년 1만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연합뉴스, 2003. 12. 5.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2000년 1만6천857건, 2001년 1만8955건, 2002년 1만95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아동안전기본법 제정 운동 전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육내용)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요구하며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보육시설마다 어린이들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보육시설 설치기준)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를 명시, 소화용 기구를 비치, 비상구 설치,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의 안전법규는 유아교육진흥법이나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학교보건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린이 안전보장관련 법들이 이렇게 각각 분산되어 있어 법제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에 대한 안전보장 및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5개 단체가 모여 2003. 5월말 ‘어린이안전네트워크’를 출범시켰으며 여기에서 ‘아동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안전네트워크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과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의무화, 어린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안전위원회 구성, 어린이 안전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어린이들의 급간식을 통한 영양관리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는데 있다.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들은 보호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종일제나 오후 2시까지 아이들을 맡고 있어 하루에 간식 1~2회, 급식 1~2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급간식을 통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중 제33조 급식관리 조항을 보면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안도 제17조 2항에서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어린이들은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에서 급간식을 하면서 초기 식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영양을

공급받는다. 부모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²¹⁾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의 급간식은 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의 급간식 개선과 발전을 위한 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노력들은 활발하지 못하다. 다만 일부분의 보육시설, 즉 부모들이 운영 주체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나 생태유아공동체의 유치원과 일부 보육시설이 유기농 유통업체를 통해 유기농 먹을거리를 구입하여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2. 보호받을 권리에서 본 어린이 교육권

보호권(아동권리협약 제 6조)은 양육권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9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 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등 어린이들이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특히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사회, 국가의 양육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육권 측면에서 보호권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이다. 이것에 더해 제18조 2항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부모의 취업이나 학대 등 기타 사유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어린이들의 보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3. 발달권에서 본 어린이 교육권

(1) 조기과잉교육

어린이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잘 자랄 권리’를 가정과 사회로부터 제공받아 신체적 보호뿐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받아야 한다.²²⁾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속

21) “보육시설 아동 편식주의보” 제주시내 보육시설 어린이들 31.9%가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며 72.9%가 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03. 4. 24.)

도가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린이는 ‘잘 자랄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너무 일찍 조기 과잉교육 상황에 노출되는 현실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최근 연구(이기숙 등, 2001)에서는 86%의 어린이들이 조기교육을 받고 있으며²³⁾ 부모들의 93% 이상이 3세 이전에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황혜신, 2002).²⁴⁾ 조기교육의 한 영역인 학습지 시장은 2001년도 4조원으로 추정되며, 지난 몇 년간 평균 15-30%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이영환, 2003).²⁵⁾

이러한 조기교육 상황은 어린이들이 살 만한 세상이 못 된다. 어린이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는 소위 ‘유아 다람쥐족’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맞벌이부가 급증하면서 각종 유아학원을 자녀들의 보호소 겸 조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원인이 상당부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이기숙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만 3~5세 유아 2,35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들의 일상생활 조사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 10명 가운데 2명 이상(22%)이 유아교육기관의 수업이 끝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다른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²⁶⁾

케이블 TV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15세 이하 전국 어린이 1만9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1-2개의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3개학원은 9%, 4개 이상은 6%였다. 하루 중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1-2시간이라는 대답이 32%, 2-3시간(21%), 3-4시간 (15%), 4시간 이상이 14%순이었다.²⁷⁾

유아대상의 조기(인지)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아동의 동기와 무관하게 가해지는 것’으로 정의(신의진, 2003)²⁸⁾되는데 대부분의 조기교육이 아동 개개인의 잠재능력이나 관심과는 관계없이 성인사회에서 중시하고 있는 일부 분야의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권리와는 거리가 멀

22)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고, 부모 또는 양육 책임자는 능력에 따라 적절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23)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24)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인식. [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31-148.

25) 아동의 발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영유아보육·교육과 아도의 권리]. 2003추계학술대회. 한국아동권리학회. pp45-66.

26) 경향신문, 2003. 10. 3.

27) 문화일보. 2003. 8. 21.

28) 아이보다 더 아픈 엄마들을 위하여. 서남재단 국제유아교육심포지엄자료집. pp74-85.

다고 할 수 있다.

(2) 조기영어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를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 3학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2001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서도 전국 1,116개 사립 유치원 가운데 64.3%가 영어를 특기활동으로 가르칠 정도로 조기 영어교육 열기는 높다.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는 되도록 일찍 배워야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혀가 한국식 발음에 맞춰 굳어지기 전에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며 우리말도 배우지 못한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영어 교육시장의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영어 학원과 영어교재, 해외 연수비용 등을 합치면 한해 4조~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돈을 쓰는 사람도 매년 1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전국의 영어 학원 수는 3000여개. 그러나 실제로는 1만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영어학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일부 학원가에는 어린이 영어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²⁹⁾

영어는 과연 일찍 배울수록 좋은 것인가? 동덕여대 우남희(2003)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영유아 대상의 영어 교육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³⁰⁾

우 교수팀이 원어민 강사 63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모국어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어인 영어를 가르치는데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유아 영어 학원 27곳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 조사한 결과 만 5~12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 79명 중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했다. 전체 강사의 69.8%는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서울대 의대 서유현 교수는 “만 3~6세는 종합적 사고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

29) 연합뉴스, 2003. 9. 5.

30) 연합뉴스, 2003. 7. 29. 대만정부는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발표를 하였다.

기이므로 다양한 경험과 예절, 도덕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만 6~12세에 발달하는 측두엽의 기능인 언어 즉,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시키면 미쳐 성숙하지 못한 언어중추를 지치게 해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³¹⁾에는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존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언어(모국어)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발달적으로도 모국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국어 습득을 위한 무리한 학습은 아이들에게 장애를 가져다 줄 위험이 있다고 발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열풍 역시 학부모의 과잉교육열과 사교육시장의 구매 창출이 맞물린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어린이의 아동권리협약 제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교육의 목표인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과는 거리가 먼 우리 사회 특유의 교육적 환경이다.

(3)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초등학교 이상의 사교육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유아교육은 학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특별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유치원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는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점에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전국 1700개 사립유치원 원장,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2003)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치원의 90%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³²⁾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미술, 체육, 음악 순으로 특별활동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 유치원에서 평균 3가지 이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활동이 거의 방과후가 아닌 정규일과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유치원이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영재, 천재교육기관, 재능교육기관 등 학원화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별활동의 문제점은 특별활동이 유치원의 정규일과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활동이 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못하

31)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아동교육의 목표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존중;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32)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pp85-118.

는 점이다. 셋째, 유치원교육과정과 별개의 교과학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치원의 통합교육과정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넷째, 특별활동은 외래강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을 조기교육의 한 형태로 보며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필요성 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와 사립 유치원의 원아모집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1;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 2003). 어린이집(보육시설)의 특별교육 상황도 유치원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를 위한 공교육 또는 공보육이 교육내용 면에서 사교육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³³⁾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려되고 이는 곧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 저해요인이기도 하다.

(4) 놀 권리

어린이들은 누구보다도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놀이가 아동 고유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권리협약 제31조)

유엔의 <아동권리선언>에서도 어린이의 놀이권은 교육받을 권리만큼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보장하고 있다.³⁴⁾

지나친 교육열과 놀 권리에 대한 교육정책의 부재 및 사회적 인식의 부재는 아동의 놀 시간과 환경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잠재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문환, 1997).³⁵⁾

3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 운영자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게 한 38조는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는 조항이다.

34)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의 <아동권리선언>(1959)에서 놀이권·레크레이션권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기초가 된 이 선언 제7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놀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한 국제협회>(IPA:International Playground Association)이 1981년부터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ild's Right to play로 개칭됨)가 결성되어 있거니와 이는 1979년의 <세계 어린이의 해>에 앞서 1977년 11월에 알타회의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 선언>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도록 촉구한 바 있다.

채 건기도 전에 학습을 강요받기 시작한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 ‘강제학습노동’ 스트레스로 인해 ‘과잉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³⁵⁾과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보장되어 있는 놀 권리에 준해서 보더라도 반 인권적이다. 이에 유엔은 2003년도에 우리나라 조기과잉학습상황을 우려하고 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회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2004년 교육예산이 26조 3904억 원으로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편성됐음에도 어린이 관련 교육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교육계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처음으로 유치원 831곳의 종일반 운영비를 요구했으나 모두 깎였다. 저소득층 3~4살 자녀 11만5천 여 명의 유치원비 632억 원도 2만2천여 명분인 77억 원만 반영됐다. 교육부는 또 만5살 교육비는 농촌은 모두, 도시는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1150억 원을 요구했으나 20%인 242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보육 사업비도 전액 삭감되었다.³⁷⁾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만 3~4세 유아들이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일반 유치원에선 지원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만 3~4세 유아 24만6000여 명 중 5% 정도인 저소득층 자녀 1만2000여 명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유아교육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회장 한경자)는 저소득층 유아들도 일반 유아들처럼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불평등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35)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아동권리연구. vol.1, no.2.

36) 아동놀이와 권리라는 연결문제에서 헌법학자는 놀이와 관련된 아동의 생존·성장·발달을 한국헌법상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려고도 하였다(황성기, 1993.; 하승민, 아동의 놀이와 권리-조화와 방향에 대한 탐색. 아동권리연구. vol.5, no.1, 2001. 재인용)

37) 연합뉴스, 2003. 9. 27.

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³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까지 377억 원을 들여 대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난곡 지구 등 6곳과 부산시 해운대구 반성 등 8곳을 교육복지투자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시범 지역의 관련당사자 참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교육장과 구청장, 교원, 유치원, 보육시설 관계자, 시의원, 교육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 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³⁹⁾

한편, 교육복지 투자 교육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풍부한 문화적 체험이 제공되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프로그램 실행자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점도 돋보인다. 또 학교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서 학교가 운영할 프로그램을 지역 내 협력기관과 적절한 지원인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교육적 효과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 없이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⁰⁾

38) 문화일보, 2003. 11. 7.

39) 연합뉴스, 2003. 3. 9.

40) 연합뉴스, 2003. 9. 8.

미로 같은 아이들의 세계, 어떻게 이해하나요

1. 발달의 개념

1) 발달의 정의

발달(development)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추어 나가려는 적응(adaptation)의 연속이며, 단순한 세포의 증가 혹은 어떤 기관의 크기 혹은 중추신경계의 성숙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날 때부터 주어진 신체적·생물학적 요소와 그 개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경험, 이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얻어지는 심리상·행동상의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은 논할 때 항상 생물학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그 원인을 밝힐 때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함을 인정하고 두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은 그 진단과 치료에 필수조건이다. 생물학적 요소란 유전, 신체적 장애, 기본적 기질(temperament), 중추신경계의 발달 등의 개인요소를 말하며 경험적 요소란 육아경험,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수, 그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학교경험 등 환경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2) 발달단계(development stage)와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

아동의 발달은 일련성의 성장(linear growth)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최근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다. 인간의 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되는데 그것이 일련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아동이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이해함은 어떤 개인이 어느 발달단계에 도달하였고 다음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 단계의 발달과제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한 단계의 발달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의 발달과제의 완성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발달심리학적

인 입장으로 아동의 발달장애란 아동이 어떤 특정한 발달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특정한 단계의 발달과제의 성취에 곤란을 일으켜 발달과제의 성취가 늦어지거나 혹은 그로부터 더 퇴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발달이 고정화되거나 왜곡되었거나 혹은 퇴행함으로써 인지적으로나 정서적 혹은 행동적으로 문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장애와 정상적인 발달 간에는 연속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신질환은 정상적 행동 및 정서와 질적으로 틀린다고보다는 양적으로 과잉 내지 과소라고 할 수 있다.

3) 발달상의 개인 간 차이

(1) 성차

우선 남녀 간에는 신체적 성장의 발달속도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빨리 성장한다. 여아는 발달상 남자마자 한 주가 빠르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정도면 1년, 그리고 사춘기에 다다랐을 때는 거의 2년이 신체적 성장에 있어서 앞선다.

분만 당시에 얻어지는 합병증만 보더라도 여아보다 남아가 훨씬 많으며 아동기에 전염병으로 죽는 비율도 남아가 많고 방사선이나 기타 독물에 의한 성장의 저해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평균수명도 남자가 짧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핏 보아 남아가 행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남자들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 이전에 이미 생리적·신체적인 면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약하다. 합목적적으로 보면 애기를 수태할 당시에 남녀의 비는 125:100인데 분만 당시의 남녀의 비는 102:100, 그리고 일반인에 있어서 남녀의 비율이 거의 100:100이거나 혹은 남자가 적은 경우를 보더라도 남자가 실제로 태중이나 분만 당시 혹은 아동기에 많이 도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면 여자보다 남아가 훨씬 문제를 많이 가지며 남녀의 비율은 전 세계를 통하여 거의 2:1에 가깝다.

정확히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첫째, 남아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도 취약성이 높다는 설이 있고,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와의 결별에 의해 받는 상처가 더 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둘째로는, 남아가 기질(temperament)이 여아와 달라서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가정이 있다. 셋째, 환경적·사회적 요소를 생각하여야 되겠는데 대개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마련이다. 특히 어머니는 여아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고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반면 그것이 남아에 대한 큰 기대와 엮갈려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2) 기질(temperament) 차이

성차 외에도 아동들은 낳 때부터 기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리적 현상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 행동적인 면으로서는 최근 20여 년간 토마스(Thomas)와 체스(Chess)에 의한 뉴욕의 장기 연구결과로 밝혀진 바로서 유아들은 낳 때부터 그들의 기질이 차이를 알 수 있고 이런 기질은 9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⁴¹⁾

이런 기질의 차이점은 이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적당하고 원만한 모자관계가 수립되는가 아니면 힘들고 만족스럽지 못한 모자관계가 성립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실제적으로 토마스와 체스의 장기 추적조사에 의하면 나서부터 기질이 힘들어서 활동수준이 높고 주기성이 결여되고 적응능력이 없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 심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동들은 양육하기가 힘들고 다루기 힘든데 이들이 커서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만성 신체 질병

개인차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그 아동이 만성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만성적·신체적인 문제성(예를 들어서 기관지 천식이나 당뇨병, 선천성 심장질환, 선천성 신체결함)을 가진 아이들은 정상 아이들보다 좀 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학습에도 지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이러한 결함이 직접적으로 행동의 문제를 초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신

41) 생물학적으로 규칙성을 나타내는가? (규칙성), 활동수준이 높은가? (활동성), 새로운 자극에 민감한가? (접근-회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가? (적응성), 잘 웃는가? (기분), 어느 정도의 자극에 반응하는가? (반응 역치), 기분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가? (반응의 강도), 산만한가? (주의 산만성), 한 가지 일을 어느 정도 지속하는가? (지속성) 등의 9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기질을 구분하였다. 토마스와 체스는 이런 요인들에 따라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체적인 질병과 결함이 중요한 경험을 못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아동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의 신체나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인하여 자신은 남보다 더 못하고 다르다는 태도 때문에 더욱 더 위축되는 일이 많다.

또한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태도는 부모가 그들의 핸디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서로 상호관계를 이룬다. 뇌손상을 가진 아이들은 더욱이 정서적·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더 불리한 입장에 있어 행동적인 문제도 더 많을 수가 있다. 뇌손상아가 가지는 문제성은 뇌손상 자체로부터 오는 제약성도 있지만 뇌손상의 정도, 그리고 간질기가 있느냐 없느냐, 뇌손상 부위·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만성적 신체질병이나 결함을 가진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2배의 정신과적 문제(12%)를, 뇌손상아들은 3배 이상의 정신과적 문제(20%)를 갖는다는 보고가 있다.

(4) 유전

유전적인 영향은 어떤 문제성을 직접적으로 유전시킨다기보다는 개인차와 지능, 행동적 양상 그리고 성격적 요인들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적인 문제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걸음마기 유아의 발달(1~3세)

1) 발달특성

걸음마기에 들어선 유아는 걷기 시작하고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보아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이며 아동의 입장으로 보면, 영아기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기어 다니는 것으로써 세상을 경험했던 것이 설 수 있게 되고 손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시야가 크게 넓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

따라서 유아는 자기의 새로운 기능 즉 걷는 것, 달리는 것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던지고, 부수는 등의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능력으로 눈앞에 전개되는 세계를 즐기게 된다. 또 유아는 이 시기에 말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한 단어로써 나중에는 몇 가지의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기 의사를 언어로써 표현하기 시작한다.

2) 대소변 훈련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아는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한다. 대소변 가리기를 훈련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까지 영아기, 1살까지는 대소변을 마음대로 눕고 싶을 때 눕고, 싸고 싶을 때 싸는 형태에서 이제는 시간에 맞추어 적절한 장소에 대소변을 보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아 자신은 실은 이러한 것이 귀찮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나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과 벌로써 가능하면 편리한 시간에 변기나 기타 특별한 장소에 대소변을 보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대소변 가리기는 어머니의 능력과 그 다루는 방법에 따라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칭찬과 말로써 유도하고 대소변 가리기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의 성격을 띤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고 주로 벌을 주는 방법으로 훈련하면 대소변 가리기가 공포와 연결이 되고 불안이 생기게 마련이다.

대소변을 가린다는 것은 유아로 하여금 대소변을 참았다가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곳에 배설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신체적 성장과 신경계의 성장이 충분하여야 하며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한 살로서 그 이전에 무리하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3) 행동적 특성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적인 특징은 고집이 세고 부정적이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것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울고불고 야단을 치는 분노발작(temper tantrum)을 보이는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충동이 왕성한데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과 자기주장을 부모가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안 들어 줌으로써 걸음마기의 유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걸음마기의 유아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하므로 그때 부모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자기 행동의 어떤 행동은 어머니나 그 주위로부터 용납이 되고 어떤 행동은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통하여 어떤 행동은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자기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어떻게 통제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걸음마기의 유아를 말로써만 설득시키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고 다분히 신체적인 물리적 방법, 즉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둔부를 가볍게 때린다든가 손바닥을 때린다든가 등의 가벼운 신체적인 행동과 유아의 부적합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표정 또는 화난 음성으로 어머니가 허락하는 행동이 아님을 충분히 전할 수 있고 또 유아는 몸이 작은 만큼 신체적으로 압도당할 수 있다.

또 필요한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걸음마기의 유아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고 주위로부터의 분위기를 살핌으로써 부모가 칭찬해 주고 장려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인 칭찬과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방법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강화해 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데 일관성이라 함은 어떤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은 받아주지 않고, 어떤 행동은 받아들이고 장려하고 좋은 행동임을 격려해 주는 것이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런 일관성 있는 행동의 통제와 감독을 통해서 걸음마기의 아동에게는 그의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동시에 자기주장과 의견을 성취하는 능력이 생긴다.

4) 발달과제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자율성(autonomy)과 독립성(independence) 수립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충동의 억제 및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수립이다. 또한 자기 충동이나 원하는 것을 즉시 만족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delayed gratification)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이 시기에 유아는 이제까지 공생적으로 의존관계를 가져왔던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개별화(individuation)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즉 이제까지 완전히 의존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어머니가 실제로 자기 옆에 없어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내재화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혼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대상 영속성(object constancy)이 형성된다.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seperation-individuation)는 유아기말 즉 3세말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인 자아의 탄생(psychological birth)은 이때라고 말러(Mahler)는 주장한다. 이런 개별화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율성을 갖춘 개체로서의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5) 필요한 환경적 요소

이 시기의 부모들은 일관성 있는 행동의 통제와 감독을 통해 유아의 공격적인 감정을 조절해주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적당히 들어주거나 막아줌으로써 유아의 행동의 한계(behavioral boundary)를 배우도록 도와준다. 또 충동의 억제를 가르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대소변의 훈련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자간의 싸움과 연극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대소변의 훈련을 통해 그리고 공격적 충동의 조절을 통해 유아는 옳고 그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할 일과 아니할 일, 독립과 의존 등의 균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부모의 통제가 너무 많아도(overcontrolling) 안 되며 너무 적어도(overprotected) 안 된다는 것이다.

3.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4-6세)

1) 발달특성

아동이 세 살이 되면 유아기의 발달과제를 완성함으로써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율성, 자기 통제의 능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격형성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 학령전기, 4살 이상이 되면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 내에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특히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가정에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타나며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가깝고 특별한 관계임을 알게 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점, 즉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 있고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 아동은 부모의 부부관계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부모와 일종의 삼각관계를 가지게 되며, 소위 에디푸스 복합체(Oedipus Complex)라 하고 이르는 개념이 구성된다. 말하자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하여 아버지와 경

쟁적 관계를 갖게 되며 이 경쟁적 관계 속에서 남아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아버지같이 행동하고 아버지같이 남성다움을 흉내내고 배우게 되며, 여아는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와 경쟁적 관계를 갖게 되고 어머니와 동일시함으로써 여성다움을 배우게 된다.

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부모나 주위에서는 남아의 경우 남성다운 행동을 장려시키며 여자다운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야단을 침으로써 남성다운 행동을 배우게 하고, 여자의 경우 여성답고 섬세하고 귀여운 행동하게 함으로써 여성다움을 길러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모와의 삼각관계, 즉 에디프스 콤플렉스는 5~6세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그 해소 과정은 부모의 부부관계는 특별한 것이며 부모의 어느 누구도 자기와 남녀 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느끼고 그 경쟁적인 관계를 포기하게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받아들이되 다만 부모와의 삼각관계를 통하여 반대성의 사람에 대한 동경과 욕망은 그대로 남게 되어 이것이 나중에 커서 부모와 비슷한 혹은 부모와 같은 반대성의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심리적 구조로서 남게 되었다.

2) 에디프스 복합체(Oedipus complex)

에디프스 복합체는 학령전기 아동이 반대성의 부모를 혼자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짐으로써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성의 부모에게는 경쟁의식과 질투의식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욕망은 두 가지 결과를 내는데 하나는 자기가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 그러니까 같은 성의 부모와 같아지려는 노력, 즉, 동일시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남자는 남성다워지고 여자는 여성다워지며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배우게 되는 효과와, 또한 궁극적으로 같은 성의 부모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옮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가족 이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나중에 찾게 되는 심리적 구조로서 남게 된다.

한편 이러한 비밀스러운 소원과 느낌은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죄악감과 공포증을 느끼게 한다. 즉 이런 비밀스러운 부모와의 사랑이 발각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발각되면 벌을 받지 않을까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에디프스적 관계는 두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가 사는 핵가족에서 더 심각해지고 강렬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좀 더 성과 관련된 문제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

에디프스기에 부모와의 ‘사랑’ 관계를 아동들이 포기해야 되고 그대로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근친상간의 금기 현상을 관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근친상간의 금기는 형제자매간이나 혹은 자식과 부모 간에 성적인 관계를 금기하는 태고로부터의 법칙이고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근친상간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친상간은 가족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시기와 질투, 이로 인한 가정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고 가정 내의 질서유지와 감각적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넓게는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 된다. 또 가정 내의 구성원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가족이나 혹은 그가 속한 지역사회 이외의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는 방편이기도 하다.

둘째, 근친상간 금기는 이런 사회적인 기능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중요한 기능도 있다. 동물이나 식물에서 지속적인 같은 친족 간의 생식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새끼를 낳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근친상간 금기는 이러한 생물학적 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생물학적으로 좀 더 강한 종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즉 유전적인 결합은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과 결혼하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불리한 생물학적인 문제를 많이 갖는 종족이 되기 때문이다.

4) 성교육의 중요성

이 시기에 대부분의 어린이는 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를 당황하게 만든다. 또 구체적으로 아들은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고, 딸도 가끔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귀엽게 굴고 애교를 부리는 수가 많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행동은 금기함으로써 성에 대한 행동과 호기심을 조절해 주고, 성에 대한 관심이 죄악감이나 큰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기만 하면 자연히 그 자녀들은 부모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성 역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반대성이 부모와 성의 상대로서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편모라든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엄마는 아들을, 아버지는 딸을 편애하는 경우에는 에디프스 복합체의 해소가 자연히 늦어지거나 어려워지며 나중에 커서 남녀관계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말하자면 해소되지 않은 에디프스 갈등은 그 아동이 성인이 되어 남녀관계를 가질 때 방해요소가 되며 정서적 문제, 특히 히스테리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5) 언어발달

학령전기는 또한 언어발달에 힘입어 아동에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즉 아동은 언어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하여 주위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지능이 발달하며 또한 끝없는 가능성과 환상, 꿈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생각 그 자체가 놀이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기의 상상력과 환상을 사용하여 단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극이 나오고 또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모르게 가지는 생각, 감정 등에 대하여 죄악감이나 공포, 불안감 등이 생길 수 있다.

실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상상력 때문에 암흑에 대해서 공포가 생기고 귀신이 나 도깨비 등 자기가 모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데, 이것은 다분히 자기의 내적인 상상과 비밀, 갈등 등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 놀이의 기능

이 시기의 아동은 놀이와 상상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고 이 놀이와 상상은 중요한 배움의 도구가 되고 발달상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이는 우선 재미있고 아동들이 항상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낭비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아동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반복하여 이들을 흉내 내고 배우는 기능이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수동적으로 경험한 바를 능동적인 방법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그 경험의 의미와 이에 따르는 감정적인 경험, 즉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하려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가서 주사를 맞고 온 아동이 의사놀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의사에게 가서 주사를 맞을 때 경험한 여러 가지 공포와 호기심을 의사놀이를 통하여, 수동적으로 당한 것을 능동적인 놀이를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재현하고 적당히 되풀이하여 이를 해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되풀이 될 이 경험에 대하여 준비하는 기능이 있다.

또 이 시기에 학령전기 아동은 극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찰한 엄마 아빠의 관계라든가 소꿉놀이 등은 극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 할 수 있고 이런 극적인 놀이를 통하여 사회적인 역할이나 어머니 아버지 역할, 자기가 관찰한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되풀이함으로써 앞으로 자기가 성인이 되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미리 흉내 내고 준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편 놀이는 자기가 경험하는 불안이나 문제성을 극복하려는 숙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남자아이가 차에 치일까봐 무서워하고 길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 그의 놀이 속에 조그만 장난감차가 자꾸만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을 되풀이할 수가 있다. 이러한 되풀이된 차 사고를 통하여 그는 점점 차와 차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이겨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장난감 차를 보면서 실제적인 차에 대한 무서움을 놀이를 통하여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또 흔히 인형놀이를 통하여 자기와 자기 형제간 혹은 부모와 자기 가족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와 이에 따르는 감정을 처리하고, 사나운 동물들의 놀이를 통하여 자기의 공격성과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토끼나 강아지와 놀이를 통하여 자기에게 잠재하고 있는 의존욕구와 사랑 받고 싶은 욕망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동은 또한 가족인형들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역할, 자식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해나갈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역할을 해냄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하고 이해하게 된다. 놀이는 또한 그 자체가 물건을 만지며 그 물건의 속성을 배우는 학습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시기의 놀이형태는 이전까지의 단순한 운동의 방법이나 손놀이 등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집안에서의 사건이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일들을 재현하는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그리고 다양한 극적인 놀이와 소꿉놀이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제까지의 단독적인 놀이형태로부터 협조적인 놀이로 바뀌게 된다. 놀이와 같이, 아동들의 꿈이나 공상도 실은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안, 분노 등 감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며, 그가 처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아동기에 놀이와 공상, 꿈 등은 그가 어른이 되어 살아나가는데 대한 준비이자 하나의 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꿈과 놀이, 공상은 아동들이 얘기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 무의식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들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잘 소화시키는 적극적인 숙달의 방법이며 그가 경험하는 패배와 실패, 승리, 불안, 공포, 기쁨 등을 소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7) 또래와의 관계(peer relationship)

학령전기의 아동은 부모나 가족구성원과의 접촉뿐 아니라 또래들과도 접촉을 하게 되고 또래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같이 협조적인 놀이를 함으로써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성이 형성된다.

8) 사회화

이들은 또한 가정 내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점점 더 그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회문화적인 활동에 접촉하게 되고 참여하는데, 그가 속한 문화의 특유한 전통과 관습을 익히고 부모로부터 행동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며 여러 가지 생활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사회적인 역할과 장차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모방하고 동일시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된다.

9) 발달과제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제는 부모의 원만한 결혼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남녀관계의 좋은 점과 성역할(sex role), 그리고 가치관을 배우며 그 문화 특유의 관습과 법칙, 전통 생활경험을 풍부히 쌓음으로써 시야가 넓어지고 사회적인 역할(social role)을 배우는 것이다.

10) 필요한 환경적 요소

필요한 환경적 요소로서는 원만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의 심리적 관심, 즉 남녀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부모와의 삼각관계 등 그 심리를 잘 이해하고 도와줌으로써 성역할을 배우게 하고 풍부한 일상생활 경험을 통하여 지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생에 대한 목적의식과 주도권 및 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말로 부모가 해주어야 될 것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놀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1) 발달상의 위험성

따라서 이 시기의 위험성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또는 편모슬하라든가 결손 가정의 경우 아동들이 남녀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념을 갖거나 또는 정상적 에디프스 콤플렉스가 잘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안이 이루어지고 성장 후에 남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 이 시기에 중요한 생활경험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기른다는 지 또래친구와 접촉이 없다는 한정된 경험만을 쌓음으로써 심리 사회적인 결핍증, 문화실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잉보호와 과잉통제의 형태로서 아동들을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또래 친구와의 접촉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겠고, 이것은 또한 자녀의 수가 적은 핵가족에서 극히 위험한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이 생기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기능도 자녀의 수가 적어짐으로써 형제자매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또래집단과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른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문화실조는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지능이 낮고 문제성이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사회적 생활경험과 부모로부터의 자극,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학령기 아동의 발달(7-12세)

1) 정상발달의 내용과 발달과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동안 성격의 기초를 닦아온 가정이라는 보호적 환경 속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단체에 적응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한다. 우선 학교를 간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뜻하고, 선생님을 부모 이외의 권위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라는 규칙적이고 규격에 짜인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큰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가정 내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이제는 친구, 급우들과 사귀고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부모들로부터의 독립을 연습하고 친구들과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집단의식(group identity)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장차 성인으로서, 직업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발달과제는 지식과 기술의 연마인데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자신감, 효능감(sense of competence)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얻어진 자신감과 만족감이 앞으로 일생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발달과제는 친구와의 사귀를 통해 사회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단체의식을 기르고 규율과 법(rules and regulation)을 준수함으로써 장차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아동들의 사고능력이 아직도 구체적인 사고에 그치므로 구체적으로 사물의 속성, 사물의 인과관계 등 직접적으로 관찰 될 수 있는 현상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영구성을 배우게 되는 시기로서 일시적으로 공포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남녀 성의 구별이 좀 더 진전됨으로써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다른 종류의 놀이와 게임을 하게 되며 남녀의 특성은 좀 더 구체화되고 단체화 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들은 서로 부끄러워하고 사람 앞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신경을 쓰게 된다.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연마 그리고 자신감과 만족감의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제이므로 이 시기에 공부를 못한다든지 또는 친구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친구 수가 적다든지, 자기의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아동들은 열등감(inferiority feeling)을 갖게 될 것이다.

아이와 어떻게 해야 친해지나요

최 윤 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참빛아동지원센터장

1. 상호작용의 중요성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시작은 부모-자녀 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또래 관계, 사회적 관계로 확대됩니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 및 긍정적 대인 관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들은 매일 접하는 환경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아초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 전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Hart & Risley, 1995). 최근에는 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감하고 수용적인 성인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부모(또는 주 양육자)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맺고 풀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란 일방적이지 않고 동등하게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자녀의 관심과 참여를 도와주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교사처럼 하는 것(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우도록 촉구하는)도 아니며, 훈련자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촉진하는)도 아니며, 감독자처럼 행동하는 것(아동에게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는)도 아닌 양육자(부모)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은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나 의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조절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또 서로의 생각이 일치되고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서로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질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려면 자녀의 말과 행동 모두를 의사표현이라 생각하고 마치 대화를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서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동들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동의 성취동기를 강화시키고, 자아감, 자존감(유능감)을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성취동기와 자존감, 자아감은 인간의 발달적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성인의 반응성은 아동의 학습과 인지발달에 영향을 끼칩니다. 학습과 인지발달은 매일의 일상 안에서 지각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여 표현하며, 경험하지 못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과 인지발달은 사물, 환경,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탐색하고, 조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자신의 행동으로 숙달되게 됩니다. 셋째, 성인의 반응성은 아동의 의사소통과 언어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언어는 부모, 또래,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하는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말과 행동을 사용하면서 점차 어휘와 문법까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작용,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의 근간이 됩니다.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은 시간이 흐르고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 점차 변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화롭고 질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안

정되게 하므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나 이후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동은 이후 다양한 환경에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므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3. 상호작용의 A. B. C...

(1) 상호작용이란?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시작행동과 이에 따르는 상대방의 반응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아와 성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인은 유아의 행동에 민감해야 한다(박숙영·최민숙, 2002; Lohaus, et al., 2004). 둘째, 성인은 유아의 행동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김민화·곽금주, 2004; 이기숙·김희진·박은혜, 2004; Girolametto & Weitzman, 2002; Yoder, Warren, & Steven, 2002). 셋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상호성(reciprocity)을 발전시켜야 한다(박은정·김희진, 2002; Gallucci & Perugini, 2003).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민감성과 반응성, 상호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2) 의사소통의 중요성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시작행동에 반응하고 상대방의 반응행동에 적절하게 다시 반응함으로써 행동이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작행동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현하는 언어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까지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김정연, 2003; 최윤희, 2006).

즉 상호작용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많은 행동을 수 없이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이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도 맥락과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작용이 상대방과의 의사소

통에 따라 서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상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캐서린 한 역, 2005; Barwick, et al., 2004), 유아의 경우 말과 같은 언어적 행동만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한 의사소통 행동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연습문제 1 >

*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세요.

1. 우리 ○○는 의사표현을 할 때 주로 (말로/행동으로) 합니다.
2. 나는 ○○와 상호작용할 때 아동 가까이 마주 앉습니다(예/아니오)
3. 나는 ○○와 상호작용할 때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행동합니다(예/아니오).
4. 나는 ○○의 눈을 자주 쳐다봅니다. 그래서 ○○와 눈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예/아니오).
5. 나는 ○○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아이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예/아니오).
6. 나는 ○○가 좋아하거나 흥미로워 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기울입니다(예/아니오).
7. 나는 ○○에게 질문하거나 요구하면 아이의 대답이나 반응을 기다립니다(예/아니오).
8. 나는 ○○의 작은 행동에도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예/아니오).
9. 나는 ○○에게 애정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예/아니오).
10. 놀이를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나보다 우리 ○○가 더 주도적입니다(예/아니오)
11. 나는 ○○가 하는 행동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 행동에 관심을 기울입니다(예/아니오)
12. 나는 ○○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예/아니오).
13. 나는 ○○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거나 잘 알려주기 위해 설명을 많이합니다(예/아니오).
18. 나는 ○○의 생각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예/아니오).
19. 우리 ○○는 집에서 주로 혼자서(형제들과) 놀입니다(예/아니오).
20. 내 이야기를 ○○는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예/아니오).
21. 나는 ○○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예/아니오).
22. 우리 ○○는 나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예/아니오).

< 연습문제 2 >

* 다음 질문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1. 우리 ○○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행동(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 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은
2. 우리 ○○가 좋아하는 놀이(또는 놀이방법)는 ...
3. ○○가 평상시에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있다면 그 예를 들어 보세요.
4. 나는 우리 ○○의 의사표현 중 ()% 정도 이해합니다. 우리 ○○의 의사표현 방법 중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반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반응적으로 의사소통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절을 통해 서로 협상하여 결국에는 서로가 의도한 바를 성취하게 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는 부모가 유아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민감하게 인식하여 의사소통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이며 구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유아가 대화적으로 상호작용하는(conversational interaction)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부모와 유아 모두 서로의 의도 뒤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여 상호적으로 소통(疏通)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도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최윤희, 1996; Reinbartsen,

2000). 또한 사회성 발달이 떨어지는 유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시작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신호를 식별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정은영, 2004; Whalen & Schreibman, 2003). 이와 같이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나타내는 사회적 신호를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상호작용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일관성 없는 반응이나 변덕스럽거나 특이한 방식의 감정 표현 등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김은경, 2001; 김시애, 2000; 이소현, 2002; Barnard & Kelly, 1990; Whalen & Schreibman, 2003). 따라서 이러한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유아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과 행동 특성을 이해합니다.

모든 아동은 능력도 다르고 발달 속도와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개인의 차이는 각 아동의 독특한 행동 양식으로 표현되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아동의 개별적 요구와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 자녀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미세하고 미묘한 행동 신호를 인식하려면 아동의 기질과 성격을 포함하여 아동의 관심과 요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민감하게 파악합니다.

부모와 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는 특히 유아의 시작행동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여 소통하는 부모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아동은 환경 자극이나 일상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며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감정 표현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유아를 잘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이 관심을 보이는 것, 상황, 장소를 다 알아채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아동들은 놀라기도 하고, 함께 같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세요!

1. 아동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아동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표정과 몸짓을 주시하세요. 아동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소리와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동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아동의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 연습문제 3 >

** 자녀가 지금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 아동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서 흥분하여 낄낄대고 있다.
2. 아동이 밖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다.
3. 아동이 동생과 함께 놀다가 동생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4. 아동이 무엇을 쳐다보면서 몰두하고 있다.
5. 마트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른다.

아동의 행동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아동의 행동을 민감하게 인식하여도 아동의 관심이나 요구, 아동이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이나 놀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동은 곧 흥미를 잃고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얼굴 표정, 말, 몸짓으로 자녀의 행동에 반응해야 합니다.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는 아동을 중심으로 상호작용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여 아동 주도의 놀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하면서 특정 기술을 가르치려고 애 쓰기보다는 아동이 주도하는 것에 반응하면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동의 행동에 맞춰 반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세요!

5. 아동이 주도하는 데로 따라가 보세요.
6. 아동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함께 집중하세요.
7. 아동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 연습문제 4 >

* 아동과 성인의 다음 행동 중에서 적절한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표, 잘못된 모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를 표시하시오.

1. 아동이 지금 기차길에서 기차를 굴리다가 멈추었다. 성인은 아동이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기차를 계속 굴렸다.
2. 아동이 블록 하나를 올려놓았다. 성인은 블록 하나를 다시 올려놓았다.
3. 아동이 인형에게 컵으로 물을 먹이고 있다. 어른도 인형에게 물을 먹인다.
4. 아동이 말 인형을 침대에 눕히고 두드리고 있다. 성인은 차안에 말을 넣었다.
5. 아동이 공을 밀가루 반죽으로 감아버렸다. 어른은 공에 묻은 밀가루 반죽을 뜯어내었다.
6. 아동이 컵으로 마시는 홍차를 내고 있다. 어른이 인형의 컵을 들고 마시는 홍차를 내고 있다.
7. 아동이 공을 굴리고 있다. 성인은 아동이 공굴리기를 멈춘 후에 공을 굴리기 시작하였다.
8. 아동은 종이에 색칠을 하고 있다. 성인은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같은 종이에 색칠한다.

아동과 상호적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아동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절해가면서 의사소통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은 부모가 상황마다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아이들 간에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때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동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하고(예, “네 트럭을 뺏어 가면 네 기분이 어떤지 철수에게 이야기해 줘.”)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자녀의 행동과 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단, 아동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시하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지만 그런 행동은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가족들과도 동일하

게 반응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되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과장되었다 싶을 만큼 칭찬해주고 자녀와 긍정적 감정을 교류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부모의 지시와 요구, 쓸 데 없는 질문은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쉽습니다. 아동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표현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듯이 의사소통합니다. 아동과 서로 대화하듯이 의사소통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세요!!

8. 아동에게 하는 지시와 질문을 줄이시고 꼭 필요한 것만 지시(질문)합니다.

나는 ○○에게 하루에 약 ()번 정도 지시합니다.

9. 아동과 의사소통 할 때는 마치 대화하듯이 말과 행동을 주고받습니다.

10. 아동의 말이나 행동을 칭찬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애정을 표현하세요.

< 연습문제 5 >

* 다음 중 정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세요.

1. 너 자동차 좋아하니?
2. 뭐 하고 놀까?
3. 이 색이 무슨 색이니?
4. 색칠하고 싶니, 찰흙놀이 하고 싶니?
5. 이건 강아지니?
6. 이 인형을 어디에다 놓을까?
7. 아가에게 무엇을 먹일까?
8. 아가에게 물을 주고 싶구나?
9. 이 차를 어디에 놓고 싶니?

4. 상호이해와 존중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 양육이라고 불리는 행동인데 자녀와의 다양한 일상 장면에서 발생하는 행동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문제 해결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행동입니다. 부모는 아동을 나무라거나 평가하고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나무라거나 벌을 주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이며 아동의 행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일으키기 쉽고 우리가 바라는 행동에 대한 거부감만을 키우기 쉽습니다. 반면에 아동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므로 자녀의 긍정적 행동을 형성해 가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 양육 시 부모는 아동의 발달 속도, 행동 특성, 반응 정도에 맞춰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적절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자녀를 너무 앞질러 가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어 지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요구와 발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고 항상 아동을 주시하고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한발 앞서서, 어떤 상황에서는 한발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사람, 사물, 활동과 장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한다면 아동은 다양한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몰두하여 자녀와 놀아 보세요. 자녀와 놀 때 장난감을 제시하고 놀이방법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여 아동이 부모의 지시에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아동의 자발적인 시도와 표현을 증가시키도록 격려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수용하거나 이해하며 감사와 존중을 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성과 상호의존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자녀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나요?

부모가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느낌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 놓고 가르치거나 설교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와 수없이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실제 행동을 보면서 추측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세요. 자녀를 내 의도대로 이끌려고 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동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아동의 기대하지 않은 완성에 놀라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우리가 아동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정연 (2003). 중도 뇌성마비아동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을 위한 AAC 대화상대자 훈련. 특수교육, 2(1), 37-58.

김민화, 광금주 (2004). 장난감 중심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어머니의 주도성과 반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9-35.

김시에 (2000). 자폐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특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2001). 자폐성 장애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유아특수교육연구, 1(2), 79-104.

박숙영, 최민숙 (2002). 장애유아놀이에서 성인개입의 의미와 방법. 놀이치료연구, 6(1), 15-27.

박은정, 김희진 (2002). 성인-유아 상호작용시 나타난 교수전략과 유아의 혼잣말. 유아교육연구, 22(1), 27-47.

이기숙, 김희진, 박은혜 (2004). 상호작용맥락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전략: 자유놀이와 과제해결 맥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4), 33-48.

이소현 (2002). 장애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서의 적용을 위한 이론과 실제. 제7회 이화특수교육 학술대회(pp 3-49).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정은영 (2004). 통합 유치원에서의 사회극놀이 활동이 3세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3(1), 125-145.

최윤희 (1996). 발달 장애 유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희 (2006). 반응적 의사소통 전략의 적용을 위한 어머니교육이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캐서린 한 역 (2005). 비폭력대화. 바오출판사.

아이들과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⁴²⁾

호 정 애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나 교사는 거의 없다. 부모도 완벽하게 부모 될 준비를 하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 또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내적 성찰을 통해서 조금씩 더 성숙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일상생활 중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를 돌보는 교육자로서의 과제를 익혀나간다.

아이들에게도 완벽한 교육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교육적인 가르침을 접하게 되지만, 학령전의 아이들은 교육적인 가르침보다는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영향을 받아 몸과 마음, 행동까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를 둘러싼 주변이란 아이가 속해서 생활하는 물리적인 환경과, 아이가 관계를 주로 맺는 인적인 환경을 말할 수 있다. 바람직한 물리적인 환경이란 마음과 몸 모두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자유롭게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른을 가장 많이 모방하면서 몸과 마음을 형성해나간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다고 할 지 모르나, 단순히 생물학적인 유전요인으로 해서 부모의 겉모습을 닮아가는 외에, 속 깊은 마음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는 당연하다고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배우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이전에 우선 자기 스스로를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른이라도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

42) 이 글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보 2006년 여름호(통권 제82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자

“이것 봐요” 하는 말에 대해서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란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의 놀라움에 어른이 함께 놀라워해 주고 동반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종종 우리 어른이 보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데도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이것 봐요…….” 하면서 보여준다. 이때 아이는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른이,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지, 함께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보자. 길을 가다가 길가에 다친 지렁이가 꿈틀대고 있다고 하자. 아이가 발견하고 “지렁이가 다쳤어요. 이것 봐요.” 할 때, “바쁜데 빨리 가자.” 며 아이의 발견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의 팔만 잡아끈다면, 아이는 많이 속상할 것이며 이것이 반복될 때 좌절을 느낄 것이다.

또 한 예로,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갔다고 하자. 교사는 훌륭한 박물관의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돌멩이를 주었다가 떨어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 그 아이는 교사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직접 손에 닿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산으로 놀러가서 어른들은 환경을 걱정하며 공해로 산림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설명을 하려하며 비관적인 말을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같은 공간에서도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새알 껍데기를 가지고 논다든지 늘어진 나뭇가지에 매달려 본다든지 하며 실제적인 즐거움을 찾아 놀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들 어른들은, 아이들이 굳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어요.”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잘했다” 라고 어른이 말할 때

칭찬받을 만한 일에 칭찬을 듣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칭찬을 하면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나아가서 자신이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네가 …… 한 것은 참 좋구나.” 혹은 “정말 잘 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칭찬은 행동 후 바로, 혹은 알아챈 직후 바

로 하는 것이 좋다.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바람직한 행동에 칭찬을 받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켜 바람직한 심성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관찰을 거치지 않은 근거 없는 칭찬, 무조건적 칭찬이나, 애정이 없는 칭찬, 거짓 칭찬, 과한 칭찬, 칭찬을 위한 칭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또한 아이들을 칭찬할 때 특이하고 높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그야말로 굉장한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른이 아이를 믿고 아이가 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반하고 있다는 느낌, 즉 ‘정말 내가 한 일이 잘 한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좀 더 잘 할 수 없니?” “그것도 못하니?” 라고 어른이 말을 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기대나 평가를 받게 되면 실망감을 느끼고 나가서 좌절하게 된다. 우리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수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설명하며,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잘 하게 되기는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은 척도에 근거가 있다면, 아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할 뿐이다.

아이들은 아직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언어는 어른과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뛰어난 언어능력이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고 있다거나, 또는 말한 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 외에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약속했잖아요...” 하는 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른이나 교사가 말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약속하면 매우 기뻐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대단히 실망하게 된다.

“선생님 우리 집에 놀러와요.” 하면 “그래 갈게.” 라고 무심히 대답을 한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요.” 하며 아이는 금방 불만을 표시한다.

“엄마 오늘 일찍 데리러 와.” 하고 아이가 말을 하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야 한다.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시간에 울수 없는데도 약속을 하면 아이는 당연히 실망하고 대단히 속상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엄마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자신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의 약속이 정말 지켜지는 지를 실험하기도 한다. 약속한 것은 진정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며, 경험적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간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훨씬 더 어른들을 믿기 때문이다.

“미안해, 뭐라고 했어?” 라고 어른이 되물어야 할 경우

이 말은 “고맙다.” 등의 인사와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그러한 것을 배우지는 못한다. 어른의 언어를 보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어른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미루어 짐작하기 보다는 어른이 정말 잘 이해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된다. “미안하지만 알아듣지 못했어, 다시 한 번 말해줄래?” 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이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가를 자신이 대접받는 것은 모방하면서 배운다는 의미이다.

“그건 나쁜 말이에요?”

아이들은 저속한 말과 좋지 않은 말귀들을 아주 흥미롭게 배우고 연습한다. 어디에선가 한번이라도 듣게 되면, 곧 입력되어 재미를 가지고 씹먹는다. 그리고는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며, 재미를 가지고 어른을 자극한다. 그런데 만일 어른들이 못들은 척 하게 되면 그러한 저속한 말이나 좋지 않은 말귀들을 더 자주 사용하면서 어른들이 반응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특히 경계선을 지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스스로 그만두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하위문화가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어린이 하위문화가 있어서 그들만의 말투를 인정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어른들이 모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할 때 심하게 야단을 친다거나, 방관을 하기보다 “나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 좋지 않은 말이야.” 라고 엄하게 말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만 둘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건 좋지 않은 말이에요.” 라며 의혹의 눈빛으로 쳐다볼 것이다.

“아무도 안 보잖아” 라는 말에 대해서

아이들의 도덕교육은 “너는 00해야 해.” 라는 말이나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른이 모범이 될 때 더 잘 이루어진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도덕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어른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예로부터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 선이 악을 이기는 내용이나 인과응보의 내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 등을 듣고 자라는 것이 도덕교육에 도움이 된다.

아이들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것에 접촉되기 쉽다. 어른의 힘으로 행동양식을 가르쳐 온 한 아버지의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모범의 대상이었다고 회상한다. 우리 어른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6살 난 아이를 데리고 간 엄마가 “너는 5살이라고 하자. 그러면 돈 안내도 돼.” 라고 속삭일 경우가 있다. 또는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부모가 단 것을 잘 주지 않는 손자에게 사탕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면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믿는 사람이 일치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혼란스럽다. 엄마나 아빠 또는 교사가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7세까지는 적어도 어른이 도덕성을 잘 갖추고 행동과 말을 일치시켜 나가야 아이도 자신의 진실에 대한 의지를 발달시켜 나간다.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자신의 말대로 당연히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 아이도 역시 어른을 기계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아이는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진실을 배우고 받아들인다.

“벌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할 때

만일 아이들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관대하게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행동, 즉 어른이 생각하기에 나쁜 행동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놀이를 하다가 몰두해서 무엇인가 실험을 해 보다가 생기기 쉽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거나 적절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어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틸감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아이는 어른이 그저 공허한 위협

만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이 정해놓은 규칙에 일관되는 반응을 보이는 지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나쁜 행동이 어른의 반응이 무서워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할 정도로 정말 나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희망이 있는지, 또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가진 기본적인 신뢰감을 해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들이 고양이를 세게 안으면 고양이가 발톱으로 금방 할퀴듯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한 질책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오전인 지금 친구와 싸웠기 때문에 오후에 있을 재미있는 놀이터에 친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원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흘린다고 했을 때 ‘밥을 흘리면서 먹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한다.’ 고 한다면 이 벌은 이 상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벌과 아이의 잘못된 행위 사이에는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면 그 아이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일러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아이의 사회적 공감이 일깨워질 수 있다.

망가진 물건을 어른이 다시 쓸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나, 아이가 찢은 책을 그 자리에서 붙여서 고쳐놓는 것 등은,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받고 다시 신뢰하고 믿는 어른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건을 망친 아이가 다시 고치거나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일을 하는데 어른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고치는 일이 다 끝나면 그 아이는 대단히 큰 만족감을 갖게 된다.

“우린 그냥 놀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들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면서, 옆집아주머니가 정성껏 가꾼 정원의 나뭇가지나 꽃을 꺾어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자. 이 때 아이들에게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가 보다 너무나 놀이에 몰두하느라 재미있게 놀았고 그만큼 즐거움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른은 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지 온갖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린 그저 놀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그 아이의 부모 또는 교사로서 어린이와 함께 대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꽃밭의 주인집에 가져다주도록 하는 일이다. 물론 그렇게 다녀와서는 “아주머니가 좋아하시던데요.”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겁이 나서 가기를 꺼려한다면 어른이 함께 가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대신 사과를 한다면 아이가 사과를 하는 이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거짓말이야!” 라고 아이들 끼리 말할 때

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진짜가 아닌 이야기를 꾸며서 하곤 한다. 그것은 아이들의 상상이 활발히 나들이 다니다 보면, 가끔 현실과 모호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자동차가 없는 것이 속상했던 한 아이는 언제인가부터 아주 커다랗고 멋진 자동차에 대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차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자 어느 날 한 친구가 “너 왜 그럼 그 차 안 타고 다니니?” 라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자 “너 그거 거짓말이지!” 라고 친구가 비웃었다. 그때 옆에서 지금까지의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교사는 그 아이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람이란 누구나 꿈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놀라는 것이 재미있어서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두 아이가 야외놀이를 갔는데 뛰어 오면서 말하기를 “우리 저쪽에서 물고기 봤어요. 아주 굉장히 크고 검은 물고기요” “마녀도 보았어요!” 라고 하며 어른들이 놀라는 얼굴 표정을 재미있어 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런데 그 마녀는 아주 착한 마녀였어요. 우리에게 과자까지 주었어요.”

“좀 사이좋게 놀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을 때 항상 사이좋게 노는 모습만 볼 수는 없다. 싸움은 힘겨루기, 질투 등에서 시작된다. 어린이들에게 모욕감을 그냥 참으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건강한 발달은 불가능하다.

좁은 실내 공간과 스트레스는 어른들로 하여금 아주 조용히 있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한다.

그래서 종종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주지 않는다. 너무 성급한 어른의 개입은 싸움의 부당한 결말을 가져오게 하기 쉽다. 나이가 어린 쪽이나 약한 아이에게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우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금방 누구 편을 들어주는 일보다 항상 의미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되물을 때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 몇몇의 아이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서로 자기해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 교사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 스스로 잘못된 일에 자신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일의 수습을 위해 항상 잘잘못을 따지는 일 보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교사가 긴장하고 있을 때 보다, 기분상태가 좋을 때 잘 떠오른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엄마, 저 아이가 내 구슬통을 었었어.” 라고 이르러 왔다. 그러면 엄마는 구슬을 었은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걱정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도 대체 누가 저 구슬을 다시 주워 담지? 아마도 새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면서 새의 모습을 흉내 내며 구슬을 ‘부리로 찍어가며’ 주워 담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같이 새가 되어 구슬을 주워 담고 일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자

우리 어른들이 항상 모든 일에 아이들의 모범을 보이며 잘 할 수 있지는 않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 실수를 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는 일을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나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거나 실수를 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다음번에 더욱 잘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므로 도움이 된다.

만일 어른이 아이들에게 정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엄하게 했다는 것을 느꼈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어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 사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기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⁴³⁾

1. 부모가 하는 유아 성교육

1)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중심축

하나, 남녀의 해부학적 성 기관, 성기능의 차이 등을 다루는 성기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체와 성적 행동을 건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 남녀가 결합하여 균형 있는 가정생활과 조화로운 사회공동 생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남녀평등의 성역할과 상대의 성을 존중하고 상대의 성 역할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양성적 역할의 가능한 틀을 넓혀 가도록 이끄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인간 존중의 성윤리·성도덕교육을 건강하게 실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되찾도록 이끌어야 한다.

2) 유아 성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유아가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이다.

출생 후 자녀와 대화를 통해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자녀가 성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그 순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성교육은 다른 발달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정에서 특별히 성교육시간을 정해 놓고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유아가 성관련 질문을 하여 대답을 해주어야 할 때는 친절한 태도와 과학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어린 자녀 스스로가 성교육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신중하게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이 글은 『부모가 하는 현대 유아 성교육』(장연집, 다음세대, 1999.)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의 성지식 수준을 바로 알아야 한다.

부모가 아무리 자세하게 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해도 유아는 자신의 인지 발달 수준 내에서만 이해할 뿐이다. 따라서 성 관련 이야기는 질문을 할 때는 유아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잡고 시작해야 한다. 기초를 잡는 방법은 자녀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해 질문에 따른 대답을 해주기 이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봄으로써 유아의 사전 지식수준을 파악해 낸다.

유아의 성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지나친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자녀가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내용을 성교육 시키는 것이라 하여 억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열성적으로 성지식을 주려고 애쓰는 부모나 직접 설명해 줄 자신이 없는 준비 안 된 부모들은 자녀의 수준에 넘치는 책이나 관련 자료를 펴놓고 읽어 주는 지나친 성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자녀가 아직은 몰라도 될 사실을 미리 일깨워 자극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생식 과정은 식물과 동물의 생식 과정을 다룬 후에 순차적으로 다룬다.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식물의 성장 과정과 결실, 동물의 생식 과정에 대해 알려 준 후에 이와 연결 지어 인간의 생식 과정과 성장, 그리고 성숙 과정을 자상하게 알려 주도록 한다.

성기의 정확한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식기의 명칭인 자궁·질·음경·고환 등을 말할 때는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인 위·식도·장·간과 같은 기능 등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표정과 함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월경·사정·임신·출산 등 몸의 변화와 성역할에 대해 설명할 때는 학습으로 받아들이도록 동식물 도감이나 교육용비디오를 활용해가며 생물학적 원리에 입각해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평등한 성별 의식과 성역할 개념, 그리고 건전한 성도덕의 가치를 아울러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설을 하는 경우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성기와 관련된 외설스런 욕설을 사용할 경우 전혀 못들은 것처럼 무

시하거나 또는 적절한 시기에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같은 말을 하면 듣기를 매우 꺼려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유아의 성관련 질문에 답하기 전 부모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자녀의 성관련 질문에 부모가 대답해 줄 때 은연중에 나타내는 감정과 표정 그리고 제스처는 언어로 사실을 알려주는 것 못지않게 유아의 태도와 감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부모의 당황해하는 모습이나 놀란 감정과 표정 등은 유아에게 자신이 질문한 내용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이상한 것’이라는 느낌과 함께 잘못했다는 죄책감까지도 느끼게 할 수 있다.

지혜로운 부모가 이끌어 주는 성지식은 보약이다.

자녀의 본질을 먼저 터득한 부모가 취학 전 어린 자녀와 함께 진지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진행되는 성관련 대화는 성적 관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성교육은 진실 되고 책임 있는 한국인을 만들려는 부모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퇴폐적인 성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잃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지혜롭게 처방한 가장 좋은 보약이다.

성관련 질문이 없더라도 유아의 감추어진 질문에 민감해야 한다.

자녀가 직접적인 성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아이는 착해서, 또는 우리 집안은 풍기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자녀의 호기심과 관심을 억압한 경우가 더 많다. 부모는 자녀의 감추어진 질문에 민감해야 하며 걱려를 통하여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두어야 한다.

취학 전 시기는 성별 정체감이 아직 뚜렷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다.

취학 전 시기는 성별에 대한 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에는 지나친 남녀의 성차보다는 양성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육 수준은 부모가 지닌 성관(性觀)의 수준이다.

태내기에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부모가 지니고 있는 성지식, 성역할, 성도덕이 통합된 성관

로 태아에게 소리 없이 대물림 된다. 그리고 출생이후에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성관을 토대로 주변의 성문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따라서 성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의 성관이다. 부모는 자신의 성관을 폭넓고 바르게 인식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부부의 생활 속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는 변화가는 현대 사회의 성교육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교육은 그 시대, 그 문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은 어린 자녀이지만 부모가 새롭게 적응하여 성교육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둔다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생기게 될 어려움을 유아기부터 점차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유아의 연령별 성교육

| | | | |
|-------|-----|----------------------|--|
| 생후 1년 | 구순기 |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 | 엄마의 젖을 빨며 식욕과 쾌락의 욕구를 만족함. 불만족하면 남을 믿지 않거나 사람을 거부하거나 대인공포와 무능 |
| 1~3세 | 항문기 | 자율성을 갖는 시기 | 성격형성에 중요성을 갖게 됨. 부모의 훈련 모형과 태도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대소변 훈련시 |
| 3~5세 | 남근기 | 주도성 즉 목표지향적인 행동 | 반대편 성의 부모를 좋아함 외적 태도와 감정에 영향을 줌 |
| 5~12세 | 잠복기 | 근면성이 형성되어야 | 외부세계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

0~1세 성교육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있어 어머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어머니가 아기의 음식(젖)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준다면 영아는 심리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성은 모든 감각 기관의 발달과 함께 발달해 나간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구체적인 성

교육을 실시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화보다는 구강의 만족과 함께 ‘사랑’이 담긴 엄마와의 피부접촉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자신의 신체로 받아들인다.

2~3세 성교육

생후 18개월이 되면서 시작하는 대소변 가리기는 성교육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아이는 아직 성기와 배설기관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배설물에 대해 더럽다고 말하거나 인상을 찌푸린다면 아이는 성기도 더러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대소변 훈련에는 부모의 지대한 관심과 칭찬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자신과 주변인의 성별에 관심을 많이 보이며 성기의 외형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게 된다. 여자아이라면 남자 아이가 서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자신도 서서 오줌 누는 시도를 해본다. 이것은 남녀 간의 성 차이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므로 혼내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기로 하여금 부모의 벗은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해부학적 성 차이를 알도록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6세 성교육

이 시기에는 남녀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시기이지만 이를 자위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로 바라봐야 한다. 아이가 성기에 집착하여 자주 만지면 자연스레 ‘그곳은 중요한 곳이다. 자주 만지면 균이 들어 간단다. 이제 깨끗이 씻어 줄 테니 만지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표정도 진지하게 짓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어놀게 하여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주 흥미 있는 놀이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리도록 하면 금방 새로운 것으로 유아의 관심을 바꿀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출생, 화장실 사용법, 자위행동, 생식기 청결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인데 성폭력 예방교육은 유괴 및 성폭력 방지, 성기 장난금지, 성과 관련된 습관적 문제 행동금지 등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유아들에게 성기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함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접촉인 만지기나 입맞춤을 하려 할 때는 ‘안 돼’ ‘싫어’라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게 하고, 부모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 하도록 하는 대처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4) 부모를 당황하게 만드는 유아의 성관련 행동과 질문

유아가 출생에 관해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라고 질문을 할 때

3~4세 유아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단다. 다 자라면 의사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온단다.’ 라고 답해주면 충분하다. 그러나 4~6세 유아가 같은 질문을 했다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단다.’ 라고 말하듯 이 시기에는 생식기 명칭을 제대로 말해 줄 필요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며 대답을 진지하게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유아가 성적 놀이와 장난을 할 때

유아의 성적 호기심은 놀이와 장난에서도 나타난다. 엄마 아빠 놀이나 병원놀이 등을 하면서 속옷을 벗어 보이기도 한다. 이 때 놀이가 지나쳐 성적놀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놀이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다른 놀이로 대체해 놀도록 하거나 인형으로 대신하게 하도록 유도해 준다.

독립적인 잠자리 습관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 궁금할 때

보통 3, 4세 이후에는 남매라도 따로 재우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따로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자리를 따로 하도록 이끄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실시하기보다는 서서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로 협조와 이해를 얻는 것이 좋다. 자녀의 잠자리는 넓은 의미의 성교육에 포함된다. 실제로 3, 4세 된 유아들은 때로 자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많다. 부모의 성행위 장면을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이를 싸움이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놀라기도 한다.

유아가 반대 성의 놀이를 좋아하고 따라할 때

2, 3세 시기는 성역할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남자아이도 앞치마를 입혀 달라고 하며 소꿉장난을 한다. 이럴 때 부모가 ‘쫂쫂, 남자가 그게 뭐니? 고추 떨어진다.’ 라고 창피를 주는 것은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를 부모가 지닌 성 관념의 틀 속에 가두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꾸어 해보고 학습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양성적 역할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2. 유아 성교육의 중요성

1) 유아에게 성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영어, 수학을 잘 하려면 기초가 중요하듯이 성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잡히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 할 수 있다. 3세 이전을 영아기라 하고 3세에서 7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할 때, 이 시기의 성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하겠다. 영유아 시기에는 신체의 발달과 더불어 지적, 성격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발달을 가져온다. 백짓장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첫 경험과 첫 인식이 이루어진다. 먹는 것과 싸는 것을 비롯해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후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새롭고 강력하다.

성도 마찬가지다. 대소변 가리기를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 이후 부부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경험한 아이는 이후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만큼 영유아기의 안정적인 발달과정은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유아기 때 성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은 복잡한 성지식이 아니라 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이다. 성에 대해 은밀하게 대하는지 장난스럽게 대하는지 또는 더럽다고 느끼는지 밝고 건강하게 느끼는지가 이 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알면 된다. 그러나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 형태든 이 시기에 남게 된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때, 성적인 놀이에 대응할 때, 자위행위를 할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부모나 교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먼저 부모와 교사로부터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진지하고 자연스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하겠다.

2) 유아 성교육의 시기는 따로 있다?

어느 때이고 아이로부터 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느 누구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성교육을 하면 성교를 연상하기 때문에 쑥스럽고 당황하게 되지만 질문하는 아이들은 특별한 개념 없이 궁금증을 물어볼 뿐이다. 유아기가 지나면 말을 배우는 시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엄마, 나 어디로 낳았어?”이다. 대부분 엄마들의 대답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은 신체적이고 생리적 차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방식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 가를 가르쳐야 한다. 즉 아이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준 뒤에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나, 임신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고통을 받았을 때나, 출산 때의 고통 등, 자녀의 임신, 출산 때의 체험 등을 통해 소중함을 심어주어야 한다.

3) ‘성’ 하면 연상되는 것은?

‘Sex’라 하면 또 무엇이 연상되는가? 남녀의 알몸과 성행위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성기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 개념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올바른 성 개념이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생식기가 다른 남녀가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는 만들어내는 모든 내용이 바로 총체적인 개념의 성인 것이다. Sexuality(性性)라는 총체적인 개념의 성의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남녀가 관계할 때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명, 사랑, 쾌락이 있다. 이 세 요소는 인간이 오랜 세월 터득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온 것이다.

생명은 남녀가 생긴 이래 제일 먼저 만들어 온 것이다. 정자, 난자를 모르던 시절에도 남녀는 아이를 만들었다. 나중에 임신의 원리를 터득하여 의식적으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조절하게도 되었다. 생명활동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와 인류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다. 사랑은 남녀가 짝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서부터 그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아이만 낳고 살기보다는 이왕이면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 서로의 공감대와 일치점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남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누는 내용들이 풍부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한다. 쾌락은 남녀가 만드는 즐거움이다. 샘솟는 에너지가 나오며 창의성과 열정을 만든다. 현대에 와서는 성적인 즐거움이 행복의 큰 요건이 될 정도이다. 감각적인 면도 연구하고 개발하여 더욱 큰 즐거움을 맛보려 한다.

생명, 사랑, 쾌락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인데 문제는 이 3요소가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 제멋대로 노는데 있었다. 한테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른 성이 되는데 따로 노는 이유로 성은 상처와 죽음, 배신과 퇴폐를 가져왔다. 생명이 무시된 성은 낙태와 미혼모를 낳고 사랑이 빠진 성은 야타족을 만들고 왜곡된 쾌락은 변태를 낳는다. 생명, 사랑, 쾌락은 함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며 함께 조화를 이룰 때라야 성은 밝아지고 건강해진다.

유아기의 성교육은 생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지만 부모와 교사는 은연중에라도 사랑과 쾌락에 대해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조화로운 관점이 서야 부모와 교사 또한 아이들에게 진지하고도 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3. 성,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1) “엄마, 이게 뭐야?”

2~3세 된 아이가 묻는 말이다. 자신의 생식기나 동생 및 다른 사람들의 생식기를 가리키며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성에 대한 첫 질문은 바로 생식기 명칭에 대한 것인데 어떤 명칭이 올바른 것일까? 흔히들 ‘고추’ ‘고지’ ‘잠지’ ‘찌찌’ 등으로 말하는 것 같다. 유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할머니는 먹는 고추와 혼동하도록 손자에게 자꾸 고추를 따달라고 한다. 남근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남자아이에게 생식기를 장난스럽거나 함부로 대하게 만들 수 있고 여자아이에게는 남자의 생식기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문화와 정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무난한 것은 음경, 고환, 음순, 질, 자궁 등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아주 어린 경우 아들이 4세였을 때 음경이라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는 몇 번의 반복 후에 자연스럽게 그 명칭을 사용했다.

올바른 명칭 사용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을 말할 때의 자세와 태도이다. 장난스럽거나 더러워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진지하고도 자연스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역시 만 4세 된 내 아들이 음경을 만지고 있을 때 처음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너 이게 뭐지 아니? 음경이야. 따라해 봐. 그래 음경. 또 여기는 고환이라는 곳이야. 고환. 여기서 아기씨를 만드는데 이 아기가 되는 씨는 음경을 통해 걸어 다녀. 아기씨가 걸어 다니는 길이 음경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지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이 길이 상해. 그러니까 손을 씻고 만지든지 조금만 만져야 해. 아주 귀중한 것이거든. 잘 보살펴야 해. 알았니?”

뭔가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벌레가 들어와 갇혀먹는다느니 썩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으로 나중에 아이가 커서 성에 대해 너무 깔끔을 떨거나 반대로 아주 더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2) “엄마 나 어디로 나왔어?”

‘아기는 어디로 나와?’ ‘아기는 어떻게 생겨?’ 3세 이후부터 7세까지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출생에 대한 질문이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아이에게 머리를 쥐어박으며 조그만 게 별 걸 다 묻는다면서 다음에 크면 알게 된다고 야단을 쳤지만 요즘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어느새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아이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쩍 당황하게 된다. 얼떨결에 ‘배꼽’ ‘똥꼬’ 하기가 일쑤다. 옆에 앉아 있던 아빠는 아주 장난스런 얼굴로 아이에게 말한다. “야, 낳기는 어디로 낳아?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아이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함부로 묻는 것이 아닌가?’ 하든지 ‘아 이거 참 재미있네? 엄마가 놀래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아빠의 장난스런 표정을 보고는 자신의 진지함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즉 부모를 통해 크게 남는 것은 ‘은밀한 성’이나 ‘장난스런 성’ ‘애매모호한 성’ 느낌이다. 어떤 대답이 좋을까?

내가 6세 된 아들에게 했던 말이다. 좋은 질문이야. 아기는 엄마의 ‘질’이라는 곳으로 나와. 질은 엄마의 다리 사이에 있는 길인데 여기는 겉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데야. 아빠가 음경으로 엄마에게 아기씨를 주는데 그 아기씨를 처음 받아내는 곳이 엄마의 질이라는 곳이야. 나중에 아기가 엄마 자궁이라는 곳에서 다 자라서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나오는 길도 바로 질이야. 아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 남자의 음경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질도 참 중요한 거야” 백지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며 가르쳐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고 좋은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령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정도는 다를 것이고 많이 이해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는 속에 점차 터득될 것이고 아무튼 뭔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느끼는 정도라면 올바른 교육은 된 것이다.

3) 성 놀이를 해요

5세 된 남녀 아이가 한방에 들어가 노는데 조용하기에 방문을 열어보니 옷을 벗고 서로 몸을 보여주며 만지고 있었다. 어느 탁아소에선 낮잠시간에 6세 된 남녀 아이가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옆치락뒤치락 하며 성관계하는 장면을 흉내 내고 있었다. 부모나 교사가 행위 그 자체를 보고는 놀랄 일이겠지만, 아이들은 단순한 놀이와 장난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이 많은 유아기 아이들은 놀이와 장난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 보려고 하고 직접 흉내를

내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 부모나 교사는 먼저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 크게 놀라거나 갑자기 야단을 칠 경우 아이들이 죄의식을 갖고 더욱 은밀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속에서 그런 놀이를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안 좋은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옷을 벗고 하는 엄마 아빠놀이는 엄마 아빠처럼 이다음에 커서 결혼을 한 후에 하는 것이고 남자의 음경은 아기씨를 만드는 곳이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여자의 질이나 생식기도 아기를 낳는 곳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성행동에 대한 교육은 미리미리 관점을 세워 준비되었다가 문제 발생 시 바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자위행위를 해요

4세 된 아들이 엎드리기만 하면 생식기에 힘을 주며 비빈다거나, 6세 된 딸이 시간만 나면 생식기를 만지는데 잠시 만지는 게 아니라 땀을 한참 흘리며 그러고 있다는 경우, 심한 경우 뽀쪽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 상처를 입은 경우 등 유아기 자위행위는 옛날에 비해 요즘 많이 나타나는데 생활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다.

옛날 아이들은 밖에 관심거리가 많았다. 즉 이웃의 친구들, 풍부한 자연환경과 접해 있었다. 남성의 음경과 여성의 음핵은 혈관과 신경세포가 많이 몰려있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우연히 만지거나 어떤 자극에 의해 닿았을 때 아이는 이상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예전에는 생식기 감각을 느꼈어도 집착할 사이 없이 외부세계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가족 수도 줄었고 아파트와 같은 폐쇄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외부의 관심거리가 줄어든 환경에서 보다 자신의 내부로 몸의 감각에 집착할 여지가 높아진 것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 먼저 흥측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심한 경우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스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아이의 관심거리를 외부로 끌어내야 한다. 보름이나 한 달 일정기간 동안 다양하게 함께 놀아 주는 것이다. 공놀이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외부세계로 관심을 돌리게 해 몸으로 향한 집착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흥이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의 자위는 사정도 없고 성적인 공상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형상이므로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 거기를 만지니? 더러워 손 씻어! 너 거기를 자주 만지면 벌레가 나와" 라는 식으로 할 경우, 성기는 더러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버릇이 고쳐지기는커녕 어른의 눈을 속이고 더욱 만지게 됩니다.

♂ 자위행위가 심할 경우 이렇게 하세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자위를 할 경우, 어린이의 성의식이나 인격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그 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고 자위를 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불러서 함께 놀이를 하든가 책을 읽어주든가 기분전환을 시켜줍니다. 한창 진행 중 일 때는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흥분이 높아졌을 때 중단시키면 욕구 불만이 생겨 또 다른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을 때리거나 묶어 놓거나 욕을 하고 벌을 주는 것은 죄의식만 조장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 곳은 중요한 곳이다. 자주 만지면 균이 들어가고 병이 나니까 깨끗이 씻어 줄 테니 만지지 말라." 고추를 만지면 고추가 떨어진다든지, 여자 아이에게 커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병신이 될 거라느니 하는 위협은 공포심과 죄의식, 정신적인 악영향을 주면, 불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성기를 자주 만지는 원인

심심하거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할 때, 어른이 귀엽다고 남자 아이의 성기를 따먹는 흥내를 내거나 따 달라고 할 때, 자극을 주어 자위행위를 유발할 때, 젖먹이 때 결벽증의 부모가 너무 자주 씻어주어 성장하면서 자극이 쾌감으로 느껴지는 경우, 음경이 불결하여 기생충이 기어 다녀서 근질근질하여 긁기 시작한 것이 습관 되어서, 여자아이 경우 음핵이나 음순에 염증이 있거나 질염이 있을 때, 계단 난간이나 미끄럼을 타거나 자전거 등을 타면서 성기가 자극되어, 꼭 끼는 바지를 입힐 경우 성기에 압박이 되어 자극이 되어서...

성적놀이로서 병원놀이, 침대놀이할 때

병원놀이는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무의식중에 즐기려는 성적놀이입니다. 서로 진찰하고 약을 주는 건 모른 척 해도 서로 성기를 만지며 킁킁거리고 논다든지, 누워놓고 성기를 들여다보이거나, 이물질을 약이라고 넣는다든지 엉덩이를 내놓고 주사를 주거나 찔러 본다면, 부모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호들갑스러운 야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놀이도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놀다가 성기접촉에 쾌감을 느껴 자위로 습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억박지르고 야단치면 호기심이 발동하여 어른의 눈을 피해서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기를 내놓고 장난하거나 자랑하는 경우에도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형상이므로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성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함부로 내놓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 또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놓지 않지?)

5) 성폭행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성폭행의 대상이 어린이에게도 유아기 어린이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길가에서, 놀이터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행의 내용도 뽀뽀에서 만지는 것, 옷 벗기고 마찰하는 것을 비롯해 어른 생식기를 만지고 빨아달라고 하는 것, 치명적인 강간까지 실로 다양하다. 널려 있는 성폭행의 위험 속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이러저러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당한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심각성과 후유증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아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울고불고 흥분을 하면서 아이가 듣는데 얘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암담해 하는 표정을 짓는 등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큰일로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침착하게 아이의 입장을

놓고 해결할 일인 것이다. 문제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담하게 아이를 대한다.

요란하지 않게 또한 걱정스런 눈길로 측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한다. 그 자체가 아이에게 더욱 괴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단순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

사건에 대해 아이에게 올바르게 정리시켜 주어야 한다.

푸근한 분위기에서 사실을 다 말하도록 하고 정리시켜야 하는데 정리해줘야 하는 주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기분은 나쁜 일이지만 네가 잘못된 일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켜야 하며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로 활짝 웃으며 안아 주거나 보듬어 주는 것이 좋겠다. 둘째, 잘못은 아저씨에게 있는데 잘못의 내용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억지로 행동한 것과 또 여자의 몸은 귀중한 것인데 장난감 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것으로 아저씨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알려준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활동영역을 좁혀 위축시키기보다는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심각한 사건이거나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단체나 의사, 변호사와 상담하게 한다.

상처가 있고 아이가 힘들어 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아이의 치료도 중요하고 나중에 법적인 처리를 요할 경우 중요한 판단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족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가

김 찬 호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부모 자녀 사이의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 시간의 부족이 지적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관계의 정황에 문제가 있다. 아이들은 부모와 대면하기를 꺼려한다. 다름 아닌 잔소리 때문이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불만은 급격히 늘어난다. 아이의 생활 태도에 대해 못마땅한 점들이 많아지고 성적과 진학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서 자꾸만 잔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잔소리의 효과는 의외로 적다. 왜 그럴까? 잔소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흥적, 감정적, 일방적, 단정적, 반복적이다. 그래서 잔소리는 습관이 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그 언어의 굴레에 길들여진다. 속을 긁어대는 언사에 관계는 점점 악화 일로를 치닫기 일쑤다. 예를 들자면 이러하다. “내 말 안 들려?” “그런 식으로 밖에 못 하겠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넌 누굴 닮았니?”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심문이다. 여기에 대화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거기에서 자녀는 문제의 대상

이 되어버린다. 그럴수록 자녀는 수동적인 존재로 격하된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은 자꾸만 줄어들는다. 발상을 바꿔보자. 자녀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조력자로 지원해주는 반력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와 <존재>를 분리하여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명료하게 규정하고 인식하면서도, 자녀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 대신 변화의 가능성을 아이의 내면에서 찾아 드러내고 격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개학 이후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졌다. 학교에서 돌아와 빈둥거리고 텔레비전 채널을 하염없이 돌리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당장 꾸지람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우선 처음에는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이나 생각을 차례대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푼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학 이후 생활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두 딸들에게 물었다. 그것도 우선 처음에는 좋아진 것을 말한 다음 나빠진 것을 말하도록 했다. 다행히도 내가 느끼던 문제를 그대로 감지하고 자인하였다. 앞으로 어떤 생활의 원칙을 세워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자연스럽게 표명되었다. 나와 아내는 그러한 실천을 어떻게 도와줄 것 인지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서 생활습관 가운데 고쳐야 할 것 한 가지를 스스로 지적하면서 개선을 다짐했다.

바깥에서 부과되는 규제나 감시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안으로부터어나오는 힘으로 삶의 질서가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성을 얻는다. 부모는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어떠어떠해야 한다고 훈계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호흡하며 변화의 율동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가. 잔소리하는 대신, 그 하찮은 세계 속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 텔레비전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친구처럼 어우러지자. 그 시시한 재미에 빠져드는 시늉이라도 보이면 한결 친근해진다. 막상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 해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시 중독처럼 정말로 심각한 지경이라면? 그 경우에도 상투적인 성화와 꾸지람을 늘어놓기보다,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성찰과 해방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잠을 이기지 못해 늦잠 자는 아이에게 멀리서 소리만 뽁뽁 지를 일이 아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잠자리 살짝 옆에 누워 ‘피곤하지?’하면서 끌어안아줘 보자. 함께 빈둥거리면서 잠시 이런저

런 잡담을 주고 받아보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일어나자’하면서 상쾌한 목소리로 아침을 깨워 주자.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면 금상첨화다. 짜증과 잔소리는 관계의 피로를 가중시킨다. 또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변화의 진정한 에너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안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내고 그 파장으로 타인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의 생태계는 가정의 기쁨과 성장의 보람이 자라나는 터전이다.

부모가 심대와 대화하려면

강의실에서 대학생들에게 던져본 질문이다.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그 나이는 언제쯤인가?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30대 초 중반의 어느 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자녀도 서너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어린 아이라고 한다. 결혼생활의 풍경으로 한결같이 그러한 가족 구성을 연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광고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단란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광고에서는 언제나 그 연령대의 부부와 자녀를 등장시킨다.

광고는 환상을 창출하면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실제로 거리를 둘러보자. 가족 동반으로 외출 나온 가족들을 보면 자녀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4 학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6학년만 되어도 부모들과 나들이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욱 희소해진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집을 나서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수준일 때는 부모들이 아이와 어울릴 수 있는 활동과 언어 그리고 감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 사정이 갑자기 달라진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거나 심지어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 나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 그들을 겨냥해 현란하게 상품화되는 각종 소비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대폭 늘어난 학습량과 가파른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강박이 가중되어 부모 자녀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대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런데 시간만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도 문제다. 엄마는 대화보다 잔소리가 주를 이루고 어찌다가 식탁에 마주 앉게 된 아빠가 ‘요즘 공부 잘하냐?’ 정도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한 질적 진부함이 서로가 대화를 기피하게 만든다.

왜 이렇게 콘텐츠가 빈곤한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정신적으로 황폐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탐구하는 신선한 호기심이 없기 때문이다. 지적인 창조성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쁨을 망각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동기 부여하는 능력인데, 어른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에 자녀들에게 학습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가 없다. 그 결과 성적만을 가지고 뒹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감정의 손상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지니고 있는 지적인 충동을 발견하고 그 기운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아를 혁신해야 한다.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그러한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다루는 주제와 소재다. 대부분 몇 가지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의외로 이야기 거리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내 경우를 들어보겠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고민을 거의 다 아이에게 털어놓는다. 얼마 전 나의 가까운 친구가 직장에서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적이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그 친구의 면회를 가기 전날 아이들을 불러 앉혀 놓고 말을 꺼냈다. ‘아빠의 오랜 친구가 이러이러한 일로 감옥에 가 있는데, 내일 면회를 간다. 그런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말해 달라.’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다 할 조언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 기대나 목적도 없었다. 다만 나의 심경을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의 고민을 자기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 마음을 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상담’을 의뢰받는데서 어른으로 대접받는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결 ‘높은’(?) 수준에서 인생을 대리 경험하면서 세상의 인터페이스를 넓혀갈 수 있으리라. 사실 어른들이 갖는 고민의 상당 부분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잘 풀리지 않는 사업, 이웃집 아줌마와의 불화, 늙어감에 대한 불안..... 이 모든 체험과 느낌들에 자녀들을 초대해보자. 대화의 회로는 점점 풍성해지고 내면의 부드러운 교감이 증폭될 것이다. 사랑과 신뢰가 자라날 것이다.

생각과 질문은 구체적으로

얼마 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어느 시민단체가 지방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나를 초대한 것이다. 백여 명

의 아이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었다. 마침 강의실에서 난지도가 보이기에 쓰레기 문제로 문제를 열어 북한산과 한강 등 주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거기에 얹힌 역사와 생활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처음으로 서울에 온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비교적 잘 집중을 해주었다. 강의를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다. 여러 명이 손을 들었는데, 그 질문들은 이러했다.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한국의 헌법은 무엇에 바탕을 두었는지 알고 싶어요?” “요즘 건물들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들의 공통점은 내 강의 내용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매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살살이 뒤지면서 힘겹게 하나씩 대답을 해주는 동안, 나는 지식 검색 엔진이 되어 버린 듯 한 기분이었다. 그날의 대화는 오랫동안 고민의 화두가 되었다. 아이들은 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도 왜 거기에서 질문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또는 이틀 동안 서울을 견학하면서 생긴 궁금증은 없었을까. 아이들은 정말로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까. 혹시 어려운 질문으로 똑똑해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학습의 프로그램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볼 때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과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많은 정보를 두뇌에 입력했지만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는 못했다. 사물화된 지식을 최대한 저장하여 단답형의 회로로 재빨리 인출하는 게임에 길들여지는 동안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창출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고방식이다. 눈에 보이고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실마리로 세상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구체성과 추상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대로 파고들면 고도의 추상적 개념들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추상화의 능력이 뛰어나면 구체적인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다. 그러한 사유의 왕복 통로가 빈약할 때, 구체적인 것은 단편적인 현상들에 매몰되고 추상적인 것은 막연한 관념으로 흩어져버린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구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상투적이고 애매한 질문은 대화를 진부하게 만든다.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는 “얼마 전 시작한 테니스 잘 되세요?” “최근에 좋은 영화 본 것 없으세요?” “전에 사모님 편찮으시다던데, 이제 괜찮으세요?” 등의 질문을 받을 때 이야기에 활력이 붙는다. 인간관계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그 관심은 구체적일수록 깊어진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모처럼 자녀와 둘러앉은 자리에서 “요즘 학교생활 어때?”

“공부는 잘 되느냐?”는 식의 뻔한 질문은 재미없다. 캠프에 다녀온 아이에게 “재미있었어?”라는 성의 없는 질문을 던지면 대화는 일문일답으로 종결된다.

화술이나 화법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주파수를 맞추면 신선하게 말문을 열 수 있다. 자녀에게 건네는 질문을 바꿔보자.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것 하나만 들려줄래?” “작년 캠프 때는 시설이 엉망이어서 고생이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니?” 정도만 되어도 말길은 역동적으로 이어진다. 대화의 초점이 잡히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집중된다. 창의성과 소통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대화를 통해서 사유의 즐거움을 키워보자. 삶과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존재의 여백을 탐색하는 질문으로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자.

눈빛, 또 하나의 말길

아시아의 대중음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비, 엄청난 팬들을 끌어 모으면서 공연마다 열광의 도가니로 달구고 있다. 그런데 무명시절의 그를 백댄서로 발굴하여 오늘의 스타로 키워준 이는 박진영이다. 그는 비의 어떤 점을 보고 선발했을까? 어느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디션에 비를 뽑은 이유는 그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꼭 붙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배어 있는 그 눈빛...” (KBS 스페셜 2005. 10. 30 방영 ‘밀착취재 비, 아시아를 넘어서’ 중에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감정의 상태는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됴됨이와 삶의 행적까지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얼굴을 쳐다본다. 대화에서 시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오해를 사기도 한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통역을 끼고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에도 통역사가 아니라 대화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한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쪽의 ‘코드’에 맞추어주는 글로벌 리터러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문화의 차이로만 치부할 것이 아닐 듯싶다. 자폐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한국인들은 모두가 경미한 자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노는 만큼 성공한다]를 저술한 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는 그렇다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맨 정신으로는 남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기에 그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해 남자들이 폭탄주를 마신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이 똑바로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석에서만이 아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발표나 축사를 할 때 청중들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말하는 이들을 만나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시선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데 거의 고정되어 있다. 교사나 교수들 가운데도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발표나 수업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자아를 드러내는데 대한 공포 때문이다.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한 소통 부전(不全)을 권력으로 은폐하고 군림하려 든다. 아랫사람들 또한 거기에 주눅 들고 ‘눈치’를 보면서 시선의 힘을 잃게 된다.

입사시험에서 면접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비해 요령을 가르쳐 주는 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주는 전문 학원까지 등장했다. 그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면접’의 말뜻을 풀자면 ‘얼굴을 접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말하기’의 자리는 지극히 왜소하다. 게다가 요즘에는 컴퓨터 때문에 타인과 대면하는 기회가 줄어든다. 온라인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채팅하던 사람들이 막상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뻔뻔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린 아이들은 언어 이전에 눈으로 소통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힘에 짓눌려 소통의 회로가 왜곡되고 눈길도 회피해진다. 이제 눈으로 말하는 능력을 재활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시선을 마주치는 습관을 들여 보자. 아이의 사소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눈을 깊이 응시해주자. 그것은 단순히 몸짓의 체득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르는 길을 넓히면서 내면의 방어막을 거두는 일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말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다.

교장 난 물건은 보물단지

에스 보드가 유행이다. 양발을 번갈아 움직이면 전진하는 놀이기구다.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요즘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이렇게 고가품이 아이들을 겨냥하여 계속 쏟아져 나오면 부모들은 힘겹다. 하지만 이왕 사주는 것이라면 그 기

계 장치를 재료로 삼아 공부를 해보자. 또는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해 정리해오도록 조건을 걸면 어떨까. 사주지 않는 경우에도 공원에 가서 빌려 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딸들과 그렇게 야외수업을 했다. 그 놀이기구에는 정교한 역학(力學)이 숨어 있다. 발을 아래위로 움직이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갈까?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한 사례인데, 그냥 상품의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그 ‘지적 재산’을 탐구해보면 아주 흥미롭다. 지금은 그러한 무형의 자산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그 하나하나가 현대 문명의 소산이다. 거기에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복잡한 원리가 집적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매개하고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을 구성하는 물건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많은 물건을 접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원재료로 하여 어떤 과정으로 가공되고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자기 손에 들어오는지 알지 못한다. 첨단 MP3나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그 숨 가쁜 디자인 경쟁의 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적 고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기계나 도구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돌이켜 보면 나의 성장 과정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20년 이상 집안에서 고장 난 물건이나 시설을 고치는 일은 내가 도맡았다. 라디오, 전축, 다리미, 전등... 이런 제품들이 지금은 꽤 튼튼하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고장이 잘 났다.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그 때는 최대한 고쳐서 써야 했다. 또한 단독 주택에 살면 고장 나는 것이 많다. 수도, 보일러, 물탱크, 전기 콘센트, 문고리... 부모님은 그 모든 수리를 언제나 내게 맡기셨다. 그 하나하나가 내게는 ‘프로젝트’였고, 고심하고 궁리한 끝에 해결했을 때 뿌듯함은 컸다. 때로 너무 어려워 전문 수리공을 불러다가 고치기도 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수 배울 수 있었다. 정말로 살아 있는 현장 학습이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물을 조작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생활 속에 널려 있는 도구들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관찰력과 창조성을 키우는 구체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는 경험은 매우 생생한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생활 속에서 그 지능을 기르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다. 집에서 고장 난 물건들이 있으면 그냥 버리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뜯어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연구해보자. 의자, 자전거, 우산, 롤러블레이드, 구두, 가방, 그리고 위험하지 않

은 가전제품 등 대상은 많다.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잘 모르면 수리점에 아이와 함께 가보자.

그러한 과정에서 사물과의 사قم이 깊어진다. 오랫동안 소중하게 사용하며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아이들의 기억에 나뭇결 같은 무늬가 된다. 엄마 아빠가 정성스레 고쳐준 장난감은 애정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미디어다. 고장 난 물건은 애향단지가 아니라 퀴즈와 퍼즐을 담은 보물단지다. 그것을 매개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생각을 모으면서 협동학습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답형의 기계적 사고 회로를 다원적이고 자유자재한 연결망으로 바꿔 갈 수 있다. 창의성을 자극하고 연마할 기회는 생활 속에 가득 널려 있다.

단선적 인과론의 함정

매일 식탁에 오르는 김치에 기생충 알이 있다는 발표에 모두 경악했다. 그러나 그 알이 모두 기생충으로 부화하는 것은 아니고, 몇 마리가 부화한다 해도 건강 상태가 좋으면 별 문제가 아니라는 후속 발표가 이어졌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정보에 점점 민감해진다. 어떤 음식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하니 하는 보도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발암 물질 역시 모두 암을 발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하루에 천개 정도의 암세포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한다. 다행히 모두 다 즉시 제거되기 때문에 탈이 나지 않는 것뿐이다.

과학의 힘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혀주는데 있다. 인과 관계가 명료하게 규명됨으로써 우리는 무지몽매의 암흑에서 해방될 수 있다. 14세기 서양에서 흑사병이 창궐하여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갈 때도 쥐벼룩 같은 발병 인자는 커녕 ‘병원’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신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고, 수도사들은 제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하염없는 속죄 의식을 벌였다. 근대 과학은 그러한 불합리의 굴레에 매여 있는 인류에게 계몽의 빛으로 다가왔다. 실체에 관한 진실을 소상하게 해명함으로써 허황된 믿음과 주술적인 속박에서 풀어준 것이다. 더 나아가 사물과 환경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한없이 넓혀주었다. 그 핵심에는 보편적인 인과론 법칙이 깔려 있었고, 과학적인 사유는 현대인의 상식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적 패러다임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덫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한 인과론이다. 기생충 알이나 발암물질의 예처럼 A가 B를 유발한다고 할 때, 그 맥락과 조건은 매우 복잡하다. B가 아닌 C나 D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과학자들은 어떤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독특한 계(界 : system)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한다. 그런데 그 지식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모델로 둔갑하기 일쑤다.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요모조모 따지는 것을 귀찮아한다. 무조건 A는 B라는 식의 단순한 결정론이 설득력을 갖고, 결과적으로 정보로서 경쟁력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무지를 양산한다.

과학적인 사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지극히 단순한 결정론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평생 성적은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는 식의 답론이 얼마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가. 인생은 몇 가지 일반론으로 환원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배움과 성장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기 유학에 여러 해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도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공부를 못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들 또한 대단히 많다.

단답형 사고와 단선적 인과론 그리고 흑백론적 결정주의가 우리를 무력하게 한다. 어설픈 도식과 이미지로 미래를 예단하고 한정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가지 결점이나 제약 조건을 절대화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다. 그러나 핸디캡을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커다란 성취를 이룩한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다.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 이면에 감춰진 잠재 능력, 확실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지 않는 존재 가능성을 보는 눈이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장차 펼쳐질 인생의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복원할 때 우리는 천박한 결정론의 횡포와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자유로움에서 생성되는 생명의 에너지로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다.

도시 속 마을 만들기와 함께 키우기⁴⁴⁾

이 경 란

사람과 마을 교육이사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운영한다. 부모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조합원 교육, 공동체 문화양성 평등, 환경친화적 생활,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아이와의 의사소통 등 단위 조직 내부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몸으로 익힌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났다. 여기서 아이와 어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배우기 위해서는 공동육아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가정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과 친구들 언니 동생들에게서 배우고 자라며, 어른들도 마을에서 만나는 이웃 속에서 온전하고 안정된 삶과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각 지역의 공동육아에서는 공동육아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 보고는 공동육아어린이집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마포구 공동육아의 사례이다. 마포지역은 공동육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어린이집들이 기반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생태보전활동 등을 다양하게 벌여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44) 이 글은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 275~284p,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주년기념 제1회 국제학술대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6.에 실린 원고입니다.

1. 마포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역인식

1) 공동육아 안에서

1994년 첫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이 설립된 이후 마포지역에는 1995년 날으는어린이집이 이어 만들어졌고, 아이들이 학교에 감에 따라 우리어린이집에서 1999년 도토리방과후가 독립했고, 날으는어린이집에서 2000년 풀잎새방과후가 독립하였다. 2002년 참나무 어린이집이 기존 어린이집의 대기자를 중심으로 새로 설립되었다. 현재 마포지역 공동육아로는 3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방과후가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참여형 보육시설로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조합형 어린이집이다. 따라서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운영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교육과 생활의 원칙과 내용을 배워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어른들이 생태적이고 평등하며, 자율적인 생활양식을 교육 속에서 실천해가려는 공동육아의 가치와 민주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결합하면서 스스로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연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서로 상처도 입고 풀기도 하며 10년을 지내왔다.

10년 전 여섯 살이던 가장 큰 아이가 지금 중학 3학년이 되었고, 처음 2개월이던 아이는 초등 4학년으로 컸다. 그 속에서 부모들도 교사들도 성장해갔다. 부모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부모는 아이들의 나이만큼 성장한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고민 정도가 결정되는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4살 때는 아이의 성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5~6살이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혀가며 커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초등과정으로의 연결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고학년이 되고 중등과정에 들어서면 아이의 전 성장과정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것이 대개의 부모들이다. 아마도 지난 시간 공동육아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맞춰가며 생각을 넓혀온 것 같다.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져갔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체화하고 협동해서 풀어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공동육아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르치는 민주주의 경험의 장이었다. 참으로 다른 의견들이 오고가고 해법도 다양했다. 아이

와 아이의 다툼, 부모와 교사들의 갈등, 교사와 교사들의 갈등, 부모와 부모들의 갈등 등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표면화되는 공간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힘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를 개방하고 서로 풀어가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의사결정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지만, 내가 주인이고 상대도 주인임을 인정해주는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충격이기도 했다.

물론 단점도 많았다. 부모참여형교육이 가지는, 특히 부모들이 출자금이라는 형태로 어린이 집의 토대를 만들고 있고 운영주체라는 사실은 교육주체인 교사들과의 갈등을 낳을 소지가 충분히 많았다. 실제 이 문제는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리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대부분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에서 겪는 경험일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을 만 들어내며 성장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성장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참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긴 시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생겼다. 이웃을 만들기가 어려운 도시 환경 속에 살면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 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은 즐거움이었다. 저녁시간 서로 돌아가면 아이들 돌봐주면서 바쁜 일상의 어려움을 서로 해결해주기도 하고, 함께 어린이집청소와 수리를 하며 맘을 나누고, 여행이나 밤마실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져 갔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라면 오랫동안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 같다.

게다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참 좋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 아빠들이다. 그동안 육아문제를 엄마들에게 떠넘기고 있던 아빠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회의나 청소 술자리를 통해서 육아의 방향과 실재를 알아갔다. 그 결과 아빠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참여하고, 거기서 다른 아빠에게서 아이 키우기를 배우기도 했다. 이렇게 변해간 사람들은 생활글쓰기모임인 아빠책방도 만들어 서로의 육아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주로 엄마들이 중심인 생협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은 직장보다는 마을과 가정에 중심이 옮겨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린이집 내부 사람들끼리 새로운 문화체험과 즐거운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육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문다면 공동육아는 지역사회에서의 ‘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매일 동네 뒷산에 나들이를 가고 마을을 배워가지만, 부모들이 마을 사람

이 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구성원과 어린이집은 뜨내기였기 때문이었다.

2)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생협의 설립

공동육아가 마을 내 섬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가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어린이집에서는 꽤 일찍부터 문제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방과후 활동을 지역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보육료문제로 실현되지 못함). 초기의 논의가 당위론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는 절박한 현실 문제로 다가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교육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교육현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는 달리 새로운 학교친구도 사귀고, 동네를 자유롭게 오고가면 마을사람들의 생활과 만나고 있다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단지 내 아이나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크고 살아가는 동네 아이들 또는 학교친구들, 나아가 마을문화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아이들은 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우고 보호받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방과후의 독립을 모색하면서 공동육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가치를 지역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방과후로의 확대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간을 얻지 못하여 무산되고, 공동육아 조합형 방과후를 설립하고 말았지만, 지역교육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기회였다.

동시에 아이들의 안정과 더불어 그간 친해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이에 방과후 부모들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이 합세하여 마을에 뿌리내리고 살기 위한 모색을 시작하였다. 서울 같은 대도시주민들이 갖는 떠돌이 문화를 재검토하고, 서울에서도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생활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서 2001년 2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설립하였다.

현재 생협은 공동육아협동조합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합으로서 공동육아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나아가 생협과 공동육아협

동조합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협동조합대표자모임을 구성하여 마을축제와 협동조합 공동교육, 운동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지역교육활동

1) 생협의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설립

공동육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생협은 설립할 때부터 지역교육문화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어린이교육부문에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생태문화와 생활문화, 지역 사회를 인식하는 교육을 지역문화역량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학체험 프로그램인 ‘참나무체험단’을 운영하였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참나무 체험단에서는 지역 내의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책 만들기(그림책작가와 어린이책 출판사 도움), 빵 만들기(제과점 도움), 요리하기(조합원 담당), 흙과 놀기(교육문화전문가와 지역내 공방 도움), 성미산 생태탐험(공동육아 교사 담당) 등을 진행하였다. 주변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즐겁게 지냈다.

이런 참나무체험단의 경험과 더불어 공동육아 방과후 어린이집을 졸업한 고학년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공동육아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교육적·문화적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공동육아의 문화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도 있었다. 이에 생협의 부설기관으로 지역문화공간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이하 꿈터)’를 2002년 8월 설립하였다. 꿈터는 현재 몸다루기(택견, 요가, 힙합), 생태학습(성미산 생태교실), 자기표현(표현미술, 표현발레)이라는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만 아니라 어른들의 공간이기도 하며, 지역 내 많은 교육자원들을 엮어 스스로 학습하고 서로 가르치는 교육네트워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 취미동아리 활동과 성인 교육활동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부터 조합원교육과 더불어 목공이나 수공예, 인형만들기, 옷만들기 등의 취미모임이 만들어졌다. 생협이 설립된 후에도 다양한 소모임이 구성되어 지역조합원들과 함

게 하는 모임들이 확대되었다. 현재 등산모임, 농사모임, 노래모임, 택견, 한방공부모임 등이 상설 운영 중이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포스’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풍물패도 만들어 각종 행사장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육아는 정기적으로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안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왔다. 부모 성교육과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이해, 책읽기와 이야기,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 나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을 일상적으로 펼쳐왔다. 생협도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강좌를 개설하여, 성교육과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 아토피아이에 대해 알아보기,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법(독서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2002년에 자아찾기 프로그램(10개월 진행)을 실시하였고, 부모역할공부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성미산 지키기와 관련해서 성인대상의 자연체험안내자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생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동 공급하는 생협은 각 생산지를 년 4회 방문하여 생산자와의 교류를 실시하며,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유통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소비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도농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도농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정기적인 합동교육도 진행하였다. 2002년 10월 ‘지역공동체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 2003년 지역교육의 전망, 2004년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공동육아는 부모의 교육 참여를 권장하며, 조합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조합원이 되서 운영한다. 현재 조합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운영합리화를 통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에서 학교에서는 부모들의 교육 참여의 통로인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임의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마포지역 공동육아 방과후 어린이집 아이들은 2개의 학교에 다

니며, 특히 1개 학교에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모여 다닌다. 이 학교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개선활동, 수련회에 대한 개선활동, 학교도서관 설립준비 등을 벌였다.

4) 대안학교 「성미산학교」 설립

공동육아의 대안교육적 성격을 온전하게 잇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2003년부터 대안학교 준비모임이 만들어지고, 교사진을 초빙하여 2004년 9월부터 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기존의 대안학교가 지역사회와 분리된 고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극복하는 도시형 학교를 지향하여, 마을사람들 속에서 마을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동육아출신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과정을 함께 시작하였다.

3. 마을 만들기

1) 지역 어린이 놀이마당에서 제4회 마을축제까지

2001년 5월 5일부터 시작한 마을축제가 올해 3회를 맞았다. 마을축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는 1998년 공동육아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방학 중 전래 놀이마당에 있다. 공동육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했던 첫 번째 시도였다. 방학 중에만 진행하던 소규모 놀이마당을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잔치로 확대하여, 1999년 5월 5일 어린이날 공동육아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자리로서 ‘땅을 짚어라’라는 놀이마당을 개최하였다. 이후 2001년 5월 지역협동조합대표자모임에서 놀이마당을 포함한 마을축제를 열기로 결정하고, 그해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올해 4회를 맞았다.

마을축제에서는 놀이마당과 함께, 성미산음악회, 동네 한의사들과 함께 하는 무료 한방봉사활동, 성미산 밑을 한 바퀴 도는 마라톤대회, 장터 등을 벌였으며, 2002년부터는 지역현안인 성미산 살리기와 결합하여, 성미산 돌아보기 등 자연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놀이마당을 비롯하여 마을축제에는 공동육아 관계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4년 마을축제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성과를 반영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관, 청년회, 문화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마포서부지역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공동육아와 생협을 중심으로 한 좁은 범위에서 진행되던 관계가 지역사회와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2) 성미산 지키기

성미산은 지역 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매일 나들이를 가는 산이며,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이다. 전체면적이 4만평이 못되는 작은 산이기는 하지만, 녹지가 매우 부족한 이 일대에서 자연숲의 체험이나 흙을 밟으며 놀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공동육아에서는 자연친화적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을 접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생활리듬을 중시한다. 계절이 바뀔때 따른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미산은 이 지역 공동육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성미산의 역할은 아주 컸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쉼터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자, 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게다가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나 소쩍새와 같은 맹금류 철새들이 한강과 연계되어 서식지로 이용되는 생태적 가치로도 의미가 있는 산이다.

이런 성미산에 2001년 여름 서울시와 산의 소유주가 각기 배수지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시하면서부터 공동육아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성미산 개발 반대운동’을 3년째 전개하고 있다. 개발 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서명운동과 청원활동, 4회에 걸친 성미산음악회 등의 문화활동, 성미산을 주제로 하는 마을축제, 지방자치선거 참여, 심지어 용역회사와의 몸싸움까지 다양하게 성미산지키기 활동을 벌였다.

공동육아어린이집들과 생협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성미 지키기 운동은 곧바로 성미산에 깃들여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종교단체, 학교 학부모단체, 개혁적인 정당 등 광범한 지역주민들과 결합되었다. 이에 따라 성미 지키기 운동은 공동육아만이 아니라 지역전체가 하나가 되는 주민자치운동이자 생태보전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성미산지키기 활동과 관련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수행했던 역할의 하나는 어린이집 나들이 교육 경험의 활용에 있었다. 나들이교육은 성미산의 생태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성미산지킴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성미산의 역사, 나무와 풀, 꽃, 곤충, 새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운동의 근거자료로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성미산의 중요성과 생태보전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 스스로가 그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꿈터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생태교실과 어른 대상의 자연체험안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생태교실은 환경문제의 기초인식을 다지는 환경강좌, 생태보전활동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생태탐방,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미산의 하루를 경험하는 성미산 가족캠프, 아이들이 생태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생태동아리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꼬마성미산지킴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자연체험안내자교육은 생태적인 세계인식과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으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교육활동을 새로이 조직화하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초교육 10회, 심화교육 10회로 구성되었다. 기초교육은 지역자연체험안내자교육의 필요성, 마포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속의 환경문제 등 환경에 관한 기초적인 인식과 지역생태보전활동의 필요성을 익히는 입문부분과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심화교육은 성미산과 한강, 월드컵공원을 잇는 생태축 익히기와 모니터링과 생태보전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지역 경제세터의 창출

공동육아는 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의 보육을 하지만, 공동육아에 아이들을 보냄으로써 여성들의 취업이나 자아찾기가 가능해진 경우가 많았다. 장애아아이를 둔 엄마가 특수교육교사나 언어치료교사로서 새로운 자기전망을 찾았고, 새로이 취업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또한 생협설립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원 가운데에서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생겨 지역 내에서 자기전망 찾기가 가능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또한 꿈터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휴직하거나 퇴직한 교사들이 자원활동가와 교사로 참여하면서 경력 있는 교사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육아 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활동가로서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한 방편으로 공동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기 위한 「동네

부엌」이 사업체로서 시작되었다. 현재 안전한 재료로 만드는 아이스크림가게와 떡 만들기 사업이 공동육아 부모들과 생협 조합원들 사이에서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아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이라는 카센터를 만들어 믿을 수 있는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모임, 지역통화를 준비하는 모임,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퇴비와 도시 내 생태농업을 준비하는 모임 등 다양한 새로운 지역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진행 중이다.

4.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공동육아 문화, 그 성과와 과제

1) 공동육아 섬에서 마을주민이 되기까지

신촌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다. 초기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지역의 여러 교육환경을 이용하는 존재일 뿐 지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현재는 공동육아 관계자들 속에서 ‘동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동네로 이사 와서 지역주민이 되었다. 지역주민으로 뿌리내리려는 생각은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나 생협 활동의 활성화로 귀결되었다. 이제는 지역과 학교에서 공동육아의 존재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한편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일상생활 속에서 익혔던 생태적인 생활방식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조직화된 참여활동은 지역 활동 속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경험과 공동육아 관계자가 늘어났던 것이 개인으로 파편화된 서울 속에서 마을만들기를 구상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동육아에서 공동체적 청소년문화로, 지역교육네트워크를 전망하다

처음 공동육아를 시작할 당시에는 관계자들의 아이들이 모두 유아였기 때문에 유아수준에서 안전하게 잘 보살필 수 있는 어린이집단위에서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초등학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지역의 문화 등에 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문화와 나아가 겪게 될 청소년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것이 ‘우리마을꿈터’를 낳았다. 이 공간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오가며 어린이문화가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

이 원하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의 설립을 통해 지역 내 교육역량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역량들과 더불어 ‘마을’이라는 지역 공간 속에 수없이 많이 놓여있는 문화적 역량을 연결하여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망(네트워크)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리라고 본다.

3) 돌아볼 일들

지난 10년 동안 마포지역 공동육아 사람들이 해온 일들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이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속에 자리잡아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별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험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동육아 내부의 운영과 별도로 지역의 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겪는 힘겨움도 제기되었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각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 한국사회 교육현실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공동육아로 함께 살기

이 철 호

과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열리는어린이집 조합원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학교

장면 1. 행복한 표정의 아줌마가 낮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아빠보다 더 똑똑하게
키울 거예요” 라고 말한다.

장면 2. 어눌한 아저씨가 철없는 망나니 아들에게 “세상을 다 가져라”고 선언한다.

이런 카피에 기성세대가 그들의 자녀에게 바라는 바, 우리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향해지는 겉으로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들여다보면 극도의 이기심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향한 갈망.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환각제에 취해 있다. 자신의 자녀가 천재라는 환각, 또는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맹목, 불우했던 자신의 과거의 궁핍을 벗어나 풍요로운 삶의 살게 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리하여 정당한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사로 그들의 자녀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 전쟁의

가장 최전선은 학교이며 지식의 획득이다.

우리나라의 육아 환경은 몇 가지 이유로 하여 심각한 비정상에 빠져 있다. 그것은 먼저 육아는 가정의 책임, 특히 주부의 역할이라는 의식으로부터 원인을 두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여성노동력의 사회화됨에 따라 문제가 가중되었다. 일을 해야 하는 부모와 육아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로 인해 육아는 육아 관련 사교육 시장은 비대해져만 가고, 왜곡되고 비틀어졌다. 육아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은 어른들의 욕심과 강박관념이 이런 현상을 빚게 한 근본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하여 요즘의 아이들은 자신만 아는 소항제로 길러지고 있으면,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 있다. 요즘의 아이들은 단적으로 말해 성장한다기보다는 부모의 관리 아래 길러지고 있다. 일상의 시간부터, 학교 공부, 방과후 활동, 취미나 교양활동, 심지어는 친구 관계, 자신들의 꿈, 모두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위한 부모의 희생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학교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숙제를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성생활마저도 단절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생각도 없이, 스스로의 꿈도 없이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진정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거나, 교사의 교육적 활동이 아이들에게 거부되고 있다거나, 치열한 경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 부족하고, 컨테이너 교실에 2부제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있고, 마실 물조차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해 아이들이 그 무거운 책가방에 물통을 하나 더 들고 다녀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희생과 노력은 외경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아니 더 심화되는 것일까?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사회에서 높은 교육열은 자기 지식이 경쟁에 승리해 욕망을 얻게 되는 것, 즉 권력 추구 욕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 서열화 · 획일화 교육

우리 교육의 문제는 약물이나, 총기, 학력저하 등에 있지 않다. 서열화 된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 주입식 암기식 교육 등이 우리의 문제다. 이는 우리사회에는 학교의 안과 밖을 불문하고, 하나의 가치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얻기 위한 살인적인 경쟁, 성적에 의한 서열화, 승리자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무수한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무능력자로 전락하는 패배자들이 학교에 있다. 그렇기에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은 이 경쟁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로 구분된다. 필요한 것만이 선이요, 불필요한 것은 악이다.

2) 공동체성의 파괴

준비된 경쟁자들이 득시글거리는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이나, 학급 단체활동 등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급의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겨레나 민족 등의 가치 또한 승리를 향한 진군에는 방해가 될 뿐이다.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 또한 지식이라는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관계로 의미지어진다.

3) 자율적 개인의 상실

이런 처지에서 아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는 아이의 시간을, 친구를, 희망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엄마가 대신 생각하고, 엄마가 대신 책임을 져 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 입시라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보다는 주어진 지식을 의심하지 않고 암기하는 학생이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수행평가, 과정평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내신 성적이야말로 한층 더할 수밖에 없다. 평가자의 눈에 곱게 비친 아이가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당연, 그렇다면 어릴 적 부모님 말씀처럼,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승리자의 대열에 끼일 것이다.

4) 교육환경

대부분의 성장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의 시설물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주변의 학교에 한 번만 들러 보면 어찌면 30년쯤 전에 우리가 다녔던 학교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지 감탄할 것이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구조나 생활시간 등의 문제다 하루의 생활을 10분이라는 휴식시간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종소리에 의해 의식 없는 동물의 조건반사 훈련처럼 길 들여진 아이들, 통제의 효율을 위해 교장 - 교감 - 부장 - 담임 - 반장 - 부장 - 아이들로 이어지는 중층화된 명령 구조 등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조직 속의 구성원으로 복종하는 인간으로의 역할을 강요한다.

2. 대안으로서의 공동육아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반발로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염원
조각난 개인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써 공동체성의 회복

1) 되찾기 위하여

이런 현실에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잃고 싶지도 않으며, 나를 지키기 위해 집단에서 벗어난 국외자가 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속한 집단을 통해 내가 성장하며, 그 집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공동육아이다. 공동육아를 통해 우리는 현대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술을 마시고, 이웃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그것은 어른들 간의 삶에서부터 단절을 없애야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단절과 고립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어른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하게 실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힘겹게 만들어 냈고, 지켜내고 있는 이 공간이 탁아시설인지, 보육시설인지, 유아교육 시설인지 나는 모르겠다. 뭐라 부르든 시간에 이 공간은 우리가 선택한 대안 공간이다.

2) 함께 살기

공동육아에서 교육 주체는 어린이, 교사, 부모로서 모두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평등한 관계가 중요하다. 함께 산다는 것은 먼저 나를 제대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를 세워야 남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동육아에서 바라는 최고의 교육 목표는 관계맺기일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 아이들 사이의 관계, 어린이와 교사의 관계, 교사와 부모의 관계, 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3) 자연 속에서 자라기

사적인 견해로서 공동육아를 오해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연친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친화는 자연을 학습의 교재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 깃들여 도시를 떠나자는 것도 아니다. 자연이 거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인간이 그것과 어울려 살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공존을 위하여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에게 선이 상대에게 악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이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 또한 자연으로 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지역사회 생활공간 자체를 생태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요즈음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역적인 근거를 벗어나 멀고 불편한 산 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습교재로써의 자연은 될 수 있겠지만 공동체로서의 자연은 되지 못할 것이다.

4) 몸과 생각의 조화

몸이 바르게 되어야 정신도 바르다는 말이 있듯이 몸은 단지 정신을 담는 그릇만은 아닐 것이다. 상품화될 수 있는 지식, 정보만이 가치를 지닌 듯한 요즈음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건강한 몸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또한 말에 의해서만 전달되고, 머리로만 익혀지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져서 내면에 스며든 감각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감각을 통하여 세

계를 체험하고, 그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기에 공동육아는 세밀한 관찰과 체험을 통한 과정이 강조된다.

5) 뼈뼉하게 보기

세상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동육아는 반말이나 별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에는 집단의 규율과 질서가 담겨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연령과 남녀차별에 의한 유교적인 서열 체계가 확고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더 나아가 자아의식이 확립되어야 남과의 차이를 통한 다름과 같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를 알고, 그것의 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 진행되는 관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자라게 해야 한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또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아래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6) 삶과 교육의 조화

학교는 고립된 섬이다. 동네에 있지만 철문을 굳게 닫고 있는 섬이다. 학교의 교육은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오가는 고상한 규칙이나 진리들은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의미 없는 단어들일 뿐이다. 이 이중성 속에서 아이들은 가치의 혼란과 상실을 겪고 있다.

공동육아는 터전에서의 활동이 터전 밖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터전에서의 진리는 터전 밖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러기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마실’이다. 터전에서의 친구관계와 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터전 밖으로도 이어지는 관계맺기기 때문이다.

학벌사회에 대안은 없다⁴⁵⁾

이 철 호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장

대안이 홍수처럼 넘실거리고 있다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문제로 드러난 현실에 대하여 다양한 모색과 실천이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안생리대와 같은 생활용품, 대안적인 먹을거리나 주택, 재생과 자연치유를 통한 대안적인 의료, 자연력을 이용한 대안에너지, 가족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하는 대안가족, 삶과 노동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대안화폐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는 현재의 방식으로 이윤을 저하를 극복할 수 없으니 이윤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투자방안까지 주장되고 있다.

모두가 대안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의 분석과 이에 대한 진단, 처방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이유는 현재의 체제에 대한 극복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안과 현실과의 접촉면에서 보면 대상세계보다는 자기의 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탈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안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충격을 통해 균열을 내는 행동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대안(Alternative)은 대체(Substitute)와 뒤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반응의 심도로 볼 때,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대안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의 대체가 훨씬 더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 이글은 학벌없는사회(<http://www.antihakbul.org>)에서 퍼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문제를 보자. 대체에너지는 석유의 대체물(代替物)로서의 연료로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다. 화석에너지의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시급한 문제이며, 그것이 연소되어버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가능한 자연력을 이용한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에 이르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곡물이 소모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류가 기아와 식물종 다양성 파괴로 위협에 다다를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약탈적이고 공격적인 무한에너지 소모전이 지속되는 현실의 자본주의에 있다. 과잉생산 무한 소비를 부추기는 이윤체제, 공해배출권마저 상품으로 거래하는 자본의 폭력을 그대로 둔 채 에너지원을 석유에서 자연력이나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예상되는 파국의 눈가림에 불과할 뿐이다.

대안의 홍수는 대안교육으로 흘러 들어간다

학교붕괴 운운하며, 공교육의 위기를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쟁과 효율성이 부족한 학교 체제를 바꾸고, 평준화를 해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평가와 성과임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대학교육을 넘어 무상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교육마저 철저히 벽을 세워 그들만의 철용성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탈법적인 조기 유학 붐을 일으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유용한 도구라기보다는 획득해야 하고 소유해야 할 그 자체이다. 한국에서는 과장이 증폭되어 영어는 세계화시대의 생존전략이라며, 영어평가를 통해 점수와 등급으로 모든 학생 아니 국민 모두를 서열화하고 있다. 영어 점수와 등급은 삶의 전 단계에서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나 유명한 토익이나 토플은 대학입시 전형자료를 넘어 국제중이나 특목고 등 중등과정 진학에서의 주요한 변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도 밝혀지지 않은 채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이나 승진에서 벽과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한국 사회 교육 문제를 자각한 이들은 조기 유학과 같은 개별적인 선택이 아니라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 건설운동을 벌여왔다. 이제 10여년을 경과하고 있는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

운동은 급속도로 팽창해 왔으며, 다양한 실천으로 그 영향을 확대해 왔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공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한 대안학교의 설립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안교육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은 않다. 2007년 입시가 끝나고 난 후 서울대학에 합격생을 내서 일약 유명해진 대안학교가 있다. 정작 문제는 그 학교의 이념이나 교육활동이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도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는 데에 있다. 그런데도 언론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헌신적인 열정이 아니라 단지 서울대학에 합격생을 낸 것에만 열광하고 있다.

학벌사회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분탕질하고 있는 셈이다. 일그러진 욕망이 공교육은 물론 대안학교마저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돌파하기 위한 통로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과 서열을 부정하고 대체하려는 대안학교마저 서열화하고 있다.

대안교육마저 대학서열체제와 대학입시로 서열화하는 학벌사회에 탈주공간은 없다. 대안학교가 대학입시를 두고 제도 학교와 경쟁을 하고, 교육소비자들이 입시의 우회로나 지름길로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면 더 이상은 대안이 아니다.

대안학교마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교육의 문제의 근원은 학벌사회다. 학벌사회와 이를 재생산하는 토대인 대학서열체제, 이의 절차적 기제인 대학입시로 인해 한국사회는 지속가능성에 위기인 상황에 놓여있다. 교육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교육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대학서열이 학벌서열이 되고 어떤 학벌을 획득하느냐가 신분이 되는 전근대적인 사회구조에서, 사교육비 경쟁은 결국 소유의 정도로 국민의 등급을 나누게 된다. 이것은 지위의 대물림이 되어 지금의 양극화 구도를 고착화한다. 일류대 학벌 간판을 살 수 있는 극히 소수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오직 박탈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학벌사회에 대안은 없다

학벌사회는 이러저러한 얇은 계책으로 무너질 만큼 허술하지 않다. 개별적인 학교나 학부모와 학생의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정교한 매트릭스는 학벌의 수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문화예술인조차 치장을 요구하며, 그들을 송두리째 벗겨 놓고 있다. 학벌사회의 틀을 그대로 둔

대안은 학벌사회의 성공적인 진입이거나 학벌사회 외부로의 이탈과 다를 바 없다.

학벌타파, 대학평준화, 입시철폐를 더 이상 몇몇 교육운동가들의 상상이나, 또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이상은 선출된 정부의 임기 안에 시도하지도 않을 장기적인 과제 목록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입시철폐 운동, 대학평준화 운동은 단순히 학생과 민중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재규정해 나가는 운동 즉 교육의 사유화를 지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는 운동,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의 지적 - 문화적 역능을 고양시키는 운동,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http://edu4all.kr>)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자. 학벌사회에 대안은 없다. 학벌사회의 근원지인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이외에는. 대학서열체제를 유지하는 근원적인 장치이자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는 입시체제를 부수기 전에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에 나타난 <괴물>, <한미 FTA>⁴⁶⁾

황 윤 옥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야기는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작된다. 한 미군 장교가 “단지 먼지가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독극물이 든 포름알데히드 수백 병을 그대로 싱크대에 버리라고 명령한다. 한국인 직원의 항의는 그대로 묵살되고 포름알데히드 수백 병이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개봉 32일만에 1천 2백만 관객이 보았다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이렇게 시작한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 2002년 용산미군기지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의 지시로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처리에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480병이 한강으로 무단 방류되었다. 맥팔랜드 사건으로 불린다).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항의에 대한 맥팔랜드의 답은 이렇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미국과 지금 우리는 한미 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들이 서로 협정을 맺은 상대방 국가에게만 무역특혜(보통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를 주자는 것이다. 여기서 협정을 맺는 품목은 자동차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금융, 의료, 교육 등 그 나라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분야를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단 협정을 맺고 나면, 두 국가사이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이제 자유경쟁을 통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취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유경쟁을 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객관적인 규칙을 통해 자유경쟁을 보장받는다는 스포츠경기조차 산술적으로 똑같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홈경기의 이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들어간다. 우리의 걱정은 한미 FTA가 미국의 홈경기라는 데서 시작한다.

왜 미국의 홈경기인가. 이미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영화

46) 이 글은 개똥이네놀이터 - 개똥이네 집 2006년 10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괴물>로 돌아가 보면,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자, 미국은 피해자인 강두를 ‘바이러스’를 가진 가해자로 만들어 잡아놓는다. 괴물의 정체를 파헤친다며 에이전트 엘로를 뿌려대는 것도 미국이다. 원인제공자인 미국이 어느새 해결사가 되어있는데, 그 미국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시민을 한강에서 시민을 떼어놓고 강두를 잡아 머리를 갈라보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제’ 만 없애면 된다. 어이없는 수술에 강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항의하면 아마 대답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영화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지 말자, 하나하나 다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현실은 영화보다 더 참담하였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되는 한미 FTA협상을 지켜보면 이러한 미국과 우리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조차 없는 것 같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군사와 경제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과 마치 서로 동등하게 이익을 나눌 것처럼 보인다. 진정 그러한가. 한미 FTA가 하나의 칼이라면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칼날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칼을 쥐고 있다고 해도 좋은가. 가슴 서늘한 걱정과 우려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처음부터 협상 자체가 영어로만 진행되었고, 3차 협상에 와서야 (그것도 국민들이 계속 주장하여 겨우) 한글로 된 협상안을 함께 만들고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이후의 협상을 끌어나가는 힘이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미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넘겨 준 셈이다. ‘투자자 - 정부제소권’은 또 어떤가. 이 권한은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우편회사에게 제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가 우체국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자유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제소권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제소권을 실행에 옮겼을 때 갖는 현실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분명 다를 것임은 분명하다.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게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라거나, 기술이전을 하라거나 부품을 우리나라의 것을 사용하라거나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생산과정을 만들라거나 하는 당연한 의무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무를 요구하면? 기업 활동을 방해받았으니, 미국기업은 투자자 - 정부제소권을 이용하여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된다.

범위가 포괄적 협상이라는 점은 더 치명적이다. 현재 미국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인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내용만 보아도 법률, 세무, 회계, 특급배달서비스, 해운서비스 등 중요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육이나 의료도 자

유롭지 못하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들은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문화와 정신, 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다. 법률이나 세무도 그렇지만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한 거래이다. 우리 정부는 초중고 등 공교육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미 미국은 사교육(SAT)과 온라인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던져 놓은 상태이다. 미국 유명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그대로 유학준비과정이 되고, 미국 유학생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교과서로 영어공부를 하고, 미국의 대입시험인 SAT를 국내에서 치르면서, 미국을 향한 해바라기로 살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열등시민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를 우리의 미래를 떠올리는 것은 정말 암울하지만, 한미 FTA협정이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들겠구나하는 실감이 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정작 자신들은 원산지 규정 등(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옷이라도 실이 중국산이면 중국옷이 된다. 중국 실을 수입하여 만드는 옷은 중국산으로 분류되어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일정하게 막아놓고 있다. 미국은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스위스와 협상 때에는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아예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어떤 형질을 가졌는지조차 모르는 식품들을 우리의 밥상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다.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하였다)

게다가 이번 한미 FTA는 돌아나갈 곳이 없는 막힌 협상이다. 한번 체결된 조항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한번 개방한 분야는 다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많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쯤 되면 당연한 의문이 생긴다. 이런 FTA를 왜 정부는 이토록 서두르는 것일까. 정부의 답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하자니 옛날하고는 달라서 요즘은 수입도 같이 해주어야 한다. 미국은 큰 시장이니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질 것이다. 또 우리의 시장도 미국처럼 선진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하다보면 실력도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상호 협정이다 보니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보다 약한 부분에서 손해가 생길 텐데, 그 부분은 농업과 서비스업이다. 그 부분의 손해는 다른 부분에서 벌어서 도와주면 된다. 또 미국 같은 선진 국가와 경쟁을 하다보면 사회적인

양극화는 더 커지겠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의 수입이 많아지면 사회안전망에 더 투자하면 된다. 주변국보다 개방에 뒤처져 아픔을 겪었던 구한말의 실패를 생각해보면 좀 위험하다고 개방을 미루는 것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 할 바에야 한꺼번에 통째로, 빨리 해치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정부의 답변을 들으니 우리가 미국에게 내어주는 것이 농업과 서비스업임이 분명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밥상과 교육, 의료, 법률, 세무 등 생활방식을 미국 앞에 그대로 내어 준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 벌어서 돈으로 보상하면 되는 분야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에 대한 분야들이다.

다른 점은 다 접어두고라도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인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는데 쓰일까? 다시 잠시 영화이야기로 돌아오면, <괴물>의 흥행은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많은 관객을 동원하여 우리 영화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반갑고, 그 배급방식이 할리우드를 닮았다는 점에서는 슬프다. 말하자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할리우드식으로 홍보나 배급에서 우리 영화중에서 될 만한 영화에게 몰아주기를 한 셈이다. 경제라고 다르겠는가. 철저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만이 인정되는 시장의 흐름에서는 성장의 과실은 더 성장하기 위한 투자로 계속 이어질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구한말을 들먹이며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마치 쇠국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이없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무역의존도 70%는 대외개방도 70%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개방을 하여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개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방이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구한말이야기를 하니 영화 한 편을 더 얘기해보자. 강우석 감독은 그의 영화 <한반도>의 포스터를 통해 ‘지난 200년간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라고 물음을 던진다. <한반도>는 1896년과 2006년의 현실을 번갈아 보여주며, 잃어버린 국새로 상징되는 우리의 주권에 대해 말한다. 한미 FTA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이 ‘주권’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모든 행보에는 군사적인 이해가 걸려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는 FTA는 군사동맹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한미 FTA협정의 바탕에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거래는 결국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는 거래가 될 것이다.

아편전쟁을 기억하는가. 영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중국으로부터 영국으로 건너간 것은 차였고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들어 온 것은 아편이었다. 아편이 단순히 결제수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아편을 중국에서 거부하자 영국이 택한 수단은 전쟁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편 전쟁을 치루면서 중국은 무장해제 되었다. 이번 한미 FTA는 우리는 미국에게 차를, 미국은 우리에게 아편을 주는 거래이다.

영화<괴물>에서 관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마지막에 현서가 정말 죽었는가이다. 감독은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 현서는 왜 죽는가. 온 가족이 살리려고 했던 가장 약자인 현서는 자기보다 더 약한 꼬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약자의 연대, 감독은 이것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한다. 이번 한미 FTA는 미국이 가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 거래>임은 분명하지만, 결코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유경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FTA, 곧 자유무역협정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민중무역협정은 올 해 5월에 볼리비아가 제안하여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는 물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은 다국적기업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민중무역을 제안하며 ‘자유무역’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무역’을 주장하였다.

한미 FTA는 분명 미국의 홈경기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공정 거래’를 위한 의지와 실천이 있다면,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길이, 어렵지만 있을 것이다.

4. 희망을 만드는 보육이 되자⁴⁷⁾

황 윤 옥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1.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즈려뺏고 가시옵소서

평안도 약산 시인은

노래했으나

뺏고 가다니 사치하잖아요

먹었던 말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게 했지요

.....⁴⁸⁾

먹었던 말입니다.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이 구절이 요즘 말로 하면 ‘가슴에 꽂혔다’. 가난한 시절, 뺏을 진달래가 어디 있는가. 진달래는 감상하는 꽃이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워줄 양식이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이야기하면서, 보육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웬 시 타령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육을 말하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절절한 현실임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요즘 보육예산도 많아졌다고 하고, 이 곳 저 곳에서 보육이 중요하다고 하니 보육도

47)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이 글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토론문입니다.

48) 김규동 시인의 “육체로 들어간 진달래”라는 시의 두 번째 연이다.

살만해졌구나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보육현장은 진달래를 감상하는 것이 사치일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는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좀 안타깝고 그런 일이 아니다. 보육정책 역시 장밋빛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현시대를 읽는 주요한 열쇠말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육아현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아’가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것이다. 가족 안에서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함께 크던 육아의 방식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사회적으로도 하나하나의 아이를 개별가족 안의 아이로만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사회적 자원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정부의 입장에서조차 저출산이 사회적 지각변동을 불러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양육지원을 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즉, 육아 문제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육아는 정부와 시민사회, 육아시설, 가정 모두의 책임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모인 자리라 생각한다.

2.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들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안의 미래이다. 우리 아이들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며, 필요한 성장을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3조에는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누가 키울 것인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답은 모든 국민이다. 영유아보육법 제 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즉 정부와 시민사회와 육아지원시설과 가정이 모두 함께 키워야한다. 각각의 역할과 책임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여 사회적 양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자.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 놀 권리,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처럼 돌봄의 사회화, 육아의 사회화를 주제로 한 시민사회포럼을 기획, 구성하여, 육아가 이제는 가정이나 정부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온 사회의 책임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육아정책과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중요하다. 시

민사회의 지지와 동의가 없이는 사회적 육아의 담론을 공유할 수도, 육아지원사업의 공공기반을 확보할 수도 없다. 시민사회 역시 육아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견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 계층과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육아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제안할 필요도 있다. 보육시설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가정과 보육시설, 사회는 협력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관계를 구축해야하며, 그 핵심은 참여에 대한 의지와 제도화이다. 함께하는 육아를 통한 어른들의 인식변화는 어른들의 생활변화로 나타나고, 넓게는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 현실을 바꾸는 실천방안들이 중요하다

1) 기본보조금제도와 아동별 지원에 대한 걱정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들 요즘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비상입니다.

인구수는 곧장 교부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이 위장전입을 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에게 전입 할당량까지 정해줄 정도입니다..... 한 사람 늘어나는데 한 39만 근 5000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경쟁적으로...”⁴⁹⁾

아동을 중심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한다는 것이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본보조금제도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이용가정의 보육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이다. 기본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발표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동별 지원이라는 지원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바로 위에 있는 뉴스 얘기이다. 지자체들이 인구 1명당 얼마로 책정되는 교부세 때문에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내용이다. 기본보조금제도를 비롯하여 아동별 지원방식은

49) 2004년 12월 6일 KBS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지자체도 위장전입하는데, 보육시설은 그럴 리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하나 더 말한다면 기본보조금제도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에 실제로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도 면밀히 따져보았으면 한다.

2) 아직도 ‘8시간 노동제’를 외치는 현실

8시간 노동제는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8시간 노동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지 50년도 더 지났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직도 보육현장에서는 아직도 8시간 노동제를 무슨 꿈의 구호처럼 외치고 있다. 보육시설은 12시간 열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교사들이 8시간만 노동할 수 있으려면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정규교사의 수가 확보되든가 대체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간단하고 분명한 상황인데, 아직도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12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다. 오늘 발표문에서도 보육이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나 사회적 대우에 대해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가격규제예외시설에 대한 간단한 손익 계산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무궁화호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20분이 걸린다. 그전까지는 꽤 괜찮은 기차였던 무궁화호가 KTX가 개통되면서 서민용 열차 같이 생각되고, 너무 느린 것 같이 여겨진다. 고급보육수요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가격예외시설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가격예외시설을 인정했을 때의 이점은 고급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킨다는 것이고, 그 상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니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예상되는 폐해는 보육서비스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규제예외시설을 허용해도 아주 적은 수여서 보육현장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예산 절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고급보육수요의 만족과 보육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 하면 된다. 아니 이 답이 그렇게 어려운가.

4) 공공보육시설도 없는데, 어디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보육은 비영리여야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육아영역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자본영역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로 가면 경제적인 힘을 창출할 수 없는 아이들은 대상화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육아는 자본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지지기반이다. 당연히 보육시설은 비영리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해, 특히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민간보육시설은 ‘돈을 번다’와 ‘안 번다’ 라는 질문이 있으면 어느 쪽에 서는 사람이 많을까. 그러나 정작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돈은 커녕 운영비도 원장 개인통장에서 꺼내서 쓸 판’이라는 한숨도 많다. 민간보육시설을 둘러싼 이해와 오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말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안들이 나와 주어야 하는 일들이다. 분명한 것은 보육시설의 비영리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민간보육시설을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공공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5. 아이들에게 놀이는 무엇인가요

놀이 · 노래는 어떻게 하나요

이 홍 수

놀이와 노래 모둠안내자

1. 놀이란?

놀이는 아이들의 생활이자 생명력의 표현이고 삶 자체다.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놀지 궁리한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운동능력을 갖추어 나간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는 새롭고 신기한 작은 세상을 만들어 그 속에서 주인이 되어 풍부한 경험을 한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또래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배우고, 느끼며 커 나간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성취하고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실패와 불안, 갈등을 놀이 속에서 풀어나가기도 한다.

그럼 우리 놀이노래란 무엇인가?

예전부터,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를 말하는데, 이 속에는 우리의 민족성이나 자연환경, 우리의 생활모습들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말 ‘놀’에는 원초적으로 놀이, 장난, 소리, 춤, 놀음, 씬, 내기 등의 뜻이 아울러 함유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놀이 속에 다소간 남아있다. 우리 조상들은 놀이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매개로 파악하였기에 우리 놀이노래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풍부하고 잘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2. 놀이의 교육적 의미는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게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문제 해결력, 창의성을 자극, 사회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그리고 특권 의식이나 이질적인 차별을 배격하고 감정의 연대를 통한 평등한 삶을 가르친다.

특히 우리 놀이노래는 협동심을 길러주고, 놀이를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시간적인 초월성이 깃들어 있다. 또 우리 놀이노래에는 규칙이라는 엄격한 심판기능이 짙게 배어 있고, 지적기능이나 약삭빠른 단순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현대적인 유사놀이와는 달리 아이들의 전래 놀이는 그 놀이 자체가 목적으로써 전인적 교육과정을 수반한다고 한다.

3. 놀이는 무엇보다도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

예전 삼월삼짇날에는 부녀자들이 봄놀이를 갔었다. 이 ‘화전놀이’는 동네 며느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 다른 자연 속에서 화전도 부쳐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며 실컷 놀다 오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행사이다. 화전놀이를 가기 전에는 물론 시어머니께 허락도 받고, 음식도 준비를 해서 이른 아침에 부녀자들과 모여서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간다.

그런데 막상 화전놀이를 즐긴 시간을 따져보면 오고가는 시간 빼고 8시간 정도가 될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1년을 8700시간으로 볼 때 이 화전놀이의 8시간과 견주어 본다면 8700:8, 아주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놀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놀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놀이 경험의 질이 얼마나 깊었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아침 일찍 마을을 빠져나온 부녀자들은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동산이나 들판에서 놀이판을 벌인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날만큼은 마음껏 즐긴다. 이날 춤추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이나 술을 마시면서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밀에 부쳐진다. 화전놀이를 함께 했던 사람들과만 통하게 되

는 이들만의 놀이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화전놀이를 다녀오고 나서 물론 다 같이 모여서 품평회 같은 이야기로 서로의 글을 듣고 하면서 동네 며느리들은 놀이 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음 화전놀이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다. 비록 8시간 정도를 일상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릴 정도로 재미있게 놀았던 것이다.

화전놀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화전놀이처럼 얼마나 누구에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과 놀이노래를 해보려는 것은 8700시간 : 8시간에 해당하는 놀이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놀이의 다양성보다는 8시간에 해당하는 ‘놀이 경험의 질’을 아이들에게 주고자 한다.

어릴 때 공기놀이 한두 번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기놀이를 하려면 우선 공깃돌들을 모아야 했다. 아이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공깃돌로 적합한 것들을 치마폭에 한가득 모아온다. 그것을 다 같이 모아놓고, 다시 한 번 적합한 공깃돌을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 너무 작은 것은 버리고, 조금 큰 것은 갈거나 귀퉁이를 깨서 적당한 공깃돌 크기로 만든다. 그리고서야 본격적인 공기놀이를 할 수 있다. 공기놀이를 다 한 뒤에는 놀던 주변 어딘가에 묻어두거나 숨겨두고, 계속 공깃돌을 보충해가며 썼던 경험들이 있을 거다.

이 공기놀이를 살펴보면 전 놀이와 본 놀이, 후 놀이로 3단계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3단계 놀이 모두에 마음을 주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한때 백화점식의 전래놀이 캠프, 전통체험 등이 유행했었다. 아이들이 이 놀이마당을 통해 놀이를 많이 접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놀이를 공부한 1세대들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겨울캠프에서 신나게 놀다 온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재밌다고 답한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반지의 제왕을 보고 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의견을 물어보면 역시 재밌다고 답한다. 이 재밌다고 하는 그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것은 놀이가 일상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소풍만 해도 요즘 소풍은 그 8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쉽게 먹어 보지 못하는 김밥을 소풍 갈 때만은 먹을 수 있다는 설렘으로 소풍을 기다렸다. 예전에 소풍! 하면 전설부터 나온다. 어느 학교는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옛날에

수위 아저씨가 구렁이를 죽여서 어찌구... 옛날에 무서운 선생님이 어찌구...)

요즘은 소풍과 일상이 구분이 안 된다. 김밥도 언제나 먹을 수 있게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소풍을 가도 예전 화전놀이의 8시간 안에 있는 경험의 질에 못 들어간다. 아이들 스스로도 소풍가는 날과 전날의 구분이 안 된다.

예전엔 소풍 가는 날 정말 비가 오면 그냥 교실에서 놀게 되는데 그것조차 8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때와 다른 분위기를 접하는 것으로, 평소에 먹어 보지 못한 음식, 무지막지 마시는 술, 춤, 노래, 놀이 등을 접할 수 있다. 그러한 놀이들이 8시간 안에 들어갔다면 시간이 지난 후라도 자꾸 생각이 난다. 요즘은 교육 시간표 내에 놀이가 들어가 있는 게 그러한 경험의 질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일인 것 같다.

아이들이 한두 가지 놀이라도 재미있게 놀아 봤을 때 다른 놀이도 그렇게 바꿔 놀 수 있다. 한 가지 놀이에 푹 빠지고 나서야 다음 놀이로 넘어가는 놀이(호흡)를 가져갈 수 있다. 아이들이 심심해 보여서, 분위기 바꾸려고 주는 놀이들을 보면 경쟁적인 놀이가 되기 쉽다. 전래놀이가 끊어진 것은 어른이 끊고 막았기 때문이다. 어려서 놀이에 충분히 빠졌을 때 다른 세계에도 빠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니일은 ‘어린이 시절은 놀이시대이므로 어려서 이러한 놀이에 대한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발산시켰을 때에 비로소 어린 시절의 놀이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힘들고 따분한 일이라도 기꺼이 부딪쳐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사는 행복한 어른으로 자란다.’고 했다.

놀이를 하는 사람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놀고 싶은 마음을 찾아서 내 속에 놀이에 대한 깨우침이 생겨야 한다. ‘가짓수를 늘리는 교육’보다는 덩어리가 작게 아이에게 그 놀이의 재미를 찾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교사라면 아이들 연령에 맞는 놀이를 찾아가야 한다.

4. 놀이에는 ‘전승의 힘’도 필요하다

놀이에는 ‘경험의 질’ 못지않게 ‘전승의 힘’도 중요하다.

딱지놀이가 왜 사라진 놀이인지 아는가? 이유는? 요즘은 종이가 흔하다는 것이다. 놀이가 전승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놀이 재미의 질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것인데, 놀이는 아이들끼리 익

히고,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 사람이 느끼는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

예전의 자치기 같은 경우 평균 3-4시간을 노는데 그래야만 놀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프로그램으로 2-30분을 자치기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자치기란 아무런 경험을 줄 수 없다. 상대방이 쳐낸 자를 맨손으로 척 잡았을 때의 그 손의 짜릿함, 울울함, 전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놀아봐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치기란 놀이가 딱 들어 올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엔 놀이판에 끼들 때를 생각해 보면 초등3-4학년정도가 되어야 놀이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전에는 깎두기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기대와 바람으로 놀이를 지켜만 보다가 언니들이 시켜주었을 때 그 쾌감. 그 속에서 놀이는 전승된다.

5. 놀이·노래를 위한 부모의 자세

아이들을 제대로 놀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어린이 직접 놀아줌으로써 놀이방법을 알게 하고, 결국 어린이들이 자기네끼리 놀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놀게 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한다.

어른은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 놀이가 이 아이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놀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중요한 교육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놀이지도가 서툴고 익숙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른들의 그 성의는 아이에게 통하는 법이다.

- ① 놀이 걱정을 하지 말자. 어떤 놀이를 줄까?
- ② 예전의 동네 형, 언니처럼 순교적인 자세로 놀이를 전달하자
- ③ 그렇다면 놀이노래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겠다.

부모가 먼저 놀고 있으면 재밌게 보여준다. 부모가 재밌게 놀지 않는 놀이는 아이도 재미가 없다. 놀이에는 구경꾼이란 있을 수 없다. 놀 때 같이 놀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형들이 노는 걸 보고 그 판에 들어가서 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놀이는 몰입이다. 놀이는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 스스로 놀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놀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다. 놀이가 아무리 좋아도 체시가 될 때는 이미 놀고 있는 판이 깨지게 된다. 놀이에 끼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없다는 거다. 놀이는 아이들 상태를

보면서 방법만 제시하고 던져주면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노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들어가며 부르는 노래

<돼지불알>

엄마야 뒷집에 간께 돼지불알 삶더라
좁 주더나 좁 주더라
맛이 좋더나 맛이 좋더라
찌 찌 찌릉내 나더라
꾸 꾸 꾸릉내 나더라
짚내 끈내 팔내 나더라...(계절별로 바뀔 수 있음)
떡해떡자 부형/ 양식없다 보항/ 꺾다하지 부형/ 어찌값노 보항

<서로 알리며>

이 서방 이 서방 일 하러 가세
김 서방 김 서방 김매러 가세
조 서방 조 서방 조 털러 가세
신 서방 신 서방 신이나 삼세
배 서방 배 서방 배 사러 가세
방 서방 방 서방 방석이나 트세
우 서방 우 서방 우물이나 파세
오 서방 오 서방 오이따러 가세
유 서방 유 서방 유쾌히 노세

2) 놀이노래를 함께 하며

<손뼉치기>

- 채를 감아 던지면 곳곳하게 서서 빙글빙글빙글빙글 잘도 도는 팽이
팽이하고 나하고 한나절을 돌고 팽이따라 빙글빙글 나도 따라 돌고
- 조선사람 중국사람 웃음내기 합시다. 웃으면 안 됩니다. 이가 보여도 안 됩니다. 합!

<다리세기>

- 오리 먹던 밥 그릇 남 줄라니 아깝고 딸 줄라니 더럽고 내나 먹자 홀 - 짝
- 한 알때 두 알때 삼사네 네비 오드득 뽀드득 제비손이 구손이 종제비 빠 땅

3) 다 같이 놀아 보세!

- 고추장 된장
- 놀 귀냐 들 귀냐
- 안반 짝게 쪽 짝게
- 콩 섬 팔 섬 콩떡 찜자 쑥떡찜자
- 소 탄놈도 꺼덕 말 탄놈도 꺼덕

- 황소 씨름 고등어 씨름
어디서 배웠나 ()에서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나 ()한테 배웠다
어떻게 넘기나 요렇게 넘긴다

- 송아지 따기(송아지들과 송아지주인 - 송아지도둑)
저 달 봤나 난도 봤다
저 해 봤나 난도 봤다
저 별 봤나 난도 봤다
내 송아지 어딴나아

- 닭잡기 놀이

살팽이 - (꼬시듯) 너 벼슬이 곰두곰두 곱다

닭 - (알뜰게) 암만 고와도 널 주랴.

울타리 - '악' 동시에 울타리가 쓰러진다.

살팽이 - 니 집이 왜 쓰러졌나?

닭 - (풀이 잔뜩 죽어) 7월 장마에 다 쓰러졌다.

살팽이 - 니 집 고쳐줄게 새끼 한 마리 다오.

닭 - 그래

살팽이 - (쓰러진 울타리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운다) 이차. 으라차차.
자, 이젠 다 고쳤으니 니 새끼 다오.

닭 - 싫다.

살팽이 - 뭐라고? 그럼 널 잡아먹겠다.

4) 이야기 하자

<발음을 익혀보고>

- 저 건너 말뚝이 소맨 말뚝인가 말 맨 말뚝인가

- 저 지붕케 콩깍지가 칸 콩깍진가 안 칸콩깍진가

- 저건너 김부자네 시렁위에 얹힌 푸른청청 조좁쌀이 쓸은 푸른청청조좁쌀인가
아니쓸은 푸른청청조좁쌀인가

<짧은 이야기>

-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발랐더니 고대로 났더라

- 참나무가 방구를 뽕 뼉니까 참나무가 참아라 하고 대나무가 땃끼놈 하더라

-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치마를 입고 꼬부랑 머리를 하고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간
지를 데루고 꼬부랑 질로 가다가 꼬부랑 똥이 매려워 꼬부랑 남게 올라가 꼬부랑 똥을 똥
거든 꼬부랑 똥을 누이까네 꼬부랑간지가 꼬부랑똥을 납죽 묵어뿌니까네 꼬부랑할머니가
꼬부랑짜찌로 꼬부랑간지를 딱! 때리니까 꼬부랑깨갱 꼬부랑깨갱 니똥먹고 천년사나 내
똥먹고 만년살지 하매 도망갔다가데...

공동육아 아이들의 놀이와 놀잇감⁵⁰⁾

이 부 미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공동육아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개념

무릇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학습한다는 전제가 근대 이후 제도적·비제도적 양육 및 교육환경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힘의 원천이기에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오늘 날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 및 아동들의 삶 속에서도 놀이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놀이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각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공동육아에서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인식, 실천되고 있다. 즉 아이가 잘 놀아야 잘 크고 잘 산다는 것이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놀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내부적으로는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는 도구적 방식이기 보다는 삶의 원형으로 보는 방식이며, 사회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현상을 상쇄하기 위한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점을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놀이는 곧 삶이다 -

아이들에게 놀이는 곧 삶이다. 주체적으로 놀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자기 시간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고 삶을 자발적으로 즐겁게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뿔소교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1-1.통권73호, 2004.봄)

50) 이 글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년 봄, 여름, 겨울호(통권 85, 86, 88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 놀이는 아이의 생명력 자체다 -

아이는 한 순간도 멈춤 없이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 사고력, 감성, 상상력, 창의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도 쉼 없이 자라고 있다. 우주가 한 순간의 멈춤 없이 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출하는 생명력을 아이들은 어떻게든 발산해야 한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는 바로 이 같은 아이의 총체적인 생명력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경우의 하나다. (김정화-부모, 여성학자, 공동육아, 제4권9호, 통권38호, 1998.)

- 삶이란 노동과 놀이의 합이다 -

나는 '공동'이라는 말을 '함께 또는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말로 풀이하고 싶다. 삶이란 노동과 놀이의 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농'을 곧 죽고 사는 인생의 과정 전체로 본 것이다. 따라서 '논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이란 함께 일하고 함께 노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송순상-부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4-2, 통권 78호, 2005. 여름.)

- 놀이는 아이의 생존력이다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걸려있는 교육 강박증과 교육의 상업화는 생명에 대한 상식적 사고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생명은 학습되고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해가는 존재라고 본다. 불확실성의 문명전환기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력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상황을 헤쳐 나가고 새롭게 삶을 일구어갈 수 있는 생존력이다. 놀이는 아이의 생존력 자체다. 아이를 길들이는 것이 교육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교육(敎育)'이다.

(김정화-부모, 여성학자, 공동육아, 제4권9호, 통권38호, 1998.)

이 발언들을 정리해서 해석해 보자. 어린이는 완벽한 하나의 소유주이며, 총체적인 생명체로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놀이를 통해 발산하고 표현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아이는 삶을 즐기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시각도 볼 수 있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에게 놀이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도구이기 보다는 생명체의 에너지, 우주의 원리, 삶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공동체 의식의 유산이라는 점도 독특하게 흥미롭다. 공동육아의 '공동'과 일과 놀이를 삶으로 연결한 점이 그러하다. 여기서 일과 놀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아마 이러한 의식이 공동육아 교육현장에서 놀이와 학습의 연결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개인 놀이보다는

전통문화적인 공동체 놀이를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아이도 부모도 사회도 다 힘들어하는 지나친 교육열 현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은 상업자본의 농락으로 인한 교육 강박증으로 전락되었는데 이 결과가 결코 불확실성의 미래사회의 적응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진단을 공동육아 구성원들은 한 것이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새로운 교육적 실천 안에서 찾아본 놀이의 개념은 삶이고 생명력이고 노동과 합일체이며 그리고 육아를 통한 사회적 변혁의 중요한 한 실천형태임을 알 수 있다.

2. 공동육아 놀이문화의 특성

삶과 생명의 원형으로서의 놀이, 과잉학습에 대항하는 사회적 변혁의 한 실천 형태로서의 놀이는 공동육아의 문화적 성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공동육아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가 교육에서의 공간과 시간과 체험이다. 공간과 시간과 체험이라는 현상학적 주제는 공동육아의 독특한 놀이 환경의 문화적 요소로도 기능한다. 따라서 먼저 공동육아에서 공간과 시간과 체험을 어떻게 의미 규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놀이 환경의 문화적 요소 : 공간, 시간, 체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현 교육의 형태를 지배하는 근대교육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야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근대교육의 시간개념은 표준화된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현재를 구속하고 학생의 관심, 욕구, 능력에 관심 없이 규격화된 시간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근대교육의 공간개념에서는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지정 좌석, 줄 그리고 교실과 학교 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대교육은 최대의 학생을 최소의 시간에 최소의 수고로 산업사회와 훈육적 학교가 요구하는 신체와 마음으로 규격화하였다. 우리 사회의 근대교육도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제 통치시기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학교와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이기범, 2000).

시간과 공간과 관련한 학교의 이미지와 유아교육 기관의 이미지는 표면적으로 다를 것 같지

만 그 이면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만4,5세를 기준으로 볼 때,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교사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다. 한 교실 안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가르쳐야 할 학습의 양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보다는 훈육이, 놀이보다는 학습이, 자율적이기보다는 타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교사에게 표면적인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결정권은 교사 자신에게도 유아에게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유아교육 기관의 규모(전체 유아수)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할 수 밖에 없다.

좋은 교육현장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유의하여 구성원들의 욕구와 생활리듬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시간에 맞추어 공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구성원들이 소망해서 공유하는 공간적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다. 자연과 가까운 공간이면서 소통이 원활한 공간이며, 아이들이 놀 곳이 많은 공간이다. 그리고 모든 유아들이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활동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운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운영은 아이들에게 균질적인 경험이 아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공간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탐구, 학습에 유용한 ‘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육자들은 또한 공간이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호작용과 건설적 학습을 자극하는 자극제로 충만한 교육적 ‘내용’을 가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좋은 교육현장은 교육이 교실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교실을 넘어서 “실제 세계”를 접하고 그 속에서 “실제문제”해결하도록 장려한다(이기범, 2000).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우, 매일 아침 두 시간의 “나들이”는 지역사회 안팎의 체험학습이면서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밀한 놀이 체험이다.

놀이와 관련한 공간, 시간, 체험의 중요성은 다음의 놀이의 특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공동육아 놀이의 특성

1) 놀이의 기능

놀이가 어린이의 성장과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 또 어른들은 노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지를 알아보자. 다음의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공동육아의 공식적 표현을 통해 공동육아

가 실천하는 놀이의 기능을 포착할 수 있다.

- 놀잇감과 놀이 -

- * 공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인 곳
- * 계절에 맞는 바깥놀이가 생활화된 곳
- * 자연, 사물과의 직접 만남을 될 수록 많이 제공하는 곳
- * 어린이용 플라스틱 대량생산 장난감이 아닌 생활용품과 자연물로 놀이하는 곳
- * 전통문화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곳
- * 미술, 음악, 체육, 놀이를 분리하지 않는 곳
- * 정규교육 시간 후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전 앞에 아이들을 방치해두지 않는 곳
- * 숫자, 글자 등을 인지발달이란 명목 아래 외우도록 강요하지 않는 곳
- * 유니폼과 모자 등이 없는 곳
- * 여자와 남자의 구분·차별이 없는 곳
- * 서로 다른 나이의 아이가 서로 돕고 생활하며 어우러져 노는 곳
- * 장애 아동과 함께 서로 다르지만 같이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곳

이 내용을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하자면 자연과의 어울림, 문화와의 어울림, 인간과의 어울림이다. 즉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해지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풍부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과 문화(학습)와 인간을 포괄하는 놀이행위는 쪼개진 시간과 공간 및 활동 안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야말로, 놀이가 생활이고 삶이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자연과 문화와 인간과 친숙해지는 놀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교육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배려를 위한 교육 환경적 맥락이 공간의 개방성, 시간의 개방성, 체험의 존중이다.

2) 공간의 개방성

공간의 개방성은 사실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놀이든, 교육활동이든 시간이 촘촘하게 폐쇄적이어서는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육아의 공간의 개방성이란 공간의 구조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간구성 -

- * 나무, 흙, 바람, 햇빛, 물과 마당이 있는 곳
- * 강아지, 물고기, 곤충 등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
- * 물장난, 모래장난을 할 수 있는 곳
- * 건물 안팎이 열려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곳
- * 작더라도 텃밭이 있는 곳
- * 바깥나들이(야산, 빈터놀이)가 생활화된 곳

놀이의 기능에서 언급한 자연, 문화, 인간과의 친밀성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친숙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방적인 자연환경과 생명체와의 만남이 놀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건물 안팎이 통하게 되어 있어 아이들을 옥죄이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아이들은 물과 모래, 흙장난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 운영은 문화(학습)와 인간과의 소통과 관련된 것으로, 아이들이 안과 밖을 늘 자유롭게 드나들며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교실)과 방을 넘나들며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한 장소에서만도 놀 수 있다. 이 점은 일반 유아교육기관의 공간운영에서 보면 부럽거나 아니면 썩 혼란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정말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간의 구조적인 측면과 공간을 운영하는 교육철학의 다름에서 오는 것일 뿐이다. 공간은 무릇 공간에서 살 사람들(어린이, 교사, 부모)의 교육관이 반영되고 실현되는 장소이다.

3) 시간의 개방성

공동육아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은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열려있고 리듬이 흐르는 체계를 갖고 있다. 자유놀이만 보더라도,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아침 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놀이를 실내와 실외에서 즐긴다. 여기서의 자유놀이는 일반 유치원의 공간과 시간과 교구가 세트로 갖추어진 자유선택 놀이와 비교해 볼 때, 시간과 공간과 놀잇감을 스스로 찾아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선택이 더 주체적으로 필요한 놀이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교사가 모이자는 요청을 몇 번을 할 때까지 버텨기며 논다.

이 때 하는 놀이는 실내에서는 보통 역할놀이,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책보기가 이루어지고 실외에서는 모래놀이, 물놀이, 싸움놀이, 약간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놀이, 비석치기, 줄넘기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유놀이는 점심 먹고 낮잠 자기 전에, 오후 간식 후 오후 활동이 끝난 뒤, 집에 갈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진다. 하루 일과 중 약 2-3시간 정도 이러한 자유놀이를 즐길 수 있다.

보통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지지만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분을 넘지 않는다. 영역을 돌 때마다 치우는 시간을 빼면 20분이 채 안 된다. 이에 비해 공동육아 어린이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1시간 이상도 원하는 놀이를 몰입해서 놀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두 시간의 바깥나들이는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노는 풍부한 놀이세계 그 자체이다.

4) 체험의 존중 : 놀이의 몰입

공동육아 어린이들은 자연에서의 나들이, 자유놀이, 놀이스러운 교육활동들 속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된다. 특히 자연으로의 나들이는 아이들의 오감각적인 체험과 함께 온 몸을 놀리는 활동이다. 자연은 인간의 온 몸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나들이는 아이들의 발산적이며 역동적인 활동이다. 이 발산을 호흡으로 말하자면 날숨이다. 그러나 이 날숨에도 발산의 정도가 있는데 이는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나들이에서 아이들은 걷고 뛰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타고(썰녕쿨,나무) 노래 부르고 폴피리도 불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말하고 웃고 울고 논다. 이는 나들이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무엇이گی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생생한 발산이며 감각적 체험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연에 흠뻑 빠져서 활동하고 논다. 자연적 놀잇감은 잠시도 아이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 나무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 하는 아이, 처음 타 본 썰녕쿨 그네를 40분 내내 연습해서 내려올 때는 선수가 다 된 다섯 살 박이 여자 아이도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자연 안에서 유감없이 펼쳐 본다. 그래서 자연은 아이들을 초대하고 아이들은 그 초대에 기분 좋게 응하는 것이 나들이이다.

자연을 소중히 할 것을 교육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적 세계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왕국”이며 “과업에서 해방된 장소”라고 한和田修二(1997)의 말에서 아이들의 발산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진달래 : 5-6세가 되면 발산 욕구가 아주 커지는 것 같은데 마당놀이나 자유놀이의 발산과 나들이의 발산은 다른 것 같아요. 마당놀이나 자유놀이가 좁은 공간, 목적인 바대로 놀 때의 발산이라면 나들이는 의도함이 없는 발산으로 나들이 갔다 올 때 아이들의 표정은 생기가 넘치고 개운한 표정이에요.

교사들의 평가 속에는 직접체험, 경계가 없는 발산, 사물을 본 대로 느낀 대로 표현하는 능력, 교사가 아이의 관심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성장의 가능성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때 4계절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는 것도 교사들이 판단하는 교육적 가치이다. 어떤 교육활동을 평가한다고 할 때 수량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인 평가가 보편적인데 비해, ‘생생하고 개운한 아이들의 표정에서 살아있는 교육임을 확인한다’는 언표는 나들이가 객관화할 수 있는 경험 이전의 체험인 까닭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 몰입은 나들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자유놀이, 학습활동 안에서도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적 몰입은 결코 학습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공동육아 교사들이 나름의 의도와 목적을 갖고 강조하는 공동체적 체험으로서의 놀이가 전래놀이이다.

4. 전래놀이 : 공동체적 체험

전래놀이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시원지인 신촌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전래놀이는 지역사회에서의 놀이마당, 세시절기와 관련하여 더 확산되고 있다. 왜 공동육아에서 전래놀이를 강조하고 전통놀이가 아이들, 어른들에게 어떠한 체험적 의미를 주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공동육아에서 전래놀이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맨 처음 시작한 우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이다.

#사례 1#

처음 공동육아를 만날 때 막연한 공동체의 환상을 갖고 공동육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라는 구조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기란 어려웠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동체를 공동육아에서는 말했을까가 궁금했다. 이전에 있던 교사들이 지역으로 열어야한다는 말을 어렵듯이 이해하면서 교사들과 지역으로 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공동체교육이라는 것이 가닥을 잡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고민과 논의 끝에 교사들이 먼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지역학교를 열었다. 5월에는 상업주의로 물들어 있는 어린이날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어린이 날 놀이마당을 열었다. 공동육아 어른들이 열고 있는 지역 활동은 놀이중심이기는 하지만 활동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일공동체로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각 집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친 아이들은 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공동체의 의식이나 철학을 글로써 배우는 것보다는, 짙한 몇 번의 체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미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적 삶을 익히고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고 하겠다.(정영화. 우리어린이집 교사 <아이, 부모, 지역사회와 같이 나누고 싶은 바람-지역에서 고향 만들기>공동육아에서의 세시와 절기놀이, 공동육아 교사협의회 자료집. 2002)

오늘날 현대사회의 한복판에 위치한 공동육아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은 지역과 관계 맺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르는데, 그 모색의 연결고리가 바로 놀이마당이었고 그 놀이마당에서는 전래놀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래놀이의 장 열기는 앞서 놀이의 가치에서 나온 노동과의 합일, 짙한 공동체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전래놀이를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전통문화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곳’이라는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 공동육아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생명력을 살려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 점 또한 전래놀이와 깊게 관련된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요즘, ‘우리 것’의 강조는 젊은 교사나 부모들이 고리타분하고 뭔가 시대에 뒤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또 우리 것을 강조함으로 현대의 문명의 이익에서 소외된다는 불안도 가질 수가 있다. 이 점은 공동육아가 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교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는지 보자.

#사례 2#

공동육아를 알고 오는 교사들도 있고 전혀 모르고 터전 생활을 시작하는 교사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 물음이 ‘왜 옛날 것을 하려고 하나요?’하는 것이었다. 왜 굳이 우리 것을 고집하는가? 열려 있는 공동육아 방식에 조금은 어긋나는 고집적인 부분이 아닌가? 새로운 놀이문화도 많고 또 달라져 간다. 그것들 역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 않은가?

왜 옛날 것을 하나? 그것은 현장경험이 있는 내게도 명확한 답을 하기엔 어려운 질문이었고 내 자신에게 되물어 보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답이라는 것이 나의 단편적인 경험과 알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정도였다. 아마 나의 답을 들은 신입교사들은 더 답답해했을 것이다. 이론적인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입교사들은 전래놀이를 하고 전래노래를 부르며 터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일상적으로 전래놀이와 노래를 한두 번 했을 때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반복되는 활동과 더불어 터전에서 이뤄졌던 큰 명절 행사를 몸으로 치루고 나서야 ‘아! 이거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 같다. 추석 때 서툰 솜씨로 먹을 것을 만들어 내고 신명나게 놀이판을 치러냈을 때 나 역시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입교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 놀이도 이제 내가 즐겁다. 아이들보다 내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놀이를 하다보니 잊고 있었던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났다. 공동육아 교사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잡혔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나로서 왜 공동육아에서 ‘우리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지 논리적인 답을 내리긴 힘들다. 하지만 시간 속에서 묻어나고 느껴지는 향수와 즐거움과 뿌듯함은 조금이나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몸에 맞는 편안함도 느껴진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져가는 요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며 느끼며 살고 있을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할까? (김선영. 개구리어린이집교사. <시간이 부르는 자유로움 속에 우리 것>공동육아에서의 세시와 절기놀이, 공동육아 교사협의회자료집. 2002.)

우리 전통문화가 오히려 낯설게 된 오늘 날, 전통문화와 놀이를 생활화하는 것은 처음엔 쉽지 않다. 긴 시간 속에서의 반복과 세시절기를 통한 집중적인 체험을 통해 몸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교사는 말하고 있다. 이런 편안함과 즐거움은 교사의 몸속에 남아있는 어릴 적 기억과도 연결되는 시간 체험의 지속성이다. 그래서 전래놀이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면도 있지만, 교사가 느끼고 즐겨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특성이 더 크다. 공동육아 교사는 놀이를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점 또한 특별하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있어, 우리 것 또는 옛것을 살아있는 놀이문화, 생활문화로 만드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기보다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이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은 하나하나의 전래놀이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도록 하자.

#사례 3#

전통에 대한 여러 오해와 구시대 유물 취급하는 요즘의 세태에 대해 논리적인 설득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몸소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나 아이들에겐 긴 설명보다 직접 해보는 것만큼 빠른 교육은 없다. 그렇게 한 해 두해 우리의 세시풍속을 지내다보면, 어느새 흥겨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전통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다. 때가 되면 절기에 맞는 음식 찾아먹고 그때 즐기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전래놀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한 산가지에 하나 둘 붙어 앉아 살금살금 산가지를 떼는 아이들. 평소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누구누구도 이 순간만큼은 고양이처럼 조용해진다. 으라차차 율놀이에 한창인 큰 아이들 틈에 멀뚱멀뚱 쳐다보는 동생들 눈은 어서 빨리 언니 오빠들처럼 크고 싶단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쳐지지 않는 율놀이는 동생이라고, 작다고 재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한 한몫이다. 힘만으론 안 되는 딱지치기는 겨울철 실내놀이로 그만이다. 붙어 앉았다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팔이 빠져라 치다보면 하루의 스트레스도 짹 풀리고 만다. 점점 다양하고 기발한 딱지들은 또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의 표현이다.

나들이 가면 으레 숨바꼭질이며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 긴 줄넘기를 배운 날 종일 뛰고 또 뛰어 밤잠을 설쳤다는 아이들. 사방치기, 망쭈기 할 줄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여럿이 모여 할 수 있는 8자놀이, 달팽이 놀이, 산 넘고 물 건너(이건 우리 어린이집만의 이름이다)의 약자함과 스틸. 세살부터 초등학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까막잡기. 고무줄은 또 얼마나 아이들이 환호하는 놀이인가! 축축이 젖은 땅에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해골바가지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니땅 내땅 누가 먼저 따먹을까? 손가락 힘과 기술이 필요한 땡따먹기는 큰 아이들이 즐겨한다.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던 아이들이 어느새 동생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처음 ‘투호’란 걸 했을 때도, 왜 동생과 자기가 다른 선에서 해야 하는지 억울해 하던 아이들이, 이젠 나이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이번 단오 때는 자기들이 만든 부채를 동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한바탕 씨름 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일명 ‘체급별 토너먼트’ 같은 나이끼리 겨루어 그중 천하장사를 뽑았는데 아이마다 나이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 4살은 멀거니 살바만 잡고 있거나, 멀러덩 넘어져 분하고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린다. 5살은 할 줄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힘을 써야할지 아는 아이가 당연 이기게 되고. 6살은 마음처럼 기술이 안 되니 이리저리 옆치락 뒤치락. 7살은 거의 선수 수준이라고 할까? 아이들은 ‘일대일 겨루기’를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라는 말은 하지만 지는 건, 지는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다. 그래서 평소 씨름은 동생들과만 겨루려고 하고 잘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방별로 겨루기를 하고 천하장사를 가마까지 태워 잔치를 벌여 분위기 띄우는 날엔, 하기 싫은 마음도 지는 것도 다 잊게

되는 것 같다. 서로 잘해라 응원소리가 높고 놀이에 폭 빠진 아이들에겐 어느새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서로 어울리는 협동놀이, 대동놀이이다. 그중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모였다 헤어질 때면 하는 놀이가 강강술래이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다고 불평은커녕, 익히 알고 있어 더 즐겁고 흥겹기만 하다. 알고 있는 아이는 선두에 서고 모르는 아이, 어린 아이는 중간 중간 섞여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새 하나가 되는 강강술래만큼 아이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게 없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놀이가 줄다리기다. 친구끼리 여럿이 힘겨루기를 할 수 있어 좋은데 무엇보다 좋아하는 건 아이 대 어른의 줄다리기다. 오늘도 아마하러 온 아빠와 아이들 스무 명이 한 판 붙었다. 아이들 힘을 우습게 봤던 아빠..... 그만 질질 끌려가고 만다. 기세등등해진 아이들은 ‘어른 다’와 한판 붙잔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줄다리기. 예상대로 아이들 스무 명에 어른 여섯 명이 지고 만다. 아이라고 작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한 주체로 인정되는 곳. 우리 전래놀이 속에서 어른과 아이는 하나가 된다. 조금씩 자란다.(윤영주. 열리는 어린이집 교사.<우리 것>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공동육아에서의 세시와 절기놀이. 공동육아 교사협의회 자료집, 2002).

위 사례에 묘사된 전래놀이의 다양한 특징을 보자. 산가지의 정적, 윷놀이의 평등성, 딱지치기의 기술과 묘미, 그리고 기발한 상상력, 술래잡기의 쾌감, 긴 줄넘기를 해내려는 학습의욕, 돌 하나의 소중함을 아는 사방치기,...이런 놀이에는 약자함과 스틸이 넘친다고 하였다. 놀이에 몰입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삶의 방식 또한 배운다. 능력이 다른 동생의 입장을 배려하는 일, 형들의 놀이 능력을 배우려는 모방, 지는 것의 아픔, 이기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고 배운다.

한편, 아이들은 승패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대일 경쟁놀이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대동놀이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는 놀이의 묘미 안에 승패가 스며들어 놀이 자체를 즐기게 되는 대동놀이의 특성과 아이들의 정서 발달 특성에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강강술래와 줄다리를 즐긴다. 이는 각자가 가진 능력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총체적으로 상승되는 집단놀이로서, 아이 하나하나가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대동(大同)놀이의 본질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전래놀이는 일상적인 놀이문화이면서 동시에 세시절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축제문화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축이 돌아가면서 전래놀이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몸속에 새겨지게 된다.

5. 공동육아 놀잇감의 특징 : 상업적이지 않은 놀잇감 및 생활용품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놀잇감은 가능한 한, 자연물을 이용하고 생활용품을 활용한 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만들거나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 상업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역할놀이에 활용되는 놀잇감은 형제로 만든 인형, 각종 천으로 된 보자기, 종이죽을 쑤어 만든 다양한 크기와 색의 그릇들, 둥그미로 짠 가방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만들어 쓰는 일도 많다. 블록놀이 공간에는 종이 블록과 나무블록, 교사들이 잘라 준 비정형의 나무막대, 카프라, 동물인형 등이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생활용품은 의자이면서 책상인 공동육아표 의자이다. 아이들은 이 의자를 연결하여 기차도 만들고 큰 구성물을 만들 때 기본 건축구조로 활용한다. 역할놀이와 블록놀이는 자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그 외 바둑이나 장기놀이, 산가지, 칠교놀이 등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외 책을 보는 장소가 있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실외의 모래놀이 장소에는 재활용품의 냄비, 삽, 수저, 국자 등이 있고 큰 삽, 호미, 호스 등이 있어 아이들이 큰 구멍이나 수로를 만들 때 사용한다. 마당의 미끄럼틀이나 그네 정도는 부모들이 나무 소재로 만들어 준다. 더러 플라스틱 소재의 미끄럼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워서 재활용한 것이다. 상업적인 다목적 신체놀이 기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실 내외를 통 털어 어찌 보면 너무 많지 않은 놀잇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놀잇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소꿉놀이를 하기 위해 종이로 놀잇감을 만드는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볼 수 있다.

#사례 4#

“애들아, 우리 소꿉놀이 하자.” 자기가 할 역할을 결정하고 필요한 놀잇감을 찾기 시작한다. “난 화장품이 있어야겠어. 립스틱하고 분을 만들어야지.” “신발도 필요해.” “우리 아기 옷도 필요해. 인형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 줘야지.” “난 긴 머리 가발을 만들 거야.” “팔을 다쳤어 김스를 만들어야겠는걸.” “아빠는 담배랑 재떨이.” 아이들은 종이를 꺼내 쓱쓱 쓱쓱 가위로 오리고 테이프로 붙이고 손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립스틱 : “종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네모상자를 만들어봐. 그래서 립스틱 색칠을 칠해가지고 돌리는 걸 좀 짧게 잘라서 테이프나 풀로 붙여. 뚜껑은 네모나게 자르고 처음에 만든 동그란 자루에 붙여서 접어 끼워 -보미

분 : 색종이를 네모나게 잘라 반을 접고, 동그랗게 연필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로 거울을 만들어. 또 동그라미를 자르고 길게 종이를 잘라 동그라미에 붙여.

신발(슬리퍼) : 종이에다 발을 대고 그려서 잘라. 또 종이를 길고 네모나게 두개 자르고 슬리퍼에 풀이나 테이프로 밑에 붙이는 거야 -답

운동화 : 종이를 발에 맞추어 구겨서 접어 테이프로 붙이면 운동화가 돼 -영주

가발 : 우선 동그랗게 자르고 얇고 길게 머리카락처럼 긴 종이를 계속 잘라 동그란데 붙이는 거야 -혜란

깍스 : 먼저 동그랗게 팔에 맞추어서 말아. 그 다음에 팔을 빼고 동그라미 통에다가 엄지 손가락이 들어가게 구멍을 하나 뚫은 다음, 줄을 길게 잘라 동그란 통에 붙여. -민경

담배 : 먼저 동그랗게 말아서 붙인 다음, 밑에 구멍에 맞게 동그랗게 그려 자른 후 그 자른 것을 담배 밑에다 붙여.-한길

핸드폰 : 종이를 몇장 모아서 한쪽만 테이프를 붙여. 거기에다 구멍 뚫린 데다(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쪽을 말함)작은 종이를 한 개 말아 테이프로 붙이고, 거기 위에 또 작은 종이를 네모나게 얇게 잘라 딱 붙여. 그리고 네모 안에 숫자를 쓰면 돼. - 효림

재떨이 : 종이 끝을 접어 붙이면 돼. - 호연

아이들 자신이 종이로 만든 신발, 옷, 가방, 립스틱, 분, 가발, 다이어리, 담배, 재떨이, 모자, 깍스, 게임기, 핸드폰을 가지고 소꿉놀이는 시작된다. 이 놀잇감들은 장난감 가게에서 사온 어떤 물건보다 아이들에게 더 흥미를 준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잇감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종이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놀잇감을 만들어 놀이를 하면서 얼마나 아빠에게 화가 났던 일들을 풀 수도 있고 엄마의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에 대한 질투심도 해소할 수 있다.(신경선, 산어린이집교사, “아이들이 만드는 놀잇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5권2호 통권42, 1999.)

종이로 장난감을 만드는 아이들을 보면 그 능력이 놀랍다. 우선 놀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최소한의 실물다운 디자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재떨이 경우, 딱 접어 붙이는 걸로 했고 운동화도 발에 맞춰 구겨서 접었다. 또 이런 경제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신체와 종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신고, 끼고, 대고, 등등. 그러면서 종이를 말고 자르고 접고 끼우고 구기고 붙였다. 아이들이 놀이의 목적과 수단과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과 흥미를 미술활동으로 연결하여 놀이와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교사들도 있다.

6.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 본 공동육아의 놀이의 철학적 맥락과 개념, 기능, 특징들은 공동육아답다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들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데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나 놀이상황에서의 교사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은 쉽지 않다. 공동육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심지어는 학습활동 중에도 놀이가 일어난다. 놀이와 학습의 경계가 가로지르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교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알아보자.

-저렇게 놀리기만 해서 어찌냐

공동육아 아이들의 긴 놀이시간, 교사의 특별한 안내나 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노는 모습, 어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마당놀이, 그다지 풍부해보이지도 않는 실내 놀잇감들은 놀더라도 학습에 유익한 놀이를 중요히 여기고, 교사들의 교육적 의도와 보호 아래 제공되는 놀이,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 안전한 놀이환경, 풍부한 놀잇감 제공을 놀이의 기본원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놀이 환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아이들을 놀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동육아 교사들은 일면 수긍하기도 하고, 일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사례 5#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육아의 자유놀이 시간을 그저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여 “저렇게 놀기만 해서 어찌냐!”는 등, “아이들을 놀리기만 하지, 교육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자유놀이 시간은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형성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게 하면 집중력을 기르게 한다. 또 여러 가지 교구와 자료를 탐색하고 실험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감각능력과 사물에 대한 식별력을 기르며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모방이나 역할놀이를 통해서도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기르게 한다. 자유놀이 시간은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놀이를 할 수 있고 아이들 개개인의 자유와 흥미가 존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다. 자유놀이 시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저 놀리기만 하는 게 무슨 교육이냐’라는 의문을 품는 것은 자유놀이 시간을 위한 공동육아의

인적 물리적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이들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 참여가 가능한 놀잇감과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고 자유놀이 시간의 교사의 역할과 자세도 살펴 볼 일이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운다는 구실 아래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하고 팔짱을 끼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거나,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교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등 아이들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거나 평가자 등의 역할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교사들의 보다 치밀한 계획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반면,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끼리 잘 놀고 있으니 교사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 내지는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는 아직도 교육이라 함은 아이들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또래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며 교사 또는 성인주도의 프로그램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 볼 일이다. (김경태,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공동육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14권 2호, 통권 78호, 2005.여름.)

“아이들을 놀리기만 하고 교육은 안 한다”라는 평가에 대해 위의 교사는 두 가지 반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공동육아 내부적인 것으로, 놀이와 관련한 공동육아 고유의 독특한 철학과 방법이 아이들의 구체적인 놀이상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세심하고 민감한 관찰, 상호작용, 평가와 같은 다중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놀이상황을 완전하게 아이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교사의 역할 방기라는 것이다. 놀이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아이들에게 주면서도 교사가 세심하게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다. 보이게 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의 놀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일이라고 재미없어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보이지 않는 세심한 다중역할을 혹 오해하여 교사가 아이들 놀이에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다른 한편, 교육은 안 하고 놀리기만 한다는 평가는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암묵적 지식, 또래와의 경험은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닌지, 공동육아 바깥에 반성을 유도하는 언사이다. 이 점은 공동육아는 인지적 학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은 분리된 인지적 학습, 학습을 위한 학습, 체험이 빠진 객관화된 지식의 주입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오히려 아이들은 놀면서 생활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교사역할을 한다고 할 때, 공동육아와 같은 문화 안에서의 교사역할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세심해야 하고 동시에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보는 시각 또한 총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전체를 보는 시야가 있으면서 미세한 분석과 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공동육아 교사들이 모두 다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다음의 이야기가 이를 말해준다.

- 교사처럼 놀면 실패, 아이처럼 놀면 성공! -

아이들의 놀이에는 그야말로 인간사가 다 들어온다. 학습도 있고, 인간관계와 권력도 있고, 감정도 있고, 어른들의 참견도 있다. 아이들이 논다지만, 아이들의 놀이에 많은 어른들의 생각과 의도가 간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놀이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의 놀이는 정말 삶 자체이다.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이 너무 의도적으로 개입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아이들의 놀이판은 깨진다. 다음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사례 6#

아이들의 관계는 교사 주도의 활동을 할 때보다 아이들 스스로 자발적 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무래도 공동육아에 오래 다니고, 놀이를 많이 알고 놀이의 흐름을 꿰고 있는 아이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잘 놀게 된다. 이는 자기가 그 공간의 확실한 주인이 되었다고 내면으로부터 느끼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공동육아에는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많이 놀아 보아서 놀이의 흐름을 아는 아이, 또는 기질적으로 강한 아이도 리더를 할 수 있다. 놀이판을 이끄는 아이는 놀이를 선도할 수 있어야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레퍼토리가 있어야 리더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이들 간에 암묵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관계를 조급해하여 ‘왜 맨날 누구는 대장노릇 하고, 우리 애는 줄병노릇만 하는가, 교사가 아이들의 관계를 바꿔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곤 한다. 그래서 교사가 임의적으로 리더를 바꿔줬을 때, 이는 교사의 권력으로 아이들의 놀이판을 깨트린 결과가 된다. 놀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세련되게 리더를 못해내기 때문에 금방 흥미가 없어지고 만다.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판을 평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공동육아 터전에서 놀다보면 언젠가는 자신 있게 놀이를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말순, 산어린이집 원장, “아이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1-1.통권73호. 2004.봄)

놀이에 나타난 아이들의 위계관계를 부모들의 요구로 교사들이 변경했을 때, 놀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들이 본 건 표면적인 위계관계지만, 그 관계성 안에는 놀이의 주도성, 리더로서의 역량, 흥미 유지, 능력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같은 복잡한 집단의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런 민감한 메커니즘을 무시한 어른의 개입은 놀이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실패한다. 이런 민감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와 놀아보아야 한다. 공동육아 교사들은 아이들과 잘 노는 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없이 교사들에게 “오디(별명), 우리 비석치기 하자”와 같은 제안을 한다. 그럼 교사는 같이 논다. 이 때 교사는 아이처럼 놀아야 한다. 즉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는 아이와 놀 때, 정말 즐기지만 하는 걸까?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생각을 하면서 놀 때도 있다. 이게 교사의 숙명인 것 같다. 단순히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교사의 위치를 생각하며 놀아야 하는 것 말이다. 특히 학습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놀이가 발생할 때, 교사는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내가 지난 해 현장연구 나갔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마당에 연못을 만드는 장기 활동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연못 웅덩이 비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을 하다말고 새 비닐을 깐 웅덩이에 맨발로 들어가면서 놀이로 상황이 바뀐 일이 있었다. ‘연못’이라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와 교사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기다려주었음에도 아이들의 놀이는 그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교사는 연못 바깥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역할놀이로 유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교사는 비닐이 깔린 연못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역할놀이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활동은 재개되었다. 시간이 오래 걸린 했지만. 다음은 이 일에 대한 교사(느티나무 어린이집 교사, 별명은 깨몽)와 나와 대화이다.

#사례 7#

연구자 : 그때 아이들이 마구 노는 것을 한참을 지켜봤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나도 들어가서 놀아볼까” 그러면서 놀았잖아요. 놀고 나와서 “놀아보니까 참 좋다”고 선생님이 나한테 말했었거든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얘기 해 줬으면 좋겠어.

깨몽 : 그때 우연찮게 아이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애들이 쑥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놀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애들이 계속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게 놀이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은 것에. 그래서 이걸 극화 놀이처럼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미역이에요’라는 바다이야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미역 안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물이 땅 밑에 스며있었어요.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거야. 그 위에 비닐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발밑이 질퍽질퍽하고 되게 아늑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구나 생각했어. 이런 진흙놀이 비슷한 거 하나 있으면 이것도 되게 좋은 놀이라고 생각을 했어.

연구자 : 그때 나도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저만큼 놀았으면 웬만큼 놀았으니까 그 다음 활동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끝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애들을 바라보는 것 같더라.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뒤통수를 탁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리고 놀고 나서 선생님이 나한테 놀아보니까 좋다라는 말을 해서, 나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갈등을 느꼈다면,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세계와 조금 체계적인 학습 간에 갈등이 무언가 있다. 만남의 지점이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애들의 놀이세계를 존중해야 한다지만, 아무래도 선생님보다 학습 중심으로 가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그런 내가 원했던 선택방법은 뭐냐면 적절하게 놀이를 끊고 다음 활동단계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선생님은 그 반대 방향으로 애들로 갔거든. 그런 면에서 이건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 다른 충격이었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좋았다고 그랬을 때, 이건 애들의 놀이세계를 교사가 익혀보지 않고는 정말 애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오늘 다시 얘기를 하셨지만, 선생님의 그 망연자실한 표현을 보기는 봤지만, 그때 선생님이 나와 같은 갈등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역할놀이라도 해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고민의 방식으로 놀이에 참여를 했고, 해보니까 애들하고의 느낌, 그 자체가 주는 감각적 느낌이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갈등이 나와 공동육아 선생님들 사이에,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일과 놀이 사이에 있는 거 같아요.

깨몽 : 맞아. 안 해봤으면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전혀 내 얘기를 들어줄 기미도 아니었어. 딱 보니까 애들이 놀이에 그냥, 물입이 저거구나 느낄 정도로,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위의 대화에서, 학습과 놀이의 경계선에서의 교사의 놀이 참여를 통한 판단력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정말 아주 작은 계기에서도 놀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에서 놀이는 학습의 방해요소일 수도 있고 학습을 도와주는 연결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어느 지점이 학습과 놀이가 연결되는 점점인지를 알아내느라 애를 먹게 된다. 놀이가 학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점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학습과 맥락이 맞지 않는 놀이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도 있다. 어떤 판단을 내리건, 다음 상황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정말 상황적 순간이다. 이런 상황적 사태를 맞는 것이 교사와

아이들 간의 만남에 늘 존재한다. 그게 놀이든, 학습상황이든..... 그런데 교사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아이들의 세계 즉 놀이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놀이체험이며 참여를 통한 경험의 공유이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공감과 이해이다. 이는 마치 문화인류학자가 낯선 사회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놀이세계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이해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를 선불리 진단하고 처방하기에 앞서 놀이세계에 참여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놀이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교사의 중요한 자세이다.

7.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공동육아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놀이의 개념은 삶의 원형, 생명의 에너지였으며 사회적 실천행위의 개념이기도 했다. 그리고 놀이를 놀이답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공간, 시간, 체험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공동육아 놀이의 특성으로 공간과 시간의 개방성, 체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동체적 체험이라는 전통놀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미구성 과정을 보았고, 놀잇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았다. 이 모든 내용은 최대한 공동육아구성원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발언을 토대로 연구자의 해석을 더해 기술하였다. 따라서 개념적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장이론의 특성을 갖는다.

이론적 수준에서 놀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적 놀이이론들은 근대 과학적 담론체계에 대한 유아의 발달적 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동기의 자연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완벽한’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놀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유아교육의 재 개념주의 이론가들은 말한다.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심리학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에서 놀이의 개념은 인간 행동이 직선적인 발달과 보편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 있으며, 단일방향적인(unidirectional progress) 개념과 정상성(normalcy)의 기준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전제에 대해 명백한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정한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인공적 개념 고안물인 놀이가 다른 문화권에서 그대로 통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Cannella, 1997).

호이징하는 이제까지의 심리학·생물학적 이론체계의 놀이 연구들이 놀이 자체가 아닌 그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놀이 자체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놀이하는 이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차적으로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고대사회의 원시부족 놀이든 현대의 유아놀이든 놀이는 모두 놀이 고유의 특성인 질서, 긴장, 운동, 변화, 장엄, 율동, 환희 등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삶의 치열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놀이는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서의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생기(生起)하는 현상으로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유혜령, 2004에서 재인용).

놀이에 관한 현대이론의 문화적·학문적 편포성을 고려해보면, 공동육아의 놀이문화와 현상은 그 자체로 자유롭다. 즉 공동육아 놀이의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심리학적 발달적 이론으로부터도 벗어나 놀이현상 그 자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놀이와 관련하여 현상의 이러한 자유로움은 우리 유아교육 현실에서 더 많아져도 충분히 좋다고 나는 본다. 그것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유아교육 현장이 보다 건강한 놀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그리고 새로운 놀이이론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문헌]

- 공동육아, 제4권9호, 통권38호, 1998.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5권2호 통권42, 1999.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11권1호, 통권73호, 2004.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14권2호, 통권 78호, 2005. 여름.
 공동육아에서의 세시와 절기놀이, 공동육아 교사협의회 자료집, 2002

[참고문헌]

- 유혜령(2004). 유아의 역할놀이에 나타난 모방과 창조의 미학, 유아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277-303.
 이기범(2000). 좋은 교육을 하는 공동육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몇 가지 이야기 II. 공동육아. 제6권 5호 통권53. 2-5.
 Cannella, G, S., (1997).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Peter Lang. 유혜령 역(2002).유아교육 이론 해체하기:비판적 접근. 창지사.

6.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좋을까요

어린이에게 어떤 책을 보여 줄까

이 송 희

어린이 책 비평가

어린이 책의 역사를 보면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 가장 먼저 만든 책은 예절책, 문법책, 종교 교리서였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을 갖춘 한 사람으로 보고 삶의 길을 더 높은 데로 끌어올리고 넓혀 주기 위해 책을 권한 것이 아니라, 덜 자란 어른의 부속물로 생각하여 어린이에게 기존 규범을 학습시키고, 지식을 집어넣고, 도덕성을 계몽시키기 위해 교훈에 가득 찬 책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옛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가 실린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이가 옛이야기를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옛이야기는 잔인하고, 황당무계하며, 뻔한 이야기라고 몰아붙였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가난하고 힘 없지만 착한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다해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것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잔인하다고 보지 않고 눈물겹게 정의가 실현되는 이야기로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침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에서는 뻔한 교훈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거짓이 판치는 현실에서 위안을 삼고 건강한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또는 귀신, 도깨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늘과 땅, 저승과 이승, 현실과 상상 세계가 무대로 나오는 옛이야기는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린이를 흠뻑 빨아들여 드넓은 세상을 간

접으로 체험하고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약한 목숨인 주인공은 사회 약자인 어린이들과 같은 처지이고, 관념이 아니라 행동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은 바로 어린이들 자신이기 때문에 주인공에 자신을 쉽게 동일시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통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보여 줄까 하고 깊이 고민하기보다 ‘무조건’ 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를 ‘대학 입학과 졸업, 취업과 출세, 사회경제적 부 획득’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편승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책이라는 ‘고상한’ 수단으로 학습시키려 하는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어린이 책 시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습지나, 교훈을 가득 담은 책들이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이른바 ‘세계명작동화’나 ‘위인전’을 어린이들에게 꼭 읽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명작동화’라고 일컫는 책들은 18~19세기에 서양에서 출판된 동화입니다. 그러나 명작동화는 뜻은 아주 좋은 동화라는 뜻이니까 고전이든 현대물이든, 지구촌 어느 곳에서 나온 동화든 좋은 동화는 명작동화라 해야 옳겠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통 세계명작동화라고 해서 읽히는 책들은 <톰소여의 모험> <소공녀> <보물섬> <로빈슨 크루소> 같은 책입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18~19세기 서양에서 나온 동화입니다. 이 시기는 서구의 힘센 나라들이 자기네 영토를 넓히기 위해 무력으로 동아시아, 남북 아메리카의 약한 나라를 침략하던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해서 학살하고 노예로 삼고,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침략 행위를 정당화해야 했고, 또 먼 바다 저쪽에 있는 황금의 땅을 찾아가고 싶다는 욕망과 기상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많은 책들에는 이런 침략 사상과, 백인 우월주의, 인종 차별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아무런 비판과 반성 없이 아이들에게 세계명작동화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 읽히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시기에 나온 책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작품과 좋지 않은 작품을 가려 읽히지 않고 마치 통과리레처럼 이런 책들을 꼭 아이들이 읽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책들부터 보여 준다는 데 있습니다. 남이 하면 나도 무조건 해야 하는 심리와 우리 아이만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다른 아이에게 뒤떨어져 ‘뚝뚝하지’ 못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책을 학습 중심으로 권하

는 생각과 같습니다.

위인전은 한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요즈음은 인물이야기라 해서 우리 삶과 가깝고, 진정한 역사 발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산 근현대사 인물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십여 년 전만 해도 위인전은 주로 중세와 근대 인물들, 그것도 세계사에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들만 ‘위인’이라 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위인전이든 인물이야기든 이런 책들은 한 사람의 삶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둘러싼 역사와 사회 상황을 두루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보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제대로 읽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책들을 보통 일고여덟 살부터 권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하면서 책을 제대로 보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남긴 업적이나 활약상을 보고 그렇게 닮기를 바라는 어른의 마음, 교훈을 중심으로 책을 권하는 태도가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교훈이나 학습 중심이 아니라 재미와 감동 중심으로 책을 읽혀야 합니다. 어린이 책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웁니다.

어린이 책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한 시대,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지구촌 아이들의 삶을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약한 목숨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책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학의 사실이나 지식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지식의 책은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두게 할 수는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읽게 하는 문학작품,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는 문학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식의 책이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나 본질을 밝혀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읽게 하는 책에서는 누구나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문학 작품, 이야기로 사실을 전하는 책들을 먼저 보여 주어 감성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키워 주어야 합니다. 천만 가지 교훈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을 뿐이고 어린이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읽고 형성된 사람의 따스한 감성은 삶을 받쳐 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현덕이 쓴 《너하고 안 놀아》(창작과비평사)는 예닐곱 살 아이들의 삶을 담은 책입니다. 마치 작가가 옆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아이들의 삶을 그려 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도 하지만 끝내는 서로 한데 어울려 그야말로 재미나게 놀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랍니다. 그 세계가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책을 좋아합니다. 바로 내 이야기이니까요. 작가는 어떤 교훈도 내비치지 않지만 이 책에는 서민 아이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함이 그대로 보이고, 먹고 써 없애는 소비문화보다 놀면서 창조하는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입니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J. M. 바스콘셀로스, 동녘)를 기억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아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주인공 제제가 지금도 책 속에서 푹 걸어 나올 듯이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남미 땅에서 빈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제제의 삶은 머나먼 이곳 우리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작고 여린 목숨을 돌아보는 마음을 키우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의지를 불태우고, 신산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영미문화권, 18~19세기에 나온 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폭넓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책은 어린이 책, 어른 책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좋은 어린이 책을 보면 어른도 감동합니다. 어른은 자기 삶의 깊이와 넓이로 어린이 책을 보고 자기 삶 속에서 어린이 책을 느낍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는 덜 자란 존재이고, 유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은 보면 재미없지만 어린이에게 가르칠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읽혀야 한다는 계몽과, 교훈 중심으로 어린이 책을 바라보는 생각은 어린이 책을 바라보는 가장 좋지 않은 관점입니다. 먼저 부모가 읽고 정말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아이에게 권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대등하게 다루지 않고 ‘천애하는 어린 독자 여러분’ 따위로 부르는 책, 어린이들의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책, 아름다운 그림으로 눈을 즐겁게 해 주지 못하는 책, 생기 넘치는 강렬한 표현으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책,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책, 줄음은 자아내도 꿈은 이끌어내지 못하는 책, 어린이들은 그런 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폴 아자르, 《책, 어린이, 어른》, 시공사)

《쿠슬라와 그림책 이야기》(도로시 버틀러, 보림출판사)는 쿠슬라라는 장애아를 둘러싼 식구가 그림책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보여 주며 아이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게 아이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쿠슬라는 그림책을 보며 장애를 이겨나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쿠슬라는 몸의 장애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랍니다. 좋은 책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건강하게 가꿔갈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해 주는 감동 깊은 책입니다. 어떤 태도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해야 할지 이 책을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좋은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보여 줘도 내 아이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 꼭꼭 닫아걸고 우리 식구들만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좋은 음식 먹는 것과 다르지 않겠지요. 아이는 사회에서 키워야 하듯, 어린이는 책도 사회에서 건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 마을 도서관, 또는 여러 모습을 띤 도서관이나 아이들이 쉽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화를 부모들이 함께 꽃피울 수 있을 때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좋은 책을 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책 세계로 쏙 들어가기

박 미 라

모통이어린이도서관 관장

1. 들어가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른들은 책을 왜 보는지? 아이들은 왜 책을 읽을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왜 읽히려고 하는지? 혹시 어른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책읽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책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책 읽기를 싫어하는 어른들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책을 권하고 우리 아이만큼은 잘 읽어주길 바란다. 그렇기에 요즘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책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보게 되는 책이 그림책이다.

아동 문학 평론가인 화이트 여사는 “그림책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책입니다. 긴 독서 생활을 통해 읽는 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그 아이가 그림책 속에서 찾아낸 즐거움의 양에 따라 한평생 책을 좋아하게 될지, 싫어하게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책이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책을 가장 소중한 책,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책이 소중한고 아름다운 책일까? 아마도 그림책을 만나는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담긴 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 고통, 두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해소시켜주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단지 어린 시절을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만으로 생각하여 책을 통해 온갖 지식(숫자, 글씨, 교훈 등)을 터득하길 기대하고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 지식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림책을 통해 진정으로 느껴야 할 감동과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책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그림책의 독자는 어린이인데 왜 어른이 그림책을 읽고 공부를 할까?

정작 그림책 독자인 어린이는 어른의 도움 없이 좋은 그림책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그림책을 만나려면 어른이 먼저 그림책을 알아야 하고 어른이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수많은 그림책 중 단순히 어떤 책이 좋은 그림책인가만을 찾아내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어린이가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적합한 책을 쥐어 주고,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2.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일까

좋은 그림책이란 ‘이런 책이다’라고 단정할 경우 어른들은 그런 그림책만을 찾아 아이들에게 읽힐 것이고 우리아이는 좋은 책만 읽었으니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른들의 생각이 먼저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하여 조심스럽다.

좋은 그림책이란 어린이의 내면세계를 변화시켜 삶의 의미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경우와 반응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정말 재미있고, 나중에 좀 더 커서 ‘아, 이런 그림책이 있었지’라고 기억될 수 있으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다.

좋은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제3의 이야기 즉,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서로 도와가며 하나의 그림책을 완성한다. 즉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 역할이 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글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나 움직임은 그림은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면 등을 묘사한다. 이때 작가는 무엇을 글로 표현하고, 무엇을 그림으로 표현할지, 무엇을 독자의 상상에 맡길지 결정하게 된다.

그림책은 그림만 보고도 이야기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주지 못

한다면 아이들은 그림책 속에 빠져들지 못한다. 아이들은 그림을 구석구석까지 시선을 옮겨가며 보고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내용을 예측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읽어간다.

작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잘 어우러지는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사진, 콜라주, 컴퓨터 그래픽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무엇보다도 전하려는 주제의 의도가 확실하게 표현되도록 다양한 그림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림 속에 감추어진 글을 찾아 읽어 낼 수 있도록 그려져야 한다.

그림책에서는 특히 귀로 듣는 언어체험, 말의 체험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며 쓰는 언어가 달라진다. 그림책의 글을 통해 좋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책의 글은 시와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더 이상 보탬 글도 빼야할 글도 없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의 글로 인해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면 귀로 들리는 언어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 ‘리듬감 있는 말’과 ‘반복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귀로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외국의 번역 책은 문맥이나 어휘가 우리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소리내어 읽고 난 뒤에 선택해야 한다. 글의 정확한 번역보다는 어린이가 읽었을 때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쓰이 다다시는 ‘그림책이란 그림을 보는 책이 아니라 이야기의 세계를 어린이의 마음속에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하였다.

2) 좋은 그림책의 내용은 어린이가 주체가 되며 어린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이다.

주체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 어린이의 세계를 모르고 작가가 관념으로만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외면당한다. 아이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아이들 입장에서 섬세하게 그려낸 이야기여야만 아이들은 ‘어! 내 이야기네’하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다.

평범한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그림책, 아이들의 세계를 잘 그려낸 그림책을 보면 아이들은 마치 스스로 주인공이 된 듯 그림책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3) 재미있어야 하고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책이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책은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다. 어른들은 재미없는 책들도 필요에 의해 읽어 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기에 금방 싫증을 낸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어린이 책은 재미있어야 한다. 아이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흥미를 자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금방 싫증을 내고 책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버린다. 아이들이 감동하는 세계가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른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 재미를 느끼고 어린이의 관심사와 정서를 담은 것을 주제와 소재로 삼아야 가능할 것이다.

4) 좋은 그림책은 내용이 단순하고 평범해도 쓸쓸함, 노여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는 인간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을 어린이 수준에 맞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의 결말은 두려움과 노여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도의 기분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골라 주어야 한다.

5) 그림책은 현실과 판타지 세계라는 두 공간을 연결시킨다.

모리스 샌닥은 말한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런 체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고 일찍부터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이러한 감정들과 친숙한 채로 살고 있고, 공포와 불안은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며 아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은 판타지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다고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울타리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아이들이 삶의 위기에 부딪혀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림책 속에서 주인공들은 집을 떠나 모험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많다. 아이들은 그림책이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친구간의 우정, 어려움을 헤치고 행복을 얻

고, 가족에게로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오는 희망을 발견한다.

3. 그림책이 주는 즐거움

어린 시절은 상상력이 싹트는 시기이다. 바로 그 상상력은 어린이가 그림책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키워갈 수 있고, 그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상당히 크다. 좋은 그림책을 보면서 마음속의 영상을 그려간다. 그리고 이때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의 그림의 질에 따라 그리는 영상의 질이 달라지고, 상상력의 세계가 달라진다.

어린이는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 또 때로는 상상의 세계를 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다.

어린이에게 그림책은 학습도구가 아니며, 다른 목적을 위해 그림책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 권의 책으로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말자. 어린이에게 그림책은 오로지 즐거움이며 기쁨이 되어야 한다.

4. 그림책은 반드시 읽어주세요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보고 듣는 책’이다. 어른이 어린이에게 ‘읽어 주는 책’이다. 마쓰이 다다시는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읽히는 책이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림책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글과 그림을 함께 보기는 어렵다. 어린이 혼자서 그림책을 읽는다면 글과 그림 사이에 시간차, 틈이 생긴다. 그러나 귀로 들으며 동시에 그림을 본다면 순식간에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림책의 글은 귀를 통해 소리로 듣고, 눈은 그림을 보아 글과 그림을 동시에 보아야 그림책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어른들이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가 주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이 때 아이들은 듣는 능력이 향상되며, 상상력이 키워진다. 듣기 능력과 상상력을 지닌다는 것은 독서력의 기본 바탕이 되며, 또한 창의력을 키워준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가장 큰 목적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 하는 방법에 앞서 강조하는 것은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책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쭈이 다다시는 ‘어른 자신이 그림책의 세계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림책에 자신이 정말 흥미를 느끼거나 감동할 수 있는가, 그림책의 갖가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준다 해도 사실은 그 세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읽어주는 사람이 재미있으려면 그림책을 먼저 여러 번 읽어보아야 한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특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읽어주는 사람의 입에 맞아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림책을 읽어 줄 때, 읽어 주는 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은 어린이와 그림책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읽어 주는 어른과 어린이가 만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읽어주는 그림책을 설명을 한다거나 느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 한다든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어린이가 즐겁게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 마치며

요즘은 그림책이 너무나 많다. 특히, 외국 그림책이 너무나 많다. 어린 시절에 만나는 그림책은 머리 속에 잠재적으로 각인된다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그림책이 너무 많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아무리 좋은 그림책이라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 그림책을 들여올 때는 책 속에 있는 그 나라의 문화, 정신까지 수입하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가진 아름다운 전통을 논리나 인지가 아닌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림책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그림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림책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림책 전문가를 키우는 것 또한 독자들의 몫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좋은 우리 창작 그림책을 위해서 책을 만드는 편집자와 글 작가와 화가, 책을 고르는 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림책이 아이들을 읽고 있는 그 순간 정말 재미에 폭 빠져서 즐거움과 기쁨의 세계로 이끌었으면 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세계를 확대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7.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의 미래와 양성평등육아

황 윤 옥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왜 양성평등육아인가

7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에 의하면 그때는 ‘양서’나 ‘명작’이 정해져 있었다. 위인 전이나 우리 고전도 그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 리스트대로 읽어놓으면 어디가도 ‘책 많이 읽은 아이’로 한자리할 수 있었다. 즉, ‘좋은 책’이라는 정답이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요즘은 어디 그러한가. 초등학생용 도서는 물론이거니와, 유아용 책들도 그 종류와 내용을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정해진 ‘좋은 책’이란 불가능하다. ‘무슨 책’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가, 즉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는 눈과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요즘은 정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만들며 사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부모들의 아이들이 지금 다시 초등학생이다. 그러나 부모의 초등학생 시기와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생 시기는 이렇게 다르다.

지금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한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하나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감성을 중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화되고, 정보화되며, 국제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사회는 생물학적 성(sex)보다

사회적 성(gender, 젠더)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성역할에 관한 현재의 부모들은 미래지향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양성평등의식을 습득하면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사회와 삶을 준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양성평등문화가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역할과 성 차별적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생활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생활범위를 좁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역할 모델로 하여, 양성평등의식을 내면화하며,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모가 어떤 육아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을 양성 평등한 자녀로 키우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이며,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양성평등육아는 아빠의 육아참여로 시작된다

아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므로, 양성평등육아의 출발은 아빠의 육아 참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아빠의 ‘육아 참여’라는 말 자체가, 아빠를 육아의 주체가 아닌, 지원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는 육아의 지원자가 아니라 담당자이자 주체자여야 한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둘 다 필요함은 다시 얘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양성의 역할모델을 가질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 아빠를 자주 대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회적, 성적 역할면에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 형성과 더불어 아빠와 아기의 애착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또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중요한 정신적 지지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아빠의 신나는 육아참여를 위해 이렇게 해보자.

1. 아이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2. 엄마는 외출 중, 엄마 없이 아빠랑만 노는 시간을 갖자.
3. 잠자기 전, 아이에게 아빠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자.
4. 아이와 함께 목욕을 하자.
5. 아빠는 요리사,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자.
6. 아이와 함께 집안청소를 하자.
7. 우리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자.
8.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

[사례 1] 은결이 아빠의 육아일기

결국 어정쩡한 정신 상태의 초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출산을 준비해야 했고, 마침내 결전의 날, 낯
 자한 피와 땀이 나간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아이 탄생의 기쁨보다는 힘겨워하는 아
 내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날이다. 아내는 모유만으로 아이를 키웠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무얼 빼거나 더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도무지 어느 사이로 아빠가 비집
 고 들어가야 하는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느라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거들여 보지만 결코 만회할 수 없는 나의 부재감.
 나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계획도 의지도 없이 아빠가 되어 버렸지만, 어쨌든 아빠는
 아빠인 법.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새도 없이 젊음을 산업 역군으로 다 소진해 버린 아빠의 아
 버지들처럼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선부르게 앞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밥을
 먹이면서 바라던 '아빠' 는 아이와 내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오래 묵힌 친구 사이처럼. 이
 젠 엄마보다는 아빠에게 와서 동화책을 읽어 달라고 하는 개구쟁이가 되어 버렸다. 산적의 팔을 만
 지며 잠이 드는 은결이를 재우며 생각해 본다. 그래, 아빠의 자리란 것도 내가 만들어가기 나름이
 지. 흐뭇하다(기아자동차사보/ 은결이 아빠)

[사례 2] 권범아빠의 육아일기

나의 결혼생활초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이(아닌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나
 또한 아내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건만 지켜지는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다. '집안일은 서로가 바쁘
 지 않으면 먼저 하거야? 형!(그때는 아내는 나를 보고형이라 불렀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그리고 권범이를 임신했을 때 또한 '아이의 육아는 같이 고민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둘의 결혼생활과 권범이를 낳고서 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내는 그것을 아속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것(진짜 많나?)을 하는 나는 두고 아내는 옛이야기를 하듯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하지만 집안일이든 권범이의 육아든 내가 살아온 삶과 현재의 처지에서 변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만은 않았던 것은 내 사고의 전환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다 지나간 얘기지만... .. 장남으로 자라온 환경이 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지도 모른다.(공동육아 신촌 우리어린이집 / 아빠책방)

양성평등육아의 적, 일상의 말과 습관들

영우는 4살짜리 남자아이다. 영우는 요새 머리에 예쁜 핀을 꽂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집에서 머리핀을 꽂고 나왔다가도, 어린이집 앞에서 머리핀을 빼고 들어가곤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형들이 여자같다고 놀리기 때문이다. 여섯 살만 되어도 남자는 핀을 꽂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우리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현주소이다.

양성평등육아문화의 적은 의외로 일상에 있다. 남녀의 역할이 고정화되어 있던 시기에 성장한 부모들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성역할을 나누어 말하게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남자아이의 장난감과 여자아이의 장난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 누구나 동의한다. 아들도 인형이나 소꿉놀이를 할 수 있게 하며, 딸들도 자동차, 로봇놀이 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위적으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의 장난감을 고르거나 옷을 고를 때는 남자아이의 자동차를, 여자아이는 인형을 고른다는지, 남자아이의 옷은 파란색 계열을, 여자아이는 붉은 색 계열을 고른다는지 하게 된다. 일상의 말도 마찬가지이다.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여자가 좀 얌전히 걸어야지’, 등등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말속에는 고정적인 성관념이 많이 배어있다. ‘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무슨 축구야’ 등등의 말들을 들으며, 아이들의 행동은 고정화된다. 우리 아이들의 의식은 결국 가정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가 하는 일상에서의 말이나 행동이 성역할 고정화로 가게 되는 것이다.

양성평등육아에 관심이 많은 어느 엄마의 경험담이다. 직장의 어린이날 행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하였단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말, “남자친구들은 파란색 가방을 받는 줄에, 여자 친구들은 빨간색 가방을 받는 줄에 서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엄마의 아들은 결국 빨간색 가방을 못 받고, 서러워했다고 한다.

이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난감했다고.

[사례] 여자와 남자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

세영(6) :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

수란 : 싱글벙글(선생님 별명)은 머리 짧다. 그지 애들아~.

한길 : 여자도 머리 짧을 수 있어.

주형 : 나 머리 깎는데 짧지?

세영 : 용현이도 머리 짧아. 싱글벙글도.

싱글벙글 : 애들아 그런데 남자도 머리 길게 기를 수 있어.

수란 : 맞아 영조오빠도 머리 길잖아.

세영 : 맞아 남자도 머리 길 수 있지?

한길 : 맞아 세영아.

<1998. 3. 차 마시는 시간에>

양성평등육아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달라지게 한다

양성평등육아, 그래도 희망은 있다. 왜? 사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 8회 여성주간기념식에서 8년차 전업주부로서 양성평등사례를 소개한 차영희씨(스스로를 인천택이라 소개한 멸절한(?) 남자였다)는 전업주부가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임을 강조했다. 남자냐 여자이냐에 따라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는 양성평등육아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후에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며, 이미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양성평등육아를 위해 부모가 노력할 일을 무엇일까.

부모가 먼저 미래사회의 성역할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성 평등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모들이 먼저 성역할을 고정하는, 일상의 말과 습관, 행동들을 조심해야 한다. 아빠의 육아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육아의 기본 바탕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양 용 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금 중2의 딸과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들을 둔 40대 중반의 아빠이자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흔히들 가장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 가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열고자 합니다.

가장이란 한 가정의 長, 즉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닌가요? 제가 정말 아내와 아이들을 이끄는 長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나이는 제일 많지요? 그런데 요즘 연하의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하나로 가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의사결정을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아이의 옷을 한 벌 사는 문제부터 김장을 하는 문제, 한다면 언제 할지? 대청소는, 집안의 가구 배치, 이불빨래는, 아이의 예방접종은..... 물론 집을 언제 사고 저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편을 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래서 저는 가장이라기보다 그저 남편이자 아빠라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참으로 한심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주중 5일 중에 3~4일은 술자리가 있었고 토요일마다 무슨 활동이라는 걸 한답시고 거의 매주 일요일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저는 노동강도가 높은 기업의 영업부에 있었으니 이런 태도가 용서되어야 한다고 강변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아이들과의 관계

였습니다. 큰 아이가 5~6세가 되었을 때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있어서 함께 놀아주려고 하면 아이는 아빠를 슬슬 피하더군요. 아빠를 볼 기회가 있어야 뭐 친해지든가 할 것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에서 나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이런 경험의 소유자가 과연 양성평등 운운하는 강의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더구나 저는 여성학을 공부했다거나 사회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이론적인 접근도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제가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런 경험과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이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가 훌륭하다기보다는 극악했던 상태에서 정상에 가까운 지금의 상태로 변화해 온 과정이 하나의 귀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실감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몇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제가 변화해 온 과정들을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집안일을 잘 돕는 남편, 아이와 잘 놀아 주는 아빠

방송, 잡지의 기사나 광고카피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듣기에 좋은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이 말처럼 우스운 이야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남편이 하면 도와주는 것이 되나요? 집안일이 아내의 전유물이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반양성평등적인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 당연하니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집안의 구성원인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남편이 집안일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더라도 이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되어야죠. ‘아이와 잘 놀아 주는 엄마’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빠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이니 아빠가 놀아 주는 것은 화제가 되고 엄마가 놀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 것이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낸 것은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관념 속에는 참으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이데올로기가 많이도 자리 잡고 있음을 환기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자가 울기는’, ‘여자가 얌전하지 못하게’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녀가 어떤 본성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남녀는 각각 지니고 있는 자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의 특성을 많이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꾸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경향도 있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요? 사람이 자기의 성에 의해 어떤 성향을 강요받거나 가정 내에서 역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양성평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야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조차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것인데 과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평등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인 접근이 불가피한데요, 소위 여성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몇 개의 관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관습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여성차별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성차별이 사회의 구조적인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수적인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체제 자체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존 사회의 틀 안에서 여성권익을 신장하는데 주력하는 관점이지요.

둘째로는 여성차별이나 억압이 법률과 관행, 관념과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즉, 자본제에서 여성의 노동이 가사노동과 생산노동이라는 이중의 형태를 통해 착취당한다는 것이지요. 출산에서의 역할 차이 등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성별분업이 인간사회의 최초의 분업인데 이런 분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집안일과 바깥일을 남녀가 나누어 맡게 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후자가 더 중요해지면서, 바깥일을 담당하던 남성이 지배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여성 억압의 기원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셋째로, 남녀 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여성 억압의 핵심고리를 법제도나 노동보다도 출산, 성애, 성별(gender) 등 여성으로서의 특징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남성은 여성의 성과 출산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을 지배해 왔고 따라서 남성, 여성, 자녀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가족 자체가 의존과 지배의 구조로 여성억압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성이 해방되려면 생물학적 가족이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성을 여성 스스로 통제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통해 출산을 여성으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의 관점들은 각각의 시대적 배경을 대변하기도 하고 동시에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사회적인 제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한다면 저는 남녀가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감성을 통해 사회에 참여(실천)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남녀가 분명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며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한 것이 결코 아니며 서로의 특성일 따름입니다. 다만 저는 이 차이 중에서도 출산과 양육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합니다. 양성평등 문제의 근원이 출산과 양육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관점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정 내의 양성평등문제도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지요.

가정 내의 양성평등이란 -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흔히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면 가사노동을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것만으로 양성평등을 다 이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문제, 부부간의 의사결정과정, 양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평등한 노동의 분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또 가정 내에서는 아무리 평등하게 지내려 해도 사회가 이를 인정하

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가령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자들은 회식이나 야간근무에 있어서 아이들의 핑계가 너그러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남자들이 아이들 때문에 혹은 집안일이 밀려서 회식이나 야간근무를 미룬다면 직장에서 이상하게 볼 것이 뻔합니다. 사회가 아직은 가정 내의 양성평등을 억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맞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사노동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어떠한가요? 이 문제는 엄마의 고유권한이자 고유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혹 엄마가 전업주부인 집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아빠가 집안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말에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아내도 전업주부인 탓에 주말에는 자기노동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쉬는 주말에는 남편도 똑같이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숙해 있지 않은 집안일을 남편에게 맡기느니(않느니) 내가 하고 말지(죽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의 효율을 생각하면 미련한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들도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전업주부인 아내들에게도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편이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들은 직장일 외에도 친구를 만나는 일로 늦게 귀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업주부 아내들에게도 이런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에 집안일을 남편이 하는 것은 남편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노동도 사회노동의 일부임에 불구하고 그것이 임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왜곡되어 전업주부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침 6시 반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큰 아이 세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 우리 집 아침이 조금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와 아내, 초등학생 동현이는 모두 8시 반에

나가지만 세진이는 7시 반에 나가므로 6시 반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날 과음이라도 한 날은 아내가 일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누워 있어도 세진이가 가만히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빨리 아침밥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지요. 게으름을 피우려다가도 딸의 귀여운 손길에 마음 약한 아빠는 벌떡 일어납니다. 세진이는 엄마보다 아빠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도 익숙해진 탓도 있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자기의 식성을 더 잘 알아주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진이가 좋아하는 두부부침, 감자볶음, 미역국 등을 아빠가 더 잘 해 주니까요. 세진이가 밥을 먹을 때쯤이면 엄마와 동현이가 일어나는데 저는 시간이 남기도 하고 출근 준비하는 데에 여자가 더 많은 시간이 들다보니 자연스레 나머지의 아침준비와 설거지까지 내 몫이 되어 버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은 식사준비, 설거지는 내가, 빨래와 청소는 아내가 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비슷한 시간에 귀가를 하면 저는 자연스레 싱크대로 가고 아내는 집안 정리며 빨래 챙기기를 합니다. 물론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없으면 한 사람이 모두를 다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요. 요즘은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서 그런 날은 저녁 챙기기부터 빨래, 청소 등 바쁜 저녁시간을 보내기 일쑤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나보다 몸도 약한 아내가 이 고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생각이지요.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집안일을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딸 아들의 구분이 없지요. 오히려 설거지는 아들인 동현이가 더 잘 합니다. 아마도 아빠가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서인지 아주 열심히 닦고 행구고 합니다. 보통의 아내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광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집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지요.

저희 집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91년 초에 결혼을 한 우리는 그 해에 세진이를 낳았고 아이양육에 별 대안이 없던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거의 매일 늦은 귀가에 주말까지 밖으로 돌았고, 둘째 동현이가 태어나고 3살이 되던 96년 말까지 6년간을 이렇게 살았지요. 당연히 집안일은 모두 아내의 몫이었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저는 별 생각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공동육아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출자

를 하여 조합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등등..... 듣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내는 꽤나 구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공동육아에서 키워야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였고, 본인도 공동육아 교사가 되어야겠으며 지금 참여가 용이한 곳이 안양, 부천이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아내의 사회활동 등에 대해서 무심하기만 하였던 저로서는 아내의 구체적인 계획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다만 부천보다는 안양이 좋겠다는 유일한 의사결정을 한 후로 아내는 현장학교와 안양준비모임 참여로 바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97년 봄에 의왕으로 이사를 오고 안양의왕 공동육아 협동조합 하늘땅 어린이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세진이 7살, 동현이 4살 때의 일이었지요.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나는 준비모임부터 잘 나가지 않아서인지 이방인かと 같았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몇몇 아빠들을 보면서 시간 여유가 되나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잦은 회의에 방모임, 교육 등등 공동육아교사라면 누구나 그렇듯 늦는 날이 많았고 저 역시 직장생활의 조건이 달라진 것은 없었죠. 조금씩 아내가 하던 집안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다소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집안일을 안 하고는 달리 대책이 없었고 공동육아를 하면서 조금씩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 생활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시작한 공동육아였지만 열심히 하는 아빠들을 보고 또 그들과 함께 주말에 모여서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참여하는 아빠로 변했습니다. 집에서는 무심하였던 제가 어린이집 일의 참여를 통해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특히 날적이를 통해 아이들의 생활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과 한결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공감대가 많아지면서 나도 비로소 아빠 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자족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공동육아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단을 이루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정 내에서도 못 하던 아이들과의 교감을 만들어 주고 가정 내에서 못 나누던 부부간의 민주적 관계를 이끌어 주는 것! 그런 힘 말입니다.

이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해 가던 저에게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는 좀 아이러니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약 1년간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때에 아내가 “돈 버는 일도 꼭 남편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 간 심한 노동 조건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아내가 돈도

별고 집안일도 잘 하는 남편의 구실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의식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겁고도 뜻 깊은 전업주부로서의 제 생활이 시작 된 것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온전히 경험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아내의 아침밥부터 아이의 등교, 어린이집 등원, 청소, 빨래, 아이숙제 돌보기, 장보기, 저녁준비 등등... 집안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지요. 힘이 든다는 것보다 단순한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괴로웠습니다. 빨래도 세탁기 돌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널고 개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청소는 하면 할수록 더 일이 많아진다는 상식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집안일에 갇히게 되는 세상의 불평등은 꼭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즈음 제가 깨닫게 된 소중한 사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듬해에 저는 새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이곳도 만만치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접대가 잦고 회식도 많은 그런 회사였다지요. 그러나 이제는 저도 많이 달라져서 아내의 저녁약속이 있는 날은 가능하면 약속을 피했고 안 그런 날도 가능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구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부부는 일요일 저녁이면 다음 주 일정을 함께 조정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피할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부부의 진정한 맞벌이가 시작된 셈입니다. 함께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저는 주방으로 향하고 아내는 집안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지요. 아이들은 낮에 있었던 일들로 엄마 아빠에게 수다를 떨고 엄마 아빠 역시 그 대꾸에 신이 납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아빠는 설거지와 다음날 아침 식사준비로 엄마는 빨래와 아이들 챙겨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둘 중 하나가 늦는 날이면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자연히 상대의 소중함이 실감나는 시간이지요. 물론 아내보다 제가 늦는 날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덜 변화한 탓이겠지요. 하지만 횡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함께 키우기는 양성평등의 핵심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변화의 계기를 던져준 것은 아이 함께 키우기였습니다. 물론 공동육아라고 하는 집단적인 실천의 장이 매개가 된 것이지요. 지금도 공동육아에 저희 집안이 참여한 일

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공동육아를 떠난 지금까지 공동육아 일에 미력이나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보은이라고나 할까, 더불어 이 일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나아가 공동체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무튼 공동육아의 참여를 통해서 저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조금씩 실천해 나갔던 것이지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놀아 주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것의 기본은 아이들을 잘 챙겨 먹이고 잘 입혀야 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음식 만들기, 빨래, 청소 등 소위 가사노동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여성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아도 대부분의 주부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이들의 양육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여성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가정 내에서부터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이 단지 가정 내의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빠들이 아이 함께 키우기에 동참하는 것이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들의 동참을 통해서 남성들도 여성문제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그 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한 가정 내의 자족적 양성평등에 머물지 않고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사회적 실천의 동기들이 강하게 부여되는 것이지요.

부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임과 동시에 올바른 육아와 교육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흔히 양성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는 고유의 정서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르게 접하면서 균형 잡힌 정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성에만, 혹은 부성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부모 모두의 사랑을 접하면서 커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더불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는 것은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되겠습니까? 또 엄마 혼자서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야 엄마, 아빠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육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양육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는 다음세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교육이 되기도 하는 셈입니다.

가정에서 양성평등은 작은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라는 가치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의 힘에 의한 경쟁의 논리가 아이들의 교육, 각 가정의 생활양식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가치는 새롭게 짚어보아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의식도 크게 보면 공동체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다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힘든 일도 나누어 할 것입니다.

집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가사문제에서 재산과 관련한 부분, 이사를 하는 문제, 아이를 키우는 일, 양가에 대한 문제, 주변의 경조사에 참여 하는 문제, 가족여행 하는 문제, 심지어 휴일에 가족나들이 하는 문제까지..... 가정마다 이런 의사결정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큰 단위의 문제는 남편이, 작은 단위의 문제는 아내가 혹은 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남편이, 그 외의 것은 아내가.....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식의 분업체계가 이미 비민주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 많은 부분을 함께 논의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남편이 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란 사안을 나누지 않고 늘 함께, 그리고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부부는 싸울 일이 없겠지요.

일을 나누어 한다는 것도 공동체의식의 기본이겠지요. “우리 남편은 원래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잔소리해서 일 시키느니 내가 해버리고 말죠” 라고 이야기하는 아내들을 종종 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아내보다는 신체적으로 제가 더 건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요. 함께 집에 있으면 아내를 배려해서라도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거창한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다면 힘든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체의식,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부터 실현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천은 공동체의식에서 출발하며 나아가 작은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 일은 경쟁과 비인간적인 논리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바꾸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아이 키우기, 양성평등, 공동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 세 단어의 통일로 맺고자 합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전제라고 하였습니다. 또 양성평등은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의식, 공동체의식은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양성평등도 공동체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 세 단어는 무엇이 무엇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통일되어 있으며 건강한 현대인의 삶에 늘 함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공동체적인 가정, 양성평등의 실천만이 아니라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8. 먹을거리가 궁금해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박 명 숙

환경정의 다음지킴이

이제 사람들은 쌀이나 과일을 재배하는데 농약이 쓰이고,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감미료, 색소가 들어가고, 밀가루, 바나나 등 외국의 수입농산물에 갖가지 수확 후 농약(Post-harvest)이 뿌려진다는 사실들을 놀랍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됐다는 유기농산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손쉽게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싼값에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뭔가가 잘못되기는 한참 잘못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상 당연하다.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먹을거리들은 사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순전히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쌀이나 사과, 포도, 시금치 또는 라면, 어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배하고, 상품으로 만들 때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그리 고려하지 않는다. 라면 공장 사장은 절대로 자신의 아이에게 라면을 먹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농사꾼이 자신이 먹을 것은 미리 따놓고 약을 뿌린다는 말은 이러한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 것이다. 교환가치만 가질 뿐 사용가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사실 상품이기 이전에 재배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의 여유 있는 것과 바꾸는 정도여서 교환가치는 극히 약했다. 자신이 먹고 쓸 것인데 알고 있는 한에서는 어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날 먹을거리에 온갖 나쁜 것들이 횡행하는 이유이다.

거기에 더해 먹을거리에 있어서도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먹을거리가 쓰레기로 되고 있는데 한몫을 더한다. 나, 내 가족, 우리 지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또 누가 먹게 될지도 모를 먹을거리를 재배, 가공, 유통하면서 더더욱 이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는 의식과 이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감이 생기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와 세계화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벌이가 되느냐 아니냐인 것이다.

또한 날로 악화되는 환경오염은 건강한 먹을거리의 생산을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도, 안심하고 먹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먹을거리의 자본주의화와 심각한 오염의 시대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1. 쌀과 잡곡

○ 쌀에는 풍부한 영양이 함유되어 있다.

쌀에는 단백질, 지방, 무기질(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B₁, B₂, 니아신)도 풍부하게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양소들이 인체에 소화흡수율이 아주 높다. 이런 영양소들은 씨눈에 66%, 쌀겨 29%, 배유부분 5%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씨눈과 쌀겨 부분에는 키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놀라운 중금속 해독능력과 항암 작용을 한다. 그러니 밥만 먹으면 탄수화물 때문에 살만 찌게 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도 될 것이다.

○ 백미보다는 현미 잡곡밥을 먹자.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씨눈을 제거한 흰쌀을 먹어서는 밥이 보약이 될 수 없다. 벼를 수확해서 길쭉질만 벗기고, 쌀겨와 씨눈이 남아있는 쌀이 현미이고, 이 현미를 다시 10번 정도 깎아 안의 배유 부분만 남긴 것이 백미다. 갑자기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기가 어렵다면 오분도미나 칠분도미를 이용하도록 하자. 오분도미는 현미를 5번 깎은 쌀이고, 칠분도미는 7번 깎은 쌀을 말한다. 백미가 씨눈이 완전히 제거된 것에 비해 그나마 오분도는 씨눈의 92%, 칠분도미는 70% 정도가 남아있다.

모든 생물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만의 생물독이 있다. 그러나 3가지 이상을 섞어먹으면 독이 중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미를 먹을 때에도 3가지 이상의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좋다.

○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면 해독이 된다.

입안에서 충분히 씹으면 침 속에 섞여 분비되는 디아스타제 등 소화효소가 음식과 고루 섞여 위장에 내려가기 전에 한번 소화과정을 더해주므로 위장에 훨씬 부담이 적어지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물의 독소도 제거된다. 탄 육류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을 각각 물과 침에 20분 정도 넣었더니 물 쪽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침에 담가 놓은 것은 발암물질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실험이 있다. 침 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파로친 호르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어금니를 이용하여 충분히 씹으면 턱뼈의 움직임으로 뇌에 자극이 전달되어 정서적인 충족감을 주는 뇌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뇌운동이 되어 두뇌 발달에도 좋다.

○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피하자.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물질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 콩은 제초제나 병충해에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콩의 유전자에다가 땅 속에 사는 특정한 곰팡이의 유전자를 합성한 것이다.

모든 생물은 자기 몸속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독, 혹은 병원균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새로운 독소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도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해도 서로 다른 물질로 보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할 경우에는 심하면 목숨도 위험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같은 종인 인간, 그 중에서도 혈액 조성이 거의 똑같은 사람끼리 피가 섞여도 이럴진대, 전혀 다른 종끼리 섞이게 되면 서로 어떤 공격물질을 만들어 없애려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2. 야채와 과일

○ 야채는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한다.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어 독소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이옥신과 같은 독소를 잘 흡착해 대변과 함께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건강한데, 이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엽록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는 곡류와 녹색 채소, 연근이나 우엉과 같은 음식들이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생야채와 나물을 즐겨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길들여주어야 한다.

○ 유기농산물을 애용하자.

똑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재배했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달라진다. 1997년 부산대학교 김치 연구소에서 유기농 배추와 일반 관행농 배추의 성분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배추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 배추에 비해 미량 영양소 함유량이 영양소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덴마크의 한 연구소에서 남성들의 정자수를 연구한 결과 갈수록 정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음식물의 25% 이상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식품을 섭취한 남성의 경우에는 감소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농약이나 화학비료, 제초제로 척박해진 땅에서 자란 곡식이나 채소는 이미 영양적 가치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잔류하는 독성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땅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키운 작물이어야 맛과 향이 높고 영양이 풍부한 먹을거리가 된다.

○ 제철 과일을 먹고, 수입과일을 피하자.

제철이 아닌 식물은 잔류농약의 문제가 심각하다. 철이 아닌 작물을 억지로 키우려니 성장촉진을 위한 화학비료나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이 훨씬 많이 쓰이게 된다. 더구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나 바람, 햇볕에 의해 농약 성분이 감소하는 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류 농약의 위험성이 크다.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판매장까지 오는 시간이 국산 농산물 보다 훨씬 길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포스트 하베스트(Post-harvest: 수확 후에 뿌려지는 농약을 통칭하는 말)가 뿌려진다. 우리의 식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종류이다.

3. 육류

○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나쁜 가스가 발생한다.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열이 생기는데, 곡채류는 그 자체로 발효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고기는 특별한 단백질 분해효소나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판크레아틴이라는 효소가 없이는 분해될 수 없다. 단백질은 주성분이 질소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질소화합물이 발생한다. 이것이 피를 탁하게 만든다.

○ 사람의 몸은 육식에 알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육식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몸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피를 오염시키므로 가능한 빨리 배설할 수 있도록 육식동물이나 육식을 많이 한 서구인들의 장 길이는 곡 채식을 주로 해온 동양인보다 짧다. 치아 구조도 그렇다. 사람의 치아는 32개인데 그 중 어금니가 20개, 앞니가 8개, 송곳니가 4개로 되어 있다. 어금니는 곡물을 가는 역할을 하고, 앞니는 채소류나 과일류를 씹는 역할을 한다. 송곳니만이 질긴 고기를 물어뜯는데 쓰인다. 비율로 보면 어금니 : 앞니 : 송곳니가 5 : 2 : 1 이므로 곡물과 야채와 육식의 먹는 비율을 5 : 2 : 1 로 맞추는 것이 우리 몸에 맞는 비율이다.

○ 현대의 대량 사육방식으로 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계다가 밀집된 축사, 계사에서 첨가물이 많이 든 사료를 먹여 키우는 상황에서의 육류는 영양도 빈약하고, 독성물질의 농도도 높다. 보통 사료는 유전자조작이 된 GMO 사료에 방부제, 항생제, 신경안정제, 성장촉진제 등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늘 먹는 동물들은 체내에 이런 물질이 쌓이게 된다. 이런 독성 물질들은 그 양 자체가 아무리 미미하다 해도, 동물들이 이것을 매일 먹으니까 동물의 체내에는 보통 사료에 들어있는 농도의 수 만 배에서 수 십 만 배까지 축적되게 된다. 여기에 밀집한 환경,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동물의 몸에서 나온 독소도 추가된다.

○ 고기를 먹을수록 지구의 식량문제는 심각해지고 환경은 파괴된다.

소들은 곡물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kg의 곡물사료가 필요

하다. 1인분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 소에게 먹이는 콩을 인류의 식량으로 쓴다면 20명의 식량이 된다. 이것은 매일 기아로 죽어가는 5만 명의 어린이들을 기아에서 구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산림의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나무를 밀어내고 대규모 기업형 목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소들이 먹어치운 목초지의 땅은 수많은 소의 무게에 눌려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고기 위주의 식사를 유지하는 한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는 사막화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은 자명하다.

○ 육류를 선택하고 조리할 때

자연친화적인 사육방식으로 길러진 육류를 택한다. 지방이 적은 고기를 선택한다. 다이옥신과 같은 독소는 지방에 더 많이 들어있다. 기계로 다져진 고기보다는 살코기를 사서 다지는 것이 좋다. 고기국을 끓일 때 화학물질이 빠져나오므로 거품을 자주 걷어낸다. 육류로 요리를 할 때에는 야채나 버섯 등을 함께 이용한다. 단백질은 육류보다 콩으로 섭취하자. 구이나 튀김보다는 수육이나 조림, 국 등의 형태로 먹는 것이 더 좋다.

4. 우유와 계란

○ 계란과 우유의 지나친 섭취는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우유, 난류를 완전식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흡수되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느냐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우유를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유당 소화 효소가 이용되는데 신체 내부에서 이 효소는 인종마다 다르게 분비가 된다. 백인에게서 가장 많은 양의 분비가 이루어지지만 동양인에게는 극히 적게 나온다.

순천향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자료에 의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를 한 결과 계란 흰자와 우유에서 대략 50% 전후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예이다.

○ 계란과 우유에는 고농도의 독성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닭과 같이 알을 낳는 동물은 알을 빼앗길 위협을 느껴 그 알 속에 독을 분비하여 이를 방지한다. 달걀을 하루에 하나 이상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생물 독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우유도 옛

어른들이 아이 젖 먹일 때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조심하라는 말을 상기한다면 지금의 사육환경에서 길러지는 젖소의 젖인 우유가 얼마나 위험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채소에는 질 좋은 칼슘이 들어있다.

우유는 골다공증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7만7천 명의 여성 중 일주일에 우유를 2번 마시는 그룹과 일주일에 1잔 이하를 마신 그룹을 12년간 연구한 결과 전자의 골절발생률이 45% 높은 것으로 나왔다. 지난 1998년에는 우유와 육류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뉴질랜드 여성들의 골연화증으로 인한 골반뼈 골절율이 상대적으로 우유와 육식을 적게 하는 싱가포르 여성들보다 7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결과이다. 왜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육식과 우유를 즐기는 사람의 뼈가 왜 약해질까? 인과 유황 때문이다. 인과 유황은 인체 안에서 산성 물질로 변해 체액을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 원소인 칼슘을 소비해버린다. 또한 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적정해야 하는데, 육식과 유제품에는 그 비율이 1대 3~3.5로 인이 너무 많아 칼슘이 뼈를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녹색 잎사귀를 가진 야채들은 칼슘이 특별히 많지 않아도 인과 칼슘의 비율이 적정 상태에 있어 훨씬 흡수가 잘되고 뼈를 만드는데 온전히 쓰여 진다.

콩, 감자, 곡물, 갯잎, 토란, 시금치, 배추, 사과, 배 등 곡류, 야채, 과일 중에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식품에는 뼈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 등의 영양분도 함께 들어 있어 우유를 마셨을 때보다도 이런 야채와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더욱 단단하고 완전한 골격을 가질 수 있다.

**건강한
두유
만드는 법**

재료 : 백태 반 컵, 물, 소금, 건과류(땅콩, 잣, 호두 등), 미숫가루 / 4컵 기준

- 1) 백태(반 컵 정도)를 3시간 정도 불린다.
- 2) 불린 콩을 5분 정도 삶아 체에 거른 다음 믹서에 물(콩의 3배)을 넣고 간다.
- 3) 고운체에 거르고 약간의 소금, 건과류, 미숫가루를 넣어 간다.
- 4) 들깨가루를 넣어도 된다.

5. 어패류

○ 양식 물고기들은 피하자.

양식 생선은 좁은 곳에서 대량으로 양식하기 때문에 고기가 병에 걸리기 쉽고 그 때문에 많은 양의 항생물질이나 항균제가 투여되고 있다. 물론 약사법에 등에 의해 인정된 약품이지만 그 중에서 발암성의 위험성이 커서 제조가 중지된 것도 있다. 또 직접 투여하는 약제뿐만 아니라 시설물로써 사용하는 재료의 독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연어, 도미, 광어 등으로 횡집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활어가 양식으로 길러낸 것이다.

○ 자연산의 경우에도 강과 바다의 오염으로 조심해야 한다.

얕은 바다에서 살고 운동량이 적으며 기름기가 많은 종류도 경계해야 한다. 바다의 오염으로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있다. 조기는 오염도가 아주 높은 생선에 속한다. 가자미, 갈치 등도 얕은 바다 생선으로 운동량이 적은 편이다. 냉동 어패류도 문제인데 동태나 대구, 참치처럼 통째로 냉동되는 것이 아닌, 속살을 포로 뜨거나 껍질을 벗겨 삶은 새우처럼 냉동 유통하는 어패류는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글레이즈라는 용액에 담갔다가 포장되는데, 이것은 발암성 화학물질이다. 물론 통째로 냉동한 것을 생선 가게 등에서 바로 포로 떼서 사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다.

○ 좀 더 안전한 생선의 선택하고 조리해야 한다.

운동량이 많고 물이 차고 맑은 바다에서 사는 삼치, 고등어, 동태, 오징어, 참치 등이 비교적 안전하다. 생선을 석쇠에 굽거나 기름을 두르고 튀기면 표면의 지방이 타서 과산화지질이 될 염려가 있으니 피한다. 생선에 소금 간을 해서 햇볕에 반쯤 말려 찜통에 찌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찌개나 조림을 하며 국물에 뜬 거품을 자주 걷어내면 오염물질이 상당부분 제거된다. 비늘에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비늘만 잘 제거해도 독성이 훨씬 줄어든다. 오염물질은 지방 부위에 더 심하게 농축되므로 생선 부위 중 내장, 알, 아가미 같은 부위는 먹지 않는다.

6. 식품첨가물이 든 식품

과잉행동장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도 10살 이하의 1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20년 넘게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해 온 미국 페인골드협회는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으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을 주목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이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뉴욕시는 80년대 초 80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과 당분의 섭취를 줄인 4년간의 실험을 실시했다. 식생활 개선 후에 학생들의 전국 성적이 10%나 향상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에서는 탄산음료의 소비가 2배로 증가한 79~80년에 학교폭력이 시작되었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1975년에는 미국 상원의원 청소년 폭력 문제 연구팀에서 황색 4호가 의욕을 관장하는 전투열에 상처를 입혀 폭력을 야기한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했으며, 그밖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지목했다.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화학물질이다. 이 화학물질들은 몸속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를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킨다. 또한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아이들의 체내에는 많은 식품첨가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위 속에서 섞이면서 새로운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자. 햄과 소시지에는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이 거의 필수적으로 쓰인다. 이 아질산나트륨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아민류와 반응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하나가 소르빈산이다. 이 소르빈산과 아질산나트륨이 만나면 돌연변이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품회사들은 고기가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산화제로 ‘에르소르빈산나트륨’을 주로 쓰는데 이 첨가물 역시 몸속에 들어가 염색체의 이상이나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거기에 고기의 끈기를 좋게 하는 결착제, 고기의 산도 조절을 위해 PH 조정제, 인공색소, 감미료 등 각종 화학첨가물이 들어간다.

식품첨가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그것의 직접 독성을 줄이는 일일뿐만 아니라, 내 몸의 영

양을 아끼는 일이다. 성장을 위해 여러 종류의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치킨, 햄버거, 피자, 콜라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이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다음은 한 살림에서 각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과자, 사탕, 음료 등 공장을 거쳐서 나온 것에는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멀리해야 한다.

음료 : 조사대상은 청량음료, 전통음료, 주류였다. 청량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재료는 주요원료 이외에 구연산, 백설탕, 비타민C, 사과산 등이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환타와 스포츠 건강음료로 알려진 게토레이와 데미소다에는 합성착색료가 더 첨가되어 있었다. 또 컨피던스라는 음료에는 L-페닐알라닌, L-트리오닌, L-이소로이신 등 외우기도 힘든 물질이 표기되어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음료로 선전되고 있는 제티 바나나맛과 제티 레몬맛 속에는 합성 착색료인 황색4호와 황색 5호가 나란히 들어가 있었다.

어묵 : 무방부제를 표방하는 몇몇 제품을 빼고는 거의 모든 어묵제품에 방부제인 솔빈산칼륨이 들어 있었다. 어묵의 경우 무방부제 제품이 예전보다 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된다. 만약 소비자가 더욱더 무방부제나 무색소 제품을 선호한다면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면 : 모든 라면의 기본 재료는 공통적으로 소맥분,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정제염 그리고 L-글루타민산 나트륨(화학조미료)이다. 그 가운데 풀무원 짜장면은 무방부제, MSG 무첨가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그렇지만 원료 자체가 수입밀이기 때문에 수입밀에 잔류 가능한 각종 농약 성분은 그대로다).

햄 : 최근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햄이나 소시지의 1일 섭취 제한량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햄이나 소시지에 발색제로 들어가 있는 아질산나트륨 때문이다. 아질산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생성시키거나,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솔빈산칼륨(합성보존료), 이리소르빈산나트륨(산화방지제)이 줄줄이 들어 있었다. 피자나 치킨바 같은 냉동식품에는 별다른 첨가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부패를

막는 보존료가 들어 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이나 냉동보관 온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요네즈·케첩·진간장 : 마요네즈에는 모두 이디티에이칼륨2나트륨이라는 긴 이름의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었다. 무방부제 양조간장이라 해도 기름을 짜고 남은 수입 콩깻묵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지 않다.

젓갈류 : 무방부제나 무색소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 이외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 (합성조미료), D-솔비톨, 솔빈산나트륨 등의 합성 보존료가 첨가되어 있었다.

사탕류 : 사탕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첨가물은 역시 색소였다. 우리가 조사한 사탕류 가운데 롯데 목캔디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탕에는 황색4호, 황색 5호, 적색2호, 청색1호 등의 색소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해태 썬키스트와 오리온 바이오 사탕은 D-솔비톨(합성보존료)도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한다는 현대판 꽃감, 아이스크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이스크림은 식품첨가물 덩어리 그 자체라 한다. 아이스크림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유화제와 안정제, 알레르기의 원인이라 추정되는 인공감미료와 착색제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조사에선 황색4호 정도만이 표기돼 있었다. 이 황색 4호는 천식이나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색소이다.

우유·요구르트 : 바나나 우유의 경우, 주원료 이외에 황색4호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미노스 바나나맛 우유에는 치자황색소라 써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어린이 요구르트 양팡의 원재료명에는 원유 40%와 아스파탐(합성감미료)이 표기되어 있었다. 요구르트라고 해서 모두 원유 자체만을 발효시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7. 식품첨가물표

○ 방부제의 종류와 독성

| 화학 첨가물명 | 용도 | 독성 |
|-------------------|--------------------------------|----------------------------------|
| 솔빈산, 솔빈산칼륨 | 어육제품, 단무지, 간장, 케첩, 발효유, 유산균 음료 | 아소산과 반응, 발암 물질에 의해 변화됨 염색체 이동 |
|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나트륨 | 치즈, 버터, 마가린 | 간장에 변화 염색체 이상 |
| 프로피온산 | 치즈, 빵, 과자 | 눈, 피부, 점막을 자극함 |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 간장 | 간질병의 경련 등 유발 |

○ 인공 합성 감미료의 종류와 독성

| 화학 첨가물명 | 용도 | 독성 |
|-----------------------|------------------------------|--------------------------------------|
| L-글루타민산 L-글루타민산나트륨 | 모든 식품에 사용 가정용 조미료 |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입의 신경 세포 파괴 |
| 아스파탐 | 청량음료, 젤리, 추잉껌, 아이스크림 | 흰쥐 경구투여 - 외등에 증상 토끼 경구투여 - 골격에 이상 |
| 글리실리진산2나트륨 | 된장, 간장 | 경직, 경련등의 급성 독성 발현 |
| 코하크산 | 청주, 된장, 간장 | 고양이 실험시 구토, 설사 |
| 산 류 | 한성초, 소스, 피클, 케첩, 마요네즈, 시럽 | 강한 급성 독성 |
| 사카린 | 추잉껌,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자류 | 흰쥐의 자궁암, 방광암 |

○ 표백제 및 살균제의 종류와 독성

| 화학 첨가물명 | 용도 | 독성 |
|-------------------|-----------------------------|-------------------------------|
|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수소 | 체리, 포도, 복숭아, 어묵 등 수산 가공품 | 호흡기점막, 눈자극, 유전자의 손상, 염색체이상 |
| 사라시분 유지 | 과실, 야채, 음료수 | 눈에 강한 자극, 각막궤상, 습진, 염색체이상 |

○ 산화방지제의 용도와 독성

| 화학 첨가물명 | 용도 | 독성 |
|-----------------------------|------------------------------|---|
| EDTA2나트륨, EDTA칼슘 EDTA나트륨 | 마요네즈, 통조림 산화방지제 | 강독성, 칼슘 부족증, 혈압 강화, 위장장애 유발, 뇌 기형아 발생 |
| 에르솔빈산 에르솔빈산나트륨 | 생선, 생선염장, 주스 냉동식품, 주류, 치즈 | 명이원성, 염색체 이상 |
| 디부틸히드록신틸루엔 | 식용유지, 버터 | 콜레스테롤 상승, 호르몬제에서 발암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

○ 산미료의 종류와 독성

| 화학 첨가물명 | 용도 | 독성 |
|------------------|---|--------------------------------|
| 구연산 |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얼음과자, 사탕, 소스, 치즈, 아이스크림 | 비교적 독성이 약함 |
| 주석산, 주석산나트륨 | 구연산과 동일 | 토끼, 개에게 강한 독성 염색체 이상 |
| 젖산 | 청주, 합성주, 청량음료 빵, 과자, 젤리, 소스 | 미숙아 중독사, 급성 출혈, 적혈구 감소 |
| 아디핀산 | 치즈, 사탕, 젤리, 프림 | 자극성이 있음 |
| 푸마르산, 푸마르산나트륨 | 합성 청주, 절임, 청량음료, 농축주스, 젤리, 과자, 과일통조림 | 토끼 갑상선 팽창, 출혈, 정소에 영향, 변이원성 |

○ 식품 속의 설탕 함유량

| 식품 | 종류 | 기준치 | 양 |
|---------------|--------------|---------------|-----|
| 음료 | 오렌지쥬스 | 1컵 | 5 |
| | 사이다류 | 1컵 | 6 |
| | 콜라류 | 178cc | 3½ |
| | 세븐업 | 178cc | 5 |
| 케익/쿠키 디저트류 | 초콜릿 케익 (플레인) | 113g | 6 |
| | 초콜릿 케익 (냉동) | 113g | 10 |
| | 슈크림 | 1개 | 2 |
| | 도너츠 (플레인) | 1개 | 3 |
| | 도너츠 (드레싱) | 1개 | 6 |
| | 애플파이 | 1조각 | 7 |
| | 아이스크림 | 157cc | 3½ |
| | 크림소다 | 1인분 | 5 |
| | 밀크셰이크 | 296cc | 5 |
| | 과일젤리 | 1/2컵 | 4½ |
| | 샤베트 | 1/2컵 | 9 |
| 과자류 | 보통 초콜릿 | 42g | 2½ |
| | 츄잉껌 | 1개 | ½ |
| | 땅콩과자 | 28g | 3½ |
| 과일통조림 쥬스류 | 캔쥬스 | 1/2컵 | 2 |
| | 복숭아통조림 | 반조각2개, 시럽1작은술 | 3½ |
| | 과일샐러드 | 1/2컵 | 3½ |
| 잼 | 오렌지잼 | 1작은술 | 4~6 |
| | 딸기잼 | 1작은술 | 4 |
| 시럽/설탕 | 다갈색 설탕 | 1작은술 | 3 |
| | 콘시럽 | 1작은술 | 3 |
| | 그레놀당 | 1작은술 | 3 |
| | 벌꿀 | 1작은술 | 3 |
| | 당밀 | 1작은술 | 3½ |

양기준 : 흰 설탕으로 대체한 티스푼 값

[참고자료]

-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미국상원영양문제특별위원회, 원태진 편역, 형성사, 1995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아이를 해치는 음식 39가지』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시공사, 2000
- 『아토피를 잡아라』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전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시공사, 2002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2』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시공사, 2004
- 『패스트푸드의 제국』 에릭 솔로서, 김은령 옮김, 예코리브르, 2001
-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안병수, 국일미디어
- 『식원성 증후군』 오사와 히로시, 국일미디어
-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존 로빈스, 이무열 외 옮김, 아람드림미디어, 2001
-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50가지 방법』 한국농어촌사회연구회 옮김, 삼신각, 2000
- 『생활 속의 유해물질, 우리는 안전한가』 고와카 준이치 외, 이시재 외 옮김, 일월서각, 1996

인터넷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http://www.eco.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한살림 <http://www.hansalim.co.kr>

세시와 절기속의 먹을거리

이 정 선

전 과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열리는어린이집 영양교사

1. 한국음식의 특징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농업의 발달로 쌀과 잡곡의 생산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들을 이용한 조리법이 개발되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수산물이 풍부하며 육류와 채소를 이용한 조리법도 발달했다. 장류, 김치류, 젓갈류 등의 발효식품의 개발과 기타 식품 저장기술도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음식은 계절과 지역에 따른 특성을 잘 살렸으며 조화된 맛을 중히 여겼고 식품배합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음식이므로 음식 만들 때의 마음이 집과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세시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절기에 따라 많은 명절에 조상숭배, 농사의례, 정서순화 등의 의미를 갖는 행사나 놀이를 하였으며 액을 면하는 풍속이 있어 계절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세시 음식은 절식과 시식으로 나뉘는데 절식은 사계절 자연의 영향을 받고 역사의 변천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식생활의 한 단면이다. 평상시의 음식에 계절이나 지방의 독특한 색채가 덧붙여진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에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여 멋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자연과 함께 즐기던 풍속을 세시절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절식이란 명절 때 차려 먹는 음식이고, 시식은 계절 따라 나는 식품으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2. 세시와 절식 풍속

1) 설날 음식(음력 1월 1일)

설날 음식을 한문으로 세찬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세찬으로는 떡국이 있다. 떡국은 제사상에 오를 뿐만 아니라, 설날에 주식으로 먹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다. 떡국에 사용되는 흰떡(가래떡)을 둥글게 썬 것을 보면 태양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전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흰떡은 쌀가루를 찌서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안반(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위에 놓고 자루가 달린 떡메로 쳐서 길게 만든다. 요즘은 방앗간에서 바로 뽑아내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만, 옛날에는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흰떡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웠다. 떡국에 들어가는 고기도 원래는 꿩고기나 소고기를 넣어 맛을 냈다. 하지만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꿩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넣는다. 새해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한다. 나이대신 떡국을 몇 그릇째 먹었느냐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설에 차가운 술인 세주를 마시는 풍속이 있다. 조선 시대에 유득공이 지은 경도 잡지를 보면 술을 데우지 않는 까닭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떡국에 얽힌 이야기와 복조리 이야기]

떡국도 사람처럼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침세병이야.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지. 흰떡가락이 희고 긴 것은 오래 살라는 의미가 있고 떡국의 떡이 둥근 것은 해님의 둥근모양이나 동전모양을 본 뜬 거래. 그리고 옛날부터 설날 그믐날을 지내고 새해가 밝아오는 아주 이른 새벽이 되면 “복조리 사려, 복조리 사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 대문밖에 나가지 않고 복조리 장수를 집으로 불러 들여서 복조리를 샀대. 조리는 쌀을 이는데 쓰는 기구인데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거든. 한 해 동안의 액운 중에서 조리로 액을 거르고 운을 일어서 그 해의 복을 취한다고 해서 복 들어오는 조리라는 뜻으로 복조리라 불렀대. 일찍 사면 복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믿었고 일 년 내내 복조리를 걸어 두면 늦잠 자지 말라는 뜻이었대.

2)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음식으로는 약식, 부럼, 귀밝이술, 묵은 나물, 복쌈, 원소병, 팔죽 등을 먹는다. 또한 부럼으로 날밤, 잣, 호두, 땅콩 등을 까먹는다.

정월14일 저녁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데 오곡밥은 쌀, 보리, 조, 콩, 기장의 다섯 가지 곡식을 넣고 지은 밥이다. 지방에 따라 오곡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그 해에 농사지를 곡식들을 넣고 만들면서 풍년을 빌었다. 오곡밥을 먹게 된 유래는 약식에 들어가는 잣, 대추, 밤은 당시의 평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재료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대신 오곡밥을 지어 먹게 되었다고 한다. 성이 다른 세 집의 밥을 먹어야 그 해 운이 좋다고 해서 집집마다 서로 나누어 먹었다. 또 이날은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하여 틈틈이 여러 번을 먹기도 했다. 오곡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 박나물, 시래기, 벗 등 작년에 거둬서 내내 말려두었던 것을 삶아서 무쳐먹는다. 9가지 이상을 먹어야 좋다고 한다. 이걸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고,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어 건강 식단이라 볼 수 있다.

부럼은 딱딱한 껍질을 말하기도 하고 부스럼의 준말로 피부에 생기는 종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딱딱한 부럼을 깨어 먹으면 피부도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생각해서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대보름날 새벽에 부럼을 깨물면서 ‘일 년 열두 달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면서 호두, 은행 등 딱딱한 껍질의 과실을 어금니로 깨문 다음에 던지면서 “부럼이요.” 했다. 그러면 그 깨무는 딱! 소리에 잡귀가 놀라서 물러간다고 믿었다. 부럼은 단 한 번에 깨물어 부수는 것이 좋다. 땅콩이나 호두 같은 열매에는 실제로 부스럼을 막아주는 영양소가 쌀보다 수십 배나 많이 들어 있는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신 옛 어르신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 해 일 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고 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마셨다고 한다.

복쌈(김쌈)은 정월대보름에는 참취나물, 배춧잎, 김 등으로 밥을 싸 먹으며 풍년 들기를 바랐던 음식이다. 또한 다른 명절이나 생일에도 꼭 상에 오르는데 쌈을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부를 쌈 싸듯이 모을 수 있다는 풍습에서 복쌈이라고도 했다.

대보름 전날 팔죽을 쑤어 악귀를 쫓기 위해 숟가락으로 떠서 끼얹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약밥이야기]

신라 소지왕(21대왕)때 생긴 일이야. 정월대보름 달 밝은 밤에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왕의 머리위로 까마귀가 쪽지를 하나 떨어뜨리고 가는 거야. 왕이 속으로 ‘참 이상한 일이다’하며 들여다보니까, 쪽지에 ‘거문고의 집을 쏘아라!’라고 쓰여 있는 거야. 소지왕은 대궐로 돌아오자마자 거문고를 담아두는 집을 활로 쏘았어. 그런 다음 거문고 집을 열어보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몰래 대궐에 들어와서 왕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까마귀 덕분에 목숨을 구한 왕은 그 뒤부터 정월대보름날을 까마귀를 위한 날로 정하고 까마귀와 비슷한 색깔의 밥인 약밥을 지어서 까마귀에게 주고,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대.

3) 중화절(음력 2월 1일)

[맛있는 이야기]

옛날에 어느 마을에 욕심꾸러기 양반이 있었는데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집에는 일하는 머슴들이 많았어. 그 머슴 중에 바우네 가족이 있었는데 바우네 가족은 아주 부지런하고 착했어. 바우 어머니는 2월 초하룻날 아침이면 콩을 볶아서 점을 쳤는데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알 볶아라!”라고 하면서 콩을 볶았지. 콩이 잘 볶아지는 해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거야. 왜냐면 곡식을 축내는 새와 쥐의 알이 불에 잘 볶아져서 없어지니까 그렇고, 콩이 잘 볶아지지 않는 해에는 가뭄이 심하거나, 홍수가 많이 나서 농사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믿어서 미리미리 바우 아버지에게 알려주어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를 해서 매년 농사가 잘 되도록 일을 했어. 열심히 일하시는 착한 부모님을 보면서 바우도 함께 일을 했는데, 이 욕심꾸러기 양반이 자기네 가족은 배 터지도록 맛난 밥을 먹으면서도 바우네가족이나 머슴들에게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밖에 곡식을 안 주는 거야. 배가 고파도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을 보고 바우는 속이 상했어. 그래서 매일 밤 달님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 “신령님, 신령님 우리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언제나 자기 일처럼 부지런하고 착하게 일을 하는 바우네 가족과 열심히 기도를 하는 바우의 정성에 감동한 신령님은 2월 초하룻날 새벽에 욕심꾸러기 양반의 꿈에 나타나 앞으로 머슴들에게 욕심을 내고 잘 살피지 않으면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집안도 망하게 만들겠다고 무서운 얼굴로 엄하게 말을 했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양반은 그때까지도 가슴이 쿵닥쿵닥 방망이가 쳐졌

지. 얼마나 산신령님이 무섭게 했으면 그러겠어. 이대로 계속해서 욕심을 내면 큰 벌을 받겠다고 깨우친 부자영감은 그날 곳간 문을 활짝 열어서 쌀가루로는 흰떡을 만들고 그 속에 팔, 까만콩, 푸른콩, 대추, 삶은 미나리 등을 넣어 손바닥만 하게 크게 빳아서 머슴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줬대. 송편 먹고 올 농사 잘 지어달라고. 그리고 농사 지어 수확한 곡식은 아주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대.

4) 입춘(양력 2월 4~5일경)

입춘음식은 탕평채, 승검초(당귀의 싹)산적, 죽순나물, 죽순찜, 달래나물, 달래장, 냉이나물, 산갓김치 등이다.

오신반은 움파, 산갓, 당귀싹, 미나리싹, 무의 다섯 가지 햇나물로 만든 시고 매운 생채 요리로 새봄의 미각을 돋게 했다.

장을 담그는 시기는 입춘 날 전에 아직 추위가 덜 풀린 이른 봄에 담가야 소금이 덜 들어 삼삼한 장맛을 낼 수 있다. 단웃날을 넘기면 소금이 많이 들어 맛이 없고, 날이 따뜻하여 제대로 우려나지 않는다. 메주는 늦가을(음력10월)에 쭈어 겨우내 띄운 것이 맛있다. 장은 팔진미의 주인이라 하여 장맛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 제 맛을 못 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5) 삼월삼진날(음력 3월 3일)

삼진날의 절식은 두견화주, 진달래화전, 진달래화채, 꽃국수(화면), 수면, 탕평채, 쭈떡 등 주로 화전과 국수를 시절음식으로 즐겼다.

[맛있는 이야기]

진달래를 사람들은 참꽃이라 부르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먹을 수 없는 철쭉꽃은 개꽃이라 불렀는데,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꽃빛이 연분홍이라면, 철쭉은 5월에 꽃과 잎이 동시에 나며 진분홍의 크고 아름다운 꽃잎을 가졌다.

6) 한식날(양력 4월 5~6일경)

민간에서는 이 날을 전후하여 쑥탕, 쑥떡을 해먹었다. 찬밥을 먹는 날로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성묘는 일 년에 네 번으로 정초, 한식, 단오, 중추에 하는데 한식날에 드리는 차례를 ‘한식 차례’ 라고 한다.

[맛있는 이야기]

중국에서는 한식을 냉절이라 하는데 그 유래로 인하여 우리도 이날은 미리 장만해 놓은 찬 음식을 먹고 닭싸움, 그네 등의 유희를 즐기며 불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은 조상의 무덤에 떼를 다시 입히고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이다. 한식 무렵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건조기인데 한식날 비가 오면 사람들은 ‘물한식’ 이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한다. 한식은 건조한 날씨에 잘 맞는 명절로 불을 조심하고 잘 관리하라는 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7) 사월초파일(음력 4월 8일)

시식으로는 느티떡, 복은콩, 미나리강회, 녹두편, 비빔국수(골동면)등이 있다.

[맛있는 이야기]

이 날은 복은콩 또는 삶은콩을 먹는데,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누어주면 불가와 인연을 맺게 된다고 전해진다. 미나리나 파강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콜레라 등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8) 곡우절(양력 4월 20~21일경)

시식으로는 증편, 개피떡, 화진, 어채, 어만두, 복어, 도미 등이 있다.

[맛있는 이야기]

이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깊은 산속으로 곡우 물을 먹으러 가는

풍속이 있다. 고로쇠나무를 비롯해 자작나무, 박달나무, 산다래나무 등에 상처를 내고 통을 달아 며칠씩 수액을 받아 두었다가 마시면, 위장병이 낫는 등 몸에 좋다고 하여 약수로 마시기도 한다. 경칩 무렵에 나오는 고로쇠 물은 여자물이라 하여 남자들에게 더 좋고, 곡우물은 남자물이라 하여 여자들에게 더 애용되고 있다. 특히 가야산 자락의 곡우물인 거지수는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소만(양력 5월 21일)

초후를 전후하여 죽순을 따다 고추장이나 양념에 살짝 묻혀 먹는다. 시식에는 냉잇국도 늦봄 내지는 초여름의 시절식으로 예로부터 유명하다. 말후를 중심으로 보리는 밀과 더불어 여름철 주식을 대표한다.

[맛있는 이야기]

모든 산야가 푸르디푸르는데 대나무만큼은 푸른빛을 잃고 누렇게 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한다. 이는 새롭게 탄생하는 죽순에 자기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마치 어미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린 자식에게 정성을 다하여 키우는 모습 같다. 봄의 누레진 대나무를 가리켜 ‘대나무 가을’이라 한다.

10) 단오(음력 5월 5일)

음식으로 수리취떡, 앵두화채, 앵두편, 제호탕, 도행병, 붕어찜, 준치국, 준치만두가 있다.

[맛있는 이야기 하나 : 준치에 대한 전설]

준치는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다는 뜻으로 진어라고도 불러. 준치는 유난히 가시가 많은 생선이지.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가시가 그리 많지 않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자꾸 준치만 잡아가다 보니까 준치가 점점 바다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준치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자 용궁에서는 급히 물고기들을 불러들였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의논 끝에 한 가지 좋은 묘책이 나왔어. 바로 물고기들이 자기의 가시 한 개씩을 빼서 준치에게 박

아주자는 것이었어. 결국 그때부터 준치는 유난히도 가시가 많은 생선이 되었다고 해. 예전 할머니들은 준치의 뼈도 그냥 버리지 않으셨대. 준치 머리 쪽의 뼈를 모아 맞추어 새의 형상을 만들고 앵두를 주둥이에 물려서 처마 끝에 매달아 두면 새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맛있는 이야기 둘 : 입 달린 괴물 이야기]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고 까막까치 말할 적에 마을에 욕심 많고 돈 많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 이 총각이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시집온 여자가 밥을 많이 먹어 자기 살림을 축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밥을 조금 먹는 여자를 찾기 시작했어. 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밥을 적게 먹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아 글썽 그 여자는 입이 없는 거야. 입이 없으니 밥도 못 먹을 것 아냐? 그래서 얼른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지. 그렇게 해서 둘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입이 없는 여자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정말 아무 것도 먹질 않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서 일은 너무 잘해. 장가 간 총각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아무 것도 안 먹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일을 잘하고 살 수 있는가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일을 나가는 척하면서 몰래 들어와 숨었어. 여자는 부엌에서 가마솥에 밥을 가득하는 거야. 장가간 총각은 저절로 누가 다 먹으려고 하나 생각하고 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 웬 줄 알아? 그 여자가 글썽 커다란 가마솥에 있는 밥을 머리에다가 집어넣더라고! 숨을 죽이고 다시 보니 머리카락 속에 입이 숨겨져 있었는데. 왼쪽 귀부터 오른쪽 귀까지 다 입인 거야. 이 광경을 지켜 본 총각은 그만 너무 놀라 자빠져 버리고 말았어. ‘쿵!’ 하고 말이야. 그 소리에 여자가 눈치를 채고는 이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 총각은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도망을 갔지. 그런데 이 여자가 어찌나 빨리 쫓아오던지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았어. 너무나 다급한 이 총각은 쭈과 익모초가 높게 자란 풀숲 속에 숨었지. 그런데 이 여자는 쭈과 익모초 냄새를 맡더니 가까이 오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더라. 여자가 간 다음에 총각은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쭈과 익모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이 총각은 여자가 또 찾아 올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쭈과 익모초를 뜯어서 쭈은 다발로 만들어 여자가 못 들어오도록 대문 앞에 걸어두고, 익모초는 달여 매일 한 모금씩 먹곤 했더니, 그 여자가 오지 않더라.

[맛있는 이야기 셋 : 수리취에 관한 이야기]

수리란 이름이 붙게 된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문헌에 의하면, 이날 쑥떡을 해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이라고도 하고, 수리취로 떡을 해먹었기 때문에 수리란 이름이 붙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11) 유두(음력 6월 6일)

절식으로 유두면, 수단, 편수, 밀쌈 등이 있고 여름 과일(참외, 수박)이 풍성하다. 햇밀가루

12) 삼복(초복, 중복, 말복)

삼계탕, 개장국(보신탕), 닭죽, 육개장, 임자수탕, 민어탕, 팔죽 등이 있다.

13) 칠월칠석(음력 7월 7일)

절식으로 밀국수, 밀전병을 하고 오이김치나 복숭아, 수박으로 과일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칠월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마당에 바느질 차비와 음식을 차려놓고 길쌈과 바느질을 관장한다는 직녀에게 길쌈과 바느질을 잘하게 해주기를 기원한다. 집집마다 옷과 책을 벌에 쏘여 습기를 없애는 풍습이 있다.

14) 백중절(음력 7월 15일)

시식으로 밀개떡, 밀전병, 수수떡, 감자떡, 호박부침, 육개장, 게, 전유화, 오이김치, 깻국탕, 김칫국, 냉면, 어채, 열무김치 등이 있다. 각종 밀반찬을 마련하는 데 적당한 시기로 애호박, 도라지, 더덕, 깻잎부각, 풋고추부각, 감자녹말 등을 마련하여 저장하여 두었다 쓴다. 또한 소라나 다슬기 등이 제철이므로 이를 시식으로 먹는다. 경남 지역에서는 백중날 백 가지 나물을 무쳐 먹고, 백 가지 풀을 고아 그 물을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백중날에 백 가지 나물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백 가지의 나물을 장만할 수가 없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희게 만든 백가지를 만들어 먹는다. 호박도 제철이므로 호박부침을 별미로 만들어 먹는다.

백중일이 생긴 유래는 제주도의 목동이 곡식과 가축을 지키려고 옥황상제의 명을 어겼는데, 이로 인해 노여움을 받아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 후 농민들이 그가 죽은 날을 백중일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어 그의 영혼을 위로했다고 전한다.

[맛있는 이야기]

음력 7월 보름날을 백중일 또는 백종일, 중원일, 망혼일이라 한다. 또한 머슴날이라 불리기도 한다. 백종은 이 무렵에 여러 가지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이다. 농촌의 7월은 바쁜 농번기를 보낸 뒤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을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백중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산신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라 들에 나가 일을 하면 방해가 된다고 해서 남자들은 들에 나가지 않고, 여자들은 집안에서도 바느질이나 그 밖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15) 중추절, 한가위, 추석(음력 8월15일)

시식으로 송편, 햃과일, 토란탕, 송이버섯요리, 배숙, 화양적, 느르미적 등이 있다.

송편은 대표적인 추석음식이다. 송편은 솔잎을 커마다 깔고 찌기 때문에 송편이란 이름이 생겼고 올벼로 만든 송편이라 해서 ‘올벼송편’ ‘오려송편’ 이라고도 한다. 송편 속에 콩, 팥, 밤, 대추, 깨 등을 넣는데 모두 햃것으로 한다.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해서 처녀, 총각들은 예쁘게 만들려고 솜씨를 보인다. 또한 아기를 가진 부인들은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 궁금할 때 송편 속에 바늘이나 솔잎을 가로 넣고 찢 다음 한쪽을 깨물어서 바늘의 귀쪽이나 솔잎이 붙은 곳을 깨물면 딸을 낳고 바늘의 뽕쪽한 곳이나 솔잎의 귀쪽을 깨물면 아들을 낳는다고 점을 치기도 했다. 송편은 솔잎을 깔아 맛으로만 먹은 것이 아니고 후각적 향기와 시각적인 멋도 즐겼다. 솔잎은 뛰어난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솔잎을 깔고 찢 송편은 세균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을 과일로는 감, 밤, 대추, 호두, 은행, 모과 등이 전래의 것이고, 요즈음에는 사과와 배가 첨가되었다. 밤, 대추, 곶감은 제물로 필수이다. 대추는 감미가 있어 여러모로 쓰였고 약식에도

넣었으며 감기에방에 좋다. 또한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호두, 은행은 두었다가 상원날 부럼에 쓴다. 은행은 오줌싸개 아이들에게 잠들기 3~4시간 전에 며칠만 먹이면 효과가 있다고 하며 결핵치료약으로도 유명하다. 모과는 약이나 차로 쓰이고, 모과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감기, 기관지염, 폐렴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가위는 신라시대로부터 인식되어 온 고유한 우리의 명절이다. 추석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한다. 한가위의 유래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볼래. 한가위에서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우리의 옛말에서는 온 것이라고 한다. 또 ‘가위’라는 말은 길쌈놀이인 ‘가배’에서 온 것이라고도 한다. ‘길쌈’이란 실을 짜는 일을 말하는데, 이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유리왕 때에 도읍 안의 부녀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 왕녀가 각기 거느리고 7월15일부터 8월 한가위 날까지 한 달 동안 길쌈 내기를 했다. 그리고 길쌈을 누가 많이 했나를 가려 진 쪽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아 승자를 축하하고 가무를 하며 각종 놀이를 했는데 이것을 가배라 한다. 이 때 부른 노래가 슬프고 아름다워 회소곡이라 했다. ‘가배’란 진편에서 이긴 편에게 잔치를 베풀게 되므로 ‘값는다’는 뜻에서 나왔다. 그 후 그 말은 ‘가위’라는 말로 변하게 된 것이다.

‘올벼심미’(또는 올게심니)는 그해의 농사에서 가장 잘 익은 곡식으로 벼, 수수, 조 등의 목을 골라 뽑아다가 묶어서 기둥, 방문 위나 벽에 걸어놓는 것이다. 올벼심미를 해놓으면 그 곡식들이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이때에 떡을 하고 술도 닭도 잡아서 작은 잔치를 베푸는 수도 있었다. 올벼심미를 할 때에 찢어서 밥이나 떡을 해서 조상의 사당에 바쳤다고 한다. 결실을 감사하는 마음과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한가위의 풍습이다. 아울러 종자보존의 의미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농촌의 소년들은 이때 콩서리도 했다. 콩을 통째로 껍어다 불을 피운 속에 넣어두었다가 익으면 꺼내어 먹는데 맛이 별미이다. 발콩보다는 논두렁콩이 더 맛이 있어 초가을에 흔히 한다.

추석 때면 농가도 잠시 한가하고 인심도 풍부한 때이므로 며느리에게 말미를 주어 친정에 가게 한다. 이것을 온보기라고 한다. 친정에 갈 수가 없을 때는 반보기를 했다. 이는 친정과 미리 연락을 해서 친정과 시집中间的 경치 좋은 곳을 정하여, 딸은 친정어머니가 좋아하는, 친정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서 서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중로회견 또는 중로보기라고도 한다. 전라남도 강진지방에서는 한 마을의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하루를 놀고 즐기는 것을 반보기라 부르기도 한다. 속담에 ‘근친길이 으뜸이고 화전길

(삼짇날 꽃놀이)이 버금이다'라고 할 정도로 추석을 전후하여 반보기가 아닌 '온보기'로 하루 동안 친정나들이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이었다고 한다.

[맛있는 이야기]

설날 차례를 떡국차례라고 했지요. 그럼 추석 차례는? 송편차례라고 했대요. 그런데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는 추석날에 먹는 달떡 송편은 왜 반달모양일까요? 달에게 소원을 빌곤 했던 우리조상들이 반달모양의 송편을 만들었던 이유는 달이 하루하루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원도 조금씩 이루어져간다는 발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님 너 하나 나하나 만들어 온달을 이루고자하는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 일수도 있어요. 그도 아님 그 모양새가 반달 송편이 더 예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 보세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둥근달을 상징하는 둥근달 모양의 월병을 만들었대요.

16) 중양절(음력 9월 9일) 늦가을 절식

이때 국화가 만발하므로 국화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한다.(예 저장음식)

[맛있는 이야기]

삼월삼짇날, 오월단오, 칠월칠석처럼 양수가 겹쳐지는 날이다. 삼짇날에 왔던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는 날로 중양, 중구라 하는데, 중양이란 홀수인 숫자가 2개 겹쳤다는 뜻이고,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말이다. 국화를 이용해서 전이나 화채를 해먹을 수 있다.

17) 상달(음력 10월 5일) 무오일?

10월의 시식으로 시루떡, 무시루떡, 만둣국, 열구자탕, 변씨만두, 연포탕, 애탕, 애단자, 밀단고, 강정 등이 있으며 김장을 담근다. 해마다 음력 10월이면 겨울철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근다. 김치는 채소를 저장하여 먹을 것이라 소금에 절였고, 또한 미각의 발달이 보다 맛난 것을 찾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여러 종류의 김치가 생기고 맛이 날로 달라져 가고 있다. 김장의 시기는 입동 전후에 담야, 겨울 추위가 오기 전 알맞게 익어갈 무렵에 추위가 오기 전 알맞게 익어질 무렵에 추위가 닥쳐야 제 맛이 나게 된다. 김장 때 담는 김치로는 통배추, 깍두기, 동치미, 썬박지

, 보쌈김치가 대표적이다. 김치의 시작은 한사군 시대에 소금 절임부터 시작되어 지금과 같이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는 17세기 고추가 들어온 뒤이다. <산림경제>에는 고추가 등장하여 김치 담는 법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김치의 종류는 재료와 담그는 방법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김치, 장아찌, 절임, 깍두기, 동치미, 찐지, 식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가 약60여 종류가 되고, 김치 담그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100여종에 이른다. 주재료는 무, 배추, 오이, 기타 채소와 부재료로 소금, 과일, 파, 마늘, 고추, 생강, 생선, 젓갈류 등이 이용된다. 지방마다 기후가 달라 김치 담그는 법과 재료가 달라 향토식의 김치가 매우 특색 있게 발달되었다. 서울의 통김치, 개성의 보쌈김치, 공주의 깍두기, 평안도의 동치미가 유명하다. 김치는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요리이고, 비타민c가 충분하고, 젖산 발효에 의해 특별한 맛과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생선, 젓갈 등을 넣어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식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데 좋은 음식이다.

[맛있는 이야기 : 시월을 상달이라 하는 까닭은?]

전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켰다고 한다. 이날은 건국신화에 의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나라를 세운 날이라고 하지. 그래서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일 년 중 가장 좋은 달로 생각하고 하늘과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대. 또 10월이면 한 해의 농사가 끝나 하늘에 추수 감사제를 지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므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대. 10월에는 입동, 소설의 절기가 있는 계절이며 입동은 아직 햇볕은 따뜻하나 물이 얼기 시작하고, 땅이 얼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 날부터 무 배추로 담그는 김장 준비에 바빠진다. 강화도 앞바다에서는 음력 10월 20일쯤이 되면 이상한 바람이 분다고 한다. 이것을 ‘손돌바람’이라 하고 이 바람이 불면 매우 추워, 이것을 ‘손돌이추위’라고 하며, 또 음력 10월 20일은 ‘손돌의날’이라고 한다. 입동전후로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김장을 하느라 어린이집이 분주해지는 때이다.

18) 동지(양력 12월 22~23일경)

삼복의 시식이기도 한 팔죽을 동지에도 해 먹는다. 동지 팔죽을 쑤어 잡귀를 쫓고자 집 안 이곳저곳에 떠 놓거나 뿌린 다음 나이 수만큼 새알심을 넣어 먹는다.

동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하다. 그래서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설이라 부른다. 이때에는 동지 팔죽을 쑤어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하며 동지 팔죽엔 반드시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죽 그릇에 먹는 사람의 나이 수만큼씩 넣어서 먹었다. 또 작은설이라 여겨 이날은 달력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팔죽을 먹어야 한살 더 먹는다.’라 한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맛있는 이야기 : ‘귀신은 팔죽을 무서워해요!']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붉은 색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서 동지 날 팔죽을 쑤어 먹었다. 또 동짓날 팔죽을 먹지 않으면 귀신을 막지 못해서 쉽게 늙고 잔병이 많이 생긴다고 믿었지. 그런데 동짓날이라도 팔죽을 쑤 먹지 않는 때가 있다. 바로 ‘애동지’이다. 동지는 보통 11월인데, 11월 10일 이전에 들면 애동지라고 했대요. 옛날에는 애동지 때 팔죽을 쑤 먹으면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해서 팔죽 대신 팔 시루떡을 썰서 먹었다고 한다.

19) 섣달(음력 12월)

섣달 그믐날에는 여러 가지 나물을 섞은 골동반(비빔밥)을 만들고 만두전골, 정과, 주악, 식혜, 장김치, 수정과 등을 만들어 먹는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아이들은 어른에게 묵은세배를 드리고 부녀자들은 설음식을 만들 때에 남자들은 집 안팎을 청소한다. 일 년의 마지막 시간에 이해도 무사히 지나간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9. 미디어 교육, 이렇게 해요

1. 어린이와 텔레비전 바로보기

텔레비전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거론되었다. 다양한 가외변수와 상황적 조건이 개입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대체로 텔레비전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위와 현실인식에 어떤 인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그러한 영향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는가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영향력을 올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능력이다. 무조건 나쁘니까 멀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2. 부모의 의식개혁이 우선이다

다음은 아이들을 올바른 시청자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은 부모책임이 우선이다.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태도는 부모들의 시청태도와 정확하게 닮은꼴이다. 연속극은 꼭 보는 엄마나 휴일 내내 텔레비전 앞에 뒹구는 아빠를 둔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 가능하다.

2) 텔레비전 시청은 저녁식탁이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편식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아이

들의 건강을 해치듯이 불균형적인 텔레비전 시청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텔레비전은 바보상자가 아니다.

바보상자, 전자 마약, 외눈박이 괴물 등의 표현은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이름들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그렇게 백해무익한 물건만은 아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쓸모 있는 교육수단이 될 수 있다.

3. TV 세계와 현실 세계 구별하기

1) TV는 요술 창문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세상을 향해 열린 창’으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텔레비전을 세상을 들여다보는 통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은 창이되 ‘요술창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는 없으며 그렇게 때문에 때로는 생략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2) 진짜현실과 가짜현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황이 진짜 현실을 파악하는 잣대가 될 때 어린이들이 위험한 모방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뚤어진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TV 시청을 위해서는 TV를 통해 보여지는 세상과 실제 세상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부터 키워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이다.

☐ <슈퍼맨>, <배트맨>등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질문을 해보자!

슈퍼맨은 진짜 사람일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 아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구별시켜보자.

실제 인물들이 실제 사건을 묘사하는 프로그램

가상의 인물(배우)들이 실제 사건을 묘사하는 프로그램

가상의 인물(배우)들이 허구의 사건을 묘사하는 프로그램

☐ 그런 후 다음의 질문들을 해본다.

세 가지 프로그램의 차이는 뭘까?

배우와 실제 인물간의 차이는 뭘까?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분장이나 의상, 세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 만화영화 주인공들이 실제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어떤 상황이 현실과 비슷하고 무엇이 비현실적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한다.

☐ 만화영화 주인공들이 환상적, 또는 초인간적으로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와 비슷한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적은 없나?

☐ 만화영화의 동물 주인공에 대해 물어보자.

만화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은 진짜로 있을까?

어떤 점이 실제와 다른가?

동물들이 실제로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나?

심하게 다쳤는데도 금방 괜찮아지는 동물 주인공들은 누가 있나?

☐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족과 우리 가족을 비교해보자. 비슷한 또래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생각도록 한다.

텔레비전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다른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가족에 대한 불만은 있나?

□ 특정집단의 사람들이나 실제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장애인, 농촌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흑인과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내가 만일 장애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흑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만나서 얘기하고 싶나? 이유는 뭘까?

4. TV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어린이 텔레비전 시청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폭력이다. 어린이들을 텔레비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력 프로그램 자체를 추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들이 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1) 폭력을 부추기는 프로그램 유형

서로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주먹질이나 크게 말다툼하는 내용을 그린 서부극 종류

매우 사실적인 싸움 장면을 그린 폭력 극

좋은 목적을 위해 폭력의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의 사용을 묘사하는 프로그램

2) 폭력 동기와 결과를 혼동하는 어린이

흔히 드라마나 만화영화의 내용이 좀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지 발달이 비슷한 단계의

어린이(특히 취학 전)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복잡한 이야기 구조와 빠른 화면 전개, 특수효과 등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폭력의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만 빠져들게 만들고 이것이 모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 카메라 기술이 더 폭력적이다.

4) 폭력은 손쉬운 문제해결법?

현실에서는 텔레비전과는 달리 폭력의 결과가 간단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한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또 다치게 한 사람은 그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폭력을 간단하고 손쉬운 문제해결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5) 코믹하게 그려지는 언어폭력

어른들은 텔레비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린이들은 다르다. 현실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텔레비전 속의 과장된 언어를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6) 폭력 기록표 만들기

TV폭력에 대한 시청교육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폭력기록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어린이들이 직접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자.

1. 프로그램의 이름은
2. 이 프로그램에서 죽은 사람은 몇 명인가?
3. 이 프로그램에서 다친 사람(죽지는 않고)은 몇 명인가?

4. 범죄행위가 등장하는가? 등장한다면 어떤 것인가?
5. 자동차 추격 장면은 있었나? 자동차 사고는 있었나?
6. 화재나 방화는 있었나? 다른 사고는 없었나?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7. 악당은 벌을 받았나?
8. 폭력적인 행동이 재미있게 그려진 적은 없나?
9. 폭력 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부당하게 다친 적은 없나?
10.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는 없었나?

5. TV 광고 올바로 이해하기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물건을 사냐? 안사냐의 차원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내지 물질만능의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 광고의 문제점을 보자.

1) 유치원 이하의 어린이들은 광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광고를 이해하지 못하며, 광고의 내용에 쉽게 설득당할 가능성이 높다.

2) 광고를 많이 볼수록 구매 욕구는 강해진다.

3) TV 광고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만든다.

광고는 물건을 가지면 친구들에게 인기도 얻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준다.

4) 카메라 기술이 물건을 더 좋아 보이게 한다.

5) 좋아하는 스타가 구매 욕구를 부추긴다.

광고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광고는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에 열거한 것은 텔레비전 광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실습용 지침들이다.

- ☐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방송되는 광고를 모두 한번 적어보도록 한다. 간단한 표를 만들어 프로그램 이름을 적고 각 프로그램마다 어떤 제품의 광고가 방송되었는지를 기록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광고를 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는 제품의 광고를 몇 개 골라본다. 무엇이 그런 효과를 냈는지 카메라 기술이나 특수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 팔기 힘든 제품이나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물건들(가령 빈병, 못, 풍선 등)에 대한 광고를 직접 만들어 본다. 그림을 그리고 문수를 써서 모델처럼 실제로 연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 ☐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품들, 즉 화장품, 샴푸, 비누, 치약 등의 광고를 골라서 비교해 본다. 어떤 광고가 과장이 심한가, 어떤 광고가 가장 솔직한 편인가 어떤 식으로 과장을 하는가 등을 이야기해 본다.
- ☐ 먹는 제품의 광고들, 음료수, 과자, 라면 등의 광고를 골라서 마찬가지로 비교해 본다.
- ☐ 장난감 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비교를 해본다. 과장이 심한 광고와 정직한 광고를 골라보고 특히 인형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있는지 살펴본다. 또 건전지가 들어 있지 않은데 마치 포함된 것처럼 만든 광고는 없는지 살펴본다.
- ☐ 광고된 물건을 사기만 하면 당장 건강해지고 또 친구나 애인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 광고를 골라본다. 그리고 그 물건을 샀을 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 공익광고에 대해 설명해주고 일주일 동안 보았던 공익광고를 적어보도록 한다. 또 어떤 내용이었던지도 적어본다.
- ☐ 광고 내용 중 어려운 표현들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일을 해본다. 가령 ‘유통기한 상단 표시’를 ‘윗면에 적힌 날짜까지만 드세요’라든가, 장난감의 경우 ‘조

립요망'을 '직접 맞추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쉽게 바꾸어보면 아이들이 광고를 이해하는데 한층 도움이 된다.

-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별로 주지 않는 광고를 생각해 보고 왜 그런지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는 콜라광고는 콜라 맛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다.

6. TV 인물 : 올바른 역할모델 찾기

어린이들의 자아발견의 과정은 대체로 두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약 4살에서 6살까지로 부모를 통해 자신의 성을 깨닫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성역할을 배우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는 단지 성역할 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정체감을 찾게 된다. 이시기에 영향을 주는 대상들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어떻게 자아정체감을 갖게 될까?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여 지는 인물들이 실제와는 다른 가공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은연중에 가공의 인물을 바람직한 인간형의 모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잘못된 역할모델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다.

1) 우선 TV 인물은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왜 특정한 TV 인물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은 자신과는 반대로 강한 인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게 된다. 또한 재미있고 친근하면서도 약간 모자라고 덜렁대는 성격의 인물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코미디언들을 흉내 내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을 잘 나타내준다.

3) TV 인물들은 스테레오 타입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스테레오타입이란 특정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뜻한다. 한 가

지 재미있는 연구결과는 여자보다는 남자아이들이 그러한 경향을 더 강하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여자아이들은 비교적 빨리 여성의 역할모델을 찾게 되는데 반해(엄마, 놀이방 보모,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여선생님) 남자아이들은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남성인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 남성의 역할모델을 텔레비전으로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TV 속의 스테레오 타입화된 남성상이 쉽게 각인된다는 것이다.

4) TV 인물의 부정적인 속성과 긍정적인 속성을 비교해보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TV 인물의 속성을 꼽으라하면 외형적인 면(힘, 외모, 인기, 코믹함)을 주로 생각한다. 이때 부모들은 다른 종류의 속성들(동정심, 친절, 이타주의, 근면성, 충성심, 속물근성, 증오심)도 같이 얘기해보는 것이 좋다.

5) 동일한 TV 인물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같은 사람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 ☐ TV 속 인물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얘기해본다.
- ☐ 내가 좋아하는 TV 인물과 비슷한 친구나 아는 사람, 또는 책 속의 주인공을 생각해보고 왜 비슷한지 얘기해본다.
- ☐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TV 인물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적어본다.
- ☐ 특정한 TV 속의 인물을 내가 좋아하는 인물로 바꿔본다.
- ☐ 같이 있고 싶은 TV 인물을 직접 창조해본다.
- ☐ 가족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의 특징을 얘기하면 다른 가족이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인물을 고른다.

7. TV 스테레오 타입의 위험

스테레오 타입도 부분적으로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레오 타입은 특정 성향만을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성향들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이 같은 텔레비전의 스테레오타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1) 스테레오 타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

① 생소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태도

어린이들은 자신에게 생소한 상황을 묘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령 실제 경찰은 총을 사용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만 텔레비전의 경찰관 스테레오 타입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경찰은 항상 범인과 쫓고 쫓기는 총격전을 벌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② 시청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편견적 태도간의 관계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냐와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흑인에 대해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자주 본 경우 흑인들에 대해 부정적이 생각이나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③ 스테레오타입의 지속성

일단 형성된 스테레오 타입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으며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스테레오타입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 사람을 특별한 경우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말하자면 스테레오타입이 실제의 인간관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현실을 오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 여성에 대한 새로운 스테레오타입

과거에는 여성이 약하고 소극적이며, 부수적인 역할로 그려졌으나 지금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묘사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내고 있다

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여자어린이들의 경우 아름다움과 능력이 모두 갖춘 여성, 즉 슈퍼우먼만이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인식을 하기 쉽다.

스테레오타입을 부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자신의 태도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린이들은 계속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때 텔레비전을 통해 사람에게 편견을 갖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 스테레오타입의 교정훈련

①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스테레오타입을 찾는 게임을 해보자. 직접 찾는 것이 어려우면 다음 몇 가지 인물유형을 참고로 한다. 신랑감을 찾는 노처녀,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신세대 대학생, 흑인 갱두목, 정치인, 셀러리맨, 정신지체아동, 마마보이.

② 이런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음 질문에 따라 함께 이야기해본다. 아이들에게 직접 그런 특징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좋다. 외모 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똑똑한가? 성격은 이성적, 감정적, 본능적, 어느 쪽인가?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친구나 가족사항은 어떤가? 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③ TV 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비스테레오타입적인 인물을 생각해보고 모습을 직접 묘사해본다. 공부 잘하고 뚱뚱한 남학생, 다림질하는 남자, 여자 판사, 일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장애인, 흑인 신문기자.

④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V에서 보는 사람들과 실제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 중에서 TV 속 스테레오타입과 전혀 다른 사람을 찾아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된다.

교육용 비디오나 비디오 게임도 유해한가?

텔레비전과 비디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 교육용일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제인 힐리는 자신의 연구에서 교육용이라도 비디오 게임 등은 유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비디오 게임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을 극도로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면 습관이 되어 가상현실을 실제상황과 착각하게 된다는 것. 즉 혈압과 심장 박동수와 심지어 뇌파까지도 현실상황 때처럼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디오게임은 강렬하게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TV를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와 미디어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이 점점 정교해지고 발달할수록 아이들은 비디오게임을 현실로 착각하며, 그를 통해 세계관과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 감각 영역이 활짝 열려있는 7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비디오게임은 특히 유해하다. 비디오게임과 관련된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닌텐도 게임을 해왔던 10대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증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경직 충격 혹은 몇 초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따위이다. 아이를 위해 비디오게임은 늦추면 늦출수록 좋으며, 만약 이미 비디오게임을 가지고 있거나 집에 들여놓을 생각이라면 아이를 위해 ‘비디오 게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인 힐리는 제안하고 있다.

광고는 기억을 조작할 수 있나?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엘리자베스 로터스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 자키 피크렐은 17일 열린 미국 심리학회 연례모임에서 조작된 광고를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까지 바꾸어버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디즈니랜드의 광고에 만화영화의 주인공인 벅스 버니(그림)를 등장시켰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수많은 만화영화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지만 벅스 버니는 결코 만날 수 없다. 흥당무를 문 귀여운 토끼인 벅스 버니는 워너 브라더스사의 캐릭터이기 때문.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1/3 정도가 자신들이 디즈니랜드에서 벅스 버니를 만나 악수까지 나눈 것으로 기억하게 됐다. 연구팀은 조작된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식’ 이 ‘기억’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태어날 때 텃줄을 끊은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식’ 이다.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에 벅스 버니를 보았을 수 있다는 ‘지식’ 을 가진 다음 이를 실제 ‘기억’ 으로 간직하게 된다는 것. 또 잘못된 기억은 다른 잘못된 기억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광고를 본 실험대상자들은 디즈니랜드에서 벅스 버니를 보았다는 기억을 갖게 되자 벅스 버니가 미키 마우스와 함께 있었다는 식으로 잘못된 기억을 연쇄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강했다. 이렇게 가공된 기억은 곧 상품 구매로 이어진다. 디즈니랜드나 맥도널드가 흔히 하는 광고는 주인공들이 그곳을 방문해 멋진 경험을 한다는 식인데 실제 그곳에서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사람들도 같은 기억을 갖게 한다.

[2001-06-21 생명과학, 동아사이언스]

10. 문자언어교육, 이렇게 해요

이 주 영

마포초등학교 교감

1.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내 생각

나는 사람이 못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을 때 대개 다음 세 가지를 보기로 든다. 도구를 쓸 수 있는 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기능, 웃음의 다양성이다. 간혹 불만스럽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느끼고 생각하는 사고 능력은 빼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나는 그걸 알 수가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아직 인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개가 사고하는지 안 하는지, 토끼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지렁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노라고. 아니, 사실 나는 그들도 우리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정신과 영혼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향노루의 눈을, 개의 눈을, 토끼의 눈을, 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들의 맑은 눈에서 어린아이의 눈을 만났다.

사람들은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언어 기능이 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언어 기능을 획득했다. 곧 사람은 누구나 언어 기능이 있고, 어떤 장애도 이를 억누르거나 빼앗을 수는 없다. 빼앗겨서도 안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를 빼앗기거나 억눌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언어 기능의 신장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수준을. 나는 이런 까닭으로 인류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과 교류를 통한 해방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그 해방의 단계를 가늠하는 기본 척도로 개인과 사회 언어의 양적 질적 발달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말과 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뉘어서 생각한다. 나는 음성 언어가 삶의 중심일

때를 '말의 시대'라고 하며, 문자 언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근현대를 '글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 앞으로는 '영상 언어', 곧 '그림의 시대' 또한 다시금 고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보지만 문자 언어의 힘, 곧 '글의 힘'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문자 언어 요소는 소리(말)·뜻(느낌과 생각)·형태(글자)인데, 형태가 다른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글자들이 모여 문장을 이룬다. 문장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 문자 언어가 된다. 이 문장을 얼마나 자유롭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곧 문자 언어 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정확하게 하느냐가 오늘의 주제인 '아이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문자 언어 교육'이다.

문자 언어의 발달과 이를 돕기 위한 교육은 '보기-보여주기, 듣기-들려주기, 말하기-들어주기, 그리기-함께 느끼기, 읽기-좋은 책 주기, 쓰기-의미를 이해하기'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연령에 따라 직선 단계로 발달되면서 동시에 복합 활동에 의한 총체적 승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전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언어 기능의 유전설, 후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언어 기능의 환경설에 의존한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언어 기능 유전인자가 있으며, 언어 지식을 내재하고 있고, 이를 재현하도록 도와주는 일, 자연스럽게 재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여기에 새로운 언어 기능과 언어 지식을 더해주는 일, 그리고 언어를 통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교사가 할 일이라고 본다.

2.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쥐의 경우 처음 태어났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기 시작하면서 뇌의 중추 내 신경세포 접촉 수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쥐의 눈을 가려 계속 못 보게 하면 뇌 중추 내 신경세포의 접촉 수가 처음과 같이 아주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몇 주 뒤에 가린 준을 풀어 주었지만 그 손상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졌다. 인간의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생후 최초의 기간에 시각적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와 유사한 장애가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기간이란 3개월까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은 시각 중심 시기가 길고, 그 동안은 이러 관점이 유효하다고 본다(사고와 학습 그리고 망각, 프레데릭, 범양사, p39).

언어는 인간의 경험 속에 아주 단단히 짜여 있어서 언어 없는 생활이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아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 두 명 이상의 인간이 모이면 그들은 곧 말을 주고받을 것이

다. 사람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심지어는 자신이 기르는 식물에게까지 말을 건다. 우리의 사회관계 속에서 승리는 재빠른 자의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자의 것이다. 즉 승리는 매혹적인 변사와 달변의 바람둥이 그리고 완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부모와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마는 설득력 있는 아이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뇌 손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어증은 어떤 병보다도 참혹하게 느껴지는데, 심한 경우 가족들은 그 사람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졌다고 여기기도 한다(언어 본능, 스티븐 핑커, 그린비. p18).

현세기에 들어와서, 언어가 본능과 흡사하다는 가장 유명한 주장을 한 사람은 복잡한 언어체계의 베일을 벗긴 최초의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촘스키(Noam Chomsky)다. 1950년 대 사회과학은 스키너(B. F. Skinner)에 의해 대중화된 행동주의학파의 지배하에 있었다. 행동은 쥐가 막대를 누르거나 개가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자극반응이론의 몇 가지 법칙들로 설명되었다.

촘스키는 언어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첫째는 사람이 말하거나 이해하는 모든 문장은 사실상 우주 역사상 최초로 출현하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조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반응의 집합이 될 수 없다. 분명히 우리의 두뇌에는 한정된 단어의 목록으로부터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책이나 프로그램이 담겨있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정신적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이 복잡한 문법을 재빨리 그리고 공식적인 교육 없이 습득한 뒤에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설 속의 문장구조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모든 언어의 문법에 공통적인 하나의 설계도, 즉 부모의 말에서 통사적 유형을 여과해 낼 수 있게 해주는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을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촘스키는 주장했다(p25-26).

행동주의 이론을 읽기에 적용해 보면, 처음에는 가장 작고 단순한 행동을 가르치고 점차 복잡한 행동을 가르치게 된다. 예를 들어 'ㄱ ㄴ ㄷ ㄹ'같은 철자를 가르치고 '가 나 다' 음절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가방, 나비'같은 낱말을 가르친다. 이렇게 (*모든) 학습은 언어 단위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부분을 모두 모으면 하나의 전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단체는 단순히 부분의 집합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형태 심리학적 관점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형태(Gestalt)라는 말은 독일어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를 일컫는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학습은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젊은 귀부인과 늙은 노파로 보는 두 가지 지각) 형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극에 의존에서 '보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설'에 의존해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설은 우리의 배경 경험이나 필요, 관심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 머리는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부분을 지각하게 된다. 곧 이들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부분을 모았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자와 학, 학과 깃털) 이렇게 형태 심리학자들은 학습은 전체에서 시작해서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한다. (*교과 교육과 통합 교육) (읽기 교육의 이해, 이재승, 우리교육. p21-23).

프랑스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프랑스 대시인들의 문학적 향기가 가득 찬 작품을 줄줄 외우게 한다. 하루는 영재에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외고 있니?' 하고 물어 본적이 있다. 선생님이 뜻을 여러 차례 설명해 주어서 다 알아요. 얼마나 근사한 시인지 오히려 아빠가 알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에 어디 한번 천천히 외워 보라고 했다.

가을 안개 속의 정원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다.
말라빠진 마지막 잎사귀가
양상한 가지에서 떨어진다.
마지막 잎사귀는 천천히
눈으로 볼 수 있게 떨어진다.
고동색 잎사귀는 참나무
빨간색은 단풍나무 잎사귀
그러나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다.
햇빛이 자연으로 윤택하게 하면
장미빛으로 염색된 대기 속에서
고동색의 눈이 쏟아지는 듯하다.

이런 내용의 19세기 프랑스 시인 프랑스와 꼬삐의 작품을 줄줄 외던 영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알퐁스 도데, 자크 부네빌, 보들레르 같은 대시인의 작품에도 친숙해졌다. 선생님들은 좋은 문장이나 시를 외도록 교실에서 철저히 교육하고 숙제를 내준다. 집에 돌아와서 식사 때는 물론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초등학교 꼬마들이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또는 작은 소리로 문장이나 시를 암송하는 것은 프랑스 특유의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은 좋은 문장이나 시를 학생들에게 암송시킴으로써 초보적인 문법이나 동사활용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한다. 이와 같은 외기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기본 문장이 들어가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초등교육, 신용석, 홍성사. p77-79).

유아들이 바깥에서 모래 놀이 또는 수작업 등의 활동을 하고 나면 그들은 오전 시간의 마무리를 위한 동화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모임은 아주 조용한 노래를 통하여 유도된다. 이 노래는 경청의 자세를 준비하여 준다. 경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요의 문화는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 동화 모임은 이러한 사라져 가는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동화를 책을 가지고 읽어주지 않고, 단지 이야기를 한다. 그 때에 어른과 유아 사이에는 책이 놓여있지 않고 그들 사이에는 인간적인 직접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똑 같은 동화를 매일 2주에서 3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한다. 그때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열 번에서 열다섯 번이나 이야기한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 좋아하지만 유아는 물론 나이 든 노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좋아한다. 령계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확인을 경험하게 된다 (21세기 유아 교육 모델로서 자유 발도르프 유아 교육, 콕노의, 밝은누리. p104-105).

슈타이너(R. Steiner) 학교에서는 어린이들한테 문자 언어를 시기보다 일찍 강제로 각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들이 이를 가는 시기를 새로운 탄생의 시기로 보고, 이 때를 말에서 글로 넘어가는 시기로 본다. 곧 이 때부터 문자 지도를 한다. 문자 지도를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 동안 하는데, 대개 알파벳 한 자를 한 달 가까이 가르치는 것 같다. 그것도 몸 움직이기-줄긋기-그림 그리기-그림에서 찾아내는 문자-문자를 간직한 그림-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많은 낱말-그 알파벳이 들어가 완성된 아름다운 문장들을 되풀이해서 경험하도록 하면서 가르친다. 그리고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역사가 담긴 한 가지 시를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날마다 아침 공부 시작 때 즐겁게 낭송하며, 그밖에 많은 시들을 낭송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하루 일과를 동화 읽어주기-이야기 들려주기로 끝내고 있다. 그 방법이 대체로 웅장하고 장엄하다.

어린이들 삶의 세계에는 우리 어른들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진실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무한히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들이 자기 경험을 정직하게 쓰는 데서 자

라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놀라운 글이 되는 것이다. - 쓰고 싶은 것을 쓰게 해야 한다. 쓰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글을 쓰는 데 기쁨을 느끼는 아이만이 글을 쓰는 데서 성장한다. 글은 자기현시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쓰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고, 쓰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 기술이다. -글쓰기 교육이 곧 인간 교육이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생활을 가꾸어 나가는 일을 떠난 어떤 글쓰기 교육도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교육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오덕, 한길사. p17-21)

3. 문자언어교육의 길

옛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쓰다듬고 보듬어주기, 보여주기, 들려주기
 자연 속에서 놀기, 자연과 이야기 나누기
 들어주는 것을 으뜸으로 하는 마주이야기
 몸으로 느끼는 글자, 눈으로 익히는 글자, 손으로 그리는 글자, 그리고 읽기와 쓰기
 솔직하고, 정확하고, 자세히 즐겁게 쓰기, 그리고 가치있는 글쓰기
 자유롭고 즐거운 좋은 책 읽기. 그리고 이해, 해석, 분석, 비판, 창조하는 책읽기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경험하기, 교육·문화 공동체 창조하기

3부

공동육아를 알고싶어요

1. 공동육아 역사와 철학을 알고 싶어요
2. 공동육아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3. 공동육아 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요
5. 부모참여, 이렇게 하면 신나요
6. 공동육아 관계맺기, 이렇게 하면 살맛나요

3부. 공동육아를 알고 싶어요

1. 공동육아 역사와 철학을 알고 싶어요

대안교육의 길을 찾아서 : 야학에서 공동육아까지⁵¹⁾

정 병 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머릿말

1984년 여름, 또 하나의 문화가 태동하던 무렵 나는 창신동 산꼭대기 성벽 밑에서 “해송아기 둥지”라는 공동육아를 위한 한 작은 터를 만들고 있었다. 지금은 나와 아주 같이 살게 된 가까운 사람을 통해 또 하나의 문화가 주는 활기와 해방감을 처음부터 느낄 수는 있었지만 이 운동이 내가 당시 이미 여러 해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오던 억눌린 자들의 대안적 교육통로를 만드는 일과 결국은 함께 해야만 할 일이라는 의식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있어 “억눌림”이란 주로는 유신시대의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1호에 참여를 권유받고 저항적 교육에 관한 아주 기능론적인 논문을

51). 이 글은 또 하나의 문화 10호 [사회운동과 나]에 수록된 원고입니다.

써 보았으나 눈앞에 닥친 일에 치여서 다듬어 신지는 못했다. 이 글을 쓰며 오래된 원고철을 뒤지다 보니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의 실천적 모색”이라는 제목의 노랗게 바랜 200자 원고지 뭉치가 10년 전의 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질긴 인연이다. 주로 제도교육의 교육독점 현상에 대하여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대안적인 교육의 터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과 시간적으로는 제도교육이 길러내는 사람을 통과외례 방식의 집중적 개입을 통해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갖도록 할 수 있나 이모저모 궁리해 본 글이었다.

지배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싹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교육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어릴 때의 일상적 경험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역설하면서도 이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해방적인 본질적 주제인지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10년의 세월만큼 바래버린 옛글을 보며 나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꿈을 나눠 보고자 한다.

2. 경쟁력 있는 의식화교육 - 야간학교 교과서 만들기

교육이란 원래 낭만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주제이다. 유신독재에 쓴맛을 본 나 역시 유행가 가사 같은 낭만적 도피 속에서 교육문제와 만났다. 섬사람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겠지만 서울 총각이었던 나는 섬마을 선생이 되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다. 남쪽섬 보길도에서였다. 묵고 있던 어부의 집 큰아들이 바로 옆 보길중학교를 놔두고 건너섬 노화도에서 하숙하며 유학을 하고 있었다. 근방 섬들 사이에서는 노화중학교가 명문이었다. 서울에서 일류싸움에 지고 지쳐 도망 온 나에게서는 충격이자 깨달음이었다. 도토리 키재기. 나와 우리 부모를 지난 몇 년 동안 그토록 고달프게 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느꼈다.

보길도에는 좋은 선생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 같은 분이 선생으로 와주었으면 한다는 말에 우쭐하여 정말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단다. 초등학교는 모두 교육대학을, 그곳 공립 중학교는 사범대학을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선생할 길을 알아보면 볼수록 저 남쪽 섬 끝까지 미친 국가권력의 교육에 대한 원천적 통제의 깊이와 두께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유신시대의 권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교육의 틈바구니에서 저항의 싹을 키울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그나마 제도교육 밖의 야간학교(야학)였다. 아직 계급문제에 대한 본질적 인식 없이 대학생들이 ‘봉사’하기 위해 야학을 세우고 선생노릇을 해보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제도교육의 틀 밖으로 밀려나간 어린 10대의 노동자들이 혹시는 검정고시를 통해 경쟁의 사다리를

다시 올라가 볼 수 있을까 하고 노동에 지친 눈을 비비며 밤을 새우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권력의 통제 밖에서 이 두 집단이 교육의 터전을 만들어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인 행위였고 서로를 의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야학이란 이름으로 당시로선 생경한 급진적 방법론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목동아파트의 거대단지로 변해버린 신정동 철거민촌 한 귀퉁이 천막 야학의 단기 의식화 코스인 ‘노동반’에서 나는 국사를 가르쳤다. 대학 내의 조그만 조직적 움직임도 용납되지 않던 1977년 봄이었고, 민주화의 가능성은 노동운동의 촉발이외에는 없다고 여겨지던 때였다. 당시 대학생들의 관심은 정치적 억압의 사슬을 끊는 것이었다.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 이미 폭 넓게 진행된 계급차별과 착취의 현상은 대부분 다른 계급에 속한 대학생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실과 유리된 조급함과 과격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엘리트 의식에서 나온 계몽주의적 방법으로 교육대상을 자신들이 좌절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들도 참을 수 없는 역겨운 일이었다.

‘노동자’를 만나러간 내 앞에 십여 명의 핏기 없는 십오륙 세의 소년, 소녀들이 앉아 어서 빨리 한자와 영어 단어를 배워서 신문과 간판과 상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면 했다. 그 중에는 반침 있는 한글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졸업자도 여럿 있었다.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육년 동안 여섯 명의 담임선생님을 갈아가며 겪었을 구박과 소외와 좌절의 깊은 상처가 그들 앞에서 잘난 척 했을 나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과 겹쳐 다시 그 앞에 선 내게 계급과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 과정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

노동반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노동법과 국어, 수학, 영어, 국사 등이었고, 노동법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중학교 교과서를 썼다. 하루 세 시간씩, 과정은 일 년이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현실이 모두 따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다. 대학생들 간 논의는 보다 단기간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전위를 양성하는 노동야학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곤 하였다. 즉, 전 과정을 3개월로 줄여 더 많은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사는 동학혁명에서 시작해서 3.1운동, 분단과 전쟁, 4.19로, 유신시대의 현실로 이어지면 된다는 식이었다. 제국주의의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일종의 허위위식의 산물이므로 눌러야만 했다. 내게는 대학생들의 집중과외로 한두 명의 초인을 검정고시에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또 다시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검정고시 야학의 자선적 교육만큼이나 책임 없는 정치운동 엘리트들의 도구적 교육방법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 문제점을 안은 채 보다 철저한 자기비판으로 스스로 노동자가 된 80년대 대학생들에 의해서도 노동야학의 보편적 방법으로 채용되었다.

가장 암울했던 유신 말기의 야학현장에 전해진 프레리 (Freire, Paulo)의 “억눌린 자들의 교육”은 자선과 도구적 교육 사이에서 갈등하던 야학 교사들에게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77년의 겨울방학 기간 중 서울지역 야학 교사 40여명이 모여서 두 달 동안 합숙하며 지적 경쟁력과 의식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야학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즉, 검정고시 야학과 노동야학의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할 길을 찾는 일이었다. 장소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월세로 빌려 썼다. (당시 대학생들이 의심받지 않고 모여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부동산 투기의 틈바구니에서 잠시 비어있는 고급아파트 밖에는 없었다. 이 사실 또한 당시 야학운동의 계급적 성격의 단면을 보여준다.)

교과서의 제목은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로 각 과목별로 묶은 2년 과정의 야학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다. 신동엽의 시, 마해송의 분단극복을 위한 동화와 석정남의 일기를 포함한 노동현장과 야학현장의 글들이 실린 국어, “I am a worker (labourer)”로 시작되어 기계와 도구의 이름과 상표와 일상 쓰이는 영어 단어로 만든 만화 영어, 환경과 생태계의 균형을 주로 다룬 생물, 수학의 역사를 통해 수학적 개념의 진화 과정을 익히게 하는 수학, 민중사를 담고자 하다가 국수적 민족사관에 치우친 듯한 국사, 국악과 김민기의 노래와 유행가까지 포함한 음악, 공동창작을 강조한 미술 등 전 과목에 걸친 진지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작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두 달에 걸친 매일 밤 토론과 자기비판 과정을 통해 새삼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실력의 한계, 제도교육의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더욱이 한 가지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늠할 본질적 가치관의 흔들림을 더욱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다. 다음해 봄부터 몇 과목은 미완성인 채로 유인물로 만들어 참가 야학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았으나, 검정고시나 노동야학 양쪽 나름대로의 절박한 교육 목표에 걸맞지 않은 교재가 되고 말았다. 야학간의 연대를 부르짖는 소리는 높았지만, 처음부터 경쟁력 있는 의식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동참한 야학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교육현장이 표준적 프로그램이나 교과서 개발로 일시에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엘리트 지식인의 오만과 조급함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교육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고도 하겠다. 그래도, 혹시 우리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이 시대의 교과서를 다시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하고 생각이 들 때면 그때의 열기가 느껴져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3. 해송보육학교 - 제도교육을 우회하는 대안교육의 통로 만들기

1978년에 설립된 야간 해송보육학교는 이러한 유신시대의 야학운동에서 진화한 하나의 실험 야학이었다. 이른바 야학의 전문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야학 학생들이 검정고시와 노동현장에서의 투쟁 이외에 나아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 길을 하나라도 새롭게 열어보자는 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철거민촌의 천막야학교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없을까 하는 궁리 끝에 나온 생각이었다. 집안의 어른들은 물론, 일할 수 있는 언니, 오빠들마저 모두 떠난 캄캄한 빈방에서 아이가 아이를 보거나, 혼자서 밥 차려 먹는 너댓 살짜리 아기들을 보면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을 몇 년 뒤 우리 야학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 때는 제도교육이 준 마음의 상처와 허송세월로 보낸 의무교육과정에서 굳은 머리와 이미 노동에 묶인 몸으로 만나게 될 터였다.

새로 만든 야학 교재의 등사비용이라도 얻으려고 후원금을 모으러간 유아교육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start Program) 운동 이야기는 눈이 번쩍 뜨이는 복음이었다. 경주말이 될 때는 말머리를 나란히 놓아야 한단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한참 뒤쳐져 있어서 취학전에 이들을 교육시켜야만 비슷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단다. 그렇지, 아무리 돈봉투를 밝히는 초등학교 선생이라도 지가 알아서 잘 하는 가난한 집 아이의 발목을 잡기야 할라고. 설사 잡는다 하더라도 뿌리치고 나갈 힘을 먼저 기를 수만 있다면.....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할 수 없어도, 아무리 노동현장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도, 그 때는 야학에서 노동법과 권리의식만 배워도 될 터였다. 아마 그 때는 대학생 나부랭이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취학전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화는 야학 교과서 작업의 실패로 움츠러든 가슴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욱이, 그 시기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마수가 아직 미치지 않았고, 법규정도 통제도 없었다. 문제는 ‘누가 어디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가 더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어디서’는 야학처럼 철거민촌 한 구석에 천막을 칠 기운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누가 낮 시간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였다. 가난을 아는 사람,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해하는 사람, 공식적 교육과 교육이 주는 권위

를 가지고 또 다른 억압을 하지 않을 사람, 없는 집 부모와 가정과 아이들을 주눅들이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 - 즉, 우리 야간학교 출신자들이 유아교육의 전문지식을 익힌다면 가장 이상적인 후보라고 생각하였다. 교과서 작업 때 익힌 파울로 프레이리의 가르침이 확신을 주었다. 더욱이 이들이 당시 공장에서 받던 임금수준이라면 대학생들의 힘으로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너무도 확연한 우리 교육제도의 모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5공 정부의 과외금지령 때문에 파탄에 처하기 전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조직화하여 사설학원을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하였다.)

이 일을 위하여 야학 교과서 작업을 함께 했던 대학생들과 새로이 유아교육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가담하여 “어린이 걱정모임”을 만들었다. 여기서 다시 누가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대학원생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를 못 찾아 노는 주변의 여성들이 오히려 저임이나 무료로 봉사할 수 있어서 적임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지배문화, 이데올로기의 오염도가 높아 가난한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대학생들의 강변에 밀려서 그나마 공인받지 못한 중졸수준의 야학 출신자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승락한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에 수긍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대학생들이 이 일을 기획하고 끌고 나가는 추진체였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있는 집안, 좋은 학벌의 여성들이 꿈이 주는 열정으로 결혼 전의 자유로운 기간에 한번 해보고 마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였고, 절충안으로 교육기간 중에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고졸수준의 실력을 갖추도록 대학생 교사들이 노력한다는 선에서 보육학교 학생모집을 둘러싼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구로공단이 가까운 신길동 주택가 한 옥상의 두 칸 방이 학교 설립터로 정해졌고, 검정고시와 노동야학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지역의 야학에서 추천 받은 이십 여명의 야학 출신자중 자기 소개를 하는 글쓰기와 적성검사, 면접을 통해 12명을 선발하였다. 선발의 기준을 놓고 다시 갈등은 재연되었다. 유아교육 전공자 중에서는 아동의 앞에 설 교사는 장애나 얼굴에 흠집이 있으면 안 되고, 사팔뜨기나 안경을 쓴 사람도 곤란하다는 주장, 음치, 색약은 곤란하다는 주장, 사투리가 심한 사람, 노동야학에서 온 거친 말투를 쓰는 사람도 곤란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얼핏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론적으로 근거 있는 소리 같기도 했으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의 교육이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주장이었다. 특히, 적록색약에 심한 욕이 입에 붙어있던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신비에 싸인 아동교육의 효험을 믿고 시작한 일이라 다만 좋은 말로 빌고 빌어서 문제가 된 학생 한명 한명이 선발되도록 할 도리밖에 없었다.

전공과정과 기초교양에 음악, 미술, 율동 등의 실기까지 포함된 2년간의 교과과정은 무척 복잡한 것이었다. 12명의 학생을 위해 연인원 20여명의 교사가 동원되는 체제였다. 유아교육의 위상이 현저히 낮았던 시대에 새로이 시도되는 일이라 지금 다시 생각해보아도 대단한 교수진이 모였다. 대학생 교사들의 수준은 그렇다 치더라도(그래도 그들 중 10여명이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교수직에 있다), 당시 이미 원로교수였던 주정일(아동학), 서봉연(심리학)선생이 무료특강을 여러 차례 해주었고, 중견이던 정기숙(유아교육)선생이 교장겸 유아교육 책임교사로서 든든한 병풍이 되어주었다. 불온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만도 비장한 사회참여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나 그만큼 학생들은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요구와 교육내용에 시달려야만 했다. 교육을 마친 후 이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개념조차 천차만별이었다. 한쪽은 천막에서 기타치며 아이들과 똥구는 활동가를 바랬고, 다른 한쪽은 정장에 화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쁜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야한다는 식이었다. 피아노가 없는 보육학교가 어디 있는냐는 핀잔에 재정을 맡은 대학생은 애써 마련한 풍금을 쳐다보며 움츠러들곤 했다.

온종일 봉제, 훌치기, 편물 같은 일에 시달린 뒤 다시 매일 밤 세 시간을 공부하러 달려온 학생들은 차라리 초인들이었다. 그나마 반수이상은 일요일도 쉬지 못하는 직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개근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학교에는 늘 어딘가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한 열기 속에서도 상반되는 교육관이 교차하는 수업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학생들은 끝까지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적 자격이나 학력인정과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철저한 재야교육운동의 땅굴파기 같은 작업이었다.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 믿음이나 사상성을 강제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인간화 교육방법을 택했으므로 이 작업의 의미는 그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겪어내고 깨달아 알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는 계층상승의 욕구에 자극을 받아야 했고, 동시에 비슷한 또래의 ‘잘난’ 대학생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메시지를 소화해야만 했다. 이들 대부분이 졸업한지 10여 년이 되도록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고 가장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보육학교 시절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일에 대해 의존적이고, 묘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로는 이러한 ‘계층’의

문제와 스스로의 계층 정체감의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야학 출신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운동에 대한 적극성과 헌신성을 보면서, 계층이 주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은 혹시는 종교적 거듭남의 체험에 가까운 의식화 교육의 단호한 충격요법이 더욱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여성이 보다 단단한 독립적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여성의식의 교육도 비슷한 것은 아닐까? 해송보육학교는 이 면에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니, 여성과 사회운동을 연결해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프로그램화하지 못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개인들의 체험의 수준에 머물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현장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보육학교 출신들은 다른 중산층 여성들처럼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거의 대부분 현장을 떠났고 다시는 복귀하지 않았다. 스스로 놀이방이나 탁아소를 차렸다는 사람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야간 해송보육학교는 개교 1년 뒤에 2년 과정의 2기생들을 뽑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다가 2기생들이 졸업한 1981년 말에 문을 닫았다. 제5공화국이 새마을유아원법을 제정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유아교육분야에 새로운 통제망을 갖추기 시작한 때였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 보살피고, 키우고,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봐 줄 어른은 대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연인원 40여명의 교사와 2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가 3년간의 실험 끝에 모두 20여 명의 졸업생을 낸 야간 해송보육학교는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지는 않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 시점에서 44개소의 보육종사자훈련원에서 한 교실에 100명씩 선발과 졸업에 대한 규정도 없이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수천 명이 합법적 자격증을 받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그때의 우리는 너무 진지했는지도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는 일단 공식적 제도의 틀을 씌우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버릇이 있다. 그 결과는 어김없이 우리의 다음세대가 굴레로 지고 가야할 짐이 된다. 중년이 된 그 때의 대학생들이 “해송보육학교”의 부활을 속삭일 때면 홍수에 씻겨 내려가는 작은 섬에 앉은 느낌이다.

4. 없는 집 아이들의 준비터 - 난곡 해송유아원

1980년 여름, 신림동 난곡의 철거민촌 맨 꼭대기 산등성이에 커다란 푸른 천막의 “해송유아

원"이 섰다. 너무 높은 곳에 있다고 재철거되어 뜯겨나간 집터를 다시 다지고 골라서 시유지 위에 세운 무허가 건물이었다. 천막이라고들 해도 200여 평의 대지 위에 20평씩의 교실을 양쪽으로 두고 가운데에 사무실과 주방공간을 갖춘 본격적인 철골 비닐하우스 구조의 당당한 학교건물이었다. 이곳에서 160명의 취학 전 아동들(희망아동의 채도로 초기에는 취학 1년 전의 아동만 대상으로 하였다.)을 8명의 해송보육학교 출신 교사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보다 적은 자본으로, 보다 많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바쁜 시일 내에 있는 집 아이들과 나란히 출발점에 세우겠다는 전형적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방법론을 빌린 새로운 시도였다.

우리 사회가 가장 얼어붙었던 1980년 여름에 서울의 달동네 한 구석에서 이러한 작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유신시대에 야학에서 출발한 교육운동이 그만큼 성숙하였다는 증거로도 받아들여졌다. 즉, 교육운동이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운동의 스케줄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일을 자기 템포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980년의 서울의 봄 시기에 서울역 광장에서 피어오르는 최루탄 연기를 보면서 난곡의 산등성이 유아원 터를 샅샅이하던 그 때의 비장함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12·12 사태 직후의 삼엄한 계엄령 속에서 유아원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체육관에서의 자선공연을 포스터 한 장 안 붙이고 비밀리에 6,000장의 티켓을 팔아 성공시킨 집념과 배짱이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만큼이나 긴 안목으로 사회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문화운동의 선구자들(김민기·김영동·이상우 등)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단 하루의 2차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이 350만원(당시 구반포 아파트 24평형의 전세금에 해당)이었고, 이것이 난곡에 학교규모의 시설을 설립하게 된 자금원이 된다.

그런데 왜 천막이었을까? 그만한 설비비용으로는 변두리의 작은 평수의 집을 마련하거나, 건물 3~4층의 사무실 공간의 전세금은 마련될 수도 있었을 터였다. 그러나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보다 안정적·장기적일 수 있는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게 하였다. 일종의 교육 케털라전의 이미지는 강력했고, 언제 법의 제재를 받더라도 없는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성 높은 가벼운 차림새는 필수였다. 몽고의 파오 같은 형태의 조립식 원형 초막을 생각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로 움직이는 모빌홈의 구조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때였다. 더욱이 그 연령층의 어린이 교육을 마당 없는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학교의 이미지를 아직 뛰어 넘지는 못했어도, 학원을 배격할 만한 지식은 있었다. 그래도 교육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작업인지 늘 비상시기만을 상정하고 살았던 그때의 교육운동가들은 실감하기 어

려왔다. 법의 제제를 받기 전에 천막은 쉽게 낳아버리고, 한번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한 교육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설립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교육현장의 이동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시대상황과 불안정한 도시 빈민층 지역현실에 맞는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삶과는 유리된, 밖에서 만들어진 교육내용을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학교제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식의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어서인지 “유아원”이란 말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유아원”이 야말로 오랜 공리 끝에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송유아원”에서 처음으로(물론 그 이전에 이화여대에서 영아를 돌보는 시험시설을 유아원으로 불렀던 일은 있었다.) 만들어 쓰기 시작한 말이다. 당시의 유치원법이나 어린이집 설치법의 어느 규정에도 맞출 수 없는(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란 뜻으로 출발하였지만, 곧 권력의 관심을 끌어서 법이 뒤따라온 그런 경우에 속한다. 5공 정권의 대통령 부인이 주도한 “새마을 유아원”은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해송유아원의 체제의 틀 밖에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택하게 된 조악한 시설·낮은 임금수준·오전오후반의 편성 등이 그대로 저소득층의 조기교육 모델로 하나의 기준이 되어 값싸게 할 수 있는 대량 선심사업으로 재개념화 되었다. “새마을 유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유치원법이 규정한 내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공식화했고, 조기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을 위해 이미 기능하고 있던 어린이집 종일 보육프로그램을 없애고 오전오후반의 과밀학급을 만들어버렸다. 현실의 절박성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해송유아원의 기본틀은 아주 쉽게 체제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체제가 하고 싶어할만한 일을 조금 앞서서 대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90년대에 들어 종일보육의 영역에서 정부가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면서 그 동안 민간지역 탁아소들의 열악한 현실을 기준점으로 삼아 값싼 대량 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때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조급한 마음과 절박한 상황에 밀려 제대로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던 ‘어떻게’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부가 나선다고 무조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많은 자원과 행정능력으로 더 많은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우선 교육시킨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리 값싼 시설을 만든다 해도 우리가 만든 천막보다는 나은 환경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5공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해낸 것 아닌가? 이러한 내

부에서 자라나는 회의와 소극적 합리화에 대한 반발로 해송유아원을 넓은 의미의 민주화 투쟁의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특히 빈민운동과 연대해서 지역사회주민을 조직화하는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동을 중심으로 놓고 장기적인 교육 작업을 통한 개혁을 오랫동안 꿈꾸어 온 대부분의 회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바로 시유지 위에 학교처럼 우뚝 선 해송유아원 자체가 더욱 뚜렷이 드러날 뿐이었다. 2년 만에 다 남아버린 텐트건물을 건축현장의 철제 가건물 수준으로 구청에서 개축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후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도 적극적으로 저항할 명분도, 힘도 없었다. 시유지 위에 건물까지 시 예산으로 개축한 다음에는 해송유아원을 시립 새마을 유아원으로 지정했다는 통보만이 있었다. 그 다음 순서는 위탁운영을 해송으로부터 YWCA로 변경한다는 통보였다. 이때 해송은 보육학교 출신 교사의 자격인정과 계속적 취업보장을 서울시와 YWCA에 간청하는 길 밖에 없었다. 이 후 “시립난곡해송YWCA유아원”이란 긴 이름으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더 이상 그 교육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4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어렵게 마련한 자원 전체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다.

좌절. 그때의 좌절의 악몽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이 아직도 대다수일 만큼 상처는 크고 깊었다. 시대상황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민간주도의 자발적·자생적 운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제도화는 확실히 이 사회가 규정하는 발전의 모든 척도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건물이 좋아지고, 교사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최소한의 설비와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적 교육의 최대의 과제는 교육의 터전을 누가 장악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점이다. 해송유아원의 실패는 스스로 만들어 낸 교육터전을 그대로 제도에 갖다 바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취학 전 아동들의 ‘교육’ 대한 강조가 ‘제도교육’의 폐해를 더 낮은 연령층에게까지 낮춘 결과를 가져왔다. 영유아교육의 가공할 위력을 오랜 공부와 실험을 통해 알게 된 해송회원들은 5공 시절의 새마을 유아원의 확대를 유아교육의 발전으로 보지는 않았다. 차라리 지배 권력이 유아의 영역까지 공식적 교육의 틀을 확대하여 본질적 세뇌의 가능성을 넓힌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스로 앞장서서 불러들인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뼈아픈 책임감을 느꼈다. 이 경험은 더욱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규정하게 될지 모르는 영유아들의 종일보육(탁아)의 제도화와 보다 많은 정부개입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요즈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공동육아연구회”의 입장과도 연결된다.

해송유아원의 값비싼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은, 설립을 위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제력은 한두 사람의 교사집단의 전문지식이나 의식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노력이 일단 만들어진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5. 아기들의 삶의 터전 : 창신동 해송아기둥지

“정규전과 게릴라전의 차이는 정규전의 경우 ‘공간’의 확보에 몰두하는 반면, 게릴라전은 ‘시간’을 훔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문화적 저항(Cultural Resistance)이론의 핵심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쟁 이야기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한 듯하지만, 사실 교육현장을 누가 어떻게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아주 유용한 개념이다. 난곡 해송유아원을 잃은 지 1년 만에 재건된 어린이 걱정모임에서는 난곡의 실패를 바로 눈에 띄는 공간 확보와 대량 교육에의 집착 때문에 하나의 제도로서의 학교를 세우게 되어 아주 쉽게 지배 권력에 의해 흡수되어 버린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창신동의 해송아기둥지는 그런 점에서 더욱 지역 사회에 밀착한, 어떤 의미에서 게릴라 원칙에 보다 충실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가난한 지역 아이들의 가정환경과 비슷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새마을 유아원이 회피하는 더 낮은 연령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일보육 형태의 생활교육을 추구하였다. 즉, 더 이상 제도교육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지배권력 측에서 보아도 도무지 탐낼 일이 없는 초라한, 그러나 실속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낙산 성벽 밑의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 안에 작은 마당이 있는 한 집을 전세로 얻어서, 연탄 아궁이에 재래식 변소, 그리고 작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좁은 마당을 반 이상 덮는 넓은 마루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하였다. 마루의 높이를 약간 높게 하여 마루에서 미끄럼틀로 마당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였고, 마루 밑에서는 모래 놀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건축 비대로 쓰는 긴 나무와 페타이어로 그네를 만들었고, 큰 플라스틱 대야 2개로 여름 물놀이가 가능했다. 누구나 ‘최소의 비용으로 설립 가능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곳에서 2~3명의 교사와 5~6명의 일일 자원 봉사자가 15~2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좁은 시설 공간은 오히려 선생님과 아이들을 일상적인 바깥나들이, 골목과 놀이터, 성벽 밑

쪽 밭에서 놀기 등 지역사회 공간과 사람들에 더욱 접촉할 수 있는 활동에 열중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기성품의 교구와 교재, 장난감에 대한 콤플렉스가 말끔히 씻겼다. 이제 교구교재, 놀잇감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수공품이 대부분이었고, 조악하더라도 이런 것을 함께 만들고 부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고 생활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원리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장난감의 작동만을 익히며 경탄하는 어린이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다만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일방적 소비자로서 길들여지고 있을 뿐이라는 이해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프리벨과 몬테소리의 기성품 교구를 절대화하기 이전에 이들이 그러한 교구를 만들게 된 의도와 과정, 즉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애썼다.

해송아기둥지는 철저히 생활과 자연과 일을 강조하는 교육관에서 출발하였다. 프리리의 교육이론이 바로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지역의 삶의 조건과 밀착한 가난한 터전 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페스탈로찌의 노작 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은 아기 둥지의 생활을 구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선생님이라 하여도 기존의 ‘선생’의 권위와 역할의 껍질을 벗고자 애쓰는 다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하고자 했다. 음식하고,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 가사의 모든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른(아기 둥지에서는 이모/외삼촌, 언니/오빠 등의 이미지로 개념화하였다)이 함께 놀고, 만들고, 낮잠도 자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가사노동은 다른 지각과 기능 습득으로부터 격리되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신해 주어야 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더욱이 그것이 무가치한 일로 경시되고, 싫은 일로 놀이와 뚜렷이 구별되는 일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되었다.

척박한 대도시 환경 속에서 그 중에서도 가혹한 생존 조건 속에 있는 달동네에서의 아기 둥지였지만, 자연과의 접촉은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과제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숲속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흙과 물과 나무와 풀, 그리고 햇볕과 바람 속에서 지내려는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었다. 작은 자연을 아기 둥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한 뼘의 텃밭을 귀중하게 활용하였고, 매일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 흙장난을 할 수 있게 했으며, 2~3km 떨어진 대학로나 성균관까지 나무를 보러 갔다. 자원 봉사자인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 시내버스를 타고 벼락소까지 물놀이를 가기도 했다. 둥지 안에서도 물장난/흙장난은 항상 자유로웠다.

나이 어린 아기들이 낮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기둥지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익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일과 놀이가 통합된 생활을 경험하고 어른들과, 또한 어른들 사

이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일은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어른들이 주로 만들어 내야할 일이었다. 흔히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아이들과 관계하는 어른들이 생활과 인간관계의 시시콜콜한 부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누가 준비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입고, 자고, 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하는 총체적 삶의 모습이 바로 아이들이 관찰하고 경험하는 교재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삶의 방식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작은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재구성되고 실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해송아기둥지가 너무 거창하여 밖으로 표방하지 못한 스스로 이 일의 의미를 규정한바 본질적 문화혁명의 거점 마련이란 목표였다.

유아원에 대한 새마을유아원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만든 “아기둥지”란 말은 결코 보통 명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빈민지역 기혼여성의 임금노동취업이 늘어나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아이를 돌봐줄 이웃이 줄어드는 사회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여러 곳에서 만들게 된 지역사회탁아소의 한 모델이 되었다. 모델이라고는 해도, 그것은 설립운영방식 등의 바깥 틀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의 아이들과의 생활, 교육관 등 바로 이러한 운동의 내용과 목표는 교류되기가 어려웠다. 이는 지역사회탁아소운동의 원동력이 된 사회운동일반의 어른 중심적 시각과 정치지향의 관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말부터 해송아기둥지의 살림을 맡은 대학생 후배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의 장기적, 교육적 의미에 천착하기보다는 지역운동으로의 개념화가 너무 앞서버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조직화를 우선 목표로 하는 사회정치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탁아는 확실한 소모전”이다. 한시바빠 단순한 탁아를 넘어서 어떤 주민들 혹은 전체 사회에 대한 활동을 하여야만 했다. 탁아소는 지역 사회 어른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창구이자 거점이었지만 그 자체의 운영과 일상생활은 추상적인 목표에 비해 너무 힘에 부치는 부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해송아기둥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탁아소는 자발적인 주민운동의 거점이 되기에는 외부 후원금과 외부로부터 들어온 종사자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외부 후원금은 대개 자선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탁아소를 “사회복지기관” 같이 일

방적 수혜자들을 상대하는 곳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으로 일일 찻집, 일일 술집, 헌옷 바자회, 명절 선물 팔기 등을 벌리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이 지역 바깥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그 일 자체가 아이를 돌보는 일로도 손이 모자라는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낮은 임금(지역 사회 턱아고 평균 월30만 원 이하)에도 불구하고 평균 50~60만 원 이상 버는 일하는 어머니들의 아이를 10시간 이상씩 돌보아 주는 보육 종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회의 경제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수한 인종들이다. 이들이 지역운동과 주민조직을 이야기할 때 동의는 할 수 있지만 함께는 하기 곤란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아무리 지역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이 상황에서는 1~2년도 버티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의식화된 젊은이들(주로는 미혼여성)이 계속 새롭게 투신했다가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육아의 일상성에 지쳐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일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야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아기둥지도 늘 새롭게 들어오는 대학생 집단을 통해 학생운동의 헌신성과 역량을 충전 받고자 했다. 지금도 이들에게 운영의 전권을 맡겨두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의 다급하고 절실한 민주화 투쟁, 찬란한 정치활동, 체제와의 맞씨름에서 이긴 경험을 한 학생운동의 후배들은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대안적 교육 작업에는 별 흥미를 못 느끼는 듯하다. 참여는 하여도 어정쩡한 자원봉사의 수준에서 짧은 기간 경험해 보는 것으로 끝내거나, 말은 급진적으로 하면서도 몸은 딴 곳에 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모든 가능성이 막혀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을 오랜 기간 모색해 온 조금 모자란 듯한 선배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내가 벌써 늙은 것일까? 그 혼한 세대 간의 문제가 여기서도 나타난 것일까?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보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역시 학생들의 일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운동, 노동운동, 기타 대부분의 사회운동에의 학생참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에 약하다. 생애주기(Life Cycle)의 가장 자유로운 시기의 결단은 아무리 확고하였어도, 졸업과 입대와 취업과 연애와 결혼과 출산의 어느 과정에서건 흔들리게 되고 절충되어야만 할 성격의 것이 되고 만다. 학생들에게 보내거나 베풀 때 힘을 빌릴 수는 있어도 농사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 때 때 사료를 주어야 하는 가축은 더구나 맡길 수 없다. 믿을 수 없을 때이고 믿어서는 안 되는 한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기성세대가 생각지 못했던 일, 늘 생각은 하

고 있어도 용기와 열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미 만들어진 일터를 잘 유지하고 꾸준히 경험을 축적하는 일, 축적된 경험을 나누는 일에서 이들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실제로 없었다. 차라리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관과 역량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는 측면에서 사회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육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조급한 운동성향 속에서는 그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자기 체험의 교육적 의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듯하다. 즉, 사회운동과 자신의 성장(성숙)을 분리시켜놓고, 완성된 자신이 운동에 어떤 기능을 빌려주는 것(봉사 혹은 종사)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창신동에서 아기둥지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다. 설립초기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만한 세월이 흐른 것이다. 처음에 원아를 모집하러 각 가정을 방문하면, 입양기관에서 온 줄 알고, “우리 아이 안 팔아요.” 하면서 경계하던 주민들이 온 동네를 떠나 가라 풍물패가 아이들과 함께 골목골목 길놀이를 나가면, “벌써 아기둥지 개원잔치 때가 되었네.” 하고 달려 나오는 이전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개원잔치가 동네잔치가 되어 성벽 위 놀이터에서 이웃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지아기들이 어우러진 한판 춤을 추는 것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도, 늘 경계의 대상이던 파출소에서 선물을 보내올 정도로 세상도 변했다. 동네에서 문제시하던 청소년들이 해송공부방 출신이라고 아기들 틈새로 우쭐우쭐 걸어 다니며 대학생 선생들의 막걸리 잔을 넘볼 정도로 이 작은 터전을 통해 맺은 인연의 폭도 넓어졌다. 난곡해송유아원에서의 크나큰 상실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창신동 아기둥지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항상 존재의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

외부 후원금에 의존하는 재정은 늘 쪼들리고, 운영을 맡은 대학생 집단은 순수한 늘 불안정하고, 실무를 맡은 보육종사자들은 격무와 저임금으로 언제 누가 자리를 뜰지 모르는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 10년의 세월이 걸 맞는 경험 축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동안 아기둥지에서 자라난 수많은 아이들과 개별적이고 간헐적인 만남 이외의 어떠한 체계적인 교육적 뒷받침도 할 수 없었다. 영아부터 취학직전의 아동까지를 위한 아기둥지와 중학생을 위한 공부방, 고등학생을 위한 너나들이 모임은 있어도 가장 필요한 연결고리인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사랑방(독서, 글쓰기교육)은 아직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교육의 계열화 작업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교육가치관으로 각 연령층에 맞는 교육내용을 프로그램화하는 일이다. 이점에서도

해송아기둥지의 실험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해송아기둥지는 지역사회의 대안적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아직도 철저한 외부개입형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물론 설립당시의 상황에서는 기획, 재정, 인력, 운영 면에서의 외부개입이 필요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그 때문에 주위의 의사나 필요성과 관계없이 존폐가 논의될 정도의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금부터의 과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생적 노력으로 설립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교육터전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적 자립과 운영에의 부모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재정자립이 힘든 사업이 없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해송아기둥지가 최근 내린 결정은 난곡해송유아원의 실패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은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아기둥지는 그 동안 마련한 터전(20여 평 규모)을 바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화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건축설비비와 인건비 보조를 받고자 한다. 정부나 제도와의 접촉은 아직도 불안하고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재정능력이 교육내용면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운영권을 유지해 나갈 최소한의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아기둥지가 재정운영 면에서 안정되는 것이 생활내용과 교육경험을 축적하고, 이 후의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도교육과의 접촉만으로도 질식해버린 난곡해송유아원의 경험과 함께, 이제 10년 만에 제도적 특성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그 안에서 대안적 교육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아기둥지의 모색은 또 하나의 실험이자, 모험이라고 하겠다.

6) 함께 자라는 열린 아이 : 공동육아연구회와 협동조합

창신동에 아기둥지를 설립한 후 3년만 좀 더 포괄적인 공부를 하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유학 길에 나선 나는 결국 그 두 배의 세월이 지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 틀 속에서 일본의 보육제도를 연구한 세월이었다.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극복한다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주로 계급문제에 초점을 둔 교육운동을 모색하여 왔지만 인류학을 통하여 비로소 계급, 성, 민족, 종교 등 그 외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불평등과 차별의 상호연관성과 그 보편적 원리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육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사회적 육아에 대한 필요성이 특정시기에 어떤 계급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80년대 말과 90년대 초기의 한국 도시

빈민층의 경우처럼) 이는 본질적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등의 어떠한 차별적 요소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산업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적 육아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게 되는 제도적 육아환경이 인류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장치이고, 문화적 의미에서 보면, 이를 통한 본질적인 통제도, 본질적인 개혁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던 1990년 여름에 또 하나의 문화와의 반가운 재회가 있었다. 각기 다른 작업을 해 왔어도 이렇게 가치관과 방법론이 일치하는 집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신기하다 못해 의아하기까지 하였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이하 “걱정모임”)이라는 긴 이름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망라된 모임을 만들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걱정모임”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고, 책을 발간하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법과 제도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 천둥 벼락 끝에 쥐 한 마리 같은 법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문제 법안과 함께 무더기로 처리되어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 후 철저히 행정적 편의만을 중시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급속하게 넓은 범위에서 오늘의 사회적 육아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걱정모임이 가장 우려했던 계층 차별적인 보육정책과 사회적 육아의 영리화, 관료화의 문제가 오히려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더 이상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긴 이름의 걱정 모임은 “공동육아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구체적인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연구회”란 이름이 시사하듯 자연스레 그 첫 작업은 기존의 사회적 육아시설 안에서의 생활 연구, 보육교사들을 위한 교재의 분석·토론·연구 활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부모참여의 길이 막혀있다는 것, 교사들도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관계없이 스스로 소외된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그 내용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들을 성의 없이 묶어놓은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의 학교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보육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문제를 극빈층 가정의 문제로 특수화하면서 대상 아동의 10% 정도만 정부가 구호적 차원에서 값싼 시설을 제공하기로 하고, 나머지 90%는 중산층으로 개념화하여 영리 목적의 사설 놀이방 등에 맡기기로 한 것이었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나 기능의 변화와 성 역할 및 성 차별의 문제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육아의 필요성을 계급의 문제로 국한시켜 대응하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계급에 따른 차별적 환경을 주어서 계급 재생산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보육제도의 틀이 굳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공동육아연구회의 연구 보고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편의적으로 발췌되어 본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현장이 없는 연구, 사회적 운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연구는 흔히 관료적 요식행위의 한 절차가 되고 말거나, 정치관 말잔치의 안주거리로 끝나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의 절실한 보육의 필요성은 도시 빈민층(즉, 계급의 문제)에서 먼저 가시화되었지만, 그 해결방식은 계급통합적인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육(comprehensive universal childcare) 제도의 마련을 통해 찾아야 한다. 즉, 보육이 자선사업이나 복지사업으로 간주되는 한 이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고, 다양한 계층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될 때보다는 부분적이고 관료적인 값싼 내용을 촉구하는 것에 머물게 되기 마련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은 계층의 자발적 역량이 한데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조차 만들기 어려워진다.

공동육아연구회는 더 이상 법, 정책, 제도가 먼저 변화되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기로 했다. 이 사회에 이미 공동육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구적이고 자발적인 부모들의 힘을 모으면 스스로 재정적인 토대를 가진 압력집단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했다. 이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육아의 터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육아환경의 기준을 높이고 그곳에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프로그램화하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동육아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실험의 폭넓은 조직화가 바로 이 사회의 굳은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었다. 남들이 자선적, 관료적, 영리적 동기로 만든 제도에 자기 몸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나누고 절충하며,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방식이 고안되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험은 자체 재정의 확보방식과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많은 시사를 주었고, 싱가포르의 육아협동조합의 성공(전체 보육아동의 10%가 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에서 자라)은 협동조합방식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주었다. 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 조합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안적인 삶의 방식의 프로그램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간섭에 대해서 통제력(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공동육아연구회는 공동육아의 첫 실험적 터전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였다. 1994년 2월에 신촌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길잡이 모임이 만들어졌고 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에 개원을 하였다.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기대와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처음 이틀 동안에 쏟아진 100여 통의 가입 문의 전화로 실무자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왜 신촌에서만 하느냐는 쏟아지는 질책에 몸 둘 바를 몰랐다. 청주와 서울 다른 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모임을 참관하였고 여러 곳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일은 이제 겨우 만들기 시작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만들어진 기성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공동육아연구회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제안만을 했을 뿐, 참여한 부모들이 조직형태에서부터 정관, 교사 채용, 장소 선정, 출자금 관리, 운영방법 등 모든 것을 서로 분담해서 각자의 직업에 따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토의를 통해 결정해나갔다.

준비작업이 구체화되면서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모들의 사회활동 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이 빛을 발하였다. 특히 아버지들의 적극적 참여는 육아를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징조로 느껴졌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한 젊은 부모들까지 육아를 통해 공동체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아이들의 사회화와 어른들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다. 가벼운 홀몸일 때는 진보적인 이상을 추구하던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통해 아주 쉽게 보수적 일상생활에 매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육아의 문제는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대개는 결혼생활의 초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 절대적 장벽 앞에서 평등한 대안적 삶을 지향하는 수많은 젊은 부부가 좌절과 배신감을 느끼면 스스로 보수화되는 이 사회의 가장 강력한 보수적 사회화 과정인 셈이다.

실제로 이들이 감당해야만 할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새로운 책임과 달라진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이 사회의 보수적 담론은 강력한 권위와 강제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육아에 대한 대안적, 진보적 해결방식은 공허한 이상론이 되어 버리기 쉽다는 말이다. 육아를 가정이나 가족관계 안에 매몰시키지 말고, 사회화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대안적으로 재구성할 때만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적 육아경험을 통해 부부와 자녀간의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내면화한 대안적인 가정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대안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가 생활화되기 이전에 이미 그 준비과정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젊은 아버지들의 적극적 참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잠재된 욕구의 표현이라고도 하겠다.

공동육아연구회는 협동조합이 진보적 중산층 지식인들만의 자구적(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이기적인) 노력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육료의 차등제 수립이 초기부터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처음부터 장애아동과도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상했던 대로 이러한 두 가지 평등지향적 원칙은 협동조합의 준비 초기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원들 간에 선뜻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념적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논쟁의 주제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경험의 미약함과 뿌리 깊은 차별의 관행 때문이라. 그럴수록 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얼마만큼 현실화되는지에 따라서 이 운동의 성격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 운동이 계층과 사회집단간의 이기적이고 차별적 육아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공동체적이며 통합적 육아방식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숫자가 있어야 상황이 이해되는 어른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2월에 8명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15만원씩의 가입비를 내어 그 중 한 명이 매달 30만원씩 받고 반일제 전담 간사로 설립 준비 작업을 하였다. 폭주하는 가입 신청 중 공동체적 육아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 30명이 6월초까지 300만원의 출자금(주로 전세금, 탈퇴시 돌려줌)과 30만원의 가입비(설비비용이 됨)를 내서 나무와 풀이 우거진 대지 80여 평에 건평 70평 규모의 2층 슬래브 양옥집을 1억에 전세 내었다. 잔금을 치르고 간단한 설비를 하려면 5명의 조합원이 더 필요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장애아동의 신청이 없어서 (폭넓은 홍보를 하였으나,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그 동안 이 사회에서 겪은 배신감과 좌절의 폭이 깊어 아직 협동조합을 믿지 못하는 듯하다.) 3명 정도의 장애아들을 위한 조합원 자리를 열어 놓고 있다.

생후 4개월부터 10살(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보육도 프로그램화하였다.)까지의 30여 명의 아이들의 위해 3명의 전일제(8시간 근무, 보수 60만원 수준) 교사와 5명의 반일제(4시간 근무, 보수 30만원) 교사를 선발하였다. 공동육아의 생활터전 만들기과 생활방식이 정착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제약은 많지만 내가 원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공동육아는 공식적 교육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할 것이다. 즉 매순간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즐거운 마음에서 호기심이 자라고, 자발적인 호기심으로 주변을 깊이 있게 관찰하며, 관찰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자연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나게 된다. 유토피아나 꿈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 속에서 자연스레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시공간 안에서는 자연을 끌어들이고, 자연을 찾아나가는 매일의 생활체험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공동육아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개성을 가진 생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어른들이 되고자 노력한다. 우리 아이들은 움직임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고, 아픔을 알고, 웃음과 울음과 땀과 상처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난다고 믿는 것이다.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조급함을 이들의 호기심을 꺾고, 관찰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이란 밑거름을 북돋워줄 수 있을 뿐이다.

공동육아의 공간은 부모들에게 늘 열려 있어야 한다. 즉,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문턱에서 주고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놀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아이와 어른 간에 역할 분담은 있어도 상하위계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판에 박은 억양과 몸짓의 인사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용 없는 스티커 붙인 출석부가 오고가는 것으로 부모와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곳의 생활리듬과 템포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한다. 따라서 딱 짜인 일과 시간표가 없는 곳이다. 일제히 밥 먹고, 일제히 잠자고, 일제히 같은 공부를 하고, 일제히 변소 가는 집단 의례의 생활화를 피한다. 무슨 활동이든지 단체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즉, 개개인의 자발성, 호기심, 관심 탐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고자 애쓰는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조회나 집단체조를 위해 줄서는 일이 없고, 큰소리로 웃고, 떠들고, 싸워도 되는 곳.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장보기, 밥짓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하기, 쓸고 닦고 치우는 모든 가사일)이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인스턴트식품이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과 간식을 주는 곳. 언제나 물장난, 흙장난을 할 수 있고 바람과 햇볕에 열려 있는, 계절에 맞는 바깥놀이가 매일의 생활이 되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한다. 건물의 안팎이 모두 열린, 맨발로 흙을 밟을 수 있는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울안에 가두지 않고 동네 빈터와 야산과 텃밭으로의 바깥나들이가 바로 매일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한다. 강아지와 고양이, 닭과 토끼, 자라와 개구리, 곤충이 함께 살고, 기성의 유아용 플라스틱 상품이 아니라 진짜 생활용품(그릇, 냄비, 수저, 손수레, 삽, 나무토막, 형겔)이 놀잇감이 된다. 카세트 동화나 TV만화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들려주는 살아 있

는(매일 조금씩 변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개그맨이나 가수의 흉내보다는 스스로 친숙해진 전통놀이(노래, 춤, 그림, 이야기)가 몸짓에 녹아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획일적 교육방식을 배격하고 공동육아의 터전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교육경험을 하고자 한다. 학교 수업처럼 어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나이를 학년처럼 나누어 각 방에 가두어 서로간의 접촉과 움직임을 제한하고, 학과목처럼 분리된 미술, 음악, 무용, 체육시간에 책상과 결상에 아이들을 못 박아 두고 칠판 앞에서 선생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구도를 배격한다. 모두가 똑같은 제복, 모자, 가방을 메고 와서, 모두가 똑같은 기성품 교재, 놀이기구, 악기로 일제히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익히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와 아이를 놀이, 활동, 옷, 색깔로 구별하지 않겠다. 씨름하는 여자아이나 인형 놀이하는 남자아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양성적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교육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남자가 창피하게 왜 우니 라든지 여자애가 좀 다소곳해야지 따위의 이야기로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도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생활을 익힐 수 있게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와의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미래의 세대를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공동육아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생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예기치 않았던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불안감과 기대에 가슴 뛰는 요즈음이다.

7) 맺음말

이제 1994년 여름, 또 다시 또 하나의 문화의 권유로 내가 하고 있던 일, 하고자 하는 일을 글로 정리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육아의 문제는 물론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여성문제로 구조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여성운동은 공허한 관념론이 되고 말 것이다.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과 미국의 여성운동은 그 개인주의적, 성인 중심적 시각 때문에 이론의 급진성에 비하여 현실 면에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육아방식을 만들어내는 일에 실패하였다.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 머물 때, 사회적으로는 계층, 인

종, 지역, 종교, 장애자에 대한 차별 등 다른 차별적 기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미국의 중산층 백인 여성의 사회 진출이 흑인 남성의 계도화를 촉진시킨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아의 특성상, 이 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적, 일상적 인간관계의 연계망이 필수적이다. 지역문화와 지역성의 토양이 얹어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육아란 그만큼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공동육아운동은 지금까지 지역과 유리된 곳에서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의 성공은 지역사회와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새롭게 가시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요즘은 자주 밝은 꿈을 꾀다. 동네마다 제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 공동육아의 터전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아이들이 웃고 우는 소리를 시끄러워하지 않는 어른들이 살며, 남자 선생님과 일일 참여를 온 아빠가 아이들과 부엌일 하는 사이에 여자 선생님 손 붙잡고 바깥나들이 나온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길엔 차가 다니지 않고, 근처 야산 밑 빈터엔 아이들이 가꾸는 야채밭이 있고, 맨발에 흙투성이 아이들을 미소로 반기는 노인들이 사는 곳.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활협동조합의 트럭이 무농약 쌀과 우리밀, 싱싱한 무공해 야채를 날라 오고, 마지막 남은 선생님과 늦게 퇴근한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고 있고, 검게 그을린 아이들이 굵어진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장애가 있는 친구를 부축하여 함께 걷기도 하는.....

공동체주의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나요

이 기 법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상임이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의 교육개혁에 참고할만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그 전형을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대표한다. 이 중 사회 변화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은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개혁에는 이 두 이론 중 신자유주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경험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를 소개하고 공동체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의 아이러니

여기서 논의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사상적으로는 보수주의이며, 현실적으로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사회에 확산하려는 이론이다. 이에 기반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 부문에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이 지향하는 교육을 요약하면 1)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은 교육 2) 수요자 중심 교육 그리고 3) 노동력의 창의성, 자율성, 유연성을 신장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에게 자아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진화에 기여한다고 이야기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1980년대 이후부터 영미권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개혁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 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규범적 기반은 인

간과 교육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간을 ‘수요자’와 동일시하여 ‘소비 수요’, 즉 ‘교육을 소비할 경제적·사회적 능력’이 없는 인간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도 물론 효율성이 있어야 하지만 교육 논리와 경제 논리를 동일시하는 ‘범주 오류’를 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경제참여로 축소하며, 각 영역이 각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무시한다.

신자유주의 교육 이론의 경험적 문제를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를 참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개인의 개성, 창의성과 자율성을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현 무한경쟁의 시장체제에 적합한 한도까지만 허용하여 오히려 시장체제에 순응적 인간을 양산한다. 둘째, 자기계발과 자아존중을 강조하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고 있다. 셋째, 자아실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들은 경쟁 체제 속에서 고립되고 원자화되어 자아의 분절화와 상실 현상이 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반대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축소하고 자아를 왜곡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각되고 있다.

2. 공동체의 뜻과 필요성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공동체주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의 특정한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특정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특정한 집단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경험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구성하는 정서, 가치, 의미를 나타내는 규범적 개념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지역공동체라는 표현은 특정 지역 사람들의 특정한 삶의 형태를 기술하지만, 또 그 특정한 삶을 구성하는 규범을 뜻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규범적 개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혼돈되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복원할 수 있는 이상(ideal)으로 사용되었다. 서구사회와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사회에서도 21세기를 향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의 재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사회가 형성하였던 공동체의 전통은 근대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과 군사독재에 의하여 왜곡되었고 심하게 손상되었다. 미국문화와 함께 유입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게 하였지만 연대의식을 구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더욱더 단절시켰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조직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과제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서, 능력, 인간관계가 대단히 부족하다. 현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요구이다.

공동체의 재형성은 어떠한 정초적인 가치를 복원하고 그것을 우리사회 전체의 구성 원리로 삼고자 하는 시도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공동체는 우리사회에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억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각종 소외와 불평등을 생산하는 현대의 왜곡된 정치, 경제, 기술, 교육 그리고 도덕에 대항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주체’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재주장하고 더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형성된다. 공동체주의 교육은 학생과 교사들이 주체로서 함께 바람직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여 공동체의 재형성에 기여한다.

3. 공동체주의의 제안

이 글이 논의하는 서구 전통의 공동체주의는 Aristotle에서 시작되어, Hegel에 의하여 계승되고, Alasdair MacIntyre, Charles Taylor, Michael Sandel, Michael Walzer와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있다.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바람직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며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가치가 그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을 역사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전통 그리고 그것에 각인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입장, 세계관, 도덕관, 그리고 정체성과 자아가 형성된다. 넷째,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더 합리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다른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다섯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정체성은 사회화된 개체성이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선하고 가치 있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고, 어떤 것은 반대하고 어떤 것은 찬성할지를 결정하는 틀을 제공하는 동일시와 헌신이다. 사회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의미와 가치체

계가 이러한 동일시와 헌신으로서의 정체성의 토대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개인은 그의 정체성을 특정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유지하므로 항상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의미와 가치체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각 공동체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규정하는 의미와 가치가 그 구성원의 정체성의 형성기반이라고 주장한다.

전체주의 사회를 예외로 하면 모든 사회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다양한 가치와 의미의 틀이 있다. 다양한 가치와 의미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인 ‘도덕적 출발점’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 없이는 각자의 입장과 관점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공동체를 지지하는 입장은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의 틀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토대를 실제로 상실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근거에서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합리성과 도덕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고, 더 넓은 사회에서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와 가치의 틀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성원들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공공의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고립된 공동체만 있을 뿐 공동체의 존립과 그 구성원들의 존재를 보장하여줄 사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집단의 구성원으로 뿐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관심사를 토의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그것보다는 확대된 해석과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동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러한 개방성과 확대의 가능성이다.

공동체주의는 각 공동체가 상대주의나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가능성은 공동체의 개방성에 달려 있다. 공동체주의에게는 그 개방성이 현실이고 이상이다. 각 공동체가 특정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의문시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평가하고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자기의 가치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가치에 대하여 성찰하고 제 3의 가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새로

운 가치와 의미가 나타났을 때 등의 경우에 일어난다. 개방성이 있는 만큼 각 공동체는 특정한 형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합리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해석과 판단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공동체와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틀을 성찰하고 계속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각 공동체는 인식론적·규범적 도전에 대해 부적절성을 치유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획된 재구성과 재평가 그리고 새로운 구성과 평가를 통하여 응전한다. 각 공동체가 나름대로 발달시켜온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하는 진보성과 일관성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양한 공동체간에 의사소통이 지속될 수 있다.

공동체는 개방성을 유지하여 사회 변화와 세대 변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합리성과 규범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개방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개방성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체들이 다르거나 심지어는 경쟁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와 공공의 장에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정치적, 윤리적 사안들을 토의할 수 있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개방성, 부정성, 자기성찰과 자기수정, 의사소통, 합리성, 그리고 공공선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재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4. 공동체주의 교육의 방향

공동체주의를 준거로 공동체주의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책, 목적, 문화, 교육과정 부분에서 제시하여 보자.

첫째, 교육정책은 교육을 선(good)과 복지로 인정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교육은 자아 형성을 위하여 필수 조건이고, 공동체 안에서 참여자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도 중요한 선이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구성원들의 자격에 특혜가 없으므로 모든 성원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원들에게 각자의 필요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분배 과정에 다른 사회영역의 분배방식, 즉 부에 의한 분배나 정치권력에 의한 분배방식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부나 정치와 같은 필요성과는 다른 독립된 필요성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실제 분배는 가용한 자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필요성 그 자체 이외의 다른 모든 범주가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개인의 능력, 성별, 종교, 사회배경, 지역배경 등이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의 개념과 분배 방식이 공동체주의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잘 드러낸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의 목적이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에 의하여 ‘공동선’으로 설정되고 이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높은 불만이나 요즈음 불거지는 ‘교실 붕괴’나 ‘학교 해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입시 위주 교육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원인이며 그 근본은 교육의 기존의 목적이 더 이상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학교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목적이 공동선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사회 변화의 동인들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충족해야 하는 학습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교육의 목적을 그 구성원들이 함께 재구성함으로써 학교가 교육공동체로서 재형성된다.

셋째, 교육 문화는 참여와 의사소통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 교육은 인간이 의사소통 등의 상호작용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발견하는 자기 해석적 존재라고 믿는다. 또한 세계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구성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그 변화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의식, 책임감, 사명감을 갖도록 생태주의를 지향한다. 그래서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창의성, 자율성, 책무성이 있는 주체로서 자신과 세계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활발한 참여를 장려한다.

공동체적 교육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학교 조회, 학급조화·종례 같은 일방적 집회는 지양하고,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실제로 수렴될 수 있는 각종 소집단 모임으로 의사소통의 그물코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관한 선택과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넷째, 교육과정은 돌봄의 윤리를 장려해야 하고, 협업적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덕의 측면에서 보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를 긍정하며 돌보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돌봄의 윤리’를 강조한다. 성별, 능력, 생각, 사회배경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 사회, 지구촌이 공동으로 맞게 되는 위기를 협업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의 윤리는 더욱 필요하다. 협업적 관계는 학습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공동체주의는 학습은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협업적 관계에 의하여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방법도 협업학습의 유용성에 기초하고 있다. 협업 학습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 개방성, 부정성, 자기성찰이 촉진되며, 이를 통하여 합리성이 증진된다.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특정 전통이나 집단의 의미와 가치를 단일한 구성 원리로 사용하려는 충동이다. 이러한 충동은 공동체주의의 주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억압적인 경향이다. 공동체주의가 공동체 내 그리고 공동체 간의 공통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단일한 의미와 가치만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는 획일화를 지향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선 추구를 위한 구성원들의 연대가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공동체주의 교육의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이며, 실제 교육공동체는 그 교육정책과 활동이 그 구성원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필요성을 사회 변화에 적합하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성장한다.

2. 공동육아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공동육아운동론⁵²⁾

정 병 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머리말

세상은 변한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뽕밭이 푸른 바다가 되기도 한다. 이 땅의 기성세대는 지난 30년 동안 한강의 백사장으로 고층빌딩을 지었고 뽕밭을 아파트 숲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한강을 더 이상 열지 않는 개천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 땅의 어른들이 이룬 “한강의 기적” 중 하나이다. 이렇게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세상을 더 빨리 변하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일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세상의 변화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물자가 풍부해진 대신 우리는 더 바빠졌고 과거와 같이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활기차고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지만, 개개인의 짝 찬 생활 속에 아이들과 노인들이 들어올 자리는 더더욱 없어진 것이다. 즉, 아이들과 노인들의 삶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생산 활동을 위해 짜인 도시적 삶의 시

52) 이 글은 『함께 크는 우리 아이』에 수록된 글입니다.

간과 공간의 가장자리로 밀리고, 틈바구니에 끼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집 문밖에는 한 치의 안전한 공간도 없게 된 아이들과 종종걸음으로 허둥대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삶의 짝 짜인 단면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공동육아를 하려고 한다. 아니,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동육아는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머니 혼자 돌보지 않았고 아이들은 집안에서만 놀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집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며 마을 공동체의 이웃과 친척들이 눈여겨보는 가운데, 자연 속에서(당시의 도시환경에서도 빈터와 쪽빛, 복개되지 않은 개천은 언제나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다.) 자라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 즉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육아방식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최근까지 어른과 아이가 자연스레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공간과 시간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TV와 플라스틱 장난감과 과자와 사탕과 유행에 맞는 멋진 옷을 얻었지만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이웃과 친척과 쪽빛과 야산과 구름과 비와 맑은 바람을 잃었다. 그리고 수많은 놀이방과 어린이집, 또한 콘크리트 아파트 방구석에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의 햇빛마저 잃은 생활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공동육아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 중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임과 동시에 우리 세대의 반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고쳐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들도 변한다. 아니 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 사회문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인식과 가치관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서 변화하지는 않는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뚜렷이 대립되는 가치관, 미래에 대한 상반된 기대와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행들이 의문시되고, 기존의 상식이 몰상식이 되며,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의 어느 편인가에 발붙인 대립되는 가치관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 미래상의 차이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

회적 공동육아의 현장은 이러한 가치관과 미래상의 차이가 공공의 영역에서 집단적으로 현실화 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들은 그들이 최초로 접한 사회, 즉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근본적인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몸으로 익힌다는 것이다. 각각의 가정이 서로 다른 문화적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들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놀이방, 어린이집도 그보다 더 인위적, 조직적으로 각기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환경의 영향은 보다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독립된 작은 사회인 공동육아 영역 안에서 계속 강화된다. 즉, 한 울타리 안의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늘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과 행사를 하며, 일정한 철학과 가치관에 따른 형식화된(의도적으로 가다듬어진) 칭찬과 꾸중을 들으며 오랜 기간 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서로 다른 각 가정이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같은 놀이방,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공유하게 되는 문화적 틀(사회적 관계와 행동양식을 익힌다는 점에서)은 대단히 넓고 깊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한 사회의 언어를 배울 때 무의식적으로 문법을 익히듯이 이러한 문화적 틀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칙성 즉, 문화적 문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내 아이’를 맡기거나(탁아), ‘남의 아이’를 보호 교육시켜 줄 때(보육)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들’이다. 여기서 ‘함께’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 보자는 뜻이다. 즉, 육아를 하나의 장애나 불편으로 여기거나, 육아를 미시적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통해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에 그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운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꿈과 미래에 관한 글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글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부터 이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이다.

2. 운동의 목표 : 세상 바꾸기

공동육아운동은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이 사회 안에서 넓혀 나가는 일이여야 한다. 오늘날 극도로 개별화된 인간들이 생산, 분배, 소비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무한경쟁 상태로 살아감으로써 심화된 피폐한 삶의 현실과 그 결과 이제는 거의 필연으로 다가오는 파멸적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상황 인식위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모색하고 실험하여야 한다. 즉,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 다양한 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동육아운동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이란 사회적 단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젊은 부모들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내면화하여 장기적이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성장과 함께 본질적인 사회문화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라는 운동이다.

이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보수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저항적인 청춘을 보낸 사람일지라도 스스로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세간에 떠도는 지배적 가치관과 그 생활방식에 눈을 돌리게 된다. 대개는 맹목적 가족이 기주의의 논리 이외에 의지할 만한 대안적 가치관과 접할 기회도 여유도 없어진다. 우리 사회에 그나마 희박한 공공의 영역이 더욱더 위축되는 시기이다. 이전에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추상적으로 접했던 공공성에 대한 강조는 생활 속에서 한갓 공론에 그치는 것으로 단정하게 되고 눈앞의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더욱 축소된 핵가족 단위의 이기적 경쟁에 몰입하게 된다.

목표는 주어진 불평등 사회구조의 틀 안에서 보다 높은 자리에 다음 세대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 공격적이건 방어적이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책임 있는 부모의 지상과제로 여기게 된다. 극대화된 경쟁의 논리로 강박관념에 허둥대는 부모 밑에서 매일의 성취를 통해 애정을 사야하는 어린이들은 인생의 출발점부터 타율과 인내와 반대급부를 찾는데 익숙해진다. 차별의식과 권위에의 맹종과 대량소비의 쾌감을 내면화시킨다. 한두 명의 아이 밖에 없는 수많은 개별가정에서의 이러한 경쟁적 육아방식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파묻고 우리의 미래를 파묻을 드넓은 구덩이를 파는 일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기주의 경쟁이 육아방식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부모, 모든 아이들이 그 열기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래도 아이가 그 나이 때에는 다른 경험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공동육아운동은 우선 이런 자신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결합되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육아를 통해 대안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확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여야 한다. 즉, 어린 아이들의 바람직한 대안적 사회화와 어른들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란 뜻이다. 전체 생애주기를 통해 볼 때 육아의 시기야말로 어른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방식 문제를 본질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공동육아운동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어린나이 때부터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익혀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핵가족의 한두 명 자녀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겠다. 함께 산다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도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의 놀라움으로, 새로운 발견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경험될 수 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규칙과 규율, 거둬지는 훈련과 자기억제라는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개별화시대를 사는 우리 어른들의 버릇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함께이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어린이들의 삶은 늘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존중하며 그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그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면 관습과 편견에 젖은 우리 어른들이 일일이 규정해주는 인간관계나 경험보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만들고 익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 공동육아운동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사람과 자연과 함께 사는데 익숙한 어린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그들이 체험하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간관계,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 기성세대들이 배워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을 찾아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공동육아운동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최초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경험한 공동체적 가치관과 삶

의 방식을 이후의 학교현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완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개별화되고 고립된 가정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맞아줄 사람 없는 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하는 어린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들을 맞아줄 놀이터, 공부방,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사랑방(이주영)을 폭넓게 만드는 운동은 공동육아운동의 또 하나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의 학교제도가 아직도 공동육아운동을 통해 자라난 새로운 세대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때 꼭 필요한 보완적 사회화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취학 전 공동육아의 현장에서 내면화된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적 생활습관으로 어린이들 스스로가 제도교육의 어떠한 틀 속에서도 곳곳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육아 과정에 참여와 개입을 경험한 부모들이 연대하여 아이들을 지원해주고(이이. 지마. 1990), 학교 제도 자체의 굳은 관행에 도전하고 그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운동은 육아문제에서 출발한 구체적 필요에 입각해 이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 원칙에 의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즉, 현재의 무한경쟁 체제와 그에 따른 불평등 구조, 소득, 학력, 성, 지역, 장애 정도에 따른 모든 차별 요소를 육아의 영역에서부터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계층 재생산을 막기 위해선 차등적 육아비용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의 학력 차에 따라 불공평한 출발선 상에 선 아이들을 위해 취학전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을 전제로 하여 육아와 사회적 가사노동을 여성에게만 전담시키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공동육아제도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단위의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보육방식의 보급보다,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에 기반을 둔 육아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동육아운동은 우리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자연파괴를 막고, 우리들의 건강한 삶의 환경을 지키는 일, 즉, 물과 공기와 음식물의 안전성을 지키는 일과 나이, 계

층, 학력, 성, 장애의 정도, 민족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모두 포함된다. 흔히들 어른들의 거대 정치구조 속에서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동육아운동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공동육아운동은 육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들이 만나 함께 변화하고,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꿔나가는 운동이다.

3. 접근방법 : 터전 만들기

공동육아운동은 고정된 장소나 시설, 표준적 프로그램의 확립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적 인간관계의 틀을 짜는 일에 우선 주력하여야 한다. 공동육아의 ‘우리아이들’을 ‘함께’라는 말뜻에서부터 이 운동의 지향하는 바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여러 어른들이 육아를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애쓰는 과정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바로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사회문화 환경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1) 사람들의 연결끈, 연결망

공동육아운동은 어른들이 나날의 삶의 복판에서, 이웃과 동료 등 바로 주변에서 사람들 간의 연결 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는 자발적 움직임을 그 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동네나 직장에서 한데 모여 서로의 형편과 바람에 맞는 나름대로의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고 실천하는 소모임 중심의 활동이 바람직하다(정유성, 1992)고 본다. 먼저 우리 이웃들과 담을 열고 동료들과 손잡아서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길을 찾아보자

모자라는 힘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태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국가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된다. 지금까지 그저 경제성장에만 눈이 어두워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게을리했던 국가가 갑자기 나서서 정책적으로 모두 해결해 줄 리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차라리 지금 필요한 일은 자발적 역량으로 공식적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어 국가의 지원을 주체적으로 유도하고, 소화하여 우리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를 위한 어른들의 연결망을 짜기 위해 우선 주변에 토막 난 채로 널려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 끈을 한 가닥, 한 가닥 점검하고 이어나가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그동안 스쳐가는 만남만을 되풀이 했던 이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반상회 등의 이웃과의 공식적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간의 육아의 실정을 알리고 알아보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자치 조직이나, 재활용품 수집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단단한 연결 끈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물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함께 절에 가는 사람, 친척이나 동창 등 주기적 만남을 통해 다져진 지속적 인간관계의 끈이 든든한 출발점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직장의 성격에 따라서는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 등의 뒷받침을 얻어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는 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출퇴근의 문제와 육아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재정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에 옮겨보려는 어른들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바로 닥치는 문제는 재정의 문제이다.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부터 실제 육아를 담당할 사람의 인건비까지 개인이 선뜻 해결할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난한 지역 어린이들의 절박한 육아상황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백여 개소의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경우는 계, 두레, 품앗이 등 우리의 모든 전통적 자본형성방식 및 노동부조방식을 동원하여 출발하였고, 이에 더하여 모금, 자체사업, 후원회원 조직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극도로 결핍된 환경에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마련한 이들의 실험적 노력과 창의적 방법론에서 이 사회 모든 계층의 일로 확산될 새로운 공동육아운동이 배워야할 점은 매우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실험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성공가능성이 높은 ‘육아협동조합’ 방식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육아협동조합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한살림운동 등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신용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출발부터 관주도로 만들어져 이미 거대 기구화된 농협, 수협 등의 생산협동조합과도 그 기본적 틀에서는 비

슷한 것이다. 다만, 육아란 활동의 특성상 조합원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가입하기로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자. 둘은 아이의 양육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하고 아이 한 명당 1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10년간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매월 15만원씩, 학교에 갈 때까지는 10만원씩,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방과 후의 교육비용으로 5만원씩 공동양육비를 내기로 한다. 그 10년 동안 부부는 조합원이 되어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하고 매년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아 출자금을 늘리거나, 적자 부분을 출자금에서 감당하기도 한다. 아이가 커서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는 출자금을 돌려받고 조합을 탈퇴한다. 예를 들어 30명의 조합원이 100만원씩의 출자금을 낸다면 3,000만원의 자본금과 매월 약 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로 어린이집을 세우게 된다. 자본금은 주로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전세금)과 기초설비 마련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30명의 어린이를 위한 3명의 전담 어른들의 인건비와 주 부식비 및 교재를 마련하는 경비가 된다. 전담 어른들과 아이의 비율, 공간의 허용범위에 따라 비조합원의 아이들도 일정비율 매월 육아비용을 더 받거나, 덜 받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수치들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3,000만원의 자본금이 전세비용도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아이를 위해 10년간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출자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3) 공간(터 잡기)

공동육아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어떻게 ‘자연’을 우리아이들에게 늘 접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아이들의 공동생활 속에서 자연은 근원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 자연을 공동육아 공간 안에 끌어들일 수 있고 자연을 쉽게 찾아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대로변의 빌딩 2, 3층의 사무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 주택가의 가장자리, 야산이나 공원 옆, 조용한 골목길을 낀 곳이 바람직하다.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은 작은 자연을 찾아나서는 풍부한 바깥나들이의 가능성을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아이들을 방안에서만 돌보는 것이 안전한 육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점은 우리아이들에게 흙, 물, 바람, 햇볕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생활공간

을 만들어야 한다. 집을 정할 때부터, 아무리 좁더라도 햇볕이 잘 드는 마당(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자. 한 뼘이라도 작은 밭을 일굴 수 있고 귀찮더라도 작은 동물을 아이들과 함께 기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지저분해지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놀이이자 교육인 모래놀이, 물놀이와 흙장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각박한 도시의 생활공간 문제는 어린이집이 결코 충분한 바깥놀이 공간을 울안에 갖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이들을 좁은 울안에 가두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울 밖에서 자연을 찾는 것이 낫다. 도시가 온통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듯해도 찾아보면 그 구석구석에는 작은 자연의 틈바구니가 있다. 빈터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쪽빛이 있을 수 있다. 공원이나 놀이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가까운 곳에 야산이나, 개천이, 작은 수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자연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바깥나들이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바깥나들이는 지역사회에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골목길에 자동차가 못 다니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의 정원을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우리의 반생태적인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을 생태적 공간으로 아이들과 함께 요구하고 바뀌어나가는 것도 공동육아의 터 잡기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4) 공동육아의 담당자

육아가 영리추구의 대상이 될 때 사업주로서 제일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다. 수많은 어린이들의 육아와 관련된 시설에서 값싼 미혼여성 노동력이 선호되고 그나마 더 싼 값에 무자격자를 단기 순환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회적 육아가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파악되어 그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이를 ‘보는 일’은 여자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잘 할 수 있다는 성차별적이고 아동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다른 어떤 종류의 사회적 노동과도 견줄 수 없이 낮은 노동 가격이 형성된다. 실례로 저소득층 지역의 비영리탁아소의 경우 취업한 어머니들의 수입이 대부분 최소 5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월급은 12시간 이상 더욱 긴 노동시간에 25만원 이하로 책정된 경우가 허다하다. 아

무리 사명감과 개인적 희생을 전제로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이상 버티기 어려운, 더욱이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가며 전문성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직장은 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서만 있는 비정상적 노동구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정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기준(1991년 기준)도 10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고 초봉이 월 25만원에 5년 경력자가 월 29만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단순한 보호나 교육이나 하는 전문성의 내용에 대한 논의 이전에 육아에 관련된 사회적 노동을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보거나, 미혼여성이 결혼 전에 잠시 경험해보는 실습과정 정도로 여기는 이 사회의 공식적 입장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오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영유아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연구결과도 진정한 의미에서 실행될 수 없는 조건이다.

공동육아운동은 사회적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이 이 사회 안에서 명실상부한 전문 직종으로 자리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격증에만 의존하는 간판만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공부하고, 실천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종사자의 보수와 근로조건부터 비슷한 전문 직종(예를 들면, 학교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의 절박성에 대해 먼저 부모들과 사회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하고, 우선 그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재정분담의 노력을 통해 각성된 여론의 압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그 비율을 높여나가는 시민운동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영유아보육법이 정한바 우리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보육종사자 훈련시설에서 1년간 800시간의 교육을 받은 경우이다. 그 이외의 자격 기준은 없다. 전공학과를 졸업했다거나, 공인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다 고해서 육아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최소한의 자격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뚜렷한 의식 없이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사회적 육아시설에서 일하기를 피하거나, 결혼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직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뜻을 품고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복수전공의 길을 넓히고 적극 유도하여야겠다. 또한 그 전공과정에 있어 미시적 교육기술의 연마에 앞서, 사회문화 변혁에 대한 의지와 직업인으로서의 근성, 전문가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바탕이 되는 새로운 여성의식, 남성의식, 사회의식에 눈 뜰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겠다.

일종의 임시적 조치로 만들어진 보육종사자훈련원은 공동육아운동이 출발하는데 있어 매우 긴요한 기초교육기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어느 나이에나 주간 혹은 야간의 일정시간 1년간 공부해서 사회적 육아를 담당할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길이 제한되고 전공 선택이 고등학생 시기의 점수를 기준으로 임의로 정해지는 현재의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아주 획기적인 성인사회교육의 장이라고 하겠다.

제한된 수업시간 때문에 깊이 있는 전공교육이 불가능하고 실습의 기회가 없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한 우려이기는 하나 다양한 지적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성인들이 생애사의 일정시기에 자신의 자발적 내적 동기에 의해 참여하여, 사회적 공동육아의 중요성에 눈뜨고, 앞으로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는 이론적 논의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공동육아의 앞날에 큰 보탬이 될 인력자원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사회적 육아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나 성별에 구애 없이 일정기간 기초적 지식을 공부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합법적 기틀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추고 현장에 뛰어들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 있는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 가이다. 여기서 현장 사람들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집중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공동육아운동은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한명의 종사자가 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현장 실무자 간의 지속적 연대망 형성을 꾀하여야 한다.

아이들 속의 어른들은 어린이집 안에 폐쇄되어 자기들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거나, 극도의 고립감과 되풀이 되는 일상에 소모감을 느끼기 쉽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간의 밀접한 연계망을 구성하여, 상호 방문하거나, 주기적인 연수회를 통해 서로간의 연구 결과와 실천 사례를 나누고 북돋아주는 일이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공동육아의 전문가로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고, 남의 실험을 눈여겨보고, 새로운 연구 성과와 접할 수 있는 자기반성, 자기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공동육아운동은 아무리 핍박한 여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이

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재교육, 통과의례, 연계망 형성 등이 가능한 근로 조건과 외부적 계기 마련에 처음부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프로그램(생활의 내용 만들기)

공동육아의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것이다. 활동시간이 기계적으로 구분된, 산업사회의 시간의 템포로 딱 짜인 하루 생활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감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회의 교육제도 속에서 훈련받은 어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사불란한 훈련과 규율의 집단생활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의 호기심과 자발적인 움직임의 자연스런 시간 흐름을 어른의 감각에서, 혹은 형식적 ‘교육’이나 단체생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각조각 끊지 않도록 참을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기다리고, 아이들로부터 배울 줄 아는 것은 어떤 육아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보다 익히기 어려운 일이다. 끝없는 자기반성과 자기수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육아전문가의 몸짓이다. 공동육아운동은 모두가 그대로 받아다 쓸 수 있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교육프로그램 제시보다 몇 가지 기본적 원칙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른들 각자가 스스로 보고 느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수회나 연계망 구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함께 둘러보고, 이야기하고, 장기간 실습도 해 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즉, 공동육아운동은 어른들만의 사회에 대한 운동(Movement)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진 생활의 현장에서 그 삶의 방식의 총체적 모습을 느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모델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한 모델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라날수록 공동육아운동은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토양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운동의 전개 : 틀 짜기

공동육아운동은 육아를 개별적 부모, 특히 어머니 개인만의 문제로 보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와 국가가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나누어지

도록 하는 사회운동이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모든 자구적, 자생적 노력들은 공동육아운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공동육아를 정착시키는 일과 모든 차원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바람직한 육아란 개인, 혹은 소집단들의 개별적 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1) 제도화의 당위성

육아는 근본적으로 사회전체의 일이다. 다음세대를 키운다는 일은 생물학적으로는 성인 남녀가 유전자체를 복제하여 대를 잇는다는 것이겠지만, 무리를 이루어 사는 인간 집단에서는 그 무리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무리의 범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자급자족적인 혈연집단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강조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생산, 분배, 소비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단위의 사회단위가 보다 큰 의미를 가진 때이다.

즉,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의 다음세대는 우선 그 만큼 큰 무리의 인간집단 안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된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그 이상으로 관계해야 할 사회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다음세대를 키우는 일은 지금의 국가 단위를 넘어서 곧 지구적 규모로 확산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문제가 된 것은 국가적 규모의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팽창에 따른 저임금 단순노동인력이 대량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느냐 사회적으로 잠재화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고도 하겠다. 즉, 경제성장을 멈추느냐,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우리 사회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 안의 모든 성인 노동력을 가능한 모두 동원하느냐하는 산업사회의 문제에 봉착하여 그중 사회적으로 가장 잠재화되어 있던 기혼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이용을 택한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성별분업과 가족구조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여겼던 육아가 기혼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에 따라 당연하게도 사회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사회가 성인 남녀의 사회적

노동만 필요로 하고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사회 전체가 스스로의 미래를 버리는 일이 된다. 국가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라는 사회단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경제단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선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성인남녀의 사회적 노동으로 인해 발생된 육아의 문제는 바로 이 사회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경제문제이고, 현재의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기여도와 보상을 조정하여야 할 정치문제이고, 이 사회의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육문제이다. 육아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이 몇몇 개별가정을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 전체가 그러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을 발생시킨 최초이자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개별 가족단위가 담당해 온 육아에 전체 사회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몇 가지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공적기관이 필요하고, 그 기관은 공공의 재원을 공급 받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 그 기관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의 확고한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법 제도 및 규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수많은 세부규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사회적 육아에 대한 정치적 대변 집단이 미약한 현실 속에서 마련된 제도가 우리의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반영해 주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제시되어있는 “영유아 보육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의 완제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공동육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의 실험과 수많은 당사자 간의 오랜 협의와 절충 속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조정되어 짜이는 제도적 틀인 것이다.

2) 제도화의 과정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어 내는 자구적, 자생적 노력들은 위와 같은 제도화 과정을 이끌어 나갈 사회적 행동 주체들을 세우는 일이다. 바람직한 제도적 틀을 짜기 위한 모든 일의 출발점이

다. 터전은 작게 만들어도 그 출발점에서 부터 제도화를 지향하여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우리’끼리 ‘우리들의 아이’만 돌보는 움직임이 될 때에는 계층적으로 분할된 소집단 운동이 되고 말 위험이 있다. 이는 곧 스스로 좁은 구역을 만들어 몇몇 당사자만의 영세하고도 한시적인 생존전략이 되어버릴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거시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자기인식과 공공성의 확보이다. 처음부터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아이들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노력과 함께 주변의 아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지역, 다른 계층의 자구적인 노력과 연대하여 서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어 공공재원의 보조를 받아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틀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는 단합된 힘으로 법, 정책, 예산 등의 결정과정을 견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연대망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육아운동은 전체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법 제정, 예산편성의 내용과 방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분석해서 그것들이 우리아이들의 사회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여론화하여야 한다. 즉, 정치적 정책결정과정에 가능한 깊숙이 참여하여야 한다. 일단 사회적 육아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제도로서 굳어지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그 성과는 미미할 수 있다. 공동육아운동의 기틀을 한시바삐 만들어서 제도로서 굳어지기 전에 그 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 짤 수 있어야 한다. 무리가 되더라도 제도화 과정의 초기부터 개입하고자 애쓰는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의 초기 개입이 아무리 큰 성과가 있다고 하여도 이후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계속되는 긴 씨름의 시작일 뿐이다. 초기의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진다. 곧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결국은 작은 지역단위의 행정조직과의 문제로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 거대언론기관을 통한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독백들이 지방정부, 지역단위에서는 행정 담당자와 육아현장 실무자간의 구체적인 대화와 절충의 과정이 된다. 공약과 성명, 구호와 시위의 운동에 상호교섭과 대화의 운동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곧 나타나게 된다.

중앙에서의 운동은 뜻을 같이하는 큰 사회단체나 정당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단위의 운동은 지역에 토대를 둔 다양한 성격의 주민조직과 연대하여야만 구체적 성

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방의 정치가 주민의 요구에 보다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지방단위의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육아가 제도로써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운동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내용을 유도해 나갈 만한 정치적 역량을 길러나가야 한다. 육아의 문제는 결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단절된 고립된 주제는 아니다. 어린이들과 개별가정의 절실한 필요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의 근원적 문제들을 밝혀나가고 그 사회적 해결을 정치적으로 요구해나가는 긴 줄다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5. 맺는말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 제도적 양육방식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양날이 선 칼과 같다. 획일적 삶의 방식을 유아기 때부터 내면화시키고, 경쟁과 불평등의 사회구조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미래의 파멸의 전주곡일 수도 있고, 사람과 자연을 좋아하고, 모든 이질적인 것들을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발적 동기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반생태적인 사회를 생태적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

공동육아 시설은 공식적 기구로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배 권력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지금까지 개별가정과 지역이 담당했던 초기 사회화의 상당부분을 공적이고 집단적인 제도적 상황으로 이전시킨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획일적 초기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 방식이 더 낮은 연령층으로 확산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공동육아 제도는 기혼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 법, 예산편성 등 주로 권력 집단의 입장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정치적 결정과정을 거쳐서 수립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집단간의 대립적 이해관계와 다양한 가치관은 그것이 조직화 되고, 정치화되어 나타날 때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 새롭게 만들어 지는 공동육아의 영역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독점적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관의 조직화, 정치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전업주부로서, 육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상이 지배적인 이 사회에서 노동시장으로 나

오는 어머니들은 저소득 노동계층이 주류를 이룬다. 사회 계급의 문제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산층, 전문직 여성들도 다양한 필요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건도 무릅쓰고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성의 문제이다. 공동육아의 현장은 이렇듯 계급과 성차별의 중층적 피해자들이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이다. 이곳은 그들만의 해방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곳에서도 그들은 주눅 들고, 소외받고, 차별받게 될 수도 있다. 끊임없이 경쟁과 소비를 자극하는 상업주의적 흐름과 소외와 체념을 내면화 시키는 관료적 권력 장치로 충만한 이 사회 안에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어 최소한의 공동체적 연대와 연계망을 구성하는 일은 어려운 개인적 결단과 집단적 정치 역량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여는 길이 된다.

바람직한 공동육아의 제도적 수립을 위해 보다 폭 넓은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제도화 과정은 그 출발점부터 치열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 현장마다의 개별적 실험과 창의적 모델 개발은 우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안적 가치관과 미래상을 함께 다지고, 나누어, 서로 도울 수 있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연결망 형성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수과제이다. 공동육아운동은 유아기 때부터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아이들의 사회화의 터전을 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 나가며, 아이들을 통해 결합되고 육아를 통해 정치화된 어른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문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함께 짜나가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 새로운 제도를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용하는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지금 내려야 할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나날의 생활 속의 혁명을 통해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긴 싸움의 시작일 것이다.

3. 공동육아 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미래 유아교육 방향으로서의 협력교육 : ‘공동육아’사례

이 부 미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협력교육

(1) 미래사회

정보와 지식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 서로를 긍정하는 돌봄의 윤리를 강조하는 사회이다.

(2)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린이는 창의력, 다문화적 감수성,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유아교육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반드시 길러 주어야 한다.

(3) 협력교육

협력교육이란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 속해 있는 관계,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가정, 학교 내에서의 어린이와 교사, 어린이와 어린이, 교사와 교사의 관계를 강조하고 또래 협력학습을 강조한다.

2. 협력교육의 사례 : '공동육아'의 특성

미래사회의 특성을 예측하고 반영하는 공동육아 교육은 교육체제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공동육아'의 특성을 객관화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이상과 체제가 유사한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 유아교육을 같이 소개한다.

1) '공동육아'와 레지오 에밀리아의 역사적 공통성

① '공동육아'의 역사와 조직

공동육아는 1994년 부모협동조합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1978년부터 시작된 지식인 중심의 빈민지역 유아교육운동이 모태이다. 부모 참여와 협력적 운영과 어린이-교사-부모의 3당 체제이다. 현재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중심으로 전국에 60여 개 어린이집과 20여 개 방과후, 5개의 저소득 지역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다.

②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의 역사와 조직

2차 세계대전 후 부모협동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부모, 지역사회의 민주적 학교 운영, 어린이-교사-부모의 3당 체제이다. 현재 시립형태의 13개 영유아센터와 24개 종일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199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아교육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 '공동육아'의 교육적 특성

공동육아의 교육은 관계의 교육, 자연친화 교육, 체험을 통한 풍부한 표상교육, 통합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그 특성이다.

① 관계의 교육

공동육아 안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적 맥락을 중요한 교육의 토대로 본다.

‘어린이-교사’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
 ‘어린이-어린이’의 친밀한 또래 형성이 가능한 관계
 ‘교사-부모’의 협력이 가능한 관계
 ‘교사-교사’의 유대와 협력이 가능한 관계
 ‘부모-부모’들이 함께 어울리고 협력이 가능한 관계

② 자연친화 교육

공동육아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함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일 두 시간씩 자연으로 나가는 ‘나들이’와 ‘텃밭 가꾸기’, ‘동물 기르기’, ‘유기농 먹거리 먹기’ 등이 있다.

③ 체험을 통한 풍부한 표상교육

공동육아에서는 언어나 지식보다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그 느낌을 생생한 감각으로 표현하게 하고 다양한 매체로 표상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감각의 통합과 감각과 인지와의 통합, 발달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물과 지식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본다.

④ 통합교육

공동육아에서는 표준화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을 연령으로 분리해서 상호작용을 단절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어린이들의 생물학적이고 발달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연령과 상호작용을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우 통합교육을 통해 제한되지 않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

공동육아는 자신들의 교육적 이상과 실천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함께 하는 지역문화를 통해 건강한 교육문화를 확산하려고 한다.

3. ‘공동육아’ 특성과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의 연계

미래 유아교육 방향으로 제시된 각 항목들은 ‘공동육아’의 교육 특성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 ☐ 창의력 : 자연친화 교육, 체험을 통한 풍부한 표상교육
- ☐ 다문화적 감수성 : 관계의 교육, 통합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 ☐ 더불어 의식 : 관계의 교육, 통합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 ☐ 능동적 지식 구성능력 : 관계의 교육, 자연친화 교육, 체험을 통한 풍부한 표상 교육

4. ‘공동육아’의 교육적 의미 : 유아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1) 어린이 발달을 위한 생태학적 환경

어린이-가족-유치원-지역사회의 순환적 구조 안에서 어린이는 성장, 발달한다.

2) 협력교육을 위한 변화요인 제공

- ☐ 지원변인 : 분권화/자율적 학교 경영

공동육아는 투명한 운영과 자치를 통해, 영리의 목적이 배제되지 않고 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립 유아교육 분야에 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 ☐ 중심변인 : 교사의 전문성 신장 / 자율권 확대

공동육아 교사들은 유치원 내에서 집단적인 자율권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교사들이 지역단위로 연대해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일반적인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과정 구성자, 교육활동 연구자, 어린이-가족의 매개자, 교육적 행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공동육아 교사들의 연대적인 조직과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 ☐ 촉진변인 : 학부모 참여 확대

공동육아의 적극적인 부모참여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연습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내 가족이기주의, 1등 의식, 경쟁적 조기교육, 몰개성화 획일주의 문화를 어린이가 삶의 주체자가 되는 교육과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결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⁵³⁾

이 부 미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구성원들(교사, 부모, 연구자)이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그 방식 안에서 어린이들을 교육하자는 큰 틀에 동의를 갖고 시작된 교육공동체이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내용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데에 초점이 모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란 크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교육과정 구성의 배경에는 문화라고 하는 큰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이 맥락을 두 가지 차원으로 파악하는데, 하나는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지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 즉 가치론적 차원의 문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삶의 일상성과 구체성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 안에서 구성되고 교류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차원의 문화가 상정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문화를 통해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치로서의 문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치롭게 여기는가는 구성원들이 그리는 어린이

53) 이 글은 2004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에 실린 글입니다.

에 대한 이미지, 공동육아의 개념, 공동체 개념과 운동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다. 이들은 이점에 대해 1994년 신춘의 ‘우리 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직전에 펴낸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라는 책에 ‘공동육아의 이념, 철학, 방법론’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조형(1994)은 공동육아의 기본 원리로서 어린이의 개념에 대해 아동의 미성숙보다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권리 개념에서 한 걸음 더 진보적인 특성을 띤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동의 권리 개념이 개인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는데 반해, 공동육아 개념은 아동이 사회 속의 개체임을 중시하고 그들이 양육되는 사회 환경과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의 성격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개체성, 주체성과 더불어 육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공동육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의미와 이념적 요소로는 구체적이고 참여적인 협동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개념과 미래지향성, 공동체 사회이념을 들었다.

한편 이기범(1994)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는 공동육아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론에 대해 아이들을 백지상태로 보는 것에서 세계를 백지상태(world as tabula rasa)로 보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육아의 목표는 아이들이 그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들이 그 이해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기존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삶의 터전은 주입과 숙련 형태의 육아 효율, 능력,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여서는 안 된다. 그 터전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구성된 일상세계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공동육아의 터전은 열린 관계를 지향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들이 기존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세계에 ‘능동적 적응’을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수정,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총체적 삶의 장이어야 한다. 이런 삶의 터전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육 종사자들은 함께 토의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육아 이론가들이 제시한 어린이의 개념은 역사성과 사회성의 기반 위에서 어린이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진보적인 개념이다. 어린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총체적 삶의 장으로서 일상생활 및 생활세계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치론으로서의 문화는 비단 공동육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가치는 소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학교나 교육문제의 담론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최근 지역연계에 터한 참여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자들은 학교를 문화의 장소(Place of Culture)라고 표현한다. 이들에게 문화는 가치를 의미함을 Rinaldi(2001)의 학교와 가치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란 교육적 장소이고 교육의 장소이다. 즉 가치와 지식이 전달되는 곳이고 가치와 지식이 구성되는 곳이다. 학교는 문화의 장소이다. 즉, 사회적 정치적 영향들과 깊고 진정한 상호성의 관계라는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치맥락들이 발달하는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장소인 것이다.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과 각 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외재적 가시적 의식적 그리고 공유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다양하면서도 핵심적인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차이성의 가치: 성,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 참여의 가치 또한 참여라는 개념에 스며든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그리고 학습의 가치, 놀이, 재미, 정서 느낌의 가치 등이다.

그들은 늘 학교란 단순히 문화가 전승되는 제한된 곳인가 아니면 문화를 구성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실천되는 장소인가를 질문한다.

이기범(1994) 역시 교육의 장소로서 문화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공동육아는 혈연이나 지역 혹은 과거의 문화적 전통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공동육아는 삶과 육아의 가치와 의미의 문화공동체이다..... 즉 세상에 대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기에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가치와 의미를 교류하고 조정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열린 공동체로성의 공동육아의 가치와 의미는 어른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터전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프로그램으로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느냐보다는 그러한 가치와 의미가 공동육아 공동체의 정념(ethos)이요 삶의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공동육아의 이론가들이 가치로서의 문화에 대해 공동육아 출발부터

얼마나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들이 현장의 복잡한 현실에 치여 방향 감각을 잃고 힘들어 할 때, 집단적으로 되새기고 공유하는 역사책의 첫 페이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안에서 가치로서의 문화와 교육은 서로 상생의 조건이다.

3. 교육과정으로서의 문화

앞서 언급한 내용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문화였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육아가 어린이집이라는 장소에서 교육적 실천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급이 있었다.

정병호(1994)는 어떠한 문화적 틀 속에서 어린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공동육아 운동론으로 풀려고 하였다. 그에게 운동이란 넓은 의미의 교육적 행위를 뜻한다.

아이들이 한 사회의 언어를 배울 때 무의식적으로 문법을 익히듯이 이러한 문화적 틀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칙성 즉 문화적 문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그가 제시하는 문화적 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육아운동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사람과 자연과 함께 사는데 익숙한 어린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그들이 체험하고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간관계,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 기성세대들이 배워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을 찾아 바로잡아 나가고자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현재의 무한경쟁 체제와 그에 따른 불평등 구조, 즉 소득, 학력, 성, 지역, 장애 정도에 따른 모든 차별 요소를 육아의 영역에서부터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국가 단위의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보육 방식의 보급보다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에 기반을 둔 육아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동육아 운동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혼

히들 어른들의 거대 정치구조 속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동육아 운동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공동육아 운동은 육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변화하고,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꿔 나가는 운동이다.

공동육아 운동은 모두가 그대로 받아다 쓸 수 있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시보다 몇 가지 기본적 원칙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른들 각자가 스스로 보고 느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그 삶의 방식의 총체적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모델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한 모델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라날수록 공동육아 운동은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토양 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병호의 언급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적 주제와 방법론, 표준적 모델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낸 살아 있는 모델들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 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그림을 일컬어 하나의 문화적 틀이라고 하였다. 공동육아 문화적 틀로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어린이집이 속속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이론적 실천가들의 손에서 현장 실천가(교사, 부모)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틀 안에서 어른과 아이 사이의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별명 부르기와 반말, 아버지 참여 및 양성평등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의사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위한 다양한 모둠과 회의 문화 개발, 자연으로의 나들이, 놀이를 보장하는 생활, 전통문화의 재구성, 건강한 먹을거리 등의 총체적인 삶과 교육이 부모들의 참여와 교사들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는 이러한 공동육아의 교육 실천들을 크게 생태교육, 생활문화교육, 관계교육, 통합교육이라는 네 가지 개념 축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교육 실천들은 이 네 가지 개념 축 사이에서 교차 구성된다.

1) 생태교육(생태적 능력)

공동육아의 생태교육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은 나들이, 먹거리, 텃밭 가꾸기를 통한 농사짓기이다. 생활문화, 관계, 통합교육과도 관련되는 이 교육활동들은 공동육아 10년의 역사 안에서 나

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진화과정의 계기가 바로 생태적 능력의 획득이다. 나들이의 경우 초기의 자연친화적인 나들이 수준에서 생태 나들이로 변화하게 되는 데는 외부 생태전문가들의 교사교육과 교사들의 장기적인(1년) 자기 교육 프로그램이 축적되면서 자연 안의 유기체로서 살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태 능력이 획득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연과의 관계가 보다 밀착되고 이런 자연과의 밀착은 자연의 역사와 더불어 그 자연 아래 펼쳐진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관계 및 문화에까지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된다. 교사, 부모,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농사짓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의 순환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먹이사슬(먹거리) 관계에 대한 깨달음 역시 생태적 능력과 감수성을 기르고 확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먹거리 역시, 처음엔 소박하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먹거리와 세시절기와의 관계를 연결하게 되면서 지역 음식 문화, 음식과 문화와의 관계, 부엌의 의미, 음식을 통한 교육과 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체득한다.

이처럼 공동육아의 생태교육은 처음엔 일반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의도성을 갖고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실천이 당위적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결과(특히 교사들의 노력)자연에 생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 능력이 얻어짐에 따라 생태교육은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 생활문화교육 (기본적인 문화 또는 민속적 능력)

공동육아의 생활문화 교육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자발적인 놀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하려는 전래놀이, 세시절기 교육, 옛이야기 들려주기, 감수성을 드려내는 다양한 표현활동, 기본생활 습관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역시 차이는 있지만 10년의 역사 안에서 발달해 오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 권리문화와 전통문화의 재구성이다. 어린이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행복권이라는 세계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어린이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전통문화 재구성 문제는 독자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열개를

구성하는데 특별하고도 결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마을에서 살아나는 세시풍속’을 썼고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지낸 박현숙에 의하면 전통문화를 찾고 계승하여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해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처음부터 교사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초반 5-6년은 세시에 맞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교사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실천한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2000년이 넘어가면서 세시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와 의미 찾기 교육 모임이 이루어지고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재현 소장 과 1년 동안 세시풍속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해 ‘세시와 한해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큰 틀을 짜게 되었다고 한다. 즉 나들이, 놀이, 먹거리, 이야기 등으로 각각의 활동으로만 진행되던 교육활동들이 세시와 한해의 흐름이라는 틀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시와 한해 흐름은 공동육아의 병렬적인 교육활동을 연결하고 통하게 하는 하나의 조직 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공동육아 교사들의 개방된 태도와 진지한 현장 적응능력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잠재적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민중들의 민속적인 삶의 방식과 지혜가 지극히 생태적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문재현의 교육은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해 온 과정적 결과이다. 그는 국가수준의 독점적 교육과정에 비판을 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마을수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수준, 개인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의 연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비형식적 교육의 방법으로 민속적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런 민속적 방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능력이 이야기, 놀이, 전래동요, 수수께끼, 속담, 세시풍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요소로서 실천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⁵⁴⁾ 나는 여기서 민속적인 방법에 터한 기본적인 문화능력이 전통문화교육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삶과 교육이 밀착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교육적 능력 및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⁵⁵⁾ 바로 이 점 때문에 ‘세시와

54) 문재현의 논의는 <http://www.maul.or.kr> 의 <마을공동체 교육운동과 마을수준교육과정>, <마을수준 교육과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공동육아 학부모> <민중을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참조할 것.

또한 보육과 전통문화와의 결합은 일본 보육 역사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가 부재한 행사 중심의 문제로 이러한 문화행사 자체를 없애버린 상실의 시대를 거쳐 최근 다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영유아에게 전승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Chizu Teshi, 2004).

한해 흐름' 이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의 틀을 갖추는데 계기를 주었다고 본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능력(민속적인 능력)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교사와 어린이가 주고받으며 상호 영향을 미칠 때,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교육 (소통의 능력)

공동육아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생각한다. 자연과 인간관계는 생태교육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통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별명과 반말 문화, 모듬활동, 부모 교사들의 회의문화, 마실 문화, 어린이의 하루 생활에 대한 부모교사의 기록문화인 날적이 등이 어린이집 생활과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⁵⁵⁾ 어린이집 안에서 어린이들은 다양한 어른들(친구들의 부모들 까지 포함)과 관계하고 친구들과 오랜 세월 깊이 있게 관계함을 경험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의 역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맺음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립된 도시사회에서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는 관계는 더욱 어렵다. 공동육아는 이 어려움을 세시와 관련된 마을축제나 지역사회 자연의 생태적 관심으로 풀어가기 시작했다.

4) 통합교육 (차이와 연대의 능력)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통합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아마 차이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공동육아에서의 통합은 하나로 모운다는 의미보다는 다름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더 기본적인데, 그 다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교육 공간과 시간의 부여, 연령 통합 활동, 양성성의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계층 및 문화통합의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합교육은 특히 더 관계교육과 밀착되어 이루어진다.

55) 이 지점이 바로 삶과 떨어져 있는 교육과정이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5, 6차 유아교육과정 및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교육에 대해 백혜리(2004)는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56)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별명과 반말 문화, 날적이, 부모들의 마실 문화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이부미(1999)의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또는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부미, 2000)을 참조할 것.

지금까지 기술한 생태교육, 생활문화교육, 관계교육, 통합교육의 우산 아래에서 공동육아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은 교육의 장소에서 서로 가로지르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가로지르기의 직조가 가능한 씨실과 날실의 틀은 문화라는 뼈대이다. 이 뼈대는 생태학적 능력, 민속학적인 기본적인 문화능력, 소통의 능력, 차이와 연대 능력으로 성장하는 탄력적인(말랑말랑한) 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로서의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인 것이다. 문화는 공동육아의 삶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데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육아의 교육시스템은 가치론적인 차원과 교육과정 차원의 문화가 상호작용 하는 역동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있다.

4. 일반적 교육과정 논의에서 본 문화로서의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위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교육이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는 전통적 이론과 인간의 실존적 해방이나 정치적 해방을 교육과정의 주제로 삼는 진보적인 재개념화 논의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의 실천적 역사는 후자에 해당된다.

실존적 해방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탐색한 Pinar(1975, 허숙, 1993;재인용)는 모든 교육이론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육의 본래의 모습, 즉 일정한 틀로 이론화되거나 개념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교육과정의 이론이란 결국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정교화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과정 탐구에서 흔히 교육과정을 정의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라든가,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서의 의도된 학습 결과” 라고 부르는 데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Pinar는 Curriculum과 Currere를 대조개념으로 병치시켜 ‘currere’ 는 외부로부터 미리 마련되어 교육 속에서 아동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 활동 속에서 아동들 각자의 개인이 갖는 경험의 본질로 규정한다. ‘curriculum’ 이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자료라면, 내가 그 자료를 접하고 읽고 생각하고 느끼며 배우는 나의 모든 생생한 경험들이 바로 ‘currere’ 라는 것이다. 따라서 ‘currere’ 로서의 교육과정 탐구는 목표를 설정하고 코오스를 설계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활동들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의 독특한 탐구방식을 동원하여 교육경험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과정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활동인 것이다. 스스로 교육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여 그 실존적 의미를 찾는 작업, 이것을 Pinar는 ‘currere의 방법론’ 이라 부른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는 최근 유아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발달이론에 치중해 있는 유아교육과정(Gipson, 1991, 이기숙, 2001; 재인용)은 교육과정의 문화적, 지식적 측면이 무시되어왔다는 평가와 함께(Spodek, 1993) 정치철학적 이슈가 배제되었다는(Kessler, 1991, 이기숙, 2001; 재인용)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무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논의에서 볼 때,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은 가치론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점, 교육과정에 정치철학적 이슈를 포함시키는 점, 문화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재개념화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탐색의 방법론이 외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가정들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실존적 경험을 탐색하고 정교화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재개념화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실천 사례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개념에서 벗어나 주관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 부모, 어린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을 맞고 떠나보냄이 숙명처럼 존재하는 교사들의 좋은 목소리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각별하게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구절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유아교사로 돌아간다. 우리는 교사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교수법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한 개인을 본다. 우리는 불명료함(ambiguity)으로 살아가며 일하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질문에 몰입하는- 한 개인을 본다. 우리는 가능성의 만화경을 보는데 왜냐하면 좋은 유아교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으며 각자가 실제상황, 즉 삶의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배려하며, 사람들이 더욱 배려하는 세계를 꿈꾸며 그리고 더욱 배려하는 세상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Ayers, 1989, Jungck, S. & Marshall, J. D, 1992; 재인용).

오늘날의 사회는 다중의 실재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Rinaldi(2002)는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로 지배하는 역사적인 시대, 변형, 적응,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대를 일컬어 '디자인의 시기'라고 하였다.

교육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 사토마나부(2001)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딸이 어릴 적에 되풀이하며 놀던 적목놀이를 떠올린다. 디자인은 만들면서 만들어진다. 적목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생겨나고, 그 이야기가 또 새로운 적목의 형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모양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교육개혁의 디자인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추진하는 개혁은 때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래를 여는 확실한 디자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견해를 빌리면 오늘날의 교사들은 창조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에서의 교육과정이란 구성원들이 합의한 삶의 가치를 교육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절충하는 실험이 가능한 문화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틀은 늘 변형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자아들이 참여의 목소리를 내어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다. 교육의 진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교육적, 평화적, 문화적 진보를 삶의 속도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재현(2000). 마을공동체 교육운동과 마을수준교육과정. <http://www.maul.or.kr>
- 백혜리(2003). 한국의 보육시설,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문화 연계의 실제. 어린이와 문화. 삼성복지재단 제1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사토마나부 저, 손우정 역(2001).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 공감.
- 이기범(1994). 공동육아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 이기숙(2001).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 이부미(1999). ‘공동육아’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 정병호(1994). 공동육아 운동론.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 조 형(1994). 공동육아란 무엇인가.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 허 숙(1997).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실존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 교육현상의 재 개념화 - 현상학, 해석학, 탈 현대주의적 이해 - 허숙, 유혜령 편. 교육과학사.

- Jungck, S. & Marshall, J. D, (1992). 하나의 커다란 논쟁에 대한 교육과정적 관점들. Reconceptualizing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Beginning the Dialogue 신옥순, 엄지숙 역 (2000),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그 대화의 시작. 창지사.
- Rinaldi. C(1998). The Space of Childhood. in G. Ceppi. & M. Zini.(Ed.), children, spaces, relations metaproject for an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 Reggio Children. 박병희, 박선희 역(2002). 유아, 공간, 관계 유아를 위한 포괄적 교육환경 프로젝트. 다음세대.
- Rinaldi. C(2001). Infant-toddler centers and Preschool as Place of Culture. Making learning visible children as individual and group learners. 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 Spodek. B., & Brown. P. C. (1993). Curriculum Alternativ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History Perspective. In B. Spodek.(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ew York : Macmillan.
- Teshi. C.(2003) 일본의 보육과 문화와의 결합. 어린이와 문화. 삼성복지재단 제1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공동육아 하루 일과와 생활교육 들여다보기

박 현 숙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

1. 들어가기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프로그램 따로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다.

하루의 생활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생활의 리듬과 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시와 절기에 따른 풍속을 찾고 만들어 즐기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매일 자연을 찾아 나들이를 다니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아이와 아이, 아이와 어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기회,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조절해 가는 행동양식을 배우며 성장하게 된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밸 수 있도록 실천해 가야 하는 부분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이 서로 연계되어 생활습관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이웃, 마을(지역사회) 속에서도 열린 관계를 지향하여 아이들이 더 다양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아이들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한해를 살면서 사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간다. 자기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고 교사나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방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면서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 그렇게 터득한 지혜를 몸에 익혀 간다. 몸에 익힌다는 것은 시간과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일관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많이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2. 일과 운영의 기본 원리

1) 매일의 일과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아이들은 스스로 하루 생활에 대해 인지하고 계획할 수 있으며 안정감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다.

2) 일과계획 속의 일정한 시간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욕구, 즉 화장실 가기와 간식 먹기, 낮잠 자기(휴식)가 반영되어야 한다.

3) 교사가 미리 자신이 짠 틀 속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활동의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는 균형을 가져야 한다.

활동적인 활동/ 조용한 활동, 실내활동/ 실외활동, 개별활동/ 소집단, 대집단 활동, 교사선택활동/ 아동선택활동 등이 조화롭게 하루 생활 속에 들어있도록 한다. 활동 순서를 결정할 때 서로 다른 활동들이 교차될 수 있도록 한다.

5) 일과활동 계획은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즉 교사와 개별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사와 소집단·대집단 아동과의 상호작용, 아동과 아동과의 상호작용, 아동과 교구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6) 일과활동 계획은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7) 효과적인 일일활동 계획은 활동을 계획한 다음 그 활동을 수행해 보고 활동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일반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와 공동육아어린이집의 하루일과표 비교

1) 일반 어린이집 하루일과(삼성 어린이집, 만 5세)

| 시간 | 주요일과 | 주요 활동 내용 |
|-------------|---------------------|--|
| 7:30~9:00 | 등원 및 통합보육 | 유아 맞이하기, 부모님과 간단한 대화 나누기 |
| 9:00~10:30 | 자유선택활동 및 오전 간식 | 놀이실에 준비된 여러 영역의 놀이를 개별적 혹은 소집단으로 선택하여 놀이하기 오전 간식은 유아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 먹기 |
| 10:30~10:45 | 정리정돈 및 화장실 가기 | 정리 정돈을 하고 화장실 다녀 온 후 대. 소집단 활동을 위한 준비하기 |
| 10:45~11:15 | 이야기 나누기 및 대집단 활동 | 자유선택활동 회상하기 했던 활동 소개하고 평가하기 자유선택활동시의 특별한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하기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기 및 동화듣기 |
| 11:15~12:30 | 실외 자유선택활동 | 대근육 활동, 탐구활동, 물, 모래 놀이 등 다양한 놀이 |
| 12:30~13:30 | 손 씻기 및 점심식사 이 닦기 | 손 씻고 점심 먹은 후 이 닦기 |
| 13:30~14:30 | 휴식 및 낮잠 | 시청각실 혹은 교실에서 휴식하기 낮잠이 필요한 유아는 낮잠 자기 |
| 14:30~16:30 | 실내자유선택활동 및 오후 간식 | 오전활동을 연계하거나 확장하는 놀이하기 유아 참여시켜 간식 준비하기 |
| 16:30~16:50 | 정리정돈 및 화장실 가기 | 정리정돈 하고 화장실 다녀온 후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준비하기 |
| 16:50~18:00 | 실내외자유선택활동 | 실외(혹은 놀이실)로 나가 놀이하기 하루일과의 평가가 필요한 날은 평가시간 갖기 오전활동의 심화활동, 특별히 계획된 프로젝트 활동하기 |
| 18:00~19:30 | 통합 보육 및 귀가 | 통합보육 공간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이 오시는 대로 귀가하기 |

* 연령에 따라 하루 일과 다르다.

2) 공동육아 어린이집 하루일과(느티나무어린이집의 예)

| 시간 | 주요활동 | 주요 활동 내용 |
|-------------|---|--|
| 8:00~9:50 | 등원 및 아침 먹기, 오전 활동, 자발적 놀이 | 인사나누기,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듣기, 자기 물건 부모와 함께 갖다 놓기, 아침밥을 먹지 않은 아이 아침 먹기, 교사가 준비한 활 동 참여 후 자발적인 놀이 |
| 9:50~10:00 | 정리 정돈 | 아침 열기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오전 놀이 정리하기 |
| 10:00~10:15 | 아침 열기 체조 | 모든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에 다 함께 모여 아침 체조하기. |
| 10:15~10:30 | 아침 모듬 | 차나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기(주말 지낸 이야기, 날적이 함께 읽기, 나들이 장소 및 나들이 활동에 대한 계획 등) |
| 10:30~12:00 | 나들이 준비 및 나들이 | 나들이 가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기, 모자와 긴팔 옷을 입기, 짝 정하기 나들이 다녀오기(신체활동, 탐구활동, 친사회적활동 포함) |
| 12:00~1:00 | 손 씻기 및 점심 준비, 점심 먹기, 이 닦기 | 점심 먹을 상을 펴고 닭고 국을 떠서 나르기, 자신이 먹을 밥과 반찬을 스스로 담아 가서 남기지 않고 먹기, 다 먹은 그릇 정리하기(1주에 한 번 설거지하기), 양치하기 |
| 1:00~1:30 | 자발적 놀이 | 원하는 놀이 구성(어린이집 아이들이 모두 등원한 후 형성하는 자발적 인 놀이)하여 놀기 |
| 1:30~1:40 | 정리정돈 및 낮잠 준비 | 자발적인 놀이 후 정리정돈하기, 잠옷으로 갈아입기, 화장실 다녀오기, 이불 펴기, 베개 놓기 |
| 1:40~2:30 | 정적인 활동 시간(그림책 보기, 그리기, 이야기 듣기) |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다함께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들은 후 낮잠을 잔다. |
| 2:30~4:00 | 낮잠 및 휴식 | 조용한 음악 소리와 교사의 도움(마사지, 자장가 등)을 받으며 낮잠. 잠 이 오지 않는 아이는 1시간 정도 휴식한 후 방에서 나와 자발적인 놀이 한다. *7세 아이들은 하반기부터 낮잠 시간에 휴식 후 7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 4:00~4:30 | 옷 입기, 이불정리 및 자발적 놀이 |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옷을 입고 개인이불을 갠 후 자기가 원하는 놀 이를 한다.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놀이 참여 시간에 차이가 있다) |
| 4:30~5:00 | 오후간식 | 낮잠 정리가 다 된 후 오후 간식 먹을 준비를 하여 함께 먹는다. |
| 5:00~6:00 | 오후활동 | 요일별로 영역을 나눠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한다.(음률, 언어, 점토, 미 술, 요리, 염색, 목공, 전래놀이 등) |
| 6:00~7:00 | 자발적인 놀이(주로 실외) 및 귀가 | 오후 활동이 끝난 후 주로 밖에서 놀이가 이루어진다. 특히 긴 줄넘기,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등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이루어진다. 동절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그림책을 부모나 교사가 읽어준다. |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하루 일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패턴이 있다. 예를 들어 낮잠을 자기 전에 오후활동을 진행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밥 먹고 나서 자발적인 놀이 없이 일찍 휴식 시간을 갖는 어린이집도 있다. 일과운영은 그 어린이집의 문화가 배어 있어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일반 보육시설과 공동육아 어린이집 일과의 비교⁵⁷⁾

일과표에서는 큰 차이점 없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신체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선택하여 놀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차이점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나들이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나누기 및 대집단 활동을 할 때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이들은 자연과 사람을 직접 만나러 나간다.

또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정리 정돈이 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어린이집 일과에는 정리정돈 시간이 자유선택놀이 후에는 있는 것에 비해 공동육아 어린이집 일과에는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일반 어린이집의 정리정돈에 대한 방법을 참고하여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이 일반 보육시설보다 길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낮잠 들기까지가 힘들지만 잠이 들고 나면 어린 아이들은 2시간 가까이, 5세 이후는 1시간 정도 잠을 잔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교사들은 날적이를 쓰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낮잠 시간이 긴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나들이 가기 전에 계획 된 것 뿐 아이들의 욕구가 있을 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과표를 비교해 보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일과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하루 생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빠져 있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생활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볼 것인지 교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3.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1) 생활을 통해 삶에 필요한 방식에 대해 깨닫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자. 밥을 먹기 위해서 농부의 땀에 대해

57) 이 비교는 일과표를 단순히 비교해 본 것이고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아님.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밥상을 차리고 상을 닦고 먹을 만큼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자기가 먹은 그릇을 정리하고 씻어 보는 과정, 옷 입고 벗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신발 신고 벗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일상적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해 가야 할 생활습관에 대해 일 년 계획 속에 포함하여 정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한다.

2)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최대한 유통성을 발휘하려 합니다.

시간에 아이들의 생활을 맞추지 않고, 시간을 엄두에 두고는 있으나 아이들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짧게는 정리하는 시간도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유통성을 가지려고 한다. 나들이 가서 아이들의 놀이가 풍성할 때는 어느 정도 나들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길게는 아이들이 변화 발전하는 것도 시간을 느긋하게 본다. 아이가 현재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 행동이 수정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 교사나 부모가 충분히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후 일관성 있게 아이를 도와줌으로써 서서히 아이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이 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의 문제 행동이 빨리 수정되길 바라고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공간도 놀이 영역이 구분은 되어 있으나 아이들의 놀이 유형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실내 놀이 공간은 물론이고 실외놀이 공간도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실내외의 경계를 오가는 것도 가능하다. 실내에서만 했던 놀이를 실외에서 해 보고 실외에서 하는 것을 실내에서도 해 볼 수 있다. 소꿉놀이를 나들이 가서 해 보는 경험, 비석치기를 종이 블록을 이용해 해보는 경험, 간식이나 오후활동을 실외에서 하는 것 등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다.

3) 방과 방간의 교류를 넘어 어린이집 전체 아이들의 자연스런 관계 형성을 지향합니다.

아이가 속한 방에서의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있으나 아이들은 자발적 놀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기와 같은 방이 아니어도 잘 맞는 아이들은 서로 어울린다. 여러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다보면 같은 연령끼리만 생활할 때와는 다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큰 아이들은 동생을 돌볼 기회를 갖고 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의 보호를 받으며 큰 아이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며 배워 나간다. 보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한

공동체의 행동양식이 유지되는 것이 이런 관계 속에서 눈으로 배우고 익힌 것이 몸에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을 넘나들게 된다. 그게 자연스런 아이들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각 방 교사들 간의 관계가 열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므로 교사회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교사회의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각 개별 교사회뿐만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4) 아이들의 관심과 요구를 존중하는 일과입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풀어 가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 주제를 풀어 갈 때 아이들의 요구와 반응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해 줄 때 아이들의 흥미가 생기고 동기유발이 된다. 아이들은 활동에 참여할 때 주체적인 참여도 있으나 자신의 동기부여 없이 주위 분위기 때문에 참여하기도 한다.(다른 아이들이 다 하니까, 교사의 강요 등) 활동한 후 아이가 무엇을 표현했는지 이야기 나누면 스스로 동기를 갖고 참여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연의 흐름에 맞는 생활리듬 갖도록 합니다.

하루생활 리듬이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하며 세시와 절기 활동을 즐기는 생활을 한다. 때에 맞는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찾아 생활하려 한다.

생태나들이로 자연을 만나는 아이들

이 말 순

부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산어린이집 원장

1. 공동육아 나들이의 역사적 전개

1) 자연에서 잘 노는 나들이

공동육아에서의 나들이 역사는 1980년대 ‘해송아기둥지(이후 ‘아기둥지’)’때부터 시작되었다. 창신동의 ‘해송아기둥지’는 저소득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해송 어린이 걱정모임’이 난곡 ‘해송유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곳이다.⁵⁸⁾ 하필, 동대문 낙산 산꼭대기 성벽 아래 둥지를 튼 것은 그 곳이 주변 공터가 많고, 더러 개발되지 않은 산자락도 있어서 아이들이 놀 기에도 좋고 자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의 교사회는 어린이들은 자연에 나가서 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기둥지가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엄마들이 봉제공장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는 동안 아기둥지를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생활하기를 바랐다. 아기둥지가 아늑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내에만 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가 필요했다. 나들이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 세상을 알고 싶은 본능적 호기심, 산동네 좁은 공간이 주는 한계 등을 극복하고, 불안감이 많은 아이들에게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하였다.

나들이는 우리 동네 돌아보기에서부터, 골목이나 공터에서 놀이하기, 그러다가 이왕이면 숲도 있고 물도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자연친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의 나들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기둥지에서의 ‘자연 나들이’ 경험이 주춧돌이 되어 1994년 신촌 ‘우리 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육아에서 아이들은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공동육아는 나들이를 통해 자연친화 교육의 필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고, 그 교육적 성과를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자 노력

58) 이에 대해서는 김미아 발표자료 참조.

하였다.

공동육아 나들이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교사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집이나 단행본, 소식지 등을 살펴보면 공동육아 구성원들, 특히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사들이 시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들이를 진행해왔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탐색하고 관찰함으로써 생태계나 자연의 섭리, 환경에 대한 관심 등 ‘자연’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연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나가서 체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내 생각엔 유아기 때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는 맑은 공기와 햇빛, 바람을 쏘이며 주로 걷는 나들이를 통하여 평생을 짊어지고 갈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사람살이를 알아가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곤충이나 동식물 등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그 고마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유아기 때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된다.

(부천 산 어린이집 소식지 <산들꽃> 5호 중에서)

아기둥지에서 ‘자연으로의 나들이’ 경험이 있는 윗글의 필자는 자연을 개발대상이 아니라 고마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동육아 초기의 나들이는 ‘자연에서의 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자연친화교육을 표방하므로 초기에 자연을 찾아가서 ‘놀이’를 한 것은 아기둥지 시기의 ‘자연 나들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 ‘놀이’의 의미는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 공동육아에서 자연친화 못지않게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인데, 이는 아이들과 어른관계에서 ‘평등’을 주장하면서 ‘선생님’ 자리를 떴어버리고 별명과 반말로 만남을 시작한 것을 보면 입증된다. 놀이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는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단지 돌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놀고 생활하는 놀이친구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유념한 것은 ‘자연에서의 놀이와 노래’로 자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공동체적인 놀이로 ‘전래놀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다. 놀잇감으로는 자연물을 이용한 ‘손끝이 따뜻해지는 놀잇감’을 생각해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은 당시 공동육아 교육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초기 신촌 우리 어린이집⁵⁹⁾ 교사회⁶⁰⁾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그 무렵 부천 산 어린이집과 우리 어린이집 등 몇몇 교사회는 청주에 있는 마을수준교육연구

59)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정식 명칭은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00어린이집’이나 이 글에서는 ‘○○ 00어린이집’으로 표기하였다.

60)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육운영에 있어 전체 교사가 참여하는 교사회 중심 구조이다.

소(현 마을공동체교육)를 찾아다니면서 전래놀이를 배워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전수하였다. 1997년 제3회 교사대회에서 우리 어린이집 교사회가 주도한 ‘전래놀이 한마당’은 아이들과 교사가 자연에서 놀이를 통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과 연구활동이 심화되어 1999년에는 교사협의회⁶¹⁾ 소속 놀이분과에서 활동한 내용을 <우리 어린이집의 놀잇감>이라는 자료집으로 내기도 했다. 다음은 그 무렵 교사대표였던 ‘알라딘’의 글이다.

까꿍이들에게 놀잇감을 특별히 신경 써주어야 한다. 어린이집 놀잇감의 대부분은 큰아이들 차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일 오래 실내에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래밭에서도 심지어 자기네 방에서도 큰아이들에게 놀잇감은 점령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까꿍방 교사들은 놀잇감을 지키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중략) 큰아이들(5세경)은 온몸으로 모든 것을 잘 논다. 자신의 몸도 놀잇감이고, 바람도 놀잇감이고, 햇볕도 놀잇감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놀잇감을 선물해주는 것은 자연 속으로 데려다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자연과 가까운 놀잇감일 것이다. 사람과 닮은 인형들, 그리고 자연소재의 악기들, 사람생활이 축소된(집안생활 포함) 자연소재의 용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우리 어린이집의 놀잇감> 중에서)

또한, 교사 재교육의 역할을 하는 교사대회 자료집에는 전래놀이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전래놀이는 정의적 영역 중에 특히 문화전달의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놀이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이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래놀이를 지도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우리 문화를 지도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전래놀이는 대부분 재미 및 규칙의 완결성을 갖고 있기에 하나의 완벽한 놀이로서 가치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놀이는 곧 모든 영역의 교육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과 같다.

(<2001년 여름교사대회 자료집> 중에서)

이렇게 공동육아에서 자연 속에서 몇 년을 잘 ‘논’ 아이들은 놀이를 할 줄 안다. 놀 줄 알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주체성이 생기고, 관계에서 또래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발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이들은 자라서도 자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육아의 90년대 교육은 한마디로 ‘자연에서 잘 노는 나들이’ 시기였다. 물론 나들이를 자연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각종 미술관, 전시관, 마당제 등 ‘문화적인 나들이’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61) 전국 공동육아 교사들의 교육과 소통을 위해 조직된 협의회로 정식명칭은 ‘공동육아 교사협의회’이다. 2002년 해체되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일원화되었다.

2) 자연을 만나는 생태 나들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나들이는 자연에서 잘 노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과 관계맺기 하는 ‘생태교육’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자연친화교육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으로 싹트게 된 것이다. ‘자연을 만나는 생태교육’은 먼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생태적 관점이 없는 사람에게 산은 그야말로 잡초와 잡목들이 무질서할 생육장소일 뿐이다. 교사들이 이러한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생태적 관점을 갖게 된 것은 교사교육을 기획하고 공동육아 교육의 방향을 잡아나간 교사협의회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법인’) 사무국의 역할이 컸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환경운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공동육아 교육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염려하는 생태교육이 도입되었다. 그 무렵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교사교육을 했는지 알 수 있다. 1999년 1월부터 14기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교육과정(이하 ‘현장학교’)⁶²⁾에 ‘생태마당 연구소’ 유창희 소장의 <환경생태이론> 강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듬해 현장학교에서는 ‘한눈박이 생태기행’ 심상옥 대표의 강의가 1박 워크숍 형태로 한기에 2회(계곡으로 나들이, 산으로 나들이) 체험학습·야외학습이 시행되었다(공동육아 연구원, 2000).

2002년에는 교보생명 ‘환경교육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모둠안내자’라는 이름으로 공동육아 내부의 생태전문가 양성을 위한 생태나들이교육을 1년 과정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현재까지 후배 교사들의 생태나들이교육을 담당하여 공동육아의 생태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생태나들이’ 시기의 나들이를 ‘자연나들이’ 시기와 비교해보면, 자연에 대한 애뜻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산으로 나들이를 다니면서도 특정한 나무나 식물을 정하여 관계 맺기를 하여 나무나 꽃과 대화를 나누고, 나무나 곤충을 깊게 이해하고 체험하려고 노력했다. 나들이 길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자연에 두고 오는 등 자연에 대한 예의와 생태적 감수성을 갖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해 ‘생태마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생태나들이는 이웃과 친구를 깊이 만나는 생태마실이다. 또한 생태나들이는 자연과의 관계 맺기, 인간과의 관계 맺기를 나들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62)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의 이념, 교육철학, 교육활동 등을 소개하는 교사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보육교사자격과정과 다르며,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이거나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한다. 나들이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을 구성원 모두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출발이다. 골목이나 놀이터, 공원에서, 다시 산이나 갯벌로, 생태탐사나 유적지 탐사로, 생태교육이 역사교육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었다.

공동육아의 나들이는, 내용에 따라 ‘자연나들이’ ‘생태나들이’ ‘문화나들이’ ‘지역사회나들이’ ‘역사나들이’로 구분하여 그 의미와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산 어린이집(이하 ‘산집’)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와 역사문화적 유산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가, 공동육아 나들이의 교육적 의미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나들이의 의미

공동육아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자연의 품에서 넉넉하게 자라야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굳게 뭉친 어른들이 놀이동산이 될 만한 산이 있는 주변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자치규범을 정하여 생활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고자 마을 공동체를 꿈꾸며 살고 있다. 공동육아에서 생태나들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사회로의 출발이다. 동네 어린이집 마당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어른들의 생활공동체로 이어진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소박하게 모인 어른들이 ‘모여 삶’의 필요를 절감하고, 하나 둘 이사를 와서 마을의 주민으로 정착하고, 훼손되려는 지역의 작은 산을 지켜내고, 생활에 필요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의 반찬가게도 만들고, 자동차수리조합(차병원)도 만들며, 생활공동체를 일궈가고 있다.⁶³⁾

둘째, 나들이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아이들의 자발적 학습동기를 잃게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스스로 바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연령에 걸맞지 않은 과제를 부여하고 옥죄어서 스스로 타고난 학습의지를 상실하지 않고, 자발성, 능동성, 탐구성을 잃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나들을 하며 스스로 묻고 찾는다. 아이들은 백지상태가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주변세계가 백지다.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아이를 둘러싼 세계는 의미 있는 세계가 된다. 이기범은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인식은 아이들을 백지상태로 보는 것에서 세계를 백지상태로 보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

63) 서울시 마포구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 곳, 방과후 두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공동육아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동네부엌(유기농 반찬가게), 차병원(카센터) 등을 만들어 육아로부터 생활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이기범, 1994). 즉, 생태나들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앎의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나들이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심각함은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 매일 생물의 한 종씩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오염과 훼손을 넘어, 보존과 복원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재 세계경제의 출현과 과학기술의 점증하는 지배력은 자연에 대한 우리들 상호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자연의 세계에서 다양성은 불가피한 생명의 현실이다. 우리는 아주 ‘하찮은’ 곤충이나 풀도 우리 생존에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종을 놀랄만한 속도로 말살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다(헬레나 노르베리-호지, 1996).

넷째, 아이들의 경험과 인식의 통합적인 앎의 방식이다. 나들이는 교실이라는 좁은 환경에 제한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를 걸으며 돌아보고 사회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가까운 뒷산에 어떤 벌레가 사는지, 철따라 무슨 꽃이 피고 지는지 탐색하며, 온몸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며, 감각과 개념을 통합하여 인식을 확장한다. 잠자리를 좋아하고 노린재를 관찰하던 아이들은 그들의 안녕을 염려한다. 나들이는 ‘경험을 통한 목지적이고 통합적인 앎의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보다 깊이 나들이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반성적 교육과정’으로의 나들이 활동의 통합(이부미, 1999)’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나들이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소양을 키워간다. 나들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과 인간관계의 애착을 형성시킨다. 날마다 나들이를 통하여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주변의 산에 머무르지 않는다. 짧게는 공원, 놀이터, 시장, 학교 등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조금 길게 잡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아동극장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이나 동식물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노래, 민중들의 생활사가 녹아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갖출 때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된 의미의 통합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동육아에서는 물론 일부 초등학교 선생님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아침에 한 두 시간의 나들이로 하루를 시작하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 교육과정이 구성되는 것이다. 꽃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느낌은 국어, 미술교육의 바탕이 되고, 동식물을 보고 노래했던 것은 음악교육으로 연결된다. 나들이 과정에서 발견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은 사회 교과와 내용이 되

고, 구체적인 관찰은 자연 교육의 바탕이 된다.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의 문재현 소장은 이러한 과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애착 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공동육아의 생태 나들이

필자는 생태나들을 다니면서 수백만 년 동안의 인간이 가장 많이 했던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걷기’를 새롭게 느끼곤 한다. 걷기 상황에서는 오감이 다 살아나는 듯하다. 수백만 년 진화의 역사에서도 인간은 주로 걷거나 뛰었다. 나들이는 인간의 건강과 사고능력 발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교육을 위한 최상의 상태이다. 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은 그저 온몸으로 자연을 만난다. 잔디언덕이 있으면 미끄럼을 타고, 태풍에 쓰러진 나무둥치를 만나면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는 평균대놀이를 한다. 산딸기를 따먹으며 본래의 딸기 맛을 알게 되고, 매미소리가 요란하면 매미를 찾느라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올라다본다. 이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감각을 동원하여 통감각적으로 자연과 만난다.

1) 오감을 이용한 탐색

① 시각적 관찰

나들이는 거창한 목적을 두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매일의 짧은 여행이라서 일상의 평이함과 함께 그 안에는 지속적인 자연의 변화와 다양한 자연현상이 펼쳐진다. 자연은 매순간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변이를 생생하게 포착하게 해주는 존재이다. 작고 부드럽기만 하던 연초록의 어리고 작은 잎들이 다 자라 무성해진 산길에서 아이들은 달라진 나뭇잎의 색깔과 크기를 자기 손과 대보며 나무의 성장을 느낀다. 또 매번 다니던 산길이 이른 봄 노루귀꽃에서 진달래꽃으로, 또 다시 연보랏빛 싸리꽃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생태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발견한다.

아이들은 이런 자연을 어떻게 인식할까. 특히 소근방(24-30개월) 아이들은 식물 각각의 이름보다는 노란꽃, 하얀꽃, 보라꽃, 분홍꽃이라고 부르며 색깔로 기억한다.

교 사 : 애들아, 노란꽃은 어디 있나?

아이들 모두 동신아파트 울타리의 개나리로 뛰어간다.

아이들 : 여기!

아이들이 가리킨 개나리엔 노란꽃은 거의 사라지고 초록의 잎이 뒤덮여 있었다.

준 석 : (개나리를 들여다보더니) 노란꽃이 없어지고 초록꽃이 피었네.

- 소근방, 2004년 4월 -

아이들에겐 초록의 잎도 초록꽃으로 보인다. 개나리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돌아난 연초록의 잎사귀를 보고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다. 그것은 바로 노란꽃이 떨어지고 초록꽃이 피었다는 나뭇대로의 식물의 변화를 느끼고 해석한 것이다. 어린 영아들이 사물을 파악할 때 잎이나 꽃의 모양에 다른 분류개념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색채가 주는 선명함을 더 빨리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미각적 관찰

우리 조상들에게 봄은 먹고살기 힘든 보릿고개였다. 그러니 산이나 들에 나는 꽃이나 풀들을 구분할 때 일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수많은 식물 중에도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꽃이나 풀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먹어 본다는 것은 가장 강렬한 만남이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은 맛보기를 원한다. 이른 봄에 나는 수없이 돌아나는 냉이나 쑥, 민들레도 뜯어다가 나물도 해먹고 떡도 해먹는다. 지금 아이들도 나들이를 가서 쫄레 순이나 아까시꽃, 며느리배꼽잎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 서로 먹어보겠다고 야단들이다. 그중에서도 진달래꽃은 그냥 따먹기도 하고 만개했을 땐 화전도 해먹었다. 진달래꽃을 먹어보고 그 꽃으로 머리 장식을 하며 놀았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향긋한 단내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야생초편지>를 읽어 보면 황대권은 봄에 나는 여러 가지 야생초로 김치를 담아먹었다고 한다. 모든 산야초들이 나뭇대로 약효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식탁을 차리면 병원 갈 일이 없을 텐데..... 생초는 먹을 줄 모르고 멀건 배추와 무 같은 것을 길러 먹는다고 통탄하는 것을 의미 있게 읽었다. 우리도 아이들과 진달래, 제비꽃, 꽃다지꽃, 냉이꽃을 따다가 식탁을 차려보았다. 아이들보다 교사들이 행복해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올해는 쑥 샐러드를 해먹자고 제안했다. 맛있게 먹어본 기억은 어느 감각보다 행복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규진이의 제안에 따라 쑥과 양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넣고 샐러드를 해먹었다. 그리고 터전 마당 한쪽 밭을 아무도 개간하지 않도록 하고 야생초들이 저절로 날아와 살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 땅의 식생에 맞는 풀씨들이 날아와 알아서(!) 잘 살고 있다.

준택: 나는 진달래가 너무 좋아.

세연: (주먹 가득 따온 진달래를 내밀며) 용화한테도 진달래 보여줘요.

은별: (진달래 세 잎을 내밀며) 용화 아줌마도 진달래 먹어봐요.

유림: 개나리도 먹자.

“옹골찬 아이들이 개나리를 먹자는 데요. 개나리 먹어도 되나요?” 용화엄마의 질문이다. 용화는 6살인데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산집에 왔는데, 병원에서는 아직 엄마와의 애착형성에 불안요소가 있어서 분리가 이르다고 판단하여 엄마가 나들이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나들이 중에 아이들이 개나리를 먹자고 해서 엄마가 순간 고민이 되었나보다. 그 질문을 받고야 우리는 개나리꽃을 먹어보았다. 예상대로 쓰다. 아이들은 거두절미하고 “맛이 없다”고 한다. 진달래처럼 달았다면 춘궁기에 이미 먹는 꽃으로 이름이 나 있을 것이다. 약간의 독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해롭지만 한 두 잎 정도 맛보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개나리로 술도 담고 약으로도 쓴다고 하니 자연에 있는 것은 모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계절 산으로 나들이를 가므로 진달래가 겨울눈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관찰을 한다. 진달래가 분홍빛 꽃봉오리가 맺히면 뒷산엔 벌써 노루귀가 피고, 생강나무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진달래가 한참 피어날 때는 아이들과 나들이 가서 꽃구경도 하고 진달래에 얹힌 이야기도 들려준다. 꽃 이야기는 대개 슬픈 전설이 있어서 너무 강조하면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유아들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다. 그럴 땐 다시 꽃으로 태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러다가 꽃그늘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진달래 관찰그림도 그렸다.

③ 청각적 관찰

숲은 작은 동물들의 안식처와 보금자리가 되며 인간들에겐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성주산에 많은 직박구리, 까치, 참새 같은 자주 보는 새소리와 초여름이 되어야 들리던 뽕꾸기 소리, 그리고 봄에 들리는 종달이 소리는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만든다. 숲 속에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온갖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은 눈을 감고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귀를 쫓긋해 본다. 식물들도 소리를 낸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봄에는 나무들도 힘차게 새 움을 틔우기 위해 생명운동을 한다. 뿌리를 통하여 물관으로부터 수분 흡수하는 소리가 청진기를 대면 들려온다.⁶⁴⁾ 어느 날, 2개의 청진기를 주머니에 넣고 옹골찬 아이들과 함께 성도약수터로 향하였다. 성도약수터 주변은 아까시나무와 참나무, 리기다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무의 소리를 들어 보았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를 만져보며 바라보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소리를 듣기도 한다. 눈을 감으면 소

64) 정운모 시인의 <나무>는 좋은 생태동시로 생각된다. “나무는/ 청진기// 새들이/ 귀에/꽃고// 기관지가/ 나뻗/ 지구의 숨결을 듣는다.” 산집에서는 당시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소리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리가 더 잘 들린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아이들은 안 들리는 나무의 소리도 다정한 친구가 날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상상력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용화와 휘교도 이해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승현이는 제법 굵은 아까시 나무의 기둥에 청진기를 대본다.

교사 : 들려?

승현 : 응!

교사 : 뭐라고 해?

승현 : 음- 날 사랑한대...

- 옹골찬방, 2003년 10월 -

2) 오감 탐색을 통한 표현활동

나들이를 다녀오면 아이들은 오후에 나들이와 연계된 활동을 한다. 나들이에서 오감을 활용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온몸으로 느낀 것, 그리고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들을 그림이나, 동작이나 만들기, 언어로 표현하거나 표상활동을 통하여 경험을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미술활동은 흙작업, 먹작업을 비롯하여 그림물감, 싸인펜, 크레파스, 파스텔, 붓펜 등 재료와 방법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표현·표상활동을 하고 있다. 창의력은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것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작품을 다른 교사들과 부모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벽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을 위하여 교사들은 미술전문가와 함께 1년 계획으로 미술관, 전시관 나들이를 비롯한 매체활용교육을 받고 있다. 경험의 재구성은 아이들에겐 감각과 인식의 통합을 통해 인지를 발달하게 하고 자신의 체험을 표현활동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한다.

① 그림으로 표현하기

아이들이 즐겨하는 표현활동으로는 그림과 언어가 단연 우위를 차지한다. 접근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의 그림을 터전에 전시해주면 부모나 다른 교사를 만났을 때 열심히 설명한다. 수시로 자유놀이시간에 그리는 그림은 엄마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성주산으로 봄꽃관찰을 나갔다. 매일 그냥 맨몸으로 나들이 나가다가 스케치북을 들고 봄꽃들을 그리러 간다고 하니 서로 들고 가겠다고 한다. 흰 목련, 진달래, 벚꽃, 명자나무, 제비꽃까지 흐드러지게 피어서 아이들을 맞이하였다. 아이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꽃 아래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지선이와 현진이와 형준이는 벚꽃을 그리고 싶다 하여 가까이 보고 그리라고 꽃가지 하

나를 꺾어주었다. 발달이 조금 늦는 휘교는..... 그저 빙긋이 웃고만 있다. 산에, 꽃 속에, 그냥 있
기만 해도 좋은데 뭘 그리라는 것이냐는 듯이..... 하긴 그래도 그려보라고 하니 붓과 파레트를 손
에 잡는다. 이랑이, 정환이, 가람이는 흰 목련을 그리기로 하였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꽃이 어떻게 생겼나 잘 관찰하고,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정성들
여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릴 땐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달아나.” 라고 설명을 한다. 오늘의
수작은 단연코 정환이 그림이다. 흰 목련을 그렸는데 화면 가득 꽉 차게 목련 한 송이를
그려 놓았다. 흰 목련이 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마다 우윳빛 흰색, 푸른빛이
도는 흰색, 누런 흰색 등 빛깔이 다 다른데, 정환이는 푸른빛과 노랑기운이 감도는 풍성한
목련을 탄생시켰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도 절제된 이미지가 피카소를 닮았다. 아이들이
피카소를 닮은 건지 피카소가 아이들을 흉내낸 건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
로 통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피카소가 아이들 같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선이는 화가가 되려나. 오늘도 화사한 벚꽃가지에 몽실몽실 피어나는 탐스러운 벚꽃
을 그려놓았다. 현진이 벚꽃은 흰빛이 너무 솔직하여 아무 눈에나 보이지 않는다. 한들이
는 일찍 보라빛깔을 만들어 제비꽃 한 송이를 그렸다. 한들이에게 “보라색을 어떻게 만들
었냐?”고 묻던 지민이는 고개 숙인 제비꽃이 너무 어렵다면서 활짝 핀 듯하면서도 수줍은
제비꽃 두 송이를 그렸다. 터전에서 상상해서 그릴 때보다 자연에서 실제로 꽃을 보며 그
리면 더 생생한 그림이 나온다. 이랑이의 목련은 이파리의 곡선이 살아있다. 형준이의 벚
꽃은 단아한 빛깔이 아름답다. 가람이의 목련도 화사한 분위기가 살아있다. 석현이는 깍스
한 손으로 제법 명자꽃 모습을 표현했다. 해원이와 승현이와 휘교는 개성있는 추상화를
그렸다. 실물을 보며 추상화를 그리는 것도 아이들이다. 다른 아이들의 그림도 “이것이 목
련이야” 라고 말해주어야 목련꽃이 피어난다.

- 2004년 4월 긴 나들이 -

② 요리활동으로 표현하기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삼월삼짇날 무렵의 나들이는 막 떨어진 진달래꽃을 줍거나 만
개한 꽃을 따온다. 그리고 방앗간으로 나들이 가서 떡쌀을 빻아다 진달래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아이들이 둥글게 빻은 찹쌀경단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한번 뒤집고 진달래 꽃잎을 얹어서
한 번 더 지져낸다. 아이들은 화전이 되는 전 과정을 함께하니 진기한 경험이라도 하는 양 흥분
과 호기심으로 뜨거운 화전을 호호 불며 먹는다.

“너무 맛있어! 꿀맛이야.”

“맛있어!”

“우리 엄마도 줘야지.”

“맛이 뜨거워!”

“졸깃졸깃해.”

진달래 화전 만들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동화로 꾸며보았다.

<진달래 화전 만들기>

이제 봄이 되려는지 산에는 진달래 봉오리가 몽실몽실 맺혔어요. 분홍색 봉오리가 보이는군요. 노루귀가 피고 산수유 노란꽃도 피었으니 이제 곧 진달래도 피겠지요!

진달래는 분홍색 꽃이 피지요. 꽃 속을 들여다보면 눈이 부श्य. 수술이 열개나 들어 있고 가운데 큰 암술이 노란 꽃가루를 달고 혼자 있어요. 암술과 수술에 묻은 꽃가루에 나비나 벌이 날아와서 꽃 속에 든 꿀을 먹고 간대요.

진달래꽃은 참꽃이라고도 부르지요. 옛날에 배가 고플 때 많이 따먹었대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꽃이 피면 산이 그림 같아요. 진달래 옆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구요, 머리에 꽃기도 해요. 친구 머리에, 선생님 머리에 꽃아주지요. 그리고 꽃이 질 때쯤이면 진달래를 한 아름 따와서 바구니에 이고 옵니다. 진달래 화전을 하려구요.

진달래 화전은 찹쌀가루가 있어야 돼요. 찹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 옵니다. 방앗간에서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었어요. 찹쌀이 금방 찹쌀가루가 되었어요. 반죽을 할 때는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해야 해요. 익반죽은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다루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이지요. 반죽이 다 되었으면 동글납작하게 빚어야 해요. 조금씩 떼어서 손으로 꼭꼭 주무르다가 동글동글 돌려서 납작하게 누르면 우리 손바닥 반쯤 되는 크기의 동그라미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든 것은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어요. 길다란 뱀도 만들구요. 동글동글한 공도 만들어요. 별 모양도 만들고 하트 모양도 만들지요.

익반죽으로 만드는 것은 꼭 찰흙놀이 하는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놓고 기름을 살짝 두른 후에 우리가 만든 반죽을 올려놓아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하면 고소한 냄새가 나지요. 한쪽이 익으면 반죽을 뒤집어 놓고 익은 쪽 위에 분홍 진달래꽃을 살짝 눌러서 얹어놓아요. 드디어 분홍꽃을 입은 진달래 화전이 되었네요. 호호 불어서 한 입 깨물으면 으- 입안으로 콧속으로 진달래 향기가 향긋하게 날아 들어와요. 졸깃졸깃한 찹쌀화전 맛은 정말 꿀맛이에요.

③ 온 몸으로 표현하기

동작활동은 아이들의 온 몸의 감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통합적인 활동이다. 아이들에게 텃밭에서 본 식물들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보자고 하였다. 음악을 들려주니 하나 둘 음률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발레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잘 아는 개구리와 토끼, 꽃게 등을 흉내 내는데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다. 씨앗의 성장과정을 몸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다. 먼저 씨앗 한 알이 되어 바닥에 웅크렸다가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 속의 씨가 다시 내년을 기약하기까지의 과정을 몸으로 표현했다.

씨앗이 된 준택이가 “어~씨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어. 물을 안 먹어서.” 하며 싹이 되기까지 필요한 요소를 알아차리기도 하고, 다들 꽃이 피었다는 동작을 만드는 데 규진은 “난 지금 꽃이 안 피었어. 왜냐면 여름에 꽃이 피는 과일이거든” 하면서 독창적인 말을 꺼내기도 한다. 수정은 나비가 된 들꽃(교사)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나비가 꽃 속의 꿀을 빨아먹는 장면이 재미있었다. 열매 모습도 기발하게 잘 만들어 낸다. 호박과 수박은 누워서 팔로 다리로 잡아 동그란 형태를 만들고, 오이는 선 채로 길게 손을 위로 뻗어서 긴 형상을 만든다. 자두 모습은 머리 위에 하트모양을 만들어 비슷하게 하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즉흥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활동을 마치고 나서 느낌 나누기>

들꽃 : 씨가 되어 변하는 걸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세연 : 나는 정말 좋았어. 재미있어. 난 큰 토마토랑 수박이 되었어.

규범 : 씨가 되어보니까 좋았고, 싹이 되고 꽃이 되는 것도 재미있었고, 열매도 재미있었어. 수박하고 호박, 오이가 되었어.

준택 : 나는 어~ 물 먹고, 씨방이 커져서 열매가 되는 게 재미있었어. 나는 자두로 열렸어.

승주 : 나는 어~ 씨도 재미있었고, 또 구멍 뚫고 나오는 것도 재미있었고, 봉오리 되는 것도 재미있었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열리는 것도 재미있었어. 난 수박하고 호박이 되었어.

규진 : 나는 씨 뿌리고, 싹이 나오고, 물주고, 해님이 오고, 비 오는 거랑 꽃이 피는 거랑 열매가 된 게 좋았어. 난 딸기가 되었어. 근데 여름에 늦게 꽃이 피는 거 되기도 했어

은별 : 그런데 나는 토마토 방울이 되었어. 꽃도 피고 하는 게 재미있었어.

지수 : 나는 어~ 씨랑 물 빨아먹는 거 재미있었고, 나비가 와서 꿀을 먹는 것도 재미있었고, 싹이 나라고 햇빛 비추는 것도 재미있었어. 난 한라봉이었어.

도혜 : 나는 어~ 재미있었던 게, 막 해님(들꽃이 해님이 되어 싹을 간질이며 비취 줌)
이 간질간질 해주는 게 재미있었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게 재미있었고, 그
리고 끝날 때 씨가 다시 내년엔 싹으로 태어 날거야 하는 말이 재미있었어. 또,
세연이 랑 옆에서 하는 게 재미있었어.

정민 : 물 받아먹는 거랑, 막 씨랑, 꽃이 되어 피는 것도 재미있었어. 들꽃이 나비가
된 게 재미있었어.

- 옹골찬방, 2004년 5월 -

④ 또래관계 내에서 지식의 구성

나들이 길에 골목길 화분의 콩잎을 보며

앵두(교사) : 이게 콩이래.

한남 : (화를 내며) 콩 아니야, 나뭇잎이야, 콩 집에 있어.

앵두 : 그렇구나, 이 잎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콩이 된대.

한남 : (더 화를 내며) 아니야, 나뭇잎이야.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준석

준석 : 이거 앵두, 콩나뭇잎이야.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인식하는데 눈으로, 손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온몸의 감각을 동
원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그 느낌을 살려서 언어로 표현하고, 느낌으로 몸에 저장한다.

어린방 영아들도 매일 나들이를 간다. 소근방(한남 25개월, 민규 26개월, 준석 30개월)은 나
들이 가다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인식도 갈등을 겪으며 변화한다. 주택가 골목길 집
밖에 내다 놓은 화분에서 콩잎을 관찰하며 아이와 교사는 이야기를 했다. 콩만 알고 콩잎은 처음
보는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콩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고 완강하게 거부한다. 아직 동화와 조
절이 안 되는 모양이다. 몇 개월 빠른 아이는 교사와 또래와의 실랑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콩나
뭇잎’ 이라 절충안을 냈다. 또래관계 속에서 자연을 매개로 협력적 인식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콩잎이 누렇게 변하고 ‘콩나뭇잎’ 에서 ‘콩’ 의 모습이 보일 때까
지 아이들과 교사는 관찰과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3) 자연을 통한 생명체와 관계맺기

나들이를 다니면서 자연과 어떻게 관계맺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아이들은 자연물을

가지고 재미있는 놀이를 했거나, 어느 장소에 자신만의 추억이 있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곤충은 그런대로 흥미를 보였으나 식물과 관계맺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엔 방별로 나무를 한그루 정하여 변화를 관찰하고 표현해보았다. 사계절 크게 변화가 없는 느티나무를 관찰하면서도 아이들은 나름대로 애착을 가졌다.

① 야생초와 친구 되기

2003년에는 7살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의 식물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때 정한 식물의 이름을 자기의 별명으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들이는 노루귀, 현진이는 꽃마리, 지윤이는 진달래가 되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만든 이름표를 식물에게 붙여주면서 그 식물의 한해살이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자기와 만나게 된 나무나 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애착이 형성된 것이다.

“내 노루귀는 먼 곳에 있어. 잘 있는지 모르겠어. 꽃이 얼마나 예쁘다고.” 텃밭에서 썩을 캐며 한들이는 노루귀 있는 곳이 멀어서 날마다 보기 어렵다며 걱정스런 얼굴을 하였다.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쓰이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식물들은 아이들의 관심과 책임감 있는 관찰로 인해 어느새 자기의 일부처럼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이 이사를 하게 되자 “여기, 내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걸어두고 갈 테니까 나로 생각하고 자주 못 오더라도 잘 있어” 라고 정감어린 당부를 하고 떠나왔다.

아이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옛 터전으로 정기적으로 나들이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나들이를 ‘고향길나들이’라 부른다. 마치 명절날 귀성객처럼 들떠서 나서는 모습이나 저희들의 추억이 어린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길지도 않은 옛날을 회상해내는 모습들이 자못 진지하다.

② 움직이는 생명체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

아이들에겐 텃밭의 무당벌레, 지렁이 한 마리도 관찰의 대상이다. 나들이 갈 때마다 “날개 달린 개미는 여왕개미!” 라며 바닥에 엎드려 개미 세계에 관심을 나타냈다. 아이들의 흥미가 높아짐에 따라 7세방과 개미 기르기를 했다. 관집으로 나들이를 가서 투명아크릴판으로 개미집을 주문하여 만들고, 보드라운 흙을 담고, 개미를 데려와 길렀다. 책에 적힌 대로 검은 천을 덮어주고 먹을 것과 물을 넣어주었다.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개미들도 멋진 굴속 같은 집을 짓고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 기르고, 일개미는 아기들을 돌보고 병정개미는 집을 고치는 ‘개미나라’를 구경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이야기해주었다. 그런데 개미들은 3일 만에 무참히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자연에서 잘 살고 있는 생명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사육하려 했으니 그들은 목숨을

다해 저항한 것이다.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되었다. 하늘을 향해 다리를 말아 올린 움직임 없는 개미의 죽음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쉽게 키워보자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얼마나 섬세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미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같은 생명이다.

한들 : 다 죽었어. 한 마리는 남아있어.

석헌 : 가엾기도 하다. 가엾다. 다 죽었어.

교사 : 왜 죽었을까?

혜원 : 벌레들이 음식을 나르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죽은 것 같애. 여왕개미랑 일개미 한 마리는 일을 안 해서 살아남은 거 같애.

이랑 : 개미가 불쌍해, 스트레스 받아서... 개미가 자기 집에 살고 싶어서... 개미들 밖에서 잘 살잖아. 밖에서 살고 싶은데 안에서 살고 있어서.

석헌 : 우리 아빠도 스트레스 받았어. 일도 많이 하고 늦게 오고 그래서...

- 쇠뜨기방, 5월 -

4. 텃밭 가꾸기와 벼농사

공동육아에서 아이들과 생태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나들이 외에도 텃밭 가꾸기, 동물 기르기, 벼농사가 있다.

1) 텃밭 가꾸기

아이들은 텃밭으로 나들이 가는 것을 좋아한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가지 등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당벌레등 온갖 벌레들이 많기 때문이다.

텃밭 가꾸기는 대부분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당에 작은 쪽밭이라도 개간하여 사계절 야채를 심고, 주변 환경이 되는 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여 텃밭을 임대하기도 한다. 산집은 후자의 경우이다. 소사동 시절에는 지역에서 한 3년 지냈더니 지역 야산지기 아저씨가 200여 평의 산밭을 아이들과 농사지으라고 내주어서 봄상추, 가을상추에 감자, 옥수수까지 푸짐하게 농사 지어 잘 먹고, 가을에 김장배추 100여포기를 거두어 김장까지 해서 아이들이 겨우내 잘 먹었으니 제법 텃밭 가꾸는 보람이 있었다. 송내동으로 이사 와서도 텃밭부터 알아보았다. 다행히 애지중지하시는 밭을 빌려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것도 야산이 아닌 기름진 흙이 있는 제

대로 된 텃밭이었다. 그래서 올해도 감자를 상당량 수확하여 잘 먹었고, 고구마를 심어두었다. 텃밭 가꾸기는 아이들과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도 없다. 밭 갈아주고, 거름 뿌려주고, 고추와 오이를 지지대를 받쳐주는 일들은 아빠들이 주로 해주었다.

텃밭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텃밭은 ‘생명에 대한 느낌’을 알게 한다. 고사리 손으로 씨가 되는 ‘묵은 감자 칼로 썰어’ 심기를 해보고, 흙을 덮어주고 감자가 싹이 트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이러한 느낌을 바바라 맥클린 톱(2001)은 “싹이 나올 때부터 그 식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혼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싹이 자라는 과정을 빠짐 없이 관찰해야만 나는 정말로 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밭에다 심은 옥수수는 모두 그랬어요. 정말로 친근하고 지극한 감정이 생겼어요. 식물들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었지요”라고 표현하였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텃밭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의 참여와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한다. 땅에서 커다란 감자가 되어 나오는 과정을 아이들의 발소리, 숨소리가 함께 함으로써 먹을거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동참의 즐거움을 안다. 자신들이 감자가 자라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확은 결실은 기쁨기만 하다. 땀 흘려 수확한 감자는 텃밭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들도 함께 나누어 먹으니 더욱 맛이 있다. 나누는 기쁨도 배운다. 그리고 함께 키우는 동물의 똥이 좋은 거름이 된다는 것, 인분도 거름이 된다는 것(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가능했다)을 체험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간의 순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여러 해 텃밭에서 무당벌레랑 지렁이랑 흙 주무르고 노는 동안 텃밭의 채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이다. 교육이란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직접 연관되어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너나없이 후손을 꾸미기 위한다. 그러나 자식교육에 것처럼 힘을 쏟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다. 떡갈나무는 땅에다 도토리틀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한다. 요즘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은 뒷전에 미루어두고 안 배워도 그만인 것을 더 열심히 가르친다. 교실에서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다 산이나 들판에서 새롭게 싹터 오르는 풀과 나무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부모가 많았으면 한다”고 한 생태 실천가는 말한다(윤구병, 1998). 자연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땀 흘려 먹을거리를 얻고, 그 배설물은(예전에는) 거름으로 썼다. 어린이집에서 인분을 모아 거름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마당 쪽밭에 묻어서 거름으로 썼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처리가 아니라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사는 농촌문화의 전통이다. ‘니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모아서 거름으로 만들어 쓰는 ‘생태학적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실천’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식물에게는

다시 영양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생태학적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나 인간위주의 ‘문명진보’에 대한 과욕으로 자연은 몸살을 앓고 있다.

텃밭에 가서 감자를 심어보기도 하고, 씨감자에 난 씨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씨감자를 씨눈에 맞춰 잘라본다. 감자 심은 다음날 물통을 들고 목말라 할 씨감자에게 물을 주러 텃밭을 찾아서 물을 주고 돌아왔다.

규범 : 감자야, 목마르지? 우리가 물 줄게.

규진 : 감자야, 쑥쑥 자라라. 우리가 너희 먹여 줄게.

규범 : 감자가 물을 주니까 시원하다고 그랬어.

정민 : 감자가 물 많이 먹어서 오줌 싸겠다.

유림 : 꽃 필려고 그래.

규진 : 감자가 답답할 것 같아, 땅속에 있어야 되니까, 어둡잖아.

- 옹골찬방, 2004년 4월 -

아이들의 표현 속에서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된다.

씨앗 뿌리려고 텃밭에 가서 씨앗관찰 하다가

한들 : (무씨를 들여다보며) 왜 이 씨앗은 분홍색이야?

교사 : 글썄, 왜 분홍일까?

한들 : 하나 먹어볼까?

교사 : 그럼 되고말고.

한들이 분홍 열무 씨를 입에 넣고 먹어본다.

한들 : 매워, 매워.

씨앗 하나에 무 한개 영양이 다 들어 있다더니, 과연 무의 매운 맛까지 들어 있군.

오늘은 텃밭에 가서 고구마 싹을 잘라서 심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마른땅에 고구마를 심었지요. 늦게 텃밭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물을 뿌려 주셨습니다. 감자는 잎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드러누운 가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감자가 저렇게 생겨서 어찌느냐는 물음에 할아버지는 “다 그렇게 되는 거요”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자밭을 살피던 한들이가 감자 이파리에 갈색 노린재가 알을 낳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이다! 노린재가 알을 낳았어! 이것 봐 정말 예쁘다.”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어디, 어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감자 잎을 따서 넓은 곳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보게 했습니다.

“노린재 암컷이다” 너도나도 들여다봅니다. 노린재 어미는 좁쌀 같은 하얀 알을 노린재 등 모양의 무늬처럼 줄 맞춰서 나란히 놓아놓고 그때까지도 날아가지 않고 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알을 지키고 있는 어미의 모습은 숙연하기만 합니다. 신비롭고 경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이 손 저 손으로 잎사귀가 붙은 알들이 옮겨지니 결국 노린재 어미는 자기새끼를 포기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도 시들어지고 잎을 잡고 있는 한들이가 묻습니다.

“이제 이 알들은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들여다봐서 이 알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애들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애.....” 한들이는 정말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럼 여기 감자밭에 노린재 어미가 찾아와서 돌볼 수 있게 놓아두자”

감자밭 사이에 노린재 알을 두고 나오면서 감자 잎을 괜히 따서 아이들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 일만 싱싱하게 살아있어도 저 잎을 먹고 알들이 자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어미가 와도 알들을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 위주로 사는 것은 아닐까요.

- 교사 일지, 2004년 6월 -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하지 무렵에는 봄 감자를 캔다.

“와! 알이 크다, 작은 것도 많네, 애기 같애” 라고 하며 너무 좋아한다. 감자를 캐니까 땅속에서 벌레도 많이 나왔다.

“여기 벌레 좀 봐! 지렁이, 굼벵이, 콩벌레, 집게벌레, 무당벌레.....” 아이들은 감자 캐랴, 벌레 발견하랴 바쁘다. “애들아, 이 굼벵이는 땅속에서 7년을 살다가 매미가 되어 7일 정도 산대. 굼벵이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매미로 우화할 수 있을까.” 어느 생명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지렁이가 많이 발견되어 아이들을 흥분시켰다.

혜원 : 나는 지렁이는 징그러워서 지렁이라고 한 것 같애.

교사 : 그거 재미있는 생각이네, 그렇지만 땅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벌레야, 흙을 부드럽게 해주지.

지나가시는 한 아주머니는 많이 캔 감자를 보고 놀라워하시며 금방 캔 감자는 맛있다고 조금만 팔라고 했는데 우리 식구가 많아서 팔 것은 없다고 했다. 가시고 난 후 생각해 보니 맛보시게 조금이라도 드릴 걸... 이웃아주머니한테 야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캔 감자들을 산집 마당에다가 펼쳐놓았을 땐 마음마저 넉넉해졌다.

- 덩더쿱방, 2004년 6월 -

텃밭 가꾸기는 아마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활동이다. 밭 뒤집기, 거름 뿌리기 등 힘을 요구하는 일들은 아마들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씨앗뿌리기, 텃밭에 물주기, 열무숙기, 상추 깎고고구마줄기고추 따기 같은 일을 즐거워한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를 캐 때는 흥분에 휩싸여 즐거워했다. 그러한 아이들과의 활동을 매월 교육평가서에 기록하여 부모들과 공유하고 있다.

2) 벼농사

삼 년째 벼농사를 하고 있다. 벼를 길러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광화문 농업박물관 앞을 지나면서 화분에서 버젓하게 자라는 벼를 보고서다. 아이들이 채소는 텃밭에서 보게 되지만 곡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는 곡식이 어떻게 생기고 자라는지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벼농사는 텃밭 가꾸기를 하다가 한 단계 진화한 것이다. 처음 논을 만들어 벼를 심겠다고 얘기했을 땐 주변에서 모두들 웃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육아 터전 여러 곳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다. 벼농사를 아예 텃밭 가꾸듯이 논을 빌려서 하는 곳도 있다. 2003년 여름교사대회 때 벼가 잘 자라는 모습을 화면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육아에서는 바람직한 교육경험은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첫 해 벼농사는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 햇볕 많이 받게 하고 물만 잘 주어도 벼가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해 농사는 다음해 종자거리는 된 것으로 만족스러웠다. 이듬해는 모판을 메고 이사를 했다. 좀 늦은 모내기를 했다. 그나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했다. 흑명나방으로 보이는 병충해까지 겪고 나니 나락은 알곡보다 쪽정이가 많았다. 그래도 아이들과 추수를 하고 시루떡을 해서 상달고사를 지냈다.

벼를 길러 보는 것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농민에 대한 공경의 의미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민족이다. 우리나라의 농경문화가 언제부터 정착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지만, 벼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 곁에 있었다. 1998년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출토된 벼씨는 그게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1만 7천~1만 3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벼농사는 혼자 하지 못한다. 전에 모를 심을 땐 노동요로 마음을 모으고, 품앗이로 돌아가며 일손이 되어주었다. 풍물을 울리며 벼를 심고, 추수를 할 때도 시루떡을 해서 잔치를 했다. 벼농사는 우리 조상들의 노동하는 즐거움과 풍물소리와 밥과 떡이 어우러진 공동체를 느끼게 한다. 민속학자 임재해(2002)는 ‘모든 자연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농심을 가치관의 으뜸으로 삼아야 하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가장 주요한 산업으로 재인식하는 동시에 생명을 가꾸고 자연을 되살려가는 농민들을 하느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이자 지구

사의 내일을 보장하는 길이다.’ 라면서 농사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올해는 커다란 고무 함지박에 여섯 통이나 된다. 그것을 여섯마지기(!)라고 부른다. 곡우에 벼씨를 얻어다 담그고 6일 후에 싹이 튼 벼씨를 뿌렸다. 며칠 휴가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함지박 논을 들여다보았더니 모가 나오지 않고 빈 나락겉질이 수북이 보인다. 지난주에 날씨가 춥기도 했지만 이렇게 흙을 안 덮지는 않았는데, 물을 잘 못 준 것이 아닌가 싶어 물어보니, 어쩐지, 아침마다 참새 떼가 날아와서는 쫓아야 가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한다. 그제야 첫 해 모판 만들 때 비닐을 덮어주었던 기억이 났다. 아이들에게 참새가 까먹은 벼 겉질을 보여줄 생각은 하룻밤 지난 다음에 들었고, 비닐 씌우기에 바빴다. 오후에 열어보니 그 새(하루만에) 모들이 파릇 파릇 돌아났다.

벼농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것은 논에 개구리 알과 우렁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아이들은 벼 사이사이를 헤집어 개구리 앞다리가 나왔는지, 우렁이는 얼마나 컸는지 들여다보며 어느 날 벼꽃이 피고 나락이 영그는 것을 본다. 우렁이를 보며 ‘우렁각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벼꽃을 그려보며 벼와 쌀과 밥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다.

요즘 농촌은 갈수록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부동산중개업소만 늘어난다. 농촌에 젊은이가 없어 아이 울음소리 끊어진지 이미 오래다. 시골 경치 좋은 곳은 거의 도시의 고소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농민들을 돈 몇 푼에 도시 서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촌이 그 나라의 먹을거리를 담당하지 못할 때 우리사회는 불안하다. 시중 유통되는 먹을거리 90% 이상이 수입농산물이라는 요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밥만이라도 우리 쌀로 먹고 자랐으면 한다. 아래 글은 마당 한켠 논에 벼농사를 하고 있는 과천 튼튼어린이집의 일지다.

물감놀이가 끝나고 모두들 마당에 나와서 모래놀이를 하던 중, 인이와 연수가 논에 내려가 물을 한손에 가득 가득 담아들고 왔다. 인이는 물 뜨느라 바지가 더 젖었을 정도로 물을 조심스럽게 뜨더니 기껏 모래마당까지 갖고 와서는 그냥 주욱 부어버리고 만다.

연수 : 물 또 떠올까?

인 : (고개를 끄덕끄덕)

유진 : (흥분하며 큰 목소리로) 논 안돼. 논에서 밥 나온단 말야.

인 : 쌀.

유진 : (옆에 있는 교사를 바라보며) 별빛, 연수랑 우석이가 논에 물 뜨러 간대. 밥 나와서 그러면 안 되지~?

교사 : (사실 물을 좀 떠도 되지 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참을 뜬을 들이다) 조

금씩만 떼서 쓰라 그러자. 눈에 벼를 심으면 그게 커서 쌀이 되는 거야. 쌀로 뭐 하지?

유잔인 : (아주 자신감 있게) 밥 !

유진 : 논에서 밥 나온단 말야.

논을 만든 후로 나들이 가기 전에 꼭 논을 한바퀴씩 둘러보고 간답니다. 바로 다음날 논에서 소금쟁이류를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뭐가 놀러오나 가 봐도 깜깜 무소식..... 개구리 언제 놀러오나... 기다리기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논이라는 말도 모르던 아이들이 “따라해 봐..... 논!” 이러면서 이제 논에서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하는 걸 조금씩 기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

- 파천 튼튼어린이집, 2004년 3월 -

5. 나들이를 통한 지역사회 알기

나들이는 아이들의 신체의 대근육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을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이들의 나들이는 관계를 트고 돈독히 하는 구실이 된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냈다.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쳐서 탄생을 알리고, 백일이나 돌이 되면 떡을 하여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온 동네가 빌어주며 마을 구성원이 되는 통과의례를 치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지역사회와 지역 환경과 역사적 숨결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화나들이와 역사나들이에는 더군다나 문화공부와 역사공부가 필요하다. 관련 지식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와 관심을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지식과 역사지식의 판도를 넓혀나갈 수 있다.

1) 지역의 유적지 나들이

산집은 지난 6년 동안 성주산 뒷골에 등지를 틀었다. 뒷골에는 한해 걸러 윗소사 산신제를 지내는 연흥사가 있고, 진영정보고와 작은 목장들이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소와 닭, 오리, 염소, 개들을 구경하고, 뒷골의 실개천에서 가재와 옆새우를 잡았다 놓아주며 생각하는 힘과 팔다리 근육을 키워왔다. 이 뒷골의 실개천은 할미산과 봉매산 골짜기인 구부골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과 합쳐서 소사들녘을 기름지게 하였다. 지금 소새 앞개울은 복개되어 시흥으로 통하는 길

이 되었고, 뒷골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은 바로 산집 앞에서 복개되었다.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에 의하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소사동 일대는 일제시대에 공장과 과수원이 들어서는 등 일대 변화가 있었다. 소사동의 성주산 중턱에는 복숭아밭이 들어섰고, 현재 아랫소사 팔백년 된 느티나무와 천년 된 은행나무 근처에서는 경기남부 지방에서 유명한 우시장이 열렸다고 한다. 해방 후 소사의 인구는 급격히 불어났고, 근래 옷소새 사거리에는 대동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장승을 세웠다. 이렇게 유적지가 많은 소사동지역이 산집에서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부천과 시흥과 서울에 걸쳐 사는 부모들이 지향하는 생활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아쉬움이 없었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주택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부천 지역 8년의 아이 키우기는 소사동에 이어 송내동(2003년 6월 이사)으로 이어져 성주산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① 소사동 유적지 나들이

소사동 나들이는 이사를 온 후 아이들과 교사들이 그 풍부한 자연환경과 유적지를 잊지 못하고 ‘고향 나들이’ 길을 만들어냈다.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유적지는 가끔 아이들과 들려서 쉬어가던 곳이다. 소사동 삼거리에서 시흥 쪽으로 가다가 세종병원 입구에 너무 오래, 천 년 동안이나 그곳에 서 있었다는 은행나무를 뵈러 갔다. 은행나무는 뿌리가 노출돼 있는데, 흙으로 덮어주면 마을에 질병과 화가 미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차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한돌이와 지민이는 왜 그러냐고 물어온다.

교사 : 글썄 왜 그럴까?

한돌 : 할머니(은행나무)가 싫어해서..... 흙을 안 덮고 보기만 하는 걸 좋아해.

형준 : 비 맞으라고(뿌리에 비 맞게 하려고).

혜원 : 흙을 덮으면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 사람들에게 전쟁과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

지민 : 사람들이 아파지니까 흙을 덮지 않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

예로부터 신성한 당산나무에는 함부로 손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는 경고가 전해진다. 그래서 더 신비롭고 영험하게도 느껴진다. 자연물을 위하고 섬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물이 지닌 영성의 위력을 신성하게 여겨서 섬기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자연물이 인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훼손되는데 대한 죄의식으로 섬기는 경우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달리 변함없는 곳곳한 자연의 힘, 또는 엄청난 힘으로 재앙을 주는 자연의 위력을 신성하게 여기고 자연물을 섬긴다고 보는 것이다. 그 리고 인간이 제멋대로 자연을 이용하고

훼손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섬기는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위해 희생된 자연물에 대해 그 원혼을 달래고 위무하는 위무제를 지내기도 한다(임재해, 2002).

은행나무는 암수 판그루가 있는데, 암그루는 가지를 옆으로 많이 뻗어 꽃가루를 많이 받으려는 모양을 하고 있고, 수그루는 꽃가루를 멀리 보내려고 위로 많이 뻗어있다고 한다. 은행나무가 넓게 가지를 뻗은 것에 비해 주변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들 위로 잘린 나뭇가지가 걸려있고, 버팀목을 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은행나무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은행나무의 정기를 다시 천년을 잇게 할 수는 없을까.

다음은 800년 된 옷소새 쌍느티나무에게 갔다. 소사삼거리에서 시흥시로 가는 버스 길 바로 옆에 있는데 예전에는 두 그루였으나 서남쪽에 있던 나무가 원인 모르게 죽어 이제는 한 그루만이 남아있다. 이 나무에도 유래가 있다. 두 그루 모두 어느 쪽이든 봄철에 움이 틀 때 나뭇잎이 위에서 먼저 피어 아래로 내려오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비도 많이 왔으나 반대인 경우는 흉년이 들고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살아있는 나무가 동쪽에서 먼저 움이 트면 풍년이 들었으나 죽어버린 나무에서 먼저 움이 트면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 나무의 형태는 동물이 앉아 있는 형상이며 옆으로 뻗은 가지 하나가 웬만한 나무 동치만하다.

“아까 그 은행나무는 천살, 이 느티나무는 팔백 살이야.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여?”

“느티나무!”

“왜 그렇게 보여?”

“이 나무가 더 커 보여.”

“나는 둘이 똑같아 보여.”

그리고는 소사본1동 옷소새 입구에 있는 북방현무흑제 대장군, 남방주작지하여장, 북방천하장군, 남방지하여장군 등 이 지역을 지켜준다는 장승들께 문안을 드렸다. 옷소새마을 진입표시가 있는 자연석 뒷면에는 옷소사 산신제의 내력이 적혀있다. 홀수년 음력 10월 초사흘에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옷소사 산신제’가 열리는데, 이것은 공동육아식의 표현으로는 우물청소잔치 같은 것이다.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이 산신제에 참가하여 기원도 드리고 국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다.

장승 옆에는 쌓다 만 돌탑이 있고 그곳에다 돌을 올려놓고 석헌이는 ‘비나리’를 하고 있다.

“석헌아 뭐라고 빌었어?”

멋쩍게 웃으며 하는 말 “탑블레이드 사달라고...”

석헌이는 그 소원만 3년째 빌고 있다.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하면서 소원 빌고, 추석 때 달 바라보며 소원 빌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치성 드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② 오토바이 바위 유적지

오토바이 바위는 소사동 성주산에 있는 큰 바위이다. 능선의 높은 곳에 있어선지 바위 아래에는 늘 누군가가 새벽녘에 촛불을 켜고 치성을 드린 흔적이 남아 있다.

옛날에 너희만한 또래가 있었는데, 현석이는 몸이 많이 약해서 엄마가 늘 업고 다녔지. 엄마 등에 업혀서 아직 산어린이집 이름도 짓기 전부터 엄마들 모임에 왔다. 그때 엄마하고 현석이가 산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아예 산집으로 부르기로 했지. 그런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산집이 내려다보이는 뒷산 이곳에 잠들게 되었단다. 그러니 이곳은 우리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지.

현석이 유골을 이곳에 뿌렸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몇 년을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무덤이 없는 화장 문화를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년이 흐르고 나니 자연스럽게 옛이야기처럼 들려 줄 수 있게 되었다. “슬픈 이야기네.” “아 그럼 ‘오토바이 바위 유적지’ 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아이들이 말을 했다.

오토바이 바위는 현석이가 가고 난 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곳의 의미를 아는 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한 여운에 휩싸이곤 한다. 건지 못하던 현석이는 터전 마당에서도 봉봉카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그가 잠들어 있는 곳의 지명을 하필이면 ‘탈 것’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영감이 있었을까!

③ 고강동 선사유적지

2003년 산어린이집의 교육목표는 ‘지역의 역사알기와 생태교육’이었다. 조상들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이전의 사람들의 생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고강동은 소사동에 이어 부천의 선사유적지로서 유명하다. 일곱 살 아이들을 데리고 부천의 고강동 선사유적지로 역사나들이를 갔다.

일반인들로선 안내판이 없다면 흔적도 찾기 어려운 곳에서 지역의 역사학자로부터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전사람들이 산 쪽에 자리 잡고 살던 이야기, 제(祭)를 지내던 이야기,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발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주는 “옛날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 “옛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이들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 생활이 있다. 반달모양 돌칼은 이렇게 잡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다. 반달모양 돌칼을 잡고 있는 옛날 사람들을 상상해 보자..... 여기 돌화살촉이 있다. 이것은 옛날에 들짐승들이 자랄 수 있는 숲이 있었다는 얘기다. 숲도 있고 논밭도 있었던 옛날과 지금의 모습을 많이 다르다.” 라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였다.

아이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역사와 문명과 우리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통찰력 있는 생각들을 키워나갈 것이다. 문명은 숲을 먹고 자랐다. 숲이 사라지면서 들짐승도 사라졌다. 궁극적으로 숲이 없으면 문명도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함께 사는 ‘상생’ 만이 길이다. 다음은 그날 아이들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이들은 식사 후 쉬는 시간에 움집을 짓기 시작했다. 평소 판전 피우기 선수인 종은이가 제일 먼저 그 놀이를 생각해냈다. 길게 드리누워 있는 나무 위를 평균대 걸어가듯 걷던 녀석이 갑자기 긴 나뭇가지를 누운 나무 위에 걸쳐놓더니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애들아 지금 우리는 옛날이야, 옛날로 돌아갔어, 움집을 지어야해, 긴 나무가 필요해.”

아이들은 그 ‘놀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모두들 갑자기 분주해졌다. 절묘하게 성(힘)에 따른 일의 분배도 이루어졌다. 통나무를 구해오는 것은 주로 남자아이들이었다. 나무를 여러 개 겹쳐놓으니 제법 원뿔모양의 움집이 되어갔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에 몰입해서 힘에 부칠만한 제법 굵고 긴 나무도 주워왔다. 놀라운 놀이 에너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여자아이들은 마른 낙엽들을 긁어모아 와서 움집 바닥에 깔았다.

“도토리야 밤을 주워 와서 식량을 해야겠어!”

“나뭇가지를 주워 와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야겠어!”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자”

- 2003년 10월 -

아이들의 움집놀이를 보면서 한 가닥 영감을 얻어, 놀이를 고사 풍습으로 승화(?)시켜보았다. 우리도 조상들처럼 아이들과 10월 상달고사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마침 함지박 논의 벼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들 중에 제기(祭器)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과 제기 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오리숫대를 산집 마당에 세우고, 제물로는 생태교육과도 걸맞은 통돼지를 마련하였다. 제기와 통돼지 만들기는 종이죽과 한지덧붙이기를 하였으므로

한 달가량 걸렸다. 아이들과 장보기를 하여 막걸리와 과일, 북어와 시루떡을 준비하고 축문을 적성하여 성주산 신령님께 고사를 지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엄마아빠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라크 아이들도 잘살게 해 주세요” 라고.

2) 나들이 통하여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나들이는 지역과 관계 맺기 하는 첫걸음이 된다. 오래된 지역이 아니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 도시의 생리인데, 공동육아 아이들은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곳에 산다’는 것을 홍보하고 다닌다. 바쁜 어른들이 때론 아이들의 소란함을 귀찮게 여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산으로 나들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동네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어른께 인사를 잘한다. 언젠가는 산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못 들으셨는지 스-윙 지나가 버려서 오히려 무안해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는 일부러 더 큰소리로 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윗집 백구네 아저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아니 뭐 하러 또 왔어! 인사 안 해도 돼!” 라고 웃으며 소리를 친다.

“인사 안 해도 된대...” 아이들이 멋쩍어하며 중얼거린다.

“저 아저씨가 우리를 예뻐해서 그러는 거야” 해석은 자유다.

몸부림치는 토종닭을 실어다 닭장에 집어넣는 동물농장 아저씨를 보면서 아이들은 또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

- 쇠뜨기방, 2004년 5월 -

튀어나가려는 닭들을 몰아넣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의 인사를 안 받아 줄 수 없다. 아이들은 어른들께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는다. 어른들은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 옆에 있는 교사들까지 아름답게 봐 준다. 어린이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과수원의 과일이 익으면 먹으러 오라고 한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어린이집은 소란스럽게 여겨지게 마련인데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나들이의 힘이다.

3)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송내약수터에 자주 나들이 간다. 옆에 작은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지수(6살)가 멈춰서더니 “

우리 이 물소리를 눈감고 들어보자. 애들아, 조용히 좀 해봐.” 하면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개울물 소리를 들어보자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고 탁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물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한마디씩 한다. 그 동안 익히 들었던 지식과 정보를 종합해서 물의 색이 변한 것의 원인들을 이야기해 본다. 물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에도 다른 과장으로 물의 소리가 느껴지나 보다.

지수 : 물이 많아졌어, 사마귀처럼 거품이 일어.

규범 : 물이 오염되었나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산길을 올라가다 요구르트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형준 : 저거 안 썩는 건데...

교사 : 그럼 산이 어떻게 될까?

형준 : 더러워져.

교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준 :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우리는 그것을 어린이집까지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하였다.

- 2004년 7월 -

홍천으로 먼나들이를 갔다. 둘째 날 오전, 서석리 논밭을 걸어가며 생태나들이를 하였다. 마침 등에 커다란 약통을 메고 논에 농약을 뿌리는 농부 아저씨를 만났다. 호기심이 많은 혜원이는 대뜸 다가갔다.

“아저씨, 뭐해요?”

“논에 약 뿌린다.”

“그럼 잠자리도 죽어요?”

“..... ”

논에 약을 뿌리면 잠자리도 죽을까봐 걱정하던 혜원이가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해? 벌레가 먹는 게 중요해?”

“우선 사람 먹는 게 중요하고, 벌레도 있어야 사람도 사는 거지”

“근데, 왜 벌레들은 다 죽으라고 약을 쳐?”

- 2004년 7월 -

이쯤 되면 아이들에게도 ‘생태지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들이를 다니면서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놀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산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모둠을 하였다. ‘산에서 오줌 싸면 안 돼’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라고 아이들이 경험한대로 말하였다. 그

래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자고 약속하였다. 매주 월요일은 쓰레기 줍는 나들이 날로 정하고 아이들과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주웠다. 교사리 손으로 쓰레기 줍는 아이들을 본 동네어른들은 “아이구, 애기들이 착하네.” 라고 칭찬을 해주니 으쓱하여 기분이 좋아졌다. 이들의 이러한 체험은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환경교육은 장황한 설명보다 일상의 실천이 중요하다.

6. 맺음말

아이들은 나들이를 다니면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만나기도 하고 작은 죽음들과 직면하기도 한다. 나들이 가다가 죽은 작은 새나 개구리를 발견하여 물어주기도 하고, 데려와 기르던 개미나 올챙이부터 토끼나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하늘나라로 보내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나들이 길에는 작은 꽃무덤들이 계속 피어난다. 무덤을 만들어주고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 책임을 속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었다. 교사들도 생태교육을 하면서 나들이 속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생명들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어디까지 관찰시킬 것인지 늘 고민한다.

생태나들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에서 놀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안정된 정서를 가질 수 있다. 숲구치는 욕구를 발산하고, 또래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이들은 여럿이 있을 때 더욱 신이 난다. 나들이에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주관성을 획득한다. 또래친구가 소중함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나들이를 통해 건강한 마음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가 발달한다. 내 마음이 넉넉해지니 친구와의 관계도 따뜻하다. 사회성이 자라게 된다.

아이들은 나들을 통하여 정서가 안정되고 사고의 질이 높아진다. 보드라운 새순이 나오면 만져보고, 예쁜 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냄새 맡아보고, 먹는 것이라면 풀도 뜯어먹어보며 감각을 익혀간다. 감각으로 익힌 것은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으로 공동육아에서 생태나들이를 통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과 관계 맺고,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역 역사와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지 살펴보았다. 생태나들이는 자연스럽게 자연과 이웃과 깊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마실이다. 결국 생태교육과 마을교육은 함께 해야 한다. 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각 가정(노인·청장년·아이들), 논밭, 산야, 당산나무, 숲대, 택견, 풍물 등과 현대적 요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동육아에서의 생태나들이 교육이 다른 교육현장은 물론 공동육아 내부의 신입 교사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자료화하여 널리 사회 일반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생태적 환경을 염려하는 환경운동단체나 보다 나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안교육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생태환경과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일반 현장에서 생태나들이 적용 시, 반드시 자연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바깥나들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있다면 아이들의 삶의 질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더 많은 아이들이 자연의 품에서 충분히 뛰어놀면서 자신들의 놀 권리를 획득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게리 폴 나브한스티븐 트림블, 김선영 옮김(2002). 아이들은 왜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가. 그물코.
 공동육아연구원(2000) 코뿔소, 나들이 가자. 또 하나의 문화.
 공동육아 교사협의회(2001) 여름교사대회.
 공동육아연구원(2000) 우리 어린이집의 놀잇감, 현장학교 교사자격과정자료집Ⅱ.
 공동육아연구회(1994) 함께 크는 우리아이. 한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1995) 공동육아 이렇게 운영됩니다, 제2권 교육.
 바바라 맥클린톡, 김재희 역(2001) 생명의 느낌. 양문.
 부천문화원편집부 편(2001)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 부천문화원.
 산 어린이집(2003) 코뿔소, 쇠뜨기가 뭐야. 잉겔.
 윤구병(1998) 잡초는 없다. 보리.
 이부미(1999)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임재해(2002)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김종철·김태언 옮김(1996)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세시와 한해 흐름은 무엇인가요

김 경 순

과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열리는어린이집 교사, 세시와 한해흐름 모둠안내자

1. 한해의 흐름을 알아봐요

절기와 세시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치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력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1) 달력의 구성

○ 하루(날) : 달력의 최소단위.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자전).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위로 태양일, 즉 밝음과 어둠이라는 매우 뚜렷한 경계로 알려준다.

○ 일주일 : 인위적인 단위. 자연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예전에는 서양은 5일, 7일 주기이며 동양은 10일(상순, 중순, 하순)주기였음. 요일의 이름은 동서양 모두 별에서 따왔다.

○ 한 달(29.50359) : 달의 모양을 따라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이 태양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비치는 달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므로 우리가 때를 구분할 수 있다.

○ 한해(365.2421) :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의 시작은 문명권마다 다름.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일을 새해의 출발점으로, 우리나라는 동지가 새로운 해의 시작이었다)

2) 달력과 권력

○ 달력은 국가권력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공동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삶의 리듬이다.

○ 가장 강력한 법률 : 시간을 장악한 자는 왕이나 황제로서 하늘의 아들 자리를 차지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으며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달의 운행이나 별자리를 관측하는 일은 법으로 금해져 있었다.

○ 인간의 삶을 장악 :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달력이 국가 권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달력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달력 안에 세시와 절기가 있다. 달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한 것처럼 달력 안에 있는 세시와 절기도 하나의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을 통일하고 함께 지내기 위한 약속이었다.

○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살기 위해, 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동일한 행위를 통해 모두가 잘 살아가기 위한 생활리듬이 세시와 절기인 것이다.

2. 절기에 대해 알아보기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1년을 춘, 하, 추,冬の 4계절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24절기로 나누어 놓았다. 태양이 황도 상(태양이 움직이는 길)으로 움직여 운행하는 위치에 따라 계절이 변하는데 황도 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24점을 정하였다. 동지를 기점으로 절기를 매겨 15.218425일씩 더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나누어 72후라고 했다. 절기와 절기 사이는 약 보름 정도이며 예로부터 농업을 주로 하던 우리 조상들은 절기에 따라 농경생활을 해 왔고 어업과 관혼상제를 치르는 데도 이를 적용해 왔다.

| | | |
|------|--------|--|
| 봄(春) | 입춘(立春) | 봄기운의 온기(溫氣)가 땅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
| | 우수(雨水) | 땅속에 있던 온기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땅 위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한다. |
| | 경칩(驚蟄) |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벌레들이 잠에서 깨어나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
| | 춘분(春分)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
| | 청명(淸明) | 모든 초목들이 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또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해에 따뜻한 남쪽으로 갔던 철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
| | 곡우(穀雨) | 모든 곡식의 종자들이 싹을 트기 시작한다. |

| | | |
|-------|--------|--|
| 여름(夏) | 입하(立夏) | 여름에 접어든다. |
| | 소만(小滿) |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고 벼쭉새가 울기 시작한다. |
| | 망종(芒種) | 가을 즉 입동 전에 파종되었던 곡식들이 다 익을 때이며, 1년생 곡식의 종자는 모두 망종이전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때이다. |
| | 하지(夏至) | 낮의 길이가 1년 중 제일 길다. |
| | 소서(小暑) | 장마전선에 들어 습도가 높아진다. |
| | 대서(大暑) | 1년 중 가장 무더운 때이다. |
| 가을(秋) | 입추(立秋) | 가을에 접어든다. |
| | 처서(處暑) | 1년생 식물들은 성장을 멈추며 인간은 이때부터 찬바람 끼가 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
| | 백로(白露) | 이때부터 햇과일과 햇곡식을 먹을 수 있는 때다. |
| | 추분(秋分)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
| | 한로(寒露) | 철새들이 월동을 위하여 남방으로 떠나가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동면에 들어간다. |
| | 상강(霜降) | 서리가 내리면서 모든 곡식들이 시들어 간다. |
| 겨울(冬) | 입동(立冬) | 겨울에 접어든다. |
| | 소설(小雪) |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
| | 대설(大雪) | 지상에 큰 눈이 내린다. |
| | 동지(冬至) | 1년 중 밤이 제일 길고 반대로 낮은 가장 짧다. |
| | 소한(小寒) | 1년 중 가장 추위가 혹심한 때라 지상은 차고 지하에서는 나무뿌리가 휴면(休眠)을 하는 상태이다. |
| | 대한(大寒) | 초목의 뿌리가 휴면을 하면서도 봄을 대비하여 발아(發芽)의 준비를 한다. |

24절기라는 명칭은 중국의 <전한서율력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원래 새해의 시작을 동지로 사용했고 후대에 와서는 입춘으로 정해졌다. 1년이 시작된다는 것은 태양의 부활이며 농사의 시작 즉 봄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절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세종 때 편찬한 칠정산 내편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황하지방의 기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3. 세시에 대해 알아봐요

설, 정월 대보름, 한식, 삼월삼짇날, 초파일, 단오, 삼복, 칠석, 백중, 추석, 중양절, 상달, 동지, 납일.

이와 같이 음력 정월에서 섣달까지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주기적인 전승의례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음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태양태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우리의 생업이 농업이었으므로 농경의 주기인 절기 외에 세시풍속 또한 농사의 개시,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 농경주기와 맞물려 있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주기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이러한 세시명절은 일상의 날과 구별되는 각별한 날로서 대체로 다달이 있어 1개월을 간격으로 긴장과 이완의 순리를 반복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다음 생활의 활력과 삶의 탄력을 얻는 재충전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또 일 년을 계절적으로 나누어 계절의 고비마다 쇄퇴하고 약화된 우주의 생성력을 촉진하고 인간의 생존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매 달 큰 축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농사가 바쁘거나 마을 전체가 품앗이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을 따져 크고 작은 축제가 어우러지게 됨으로써 강박의 생활 공동체적 리듬을 가졌다.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세시명절에는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각별하게 보냈고 이를 통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감사하였으며 복을 빌었다. 또 여러 가지 놀이가 행해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또한 단순히 먹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즉 세시풍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액을 때우고 복을 빌게 됨으로써 풍농과 건강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세시명절에는 놀이와 노래를 즐기고, 그 때마다 자연에서 나는 먹을거리로 음식을 해 먹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온다. 또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유래가 꼭 뒤따라 다닌다. 따라서 놀이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에는 모두 철저하게 의미가 들어있으며 이 때 하는 행위 자체는 모두 습관화되어 하나의 문화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달수가 같은 홀수인 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설날(1월 1일), 삼짇날(3월 3일), 단오(5월 5일), 칠석(7월 7일), 중양절(9월 9일) 이는 음양설에서 홀수를 양수라 하고 양수가 겹치는 날을 길일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4. 공동육아에서는 절기와 세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공동육아 현장은 전통문화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을 추구한다. 자연과 더불어 계절에 맞

는 삶, 우리 문화가 전승되는 삶,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생활방식으로 절기 행사와 세시풍속에 의미를 두고 그에 따른 놀이와 음식 문화를 즐기으로써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바로 ‘생활은 교육이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하면서 배우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고 생태주의와도 통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계절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면서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오늘날의 삶에서도 충분히 중요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신체리듬이나 놀이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때가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절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때마다 즐기는 놀이를 하므로 자연스럽게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이것이 생활 속의 문화로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내용으로 그에 맞는 놀이나 음식, 이야기, 놀이 등을 직접 해 보는 삶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5. 세시와 절기는 실천을 통한 만들어진 교육과정의 틀입니다

세시활동을 통한 놀이문화도 어린이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에는 세시놀이가 세시명절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단오 때 하던 씨름이나 대보름 때 하던 연날리기, 설 때 하던 윷놀이가 최근에는 다양하게 행해진다. 다만 땀 흘리는 놀이는 주로 덥지 않을 때 하게 되고 더운 여름에는 나무그늘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일상적인 놀이로 하게 된다.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윷놀이 같은 것을 하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도 세시 때 해왔던 놀이들이 계절별로 어느 정도 일상화 되고 있다.

1) 나들이

나들이는 자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 준다. 각 어린이집이 날마다 가는 나들이는 대개 장소가 정해져 있다. 자연 나들이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한 해의 흐름을 오감을 통해 다 체험할 수 있다. 나들이를 통해 완만하게 그리고 눈치 채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의 흐름은 자연적인 시간을 체험하고 습득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2) 전래놀이

대동놀이나 씨름, 줄다리기, 산가지놀이, 윷놀이 등의 놀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런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한 해 한 해 놀이의 틀이 잡히고 큰 아이들의 놀이를 본 작은 아이들은 자

연스럽게 이듬해가 되면 큰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한다. 전래놀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 바로 이러한 놀이들이 개인적인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 놀이라는 점 때문이다. 놀이를 통해 몸을 부딪치며 더불어 놀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3) 제철 먹을거리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먹고 절기에 맞는 음식 문화를 추구하려 노력하는 것도 공동육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 여러 가지 탄산음료 문화가 요즘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긴 해도 어린이집에서 절기 때 마다 해 먹는 진달래 화전이나 썩개떡, 송편, 팔죽, 만두, 강정, 부침개, 오미자 화채, 식혜, 수정과 같은 우리의 음식들이 아이들 입맛에 자리잡혀가고 있다. 무엇보다 제철에 나오는 나물을 먹을 줄 아는 것은 큰 수확이다. 각 어린이집의 식단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식단이 절기에 맞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옛이야기

우리의 옛이야기는 가장 우리다운 말이 살아 숨 쉬며 풍속과 문화와 삶의 지혜가 모두 들어 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고 즐기면서 민족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한 자락,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줄곧 마음에 남아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데 많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그 변화를 오감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이야기와 먹을거리와 전래놀이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육아는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는 세시활동을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리듬이 몸에 익지 않은 부모와 교사들이 문제일 따름이다.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단절되어 우리가 자라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노력해서라도 찾아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생활을 누린 아이들은 자라서 이다음에 현재보다 훨씬 더 도시적이거나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어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뿐 아니라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6. 절기와 세시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나요

○ 때를 알게 돼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긴장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삶을 산다. 절기에 맞춰 농사일과 집안일, 공동체 일을 준비하고 챙기고, 음과 양의 기운에 맞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재충전한다. 그때그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를 알고 살아간다.

○ 관계 맺기를 잘 할 줄 알게 돼요.

때에 따라 자연을, 조상을, 어른을, 아이를, 이웃을 챙기고 감사하는 일을 가족과 또는 공동체와 함께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줄 알게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세시명절을 정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명절로 하는 동지, 설날, 중화절, 입춘절이 있고, 양수가 겹친 날을 길일로 한 명절인 설날, 삼짇날, 단오, 칠석, 중양절, 그리고 달과 관계되는 명절로 정월 대보름, 유두, 백중날, 추석 등이 있다.

이러한 절기와 세시에 따른 생활이 전승되고 반복되면서 각 가족, 공동체, 지역에서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 각 터전에서 생활하다 보면 해마다의 삶이 쌓여 그 터전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7. 몇 가지 생각해 보아요

○ 오늘의 현실에 맞는 세시문화는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평등문화의 구조를 가져야만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자연적인 인간의 삶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시대가 바뀌어버린 오늘 날 우리 실정에 맞는 세시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품앗이 공동체 사회인 농경사회의 행위자체만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오늘 날의 실정에 맞게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화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기독교신자가 있음에도 기독교의 명절인 추수감사제나 크리스마스가 종교적 의례일 뿐 생활문화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대신 우리의 추석이나 설이 요즘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추석이 기독교의 추수감사제와는 달리 우리 문화의 틀 안에서 가족공동체로서의 풍속과 문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

어 나누어먹고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가고 전통 옷인 한복을 입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일은 우리 민족이 이미 가족공동체로서의 끈끈함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들 세시명절을 통해 추구해나가야 할 것들은 유교사회라는 전통사회 속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는 평등문화의 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를 재조정하고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모든 가족이 어우러져 일과 놀이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만 더 계승될 수 있을 거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세시와 절기 활동을 어린이집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

가정에서 해야 할 것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집에서 부모가 해 주어야 할 것들을 어린이집에서 모두 해 버린다면 세시와 절기문화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적 아련한 추억 한 자락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공동육아가 생활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이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집을 떠나서도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하는 세시활동을 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집에서 할 수 없다면 설령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놀이를 할지언정 적어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필요하다.

○ 어린이집 안에서의 새로운 세시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동육아가 생활공동체, 육아공동체로서의 방향을 여전히 지향해야 한다면 우리 속에서의 새로운 세시문화를 정착해나갈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마다 일정한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이다. 조합원과 교사의 단합대회라든지 개원잔치,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그 조합만이 가진 해마다 반복되는 활동들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세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세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행위와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며 놀이판도 벌어지고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 그날은 바로 잔치인 셈이다. 그 어린이집만이 가진 고유의 그런 행사들을 정착해간다면 그 집단만이 가진 고유의 세시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이다.

○ 세시와 절기 활동을 생활로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교육 활동을 고민하는 교사가 되려면 이를 통합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동육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공동체 문화를 함께 일궈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 부모 스스로가 절기와 세시문화를 즐기고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⁶⁵⁾

조 봉 호

산어린이학교 교장

1. 사라져가는 이야기문화

어려서 아이들이 정서를 형성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야기이다. 태어나면서 부터 아이들은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하면서 옆에서 속삭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맨 처음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엄마와의 만남을 시작한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집 안어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졌다.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재워 주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같은 생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형제들이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만이가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어른들도 자기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이야기꾼의 역할을 해주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누구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꾼이 되어 주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옛날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생활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다시 아이에게 이야기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왔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전승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려서 알게 모르게 들은 이야기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잠재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예전의 이야기문화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마을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야기해 줄 여유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으며 바쁜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줄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책임지면 된다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설령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해도 텔레비전이 그 시간을 빼앗았고 아이들은 수많은 장난감과 다양한 그림책과

65) 이 글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조봉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동화구연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부모 스스로도 이야기꾼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야기꾼으로서의 기능을 익히지도 못했다. 더구나 교육기관조차 이야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또 이야기는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야 함을 깊이 인식했던 것 같다. ‘이야기 주머니’라는 옛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임재해는 ‘이야기 주머니’라는 글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살아있는 유기적 생물체로 보았다.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고 개인의 것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이야기의 죽음, 즉 공동체사회의 죽음으로 바라본 것이다.

사라져가는 이야기문화를 아쉬워하면서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 주머니’를 들려주면서 옛이야기는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생겼고 만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해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들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여졌고 이제는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 들려주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도 보고 그림책도 보지만 이야기문화가 조금이나마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교사들에 의해 이야기문화가 차츰 살아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이야기문화의 중요성

나는 이야기문화야말로 어린 시절 양육자와 아이 간에 애착과 신뢰감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나면 애착형성이 잘 된 아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아주 편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를 대하게 되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며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양육자에 의해 키워졌는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아이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Bowlby에 의하면 ‘애착’은 양육자와 아동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를 뜻하며 정서적 안정, 자기조절 뿐 아니라 커서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김태련외, 2004).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매개물이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대상이라도 서로 이야기되는 순간, 대상과 주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애착과 공감의 통로가 만들어지며 애정이 싹트게 마련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들이 길에서 만나는 꽃이나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와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또 옛이야기는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육아에서 두 양육자가 서로 소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특히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을 만나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절감한다. 놀아주고 씻어주고 밥을 함께 먹고 잠을 재워주고 하는 교사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제 2의 양육자로서 아이와 많은 생활을 공유한다. 그래서 적은 시간을 아이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보내는 교사는 서로 아이에게 있었던 일이나 아이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다. 대개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왔을 때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마치 감독관처럼 꼬치꼬치 캐묻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옛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부모가 구태여 들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엄마나 아빠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터져 나오고 좋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자꾸 해주고 싶어 했다. 그만큼 재미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들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 와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흥분하고 기뻐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날적이를 통해 부모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부모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다음 날 다시 교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다. 그리고 교사는 다시 이를 아이에게 칭찬의 도구로 활용한다. 옛이야기는 어렵기만 하다는 교사와 부모의 관계를 느슨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쉽게 부모와 교사간의 자연스런 의사통로를 만들어 주었다. 일곱 살 아이들은 교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여섯 살이나 더 어린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통합교육의 한 방안으로 큰 아이들이 동생들에게 잠재워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일곱 살들은 교사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장가도 불러주고 옛이야기도 들려준다. 잘 하든 못하든 동생들은 한 마디 불평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신기할 정도다.

아이들은 늘 이야기 듣기를 원한다. 만나자마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해 줄 거야?”라고 묻는다.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 후에도 나들이를 함께 가면서, 놀이를 하면서 종종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 주었으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나를 믿고 잘 따른다. 들은 이야기를 집에 가서 매주 엄마와 동생에게 들려주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자기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에 대한 감동을 전하며 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야기 한토막이 담임교사가 아닌 나와 그 부모 사이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는 아이와 아이, 교사와 아이, 교사와 부모 간의 정서적 끈이 되어주고 있다.

3. 생활 속에서의 이야기문화 만들어가기

몇 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나는 이야기해 주는 사람으로 통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우연히 그렇게 되어 버렸다.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아이들은 아침햇살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하고 기대를 했다. 그건 내가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친정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늘 말문이 터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 중 내가 맡았던 아이들은 4학년이나 됐는데도 가끔 만나면 여전히 “아침햇살 이야기 해줘”라고 말한다. 그 아이들 몇 명이 차를 타고 함께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날도 대뜸 “이야기해줘”라고 말했고 어떤 이야길 해줄까 했더니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모두 합창하듯이 한 목소리로 “두-부, 두부-우, 부우두 부우두”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4년이나 지난 그 이야기를 기억하느냐는 나의 말에 한 아이가 다시 “아저씨 영차주세요”하며 깔깔 웃었다. 전체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주인공은 시냇물을 건널 때 ‘영차’하고 뛰다가 그만 두부란 말을 잊고 두부가게에 가서 “아저씨 영차 주세요”라고 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두부두부 영차”라는 옛이야기인데 아이들이 하도 재미있어 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줬던 이야기였다.

나는 그 날 이후 내가 해준 이야기가 아이들 마음 속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음에 기쁨을 느끼면서 내가 들려준 이야기 한 토막 중 음악소리처럼 반복해 표현했던 구절이 합창하듯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때의 그 분위기와 좋았던 느낌들을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였다. 내가 친정엄마에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즐거리가 중요했다기보다 생활을 나눈 것으로도 따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지냈던 아이들도 함께 부대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낸 시간들로 인해 그러한 따듯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은 생활이 바로 이야기였고 이야기는 바로 생활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요즘 아이들도 여전히 이야기 듣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교사들도 하나 둘씩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은 공동육아 교육활동에서 이야기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늘 어느 곳에서든 이야기판이 벌어지고 다행스럽게 이를 부모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생활은 하루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잠자는 시간만 빼놓으면 교사와 아이들, 아이들과 아이들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관계의 만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생활공간, 놀이공간을 모두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주고 받다보면 서로 매우 즐거워지는 것 외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풀어나가고 서로 친밀해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여러 갈등을 풀어나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알아갈 세상에 대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얻게 될 인생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리라 보고 본다.

교사생활을 하며 처음에는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지 의아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답답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의 젊은 부모나 교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해주는 거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재교육을 통해 교사들은 그 중요성을 알아간다. 그래서 비디오나 인형 등 시청각교재의 도움이 없이 교사들은 우리 옛 사람들이 해온 것처럼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자 노력한다. 마주 앉아서 낮잠을 재우며 텃밭에 주저앉아, 혹은 나들이 길에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가 몸에 밴다는 것은 그것이 생활 속에 녹아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야기는 그래서 교육이고 생활이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 하는 문화인 것이다. 이야기문화는 여기에서 주로 다룰 옛 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며 일어난 여러 일상생활 이야기까지 포함된다.

4.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가

이야기에 나 스스로 맞들이면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 아이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거나 아이들의 사고 수준에 맞지 않았고, 한 겨울에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적당치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아,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맞지 않구나.’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화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야기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또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유아들에게 들려주어도 괜찮은 것일까? 들려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골라야 하고 어떻게 들려주어야 할까? 그런 고민이 늘 있었다.

브르너 베텔하임(1998)은 옛이야기는 어린이들의 내면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어린이

들이 무의식적으로 겪는 심각한 내면적 억압을 해소하거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싹트기 시작하는 자아의 발달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매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 저런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으나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맞는 옛이야기가 제대로 정리된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공동육아가 근간으로 삼는 세시와 절기에 따른 교육과정에 맞는 이야기와 유아기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야기를 좀 더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아이들의 심리에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맞는 것들을 주제별로 나누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의 기준을 생각해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걸 완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1) 민담을 들려주자

우리가 옛날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통 설화라고 말 한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을 포괄하는 말인데 우리가 옛이야기라고 할 때는 보통 전설과 민담을 일컫는다. 그러나 전설은 지역적인 특징이 있고 특정한 명칭이나 증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일반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흔히 옛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민담인 셈이다. 책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래동화라는 말도 일제시대부터 생겨난 말이므로 그냥 전래동화라는 말보다는 옛이야기라는 말이 더 좋다.

민속학자들이 민담(folktale)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원래 입에서 입으로 떠돌아다니던 것들이다. 아주 오랜 옛날, 문자가 없던 시절부터 있어왔으나 문자가 생기고 나서도 일부계층만의 전유물이었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전승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은 변형되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은 소멸되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야기들은 또 머리로만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된 민담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옛날에는 어른도 대부분이 문맹이었으므로 이야기의 대상은 어른과 어린이 모두였다. 이야기의 주제가 어린이들에게 적당하지 않은 것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옛이야기의 대상자는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에 머물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요즘 어른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글을 스스로 읽도록 강요하려 든다. 더구나 지금은 옛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 준다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익히고 있으며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책을 보고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이야기는 그저 책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

전혀 아이들은 옛이야기 듣기를 매우 좋아한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잘 이해하는 것은 옛이야기가 가진 구조의 단순성과, 전형적 인물, 언어의 즐거움 때문이다(페리노들먼, 2003). 내용이 가진 주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옛이야기의 형식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옛이야기를 입말로 살려 쓰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정오(2002)가 옛이야기의 형식에 대해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첫째, 단순하게 되풀이된다(반복). 둘째, 성질이 뚜렷이 다른 둘이 맞선다(대립). 셋째, 점점 차오르는 틀이 있다(점층). 넷째, 흥겨운 가락이 있다(리듬). 다섯째, 시점은 언제나 주인공에게 머물러 있다(시점고정). 여섯째, 사건은 시간에 따라 단선으로 펼쳐진다(평면성). 일곱째, 세세한 상황 설명이나 묘사를 멀리한다(간결성)로 요약할 수 있다. 옛이야기의 형식이 가진 이런 특징이야말로 유아들이 옛이야기를 접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적당한 매체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 동일시(내면화)의 세계가 잘 드러난 이야기를 들려주자.

옛이야기에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기와 비슷한 연령의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아니면 늘 부족하게 그려지는 인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 많다.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해주는 머슴이라든가, 힘없는 노인이라든가 나무꾼처럼 힘없는 서민을 대표로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많다. 이러한 주인공의 성격은 민중성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없는 약자라는 점에서는 현실에서의 약자인 어린이들의 상황과도 흡사하다.

형과 아우 중에서 항상 아우는 손해를 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가 결국엔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된다. 옛이야기에서 아우는 바로 힘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뜻한다. 그래서 형들에 비해 모자라지만 결국 행복을 얻게 되는 ‘반쪽이이야기’라든가 용기와 꾀로써 ‘중국임금이 된 머슴이야기’라든가 ‘부채 귀신 잡은 아이 이야기’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인공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거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슬기와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해내는 이야기이다.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옛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닮아가려는 주제를 가진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야기의 기능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이 특히 옛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옛이야기가 주는 상황과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늘 약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힘으로 아직 세상을 만나는 게 힘들다고 느낀다. 그리고 실제의 세계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옛이야기의 마술적 요소들은 실제 인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며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낀다.

옛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또 그냥 나무꾼, 어부, 농사꾼이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옛이야기에 쉽게 빠져들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한다.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옛이야기에 쉽게 빠져들고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3) 선과 악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다.

어린이의 공상 속에 있는 끝없는 공포심에 대해 옛이야기는 명쾌한 대답을 들려준다. 옛이야기를 들으며 어린이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악과 추한 것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옛이야기에는 중간이 없다. 선과 악이 한 인물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두 가지가 대립할 경우 문제들은 손쉽게 해결되며 늘 선이 승리한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이 분명하게 벌을 받는 옛이야기의 결말부분을 이야기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흔히 옛이야기는 잔인하다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꺼려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른의 시각일 뿐이다. 오히려 악도 적당하게 용서해 주고, 선을 행한 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면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게 되는 세상에 대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옛이야기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누구를 편들어야 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가 분명하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의 구별은 시작부터 뚜렷하며 끝까지 두 성격이 대립한다.

때로 어떤 주인공들은 전혀 그럴만하지도 않은데 착한 사람으로 나온다. 흥부와 놀부에서 실제로 바보스러울 정도의 흥부의 선함은 놀부의 심술로 인해 착하게 그려진다. 콩쥐팥쥐에서의 콩쥐도 마찬가지다. 단지 가난하고 천대받는다는 설정 자체만으로도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즉 이야기의 사건들을 보면 주인공 스스로의 행동보다는 남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옛이야기의 악인은 오히려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무능력하다. 형과 아우 중 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생이거나 그냥 서민을 대변하는 나무꾼, 소금장수, 농사꾼 등으로 표현된다. 또 이런 무능력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마술적인 조력자가 나타나며 그 도움으로 마지막에는 부자가 되거나 복을 받게 된다.

옛이야기에서 추구하는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행동에 대해 무언가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직선적인 말로 이를 표현하려 한다면 아무리 어려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옛이야기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깨닫게 해 준다. 특히 도덕성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7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게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옛이야기의 이 주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이들과 지내면서 권선징악이라는 옛이야기의 주제로 교육적 효과를 실감한 적이 있다.

6,7세 통합방에서 한 아이가 여러 아이들을 선동해 번갈아가며 따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어린이집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컸거니와 부모들 사이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다.

이 아이들 역시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이야기 듣는 시간만은 누구도 사납게 굴거나 떠드는 일이 없었다. 마침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적절한 이야기를 찾아냈다.

당시 마당극으로 공연되던 ‘백두거인 이야기’였는데 나는 이 이야기의 주제나 상황설정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꼭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생활 속에 선의 상징인 백두거인이 악의 상징인 흑룡거인을 물리치는 모습, 아이들이 분열이 되어 싸울 때 흑룡거인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힘은 스스로 아이들 내부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는 주제로 들려준 이 이야기는 당시 친구를 따돌리는 자신들의 문제를 모두 함께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들은 내면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선악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 그 이야기와 자신들의 상황이 맞아떨어짐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행동은 바로 수그러들었다. 처음엔 교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서로 충고하고 절제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악의 화신인 흑룡거인이 들어올까 갖는 두려움, 그러나 자신이 착하고 선한 백두거인의 마음이 되어 스스로 내면화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아이들은 즐기는 듯 했다. 그리고 이어 친구들을 따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아이는 교사와 주변 친구들의 칭찬과 긍정적인 강화로 인해 마음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 후 아이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4)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자.

어린이집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이제 막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거나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24개월 전후의 아이들을 맡았을 때, 별 생각 없이 어느 날 들려준 뽕나무 이야기.

옛날 옛날 깊은 숲 속에 뽕나무랑 대나무랑 참나무가 살았대. 어느 날 뽕나무가 방귀를 ‘뽕’ 끼었어. 그러자 대나무가 ‘대끼 뎀!’ 했지. 그리고 참나무는 ‘참아라’ 했대.

이 짧은 이 이야기는 그 아이들에게 매우 적합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방귀를 ‘뽕’ 하는 장면에서 웃었을 뿐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조금씩 말문이 트이면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따라 하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도 가능한 한 줄거리 중에서도 반복의 구조가 들어있는 도깨비 방망이나 흥내도깨비, 팔죽할멈과 호랑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등의 이야기를 줄여서 들려주어 언어가 가진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 주었다. 이 반복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기들이 재미있어하는 장면들을 곧잘 따라했는데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자체가 가진 줄거리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얻는 언어의 즐거움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에 대한 애착과 신뢰감이 더 중요했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옛이야기 외에도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것을 천천히 리듬감 있는 어조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기도 했다.

발도르프유치원에서는 2주에서 3주정도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은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며 반복은 아이로 하여금 그 이미지 속에서 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 익숙함 속에 충분히 빠져들어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7세 이전의 아이에게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감정적으로 각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한다. 아직 어린 아이는 언어가 가진 억양이나 리듬을 더 즐기므로 이야기를 개작해서 너무 많은 감정을 개입시킨 채 들려주면 아이를 놀라게 하거나 악몽을 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을 말 하듯이 음악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주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풍요롭게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히마 볼드윈 댄시, 2003).

또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는 자신의 내면적 상황을 혼자 힘으로 다룰 수 없으나 어떤 옛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들어맞는지는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옛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바로 이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반복해 들으면서 깨닫게 된다. 옛이야기에는 매우 낮은 요소들이 있어 반복을 통해 깊숙이 숨겨진 아이의 정서를 일깨워주게 되며 그래서 옛이야기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반추할 만한 넉넉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며 옛이야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브

르노 베텔하임, 1998). 그러나 공동육아에서는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보다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다. 연령이 높아갈 수록 들려준 것을 또 들려주면 “그건 싫어. 다른 이야기 해줘”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반복해주는 것이 옳다거나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6,7세 아이들도 유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있으며 아이마다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아이의 성격이나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었다. 아이가 계속해서 들려달라고 말 하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왜 그렇게 듣고 싶냐고 물어봐도 아이는 그 이유를 잘 모른다. 다만 아이가 반복해서 듣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 이야기가 필요한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육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가설 하나는 반복을 하면 배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현장성이 있는 이야기들은 그때그때 들려주나 점심 식사 후 담임교사와 아이들이 오붓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며 낮잠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한 주일 내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기도 한다.

5) 행복한 결말이 주는 안도감은 아이들의 정서안정에 필요하다.

아이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점을 안다. 간혹 그렇게 끝나는 결말에 대해 “시시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행복한 결말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무의식적으로 겪는 내면적인 억압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야기 중간 중간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시련을 겪어도 어느 부분을 듣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주인공이 그 후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죽지도 파멸하지도 않고 적이나 경쟁자와 싸워 이기는 것으로 상징되고 행복으로 상징되는 더 높은 통합이 옛이야기의 결말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이가 성숙하는데 필요한 성장의 경험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뜻 한다 그래서 사건을 따라가는 주인공이 도중에 불행이나 재난을 만나더라도 끝에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브르노 베텔하임, 1998). “엄마 아빠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로 이야기가 끝나야 아이들은 안심을 한다는 것이다.

신화가 아이들에게 적당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이 결말 때문이다. 신화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이면서도 결말은 대개 비극적이거나 비관적이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옛이야기 중에 “아기장수 우투리”도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서양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고 있지만 성냥불로 손을 녹이다가 하늘나라로 간 안데르센의 성냥팔이소녀나 왕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거품이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간 인어공주이야기 같은 것도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옛이야기 대부분은 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꽃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설화 중에서 전설에 속하는 것인데 반드시 오늘날 실물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름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공동육아 현장에서는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게 된다. 그러나 꽃에 대한 이야기는 잘 살다가 죽어서 그만 꽃이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물론 죽어서 슬프지만 꽃으로 환생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물 모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나 혹은 환생에 대한 불교의 윤회사상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게 예쁜 꽃에 슬픔이 묻어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이에 대해 아주 슬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꽃 이야기 중에서 비교적 이야기의 구조가 탄탄한 할미꽃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뒷산 무덤가에 나들이를 다녀와 할미꽃을 보고 온 날이었다. 그 날 이야기는 매우 진지한 분위기로 이어졌고 나도 다른 때와는 달리 매우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 이야기는 반복과 점층의 구조로 짜여졌는데 끝부분에서 할머니가 눈이 펄펄 쏟아지는 추운 겨울 날 막내딸 집으로 가는 장면에 이르자 한 남자아이가 “아! 아침해살 이야기가 너무 슬퍼”라고 말했고 여자아이들은 “할머니가 불쌍해” 하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고개마루에서 쓰러져 눈이 그 위를 덮어버리는 장면에 이르자 우리는 모두 훌쩍훌쩍 울어버렸다. 슬픈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슬픈 이야기 말고 앞으로는 재미있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주문을 했다. 고생을 해서 세 손녀를 키워 시집보낸 할머니 구박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나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슬픈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옛이야기의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불화와 뼈적거림은 너그럽게 봐 준다. 그러나 결말에는 반드시 악수나 포옹으로 화해하길 바란다. 또 마지막이 해피 엔딩이라면 도중에 불행이나 재난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것이다. 마지막에는 항상 “둘은 축복 속에 결혼하여 아이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내야 안심을 하는 것이다(브르노 베텔하임, 1998)

6)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이야기를 해 줄 때면 아이들의 표정을 자주 살피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표정의 아이들을 바

라보며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해진다. 옛이야기는 묘사보다는 사건의 줄거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감으로 듣는 이가 그 상황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시각적 이미지에 잘 적응한다는 가설은 어린 아이들이 더 구체적인 용어로 생각한다는 피아제의 이론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가 언어적 이미지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림에 반응하기에 앞서 목소리에 먼저 반응하며 그림 그리는 법을 먼저 배우기에 앞서 말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림책을 처음 대하는 어린 아이들도 텍스트에 수반된 그림보다는 어른이 읽어주는 언어적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한다(페리노들먼, 2003). 그림책으로 많이 출간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나 그림동화도 원래 민담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우리의 옛이야기 중 많은 것들도 그림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문자를 이해하기 이전의 유아시기(상상력의 세계)에 들려주는 옛이야기는 문자나 그림보다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깨비의 예를 들어보자. 아이들은 도깨비나 귀신 등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원한다. 7세에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 그러나 사실 옛이야기 중 도깨비 이야기는 실제로 무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물론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하나, 실제로 도깨비가 무서운 힘을 발휘해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없으며 욕심이 많거나 못된 인물은 혼을 내주기도 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한 인물에게는 늘 복을 가져다주는 마술 같고 고마운 존재이다.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는 아이들이 도깨비를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로 그려낼 것인지가 늘 궁금했다. 36개월 이하의 아이들(아직 도깨비에 대한 그림책을 접하지 않았던 아이들) 외에 모든 아이들은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대답을 한다. 일제시대 이후 일본의 그림책 문화가 유입되면서 일본 도깨비의 영향이다. 그러나 24개월이 조금 지난 아이들에게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흑부리영감과 도깨비방망이를 들려주고 난 후의 반응이다.

교사 :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이 : 아주 무서워.

아이 : 빨간 코야.

아이 : 키가 커.

아이 : 그래 맞아. 우리 아빠보다 더 커.

아이 : 그림 까마귀보다?

(까마귀는 튼튼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했던 덩치가 비교적 큰 남자교사였는데 아이들은 힘이 센 걸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비교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5세들과도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교사 : 도깨비 본 적 있어?

아이들 : 아니.

교사 : 그럼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이 : 무-섭지. 뿔이 달렸대.

아이 : 방망이도 들었어.

아이 : 똑딱 하면 뭐든지 나와.

아이 : 환할 때는 안 나타나.

아이 : 깊은 숲속에서만 산대.

아이 : 벽장 속에서도 살잖아.

5세들은 앞의 어린 아이들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책이나 비디오에서 이미 도깨비를 봤으며 이야기듣기를 통해 어두운 데에서만 산다든가 벽장(흔내도깨비)속에서도 산다고 믿는다. 그러나 6,7세들은 도깨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가 “뿔이 달렸대”이다. 아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도깨비, 그래서 상상력이 더 필요한 옛이야기 속의 그것을, 아이들은 자라면서 상상력을 잃고 모든 도깨비는 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한 다양한 영상 매체 때문일 것이다.

물론 좋은 그림책이 많이 있기는 하나 삽화 있는 이야기책은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옛이야기의 인물이나 사건이 어린이의 상상력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고 삽화의 상상력에 의해 구체화되고 나면 옛이야기가 지닌 개인적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부르노 베텔하임, 1998)

애니메이션으로 더 잘 알려진 백설공주나 인어공주나 미녀와 야수를 이야기만으로 들려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미 그림책으로 나온 우리의 옛이야기 반쪽이는 어떤가. 아이들은 이미 삽화를 통해 이야기주인공의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들과 방모임을 할 때의 이야기다. 그 날 주제가 옛이야기에 대한 거였고 교사인 나는 부모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며 부모들의 경험담도 듣고 있었다. 한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야기를 아이가 무척 좋아해서 매일 들려주었는데 거기서 아이는 마녀(요정)에 대해 많은 집착을 하며 늘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녀에 대한 놀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서 그 책을 사 준 이후 아이는 더 이상 마녀에 대한 놀이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아마도 책을 통해 자기가 상상하는 마녀의 이미지가 더 이상 신비롭지 않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들려줄 때 발현되는 상상력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이의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면 옛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상상력은 놀이로 이어지며 놀이는 바로 창조성과도 이어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성취해 내는 데에도 관련이 있다고 발달심리학자들은 이야기 한다(라히마 볼드윈 댄시, 2003).

다양한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자

최 윤 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참빛아동지원센터장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기 아이만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편견 없는 사고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

— 『아이들은 왜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가』 게리 폴 나부한, 스티븐 트림블(김선영 옮김)—

내 아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라는 가장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듯이 우리아이도 나만 아는 아이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공동육아를 하고 계시나요?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란 뜻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내 아이’를 말하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줄 때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들’이다. 여기서 ‘함께’란 나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는 뜻이다. 즉 육아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육아를 통한 어른들의 생활변화, 그리고 크게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병호(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 인간은 모두 타고난 능력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성장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발달 속도도 보이는 행동 특성도 다 다릅니

다. 자기 또래에 비해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영역, 즉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내성적이다, 발달이 늦는다, 말을 잘 못한다, 걷는 것이 불편하다”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일 뿐입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고, 발달하는 속도도 다 다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조금씩 다르듯이 아이들도 모두 조금씩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고, 더 넓게 본다면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차이나 다름은 개성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들은 우리 터전에 당연히 올 수 있는 아이이며, 특별히 개별 터전(공동육아)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함께 교육받아야 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연령 통합, 성별 통합, 장애우 통합 등을 들 수 있어요. 연령 통합이란 아이들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생활하는 것을 극복하고 여러 연령에 속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식사시간, 자유놀이 시간 등 일상 생활을 통해 연령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음악, 미술, 전래놀이, 모듬, 나들이 등 통합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지요.

장애우 통합은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본을 배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장애우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장애우와 함께 생활하고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되고 또 불편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성별 통합은 말 그대로 여자와 남자의 성 역할을 고정하거나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해요.

통합교육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차별받지 않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일상과 삶 속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공동육아 안내 중)-

○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아이를 돌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어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먼저 어른들 즉, 교사와 조합원들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나타나며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른처럼 처음부터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리라 기대하기보다 어른들이 먼저 그런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든 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장애이건, 아이들의 행동특성이건 간에 그러한 외적인 사실은 부차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만이 우리 아이들, 특히 발달이 다른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육아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부정되는 곳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열린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람에 대해 신뢰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공동육아에서는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중요한 주체입니다. 모두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평등한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아이들, 자신과 교사, 자신과 다른 부모들, 교사와 부모, 부모 서로 간에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적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관계 맺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공동육아 교육철학)-

“훌륭한 특수교사 10명보다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1명의 일반교사가 더 낫다.”

터전에서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특수교사가 없더라도 일반교사가 우리 어린이집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교육에 대한 조합원과 교사와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통합교육입니다.

○ 아동의 교육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다양하고 개성강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교육을 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소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달 특성이 다른 아동을 바라보는 각자 개인의 관점이나 시각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발달장애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의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교사들은 계획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활동에 개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보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름’

을 인식하였다면 교사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터전의 상황에 맞게 교사들의 긴 회의 시간을 통해 자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육아 전체적으로 재교육이나 외부 기관의 연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황, 처음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협의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실천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새롭게 오게 될 아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컨대 청각장애아 혹은 발달장애아가 등원할 계획이라면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그 아동의 특성이나 지도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시중에는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진행하면서 의문 나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발달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의 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활동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일반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의 확산은 모든(all)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환경에 대한 재고

다양한 아동들을 교육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한 가지인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을 우선 살펴보십시오. 모든 아동에게 어린이집 환경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터전의 모든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와 2층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려면 승강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고려한다면 불편한 아동이 있는 곳이 가장 이동이 수월한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큰 이동은 교사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시키거나 아이가 어리고 가벼우면 업어서 이동시키던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나의 공간 내에서는 턱을 없앤다던가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 안전과 접근을 고려한 통합 어린이집 환경

| 구조물 | 안전과 접근을 위한 배려 |
|-----|---|
| 문 | 열고 닫기가 쉽다. 문의 손잡이는 조작하기 쉽다. 손잡이의 높이가 사용하기 적당하다. 휠체어를 위해서 충분히 넓다(폭 80cm 이상). |
| 실내 | 휠체어, 목발 등 보조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활동하기 편리하다. 조명 스위치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사물함은 사용하기 편리한 높이와 위치에 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다. 문턱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 |
| 경사로 | 두 대의 휠체어가 교차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경사로보다 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
| 화장실 | 변기의 높이가 다양해야 한다. 화장실 칸막이 공간이 휠체어를 위해서 충분히 넓어야 한다. 의자형 변기를 설치하는 등 필요에 따라 변기를 수정해야 한다. 화장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다. 손잡이는 조작하기 편하다. 세면대로 접근하기 쉽다. 거울의 높이와 각도는 적당하다. |
| 책걸상 | 적절한 자세잡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체격이 작은 유아를 위해서는 발이 바닥에 잘 닿도록 작은 의자가 필요하다. 근긴장도가 낮은 유아를 위해서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필요하다. |
| 기타 | 휠체어나 목발 등 보조기구를 수납할 공간이 있다. 인터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시각장애아를 위해서는 약간의 점자표시를 붙이는 것으로 가능하고, 청각장애인은 약시자를 위한 확대기(경) 정도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동 중심, 즉 사용자 중심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요구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특성을 시설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에 대한 재고

발달지체 아동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는 발달지체 아동들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통합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의미있게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의 교육과정은 발달모형보다는 환경모형(지역사회 환경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기능을 발휘하는데 목적을 둠)을 지향하며, 아동을 최소 제한적 환경(LRE)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가능한 독립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그 나이에 맞는(age-appropriate) 실용적인 기술(functional skill)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지나치게 제한되는 활동보다는 다른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를 찾고, 가능한 모든 활동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들이 발달지체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달지체 아동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일상생활과 활동 중에 가르쳐야 합니다. 즉, 교사는 비장애 아동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시범(model)을 보여줌으로써 아동들이 발달지체 아동들의 어려움과 약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장점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신들과의 차이점 뿐 아니라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발달지체 아동이든, 비장애 아동이든 나름대로 강약점을 지닌 독특한 개성을 갖는 인격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공동육아에서 통합교육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 중의 하나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발달이 조금 늦고, 행동 특성이 다른 아이의 부모라고 특별하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모두 다르듯이 부모들도 모두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그러한 개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그 개성에 따라서 어떤 아이에게는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열린 마음이 있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차별이나 특별대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비교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도 지나치게 자기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이나 개별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아 부모라고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해결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삶⁶⁶⁾

정 병 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네안데르탈인에게 남은 사랑의 흔적

10만 년 전쯤 살았던 네안데르탈 사람들의 유적지를 발굴하던 인류학자들이 크게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크게 다쳐서 심한 장애가 있는 마흔 살 남짓 된 남자의 뼈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가족이 어울려 사냥하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다가 갑작스런 지진으로 동굴이 무너져 모두가 함께 죽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놀랐느냐고요? 그 남자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때 사람들은 마흔 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었거든요. 게다가 그 이는 사냥하러 달려 나갈 수도 없었을 테고, 열매를 따러 나무를 탈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먼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누군가가 업고 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꼼꼼히 살펴보니 그 사람의 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아하! 그 이는 주로 이를 많이 쓰는 가족 일을 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족 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잘 못해도 그 무리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할만한 어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말을 잘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재주들은 사람 뼈에 흔적으로 남기 어렵지요. 아니, 어쩌면 아무런 특별한 재주가 없었어도 그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꼭 필요한 둘도 없는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0만 년 전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의 흔적을 찾아 널만큼 아직 인류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전에 40여 년 살다간 한 사람과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가르쳐 준 교훈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동안 제 멋대로 원시인들을

66) 이 글은 <공동육아> 2000년 7,8월호(통권 12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상상해서 인간본성은 약육강식이니, 자연도태니, 무한경쟁이니 하는 살벌한 말로 자기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차별하고, 못 살게 구는 일을 당연한 자연의 섭리처럼 여기고 있으니깐요.

2. 서로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자

몇 년 전 수도권 신도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대표가 큰 목소리로 구내방송을 했습니다. 저녁 9시경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단지 입구 빈터에 시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니 내일 아침 주민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대 데모를 하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침저녁 등하교 때마다 아이들이 장애인들과 마주치면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으니 한 가구 당 한 명씩은 꼭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이 들어서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사 오고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해설까지 엘리베이터마다 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날 저녁까지 전단을 만들어 아파트마다 돌렸습니다. 바로 그런 방송이 비교육적인 것이고 세계화다양화 시대에는 아이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자주 보고 함께 사는 게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시청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를 환영하는 주민도 있다고. 혐오시설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흥분해서 무섭게 하던지 며칠 동안은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겠다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생각도 못 받아들이더군요. 시민운동을 하고 있던 변호사 친구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하는 운동이 더 위험하군” 하며 웃었습니다. 거창하게 운동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그저 서로 다른 자기 모습대로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연습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다르게 그리고 함께 살기

부모와 교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설립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할 때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을 처음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은 일반 아동들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더욱 필요한 일이라는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몇 명이나 함께 돌볼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이들 모두를 위한 통합의 뜻은 이해하지만 과연 우리 어린이집 환경에서 장애아 본인을 위한 재할 및 사회 적응 훈련이 가능한가, 그것은 장애아 전문 교육 기관이 특별한 시설을 가지고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았습니

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각각의 입장에 따라 수많은 연구와 실천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격리된 환경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는 장애 아동은 특별한 몇 가지 기능이나 기술을 보다 철저하게 익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격리되어 살 것이 아니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장애가 있는 형제를 가진 아이들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다른 필요와 가능성과 한계를 느끼고, 알고, 배려하는 사회적 감수성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미래의 사회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며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EQ나 자발적 사회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조금씩 다른 장애가 있고 다른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함께 살 수 없는 장애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인 아이와 발달지체인 아이, 두 명의 장애아동이 갓난아기부터 초등학교 갈 나이의 30여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4살쯤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모가 찾아 왔습니다. 이곳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한다니 이 아이도 받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원장인 내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아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윗 눈꺼풀을 유심히 봐 달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약간 줄린 듯한 눈이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윗 눈꺼풀의 근육이 약간 이완되어 줄려 보인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하니, 부모 모두 펄쩍뛰며 침도 맞아보고 병원에서 특수 치료를 해보아도 낫지 않으니 틀림없는 장애라는 겁니다. 더욱이, 여자아이가 그러니 평생 어려운 장애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니, 바로 그것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놀림을 받아 못 다니게 되었고, 동네 놀이터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이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문화적 장애의 사례였습니다. 안경을 쓰는 것은 장애가 아니고 보청기를 쓰는 것은 장애가 되는 문화, 수술로 장기를 잘라낸 것은 장애가 아니고 얼굴의 화상은 장애가 되는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주류의 기준에 속한 사람들이 흔히 갖기 쉬운 마음의 장애 때문에 더욱 깊어진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차별 받는 사람도 차별하는 사람도 모두 장애인이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러한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보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은 한 명 더 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장애아동으로 받으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문화적 편견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열 톨 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애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아 통합보육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일반 아동의 정원을 늘려서 이 아이를 받

기로 했습니다.” 라고 전하니 벌써 다른 아이들과 뛰어 놀기 시작한 아이를 쳐다보며 엄마아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북한에서 살다 중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온 이른바 탈북 아동이 입학했습니다. 만으로 10살이었지만 북한에서 배운 것이 너무 다르고 오랜 도피 생활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녀서 2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보다 3살 아래 동생들과 한 반이 되었어도 조금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체구도 작고 얼굴도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학교에 간다고 좋아하며 새로운 학교의 모든 것이 재미있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시무룩해지더니 늘 졸린 듯 눈을 흐리게 뜨고 쉬는 시간이면 귀를 막고 혼자 책상에 앉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찌려보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교에서는 시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다. 함경도 말씨로는 책을 읽어도 이야기를 해도 모두가 웃고 놀릴 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10살에 학교를 그만두면 요즘 남한에선 평생 학력 때문에 차별 받는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1년 한해에만 130여명의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고자 하는 어려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반 수 이상이 학교를 아예 안 갔거나 일 년 내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남한에 도착하는 탈북 아동들은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탈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기아와 탈북, 가족의 이별, 신변의 위협 등의 위급한 상황들을 넘어서 남한에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면 이러한 상처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은 대단히 경쟁적인 남한의 학교와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한 사회는 그 아이들의 역량이나 학습능력, 행동양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차별이나 소외를 당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민감한 성장기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심리적 상처가 오히려 깊어져서 우울증이나 비행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 사회적 장애의 문제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사회집단이 그 집단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달라진 남과 북이 다시 만나고, 교류하게 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의 식량부족이 북한 주민들, 그중 어린이들에게 남긴 상처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 북쪽 어린이들의 전국적 평균키를 남쪽과 비교해 보니 7살 때 이미 12cm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후 성장기에 획기적인 영양 공급이 없으면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20cm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던 인류학자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작은 키는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 잘 적응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키보다 더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이만큼 눈에 띄게 달라진 체형차이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복잡한 차별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외모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키 작은 여학생은 취업이 어렵고 키 작은 남자는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적인 오늘날 남한의 병리적인 문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차이는 어느 한쪽을 한 눈에 구별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낙인’처럼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기울어진 남북 간의 차이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적 장애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거창한 추상적 이야기로 다투고 있지만 조금 다른 사람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 조금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일로부터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부천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현석이란 아이가 6년이란 짧은 삶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현석이는 선천성 구루병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이 개원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처음 현석이를 만났습니다. 앓아 있기도 어려워 주로 방바닥에 누워서 놀던 녀석이 서 있는 나를 치어다보며 의젓하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내가 아마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자이언트(거인) 썸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녀석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누워서 “귀여운” 거인 흉내를 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현석이는 동생과 함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1년 반 동안 재미있게 생활하다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삶이었습니다. 고맙게도 현석이와 나와의 만남을 기억해 준 그 곳 원장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영안실에 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녀석의 어린 얼굴을 사진으로 대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부모와 교사들이 시종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현석이의 장례 행렬은 어린이집을 둘러 노제를 치루고, 현석이의 시신은 화장되어 어린이집 뒷산 늘 다니던 나들이 길목에 뿌려졌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나이에 따라 각각 조심스럽게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움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장애우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선생님이 내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장애아의 장례는 처음 보았답니다. 한참 사회 활동 중인 어른의 장례 이상으로 그의 삶과 죽음이 기려지는 그런 장례는 처음입니다. 보통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그들은 부모들만의 애절한 흐느낌 속에 남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빨리 지워버려야 할 기억처럼, 그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석이는 짧지만 당당한 사회적 삶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흔히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아이들을 키우는 곳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유치원, 우리 어린이집, 우리 학교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 또 그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적으로 키워나가는 사회적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천의 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바로 조금 다르게 태어난 현석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다름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마음의 성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곳에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현석이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현석이가 우리 안의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들 합니다. 인류 사회의 또 하나의 본성인 사랑과 협동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 있게 해 준 현석이를 기립니다."

4.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협동조합은 그냥 조합이 아니다⁶⁷⁾

성 문 영
농부

1.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조합은 조합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적단체(人的團體)이며, 조합 계약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다. 따라서 조합은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인적인 결합이 강조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인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 보면 ‘그 목적을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원의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기본정신이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이라는 것과 조합원의 이익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원래 조합은 그 목적의 표방이 어떻든 간에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른 목적은 부차적이거나 허울뿐일 수 있다. 조합이라는 이름 앞에 무슨 명칭을 붙이든 마찬가지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도 예외일 수는 없다.

2. 왜 협동조합인가

조합의 형태는 조합원의 이익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있느냐에 달려있다. 조합원의 이익은 경

67)이 글은 [공동육아] 1995년 12월호(통권5호) p20~23에 실린 원고입니다.

제적일 수도 있고 문화적일 수도 있다. 생활 전반에 걸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기여일 수도 있다.

조합은 분명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임에 틀림없는데, 그 앞에 왜 굳이 협동이라는 말을 붙여서 뭔가 다르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가. 협동은 말 그대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뜻을 합쳐 목표달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이라고 해서 이러한 협동의 의미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협동조합과 그냥 조합이 무엇이 다른가. 원래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발하였다. 19세기 중기의 영국의 노동자들은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적은 임금을 쪼개서 절대 필요한 생필품을 값비싸게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언제 해고돼서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없는 돈이지만 공동으로 모아 좀 더 값싸게 물품을 공동구입하고, 고용을 자체적으로 창출하고 실직되었을 때의 대책을 강구하는 일 등을 전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협동조합이 그냥 조합과 다르면서 명실상부 협동조합이기 위하여 갖추어야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첫째,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절실하고도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하에 뭔가 함께 해본다는 욕구를 가지고 출발하면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다 도중하차해 버릴 수도 있는 막연한 조합이 되고 만다.

협동조합은 그 진행과정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어떤 일이든 그 과정을 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이 옳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있어 과정에 만족하는 차원이라면 혹은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봤다는 식이면 이미 그것은 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은 더더욱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협동조합을 할 사람들은 시작단계부터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절실하고도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조합원 모두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주식회사도 출자를 하고 조합도 출자를 한다. 주식회사는 최대의 이윤배당이 목표이지만 조합은 이윤배당과 함께 공동사업의 발전이 목표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일반 조합보다는 더욱 강한 인적 조직체이다.

공동육아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의 절실한 문제해결 욕구와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체인 현장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참여의 폭이나 활동의 성격이 어떻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작든 크든 구체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배당이 그 관심이 아니며 공동육아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출자만으로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얼굴 내밀기로 조합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 전체의 일 중에서 자기의 능력에 합당한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들의 노력의 조화(調和)가 협동조합의 목표달성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셋째,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조합의 중요한 본질은 출자나 기여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 주의라는 점이다. 조합원 개개인의 인격을 등가치로 존중한다. 보유주식의 양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주식회사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면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억압적이거나 소수의 유력자들이 지나치게 목소리가 높거나 실질적 의결정과정에서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미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무척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다. 참으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목소리가 낮은,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보이는 다수를 무시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러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이며 다른 일에 참여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곧 협동조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무한책임(無限責任)의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각 조합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체의 채무이며, 각 조합원은 그 분할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에 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규정이다.

이렇듯 유한책임을 규정한 이유는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면이 강하다. 유한책임을 내세운 자유로운 참여는 자칫 책임의식이 없는 불성실한 조합원들을 만들기 쉽다. 인적인 결합이 강할수록 그 책임은 무한책임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인적 결합이 중요한 본질인 협동조합이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합원 모두의 의식만이라도 무한책임적이어야

한다. 밑져야 본전식으로 여차하면 내 출자금만 날리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는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될 수 없다.

위에서 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동조합이기 위한 몇 가지 기본들을 살펴보았는데 물론 이것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패는 규모 있는 자본이나 소수의 특출한 인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절실한 욕구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 조합원, 교사, 이사회에 관계와 역할에 관하여 ⁶⁸⁾

백진양

한빛회 운영위원

1. 열린 교육의 의미

제가 요즘 공동육아 관련으로 몇 번 특강을 다녀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부모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 오던 교육방법(엄청난 벽이지요)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이 그러한 참여의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국민을 지배했던 보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는 교육의 문외한이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집어넣으면 안심이 되지요. 꼬박꼬박 인사를 잘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은 걱정이 안 되지요. 요즘은 여기에 더해 학원을 보내면 방과후에도 아이들 걱정할 거리가 없지 않나요? 이제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부모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로운 부모들이 추구하는 교육을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데 ‘열린다’라는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전통적인 교실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것, 즉 고정관념의 열림이겠지요. 교사가 아이들을 장악하는 기존의 교육방식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2. 협동조합어린이집의 특징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뚜렷한 특징은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68) 이 글은 [공동육아] 1995년 11월호(통권4호) p18~21에 실린 원고입니다.

이것은 주인의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요. 둘째로 교육철학과 내용, 방법이 기존의 어린이집과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보지요.

협동조합 이론은 엄마들이 하는 계의 이론과 거의 흡사해요. 계는 첫째로 아는 사람끼리 합니다. 아는 사람이란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둘째로 계원은 평등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신용을 보이는 껌돈이라는 형식으로 확인됩니다. 즉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은, 첫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로 믿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로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뛰어난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비슷하다, 잘나봤자 못나봤자 거기서 거기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고백, 다시 말해 인간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조합원이 내는 보육비가 다 다르지요. 그렇다고 더 많이 내는 조합원이 더 대접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회는 돈 액수에 사람가치를 결정해요. 협동조합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적인 겁니다.

3. 조합원, 교사, 원장, 이사회의 관계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원장간의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니까요. 원장과 부모간의 갈등도 없어요. 부모는 원장이 싫으면 딱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 외에 도리가 없지요. 즉 기존 어린이집은 원장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합식 어린이집은 주인이 여럿인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에게는 내 목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가 분명하지 않아요. 원장? 이사장? 사례가 없거든요. 교통정리가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원장은 원장들끼리, 교사는 교사들끼리 별도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들은 원장을 어떻게 견제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교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원장들은 이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 이사들을 조정할 공부를 해야 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던 고리채를 끊은 것이 신탁운동이었어요. 한국의 협동조합은 1958년에 국내 최초로 연수원을 세웠어요. 이 연수원에서 하는 일이란 것이 이사장, 조합원, 직원 교육을 계속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운동은 교육제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의 가장 큰 맹점은 사상은 있으나 교육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게시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게시판 갖고는 안돼요. 소식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

로 못하는 것은 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입조합원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간의 스토리를 어떻게 보여주지요? 소식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소식지는 원장이 중간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측에서는 소식지 만들기의 구체적인 업무는 이사회가 맡되, 원장 선생님은 소식지 내용의 일정 부분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교육이 문제가 되면 조기교육은 무엇이고, 제대로 된 조기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의 주제를 강의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들으세요. 아는 사람끼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린이집의 장점이 아닙니까?

교통정리를 해 보자면, 인사권, 재정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력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재정 적자는 원장 책임이나 여기서는 이사회의 책임이 됩니다. 원장은 전문 관리인입니다. 감독이 그 몫이지요. 그래서 잘하면 이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못하면 충고를 받게 됩니다. 원장은 인사권은 없지만 영향은 미칠 수 있지요. 이런 원장의 위치는 미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와 이사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원장이 교사 편에 서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원장의 제일 큰 임무는 교사이야기, 이사 이야기를 소통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원장에게는 헌신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봅시다.

교사의 인사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지요. 이런 구조에서 유능한 교사는 창의력 있는 교사, 연구하는 교사예요. 교사는 늘 어린이집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집 구조는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을까? 시설은? 장난감은?’ 교사에게도 헌신성과 부모와의 관계는 두 번째예요. 다른 어린이집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주인이 한둘이 아니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불리해 보이지만 불리한 건 아니예요.

우선 헌신적인 근무, 봉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아요. 교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이것은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제일 큰 문제예요. 교사들에게는 봉급보다 더 심각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예요.

공동육아어린이집은 프로그램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 교육방식이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개발까지는 못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한국은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해왔거든요.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의 사례가, 전례가 없어요. 여기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사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독일의 한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봅시다. 교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목요일은 문을 닫겠다. 그 기간 동안은 교사들이 모여 공부를 하겠다. 이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조합측에 제안하고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워크숍, 교사회 MT, 교사 재교육 등의 교사연수 관련 비용을 조합에서 전액 또는 반액을 부담한다).

이사회는 우선 조합 전체의 조화를 책임집니다.

교사와 원장, 교사-원장과 이사회, 조합원과 이사회의 관계, 전체 팀워크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 실패는 이사회 책임입니다. 둘째로, 이사회는 교사의 처우에 책임지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가 공동육아에 전념할 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권한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큼니다.

어떤 교사가 ‘아이를 키운다.’ 라는 특수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회사 여직원처럼 냉정하게 직장 다니듯 한다고 봅시다. 봉급에만 의존하고요. 그 책임은 이사회가 집니다. 그런 사람을 뽑았으니까요. 그러면 맘에 안 든다고 내보냅니까? 그러면 능력 없는 이사회지요. 끈기와 인내를 갖고 교사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뜨거운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협력하고, 조정하고, 기다리고, 우회하고 해서 협력의 장점과 미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토의와 숙의를 통해 이런 것들을 터득해야 합니다.

공동육아 이사가 된다는 것 : 유쾌, 상쾌, 통쾌한 경험

신 희 준

전 과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열리는어린이집 조합원

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육아에서 이사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 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도 차기 이사진을 뽑는 총회에 내가 아니라면 이라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올해 이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어쩌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감탄할 지경이고(심한 경우엔 이사가 되면 탈퇴하겠다는 애교성 협박도 서슴지 않지요),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라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호소하여 간신히 이사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모이신 이사(장)님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데 매우 서툰 분들이시거나, 성격이 안 좋아서 남들이 빠른 모습을 보고 화감에 하겠다고 저지르셨거나(집에 가서 부부싸움 했겠죠),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세에 따르셨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명감에 불타서 자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연이야 어떻게 되었건 여러분들은 이사진이 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시게 됩니다. 아이들, 부모들, 교사들 합해서 적으면 70-80명 많으면 120-130명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부담스런 상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습니다. 공동육아 이사진으로서 앞으로의 1년을 보다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2.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중의 상당수는 아마도 ‘준비되어있지 않은 이사진’일 가

능성이 많습니다. 이사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터전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감도 못 잡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은 계속 밀려옵니다. 신입조합원 충원 및 교육, 당해년도 사업계획, 교사 충원, 교사 활동비 협의, 총회 등 각종 행사 준비 등등. 숨가쁘게 이일 저일 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사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으려면 바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해야지요. 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부하십시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입조합원 교육 받은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터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터전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각종 자료집을 통해 꼼꼼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홈페이지도 초창기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각 터전의 역사에 오늘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3년 전에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결국 이런 이유로 해결 못하고 갈등이 생겼구나), 그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충분이 검토되고 반영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과제의 유형과 해결방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3.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료라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판단도 안 되고 헛갈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최소한 나보다는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다행히도 터전에는 많습니다. 터전 안에는 경험 많은 조합원 특히 전임 이사진이 있을 것이고요,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터전 밖에는 사무국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다른 터전의 이사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터전을 졸업한 선배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십시오. 성실하게 내일같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는 응원부대가 많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이사이십니다.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린이집 이사장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사장이 되고 초기 3개월 동안에는 크건 작건 수시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제 생각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제 생각과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들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판단은 현 이사회에서 해야겠지만 열심히 자문을 구하면 일도

쉬워지고, 실패할 위험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이사회는 즐거워집니다.

4. 이사진의 팀워크는 필수이다

교과서적인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잘 알고 당연한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도 조직인지라 역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면 기본은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 구분보다는 한 팀으로서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표면화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사회 내부에서도 서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빼그덕거리기도 합니다. 물론 논의과정에서야 얼마든지 이견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합의된 사항은 일관되게 이사회의 통합된 목소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부에서의 진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친밀도와 신뢰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사회를 터전에서 만이 아니라 각 이사의 집에서 돌아가며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욕심을 내본다면 이사회 워크숍을 핑계로 이사진 가족여행이라도 해보십시오. 저의 경우에는 이사들끼리 전화통화를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저녁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사들과 수다 떠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꼭 터전 일에 관한 사무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저의 후임 이사진은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수시로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폭탄주로.

5.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이사가 된다는 것

신입조합원, 혹은 이사 경험이 없는 평조합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찰자, 평가자의 입장에서 조합/어린이집을 바라보게 되며, 내 아이, 우리 방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사가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단순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라고 답답했던 일들이 조합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진행을 해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일들입니다. 작고 소소한 일부터 크고 중요한 일까지 이사회가 일일이 챙겨야 하고 조합원간의 의견의 수렴은 물론 교사회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며, 기획/실행에서 평가에 이르기 까지 이사회의 손을 거칩니다. 이러면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책임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었을 때 선배 조합원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가 된다는 것은 ‘내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관점’으로, ‘조합원적인 관점’에서 ‘조합원과 교사의 상호관계적 관점’으로 시각이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만들어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육아의 주체로서 능동적 입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삼스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사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생각일 수 있지만, 특히 이사가 되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가 된다는 것은 신입조합원으로서, 평조합원으로서 느낄 수 없었던 공동육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6. 이사회역의 역할

1) 봉사자로서의 이사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조합의 봉사자입니다. 조합의 역사/규모에 관계없이 각 조합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합의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이와 선생님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때로는 퇴근시간이 늦어 밥도 못 먹고 혈레벌떡 뛰어와 이사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조합행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 피곤한 하루를 마감합니다. 물론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일어나 보니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습니다. 혹시 터전에 비가 세는 것은 아닐까? 열려진 창문이 있지는 않을까? 아침도 안 먹고 터전에 나가봅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집에 와서 편안히 아침을 먹습니다. 얼마 후 다른 이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어 터전에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조합의 각종 행사 및 일상활동에 단순히 참석하는 일도 버겁다고 난리인데,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사회는 봉사자로서의 성실성과 헌신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험 많은 어느 공동육아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논 속의 벼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조합도 어린이집도 이사회의 발걸음 소리와 손끝소리를 듣고 성장한다.” 생각할수록 맞는 말씀이십니다.

2) 리더로서의 이사회

그러나 봉사자로서의 이사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봉사자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 리더로서의 이사회입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조합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때로는 조합의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는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고 미래의 동력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이사회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앞서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합의 현실 속에 이사회가 빠져 있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합 내에서 현명한 리더십을 확보하십시오. 조합 구성원에 대한 이사회 리더십은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일상의 실천적 성과 속에서 나옵니다. 봉사자로서의 이사회가 성실한 실무력을 기초로 한다면 리더로서의 이사회는 통찰력과 통합력을 기초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조정자로서의 이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있는 조합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최소한 합의 혹은 결정에 대한 승복이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의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며, 조합의 탈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사회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사항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의견이건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충분한 일리가 있고 그것이 터전/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으로 번질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이 사심 없이 이 조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고 확신에 차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조정되지 않는 소신이 적당한 무소신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되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제기를 이사회에서 시작하여 시작된 것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되 최종결론은 분명하게 내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권한, 권위, 신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사회나 교사회의 정책을 가지고 조합원이 문제제기를 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 교사회나 이사회도 흔들리게 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피곤함과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여럿이 상처받고 해결(혹은 임시 봉합)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사회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한 의견에서 논쟁으로, 논쟁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구조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누구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육아가 별건가요. 상처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감정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일시적

으로 논쟁을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미묘한 이야기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홈페이지의 사용을 중지시키든지, 임시총회 혹은 작은 소모임 등을 통해 논의를 하든지, 전임 이사회나 졸업조합원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만들든지... 해결 방법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때 이사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욱 더 골치만 아파지셨다구요? 역시 공동육아에서 이사를 한다는 일은 권한 일이 못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신다구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의 하나인 자녀를 이웃과 함께 키우고 이를 위해 모인 공동체를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고, 때로는 리더의 역할을, 때로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노력하는 모습은 제법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요? 그것도 평생 하려면 힘들 수도 있지만 1년이라는 한시적으로 한다면 할 만하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10년 아니 3-4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만난다면 ‘그래도 그때가 가장 젊고 신나는 시절이었다’는 회고담을 즐겁게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1) 공동체성과 운동성

공동육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해송’과 만나게 됩니다. 사회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보육의 길을 선택한 역사입니다. 공동육아에도 이런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도시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고, 법과 사회적인 문제와 육아문제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동육아가 비용의 문제로 중산층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보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고민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게 있습니다. 육아의 사회적 환경을 고민하고 운동으로서의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공동체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도시에서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터전을 잘 가꾸는 일이 운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합원들은 엄마 아빠로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일단, 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공동육아를 찾은 것입니다.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존중을 기초로 하여 보다 사회적이고 내 자식을 넘어서 우리의 자식으로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감에 없는 상태에서 무

리하게 터전은 운동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구성원들의 친밀도와 신뢰에 바탕을 둔 터전이 건강하고 상식적인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건강함이 결집되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철학(이념)과 행정

우리는 흔히 공동육아의 철학(이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공동육아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육아의 이념이다’ 혹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우리 터전에서 구성원 간에 공동육아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생긴 것으로서, 앞으로 많은 토론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어떤 사건의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사안별로 공동육아의 이념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동육아의 이념 못지않게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공동육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반드시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불일치’로 생기는 것만은 아니며 상당부분은 행정상의 서투름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과연 철학만의 문제일까요? 오히려 행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공동육아의 행정이 근본적인 철학 못지않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의사소통과 인터넷(홈페이지)

초창기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소식지를 월간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시의성이 떨어지고, 기껏해야 연락내용을 복사해서 터전에 두고 한 장씩 가져가기를 기대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명백한 법. 결국 터전의 중요사항 및 긴급사항은 일일이 전화를 하여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시간도 전화비도 제법 들었죠.

인터넷 시대에 공동육아 홈페이지의 긍정적 역할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도 터전은 가까이 있습니다. 조합원간에도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거와 비교하여 의사소통이 더 잘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동육아에서 빠른 의사소통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합원 전체 공지를 하는 경우와 일일이 전화를 하여 알리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되, 아날로그적인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상의 논쟁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냄새가 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논리의 대결이 된다는 측면이 있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글에 나타난 문구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모습은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조합의 구성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기획을 많이 해주시고, 자신들도 조합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십시오. 직접 만나는 것 말고도 전화통화라도 하면 훨씬 가까워집니다. 저는 아직도 공동육아에서 마실 다니기, 함께 여행 가기, 소주한잔 하기, 함께 텃밭 가꾸기, 터전에서 노동하기 등등.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믿습니다. 감히 말씀 드리건대, 공동육아는 컴퓨터 앞에서 열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4) 열심히 한다는 것과 잘 시킨다는 것

이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일을 다 떠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사업의 기획에 중점을 두시고 적절한 일의 배분을 하십시오. 조합을 꾸려 나가다 보면 막상 일할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매번 고생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지만 사정은 그다지도 어려운지.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일정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잘 발굴하여 배분을 하는 것도 이사회的重要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참여의 양과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의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사회를 비롯하여 소수에게 일이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눈에 안 띄다가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나 너무나 멋지게 그 일을 완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분은 터전의 리더가 되기도 하구요. 조합원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십시오.

5. 부모참여, 이렇게 하면 신나요

공동육아, 누군가의 짐이면서 뺑이 되는 따뜻한 등짐

윤 은 정

전 안산 공동육아협동조합 영차어린이집 조합원

‘부모 참여 - 의무방어인가, 권리인가’ 라는 오늘의 주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봅니다. ‘아이 키우기 - 의무방어인가, 권리인가’ 자식 키우는 일을 놓고 의무인가, 권리인가 따져가며 양육을 하는 부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가 되풀이 되는 공동육아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1. 공동육아는 군식구?

부모의 손길이 가장 그리운 유년기의 아이를 키우며 맛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버겁고 고달픈 일상. 아이만이라도 그 고단함에서 보호해보고자 뜻을 모아 늘린 식구가 공동육아입니다. 일터로 나간 부모를 대신해 부모 같은 손길로 알뜰살뜰 아이를 살피는 새 식구가 맘에는 드는데..... 이 식구, 가만 보니 눈치가 없습니다. 아이만 봐주고 저녁이면 알아서 돌아가면 좋으련만, 식구끼리 오붓이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뒤통수가 따갑고 가족여행이라도 떠날라치면 이 일 저 일 쌓아놓고 불러댑니다. 도움 좀 받아볼까 맞이한 식구가 어느새 상전이 돼 쥐똥만한 가족의 여가를 접수합니다. 애는 좋아라 찰떡궁합을 과시하는데 한 입 더 늘고 보니 빠듯한 살림도 더 쪼는 게 어쩐지 군식구 같습니다.

때론 못 본 척 외면하고, 때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구박도 하고, 그러다 미안해 뒤통수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면글면 지내는 사이 정이 듭니다. 미울 땐 미운대로 고을 땐 고운대로 같이 살아야지 별 수 있나요. 아이 보느니 차라리 오뉴월 콩밭을 맨다는데, 그래도 이 힘든 세상 덕 좀 보자고 먼저 텃밭으면 초심은 잊지 않아야지요. 오늘 저녁 밥상엔 기꺼이 그 식구의 순

가락 젓가락 함께 놓고 따뜻한 밥 위에 김치 쪽이라도 올려주어야겠습니다.

2. 공동육아는 슈퍼맨?

“칼, 내 아들이. 인간의 손에서 컸지만 너는 그들과 다르다.

인간은 위대해지길 꿈꾸며 잠재력이 있다, 인도해 줄 빛이 있다면.

바로 그 선한 인간들을 위해 너를 보낸다, 내 하나뿐인 아들을.”

조엘, 영화 <슈퍼맨 리턴즈>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나 캔자스의 한 농장에서 성장한 슈퍼맨은 평소에는 얄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클라크 켄트로 지내다가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할 때면 영웅으로 변신합니다.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갈 때 공동육아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답을 쥐고서 내놓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 외칩니다. 슈퍼맨, 저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네요, 혼 좀 내주세요. 슈퍼맨, 애들 힘드네 나들이 때 안고 날아가면 안 될까요. 슈퍼맨, 내년이면 학교 가는데 우리 아이 글 좀 가르칠래요. 아, 하는 김에 호신술도 좀... 선한 인간들의 수호천사인 천하의 슈퍼맨도 선한 인간들이 뒤질세라 내놓는 요구에는 지칠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악당의 음모에 힘 빠진 무기력한 슈퍼맨을 바라보듯 혀를 찹니다. 무슨 슈퍼맨이 저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육아 한다고 내 아이를 만인의 아이로 만들어 놓고 공동육아니까, 함께 키우는 거니까, 잠시 불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꾸 부모가 빠져 나가면 천하의 슈퍼맨인들 당해내겠습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면 섭섭하다구요? 진짜 섭섭함은 지금 아이 마음에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곳이 좋긴 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이곳은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3. 공동육아는 홍길동?

옛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통탄했던 홍길동이 있다면, 아이들의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보기 어려운 공동육아 터전도 통탄할 일이 아닌지요. 신분사회 대신 자본사회에 아버지를 빼앗긴 아이들이 안쓰러운 건 둘째 치고 할 일 많은 터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엄마들을 보면 통탄 이상입니다. 그들만의 공동육아에서 엄마만의 공동육아로 계층 이동 중인 공동육아,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로 너무 바쁜 아빠와 그래서 내가 대신 할 테니 내 남편 놔두라는 엄마. 바쁜 아빠 때문에 혼자 애 키우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할 게 많냐는 엄마..... 지친 엄마들 곁에서 공동육아도 시들고 있습니다. 그 시드는 향기를 감당해야 하는 건 교사들 몫이지요. 피곤한 어른들 틈에서 아이가 비실거리기라도 한다면 아버지, 당신은 그러겠지요? 공동육아책이나 하면서 애 꼴이 왜 저래?

그렇게 애 앞에서 불쌍사나워지기 전에 먹고 사느라 바쁜 아버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냐, 아이냐? 너무 단순화시켰다고요? 복잡하게 돌려봐야 핵심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치를 바꾸지 않는 한 대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 공동육아를 키우는 8할은?

시인 서정주는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공동육아를 키우는 건 8할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영 어그러지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한 일이 뭐냐?”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만큼 목소리도 크게 채근합니다. “네가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냐?” 열심히는 못 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쓰린 상대 역시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 쫓납니다. 애 잘 키우자고 모였다가 육두문자 쓰며 헤어지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처세나 심리를 다룬 책들을 보면 이렇게 해야 쫓나지 않는다더군요. 나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공동육아를 선택한 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겪는 건 내 선택 때문인 거지요.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어린이집 청소를 하고, 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방모임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다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생긴 일들인 거지요. 공동육아가 유지되는 건 당신이 나와 함께 보육료를 내고 터전을 쓸고 닦고 머리를 맞대고 공리를 하는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 어디서 이렇게 행복할까요.

죄송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련한 술 한 잔에 서운함도 넘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이며 내 아이의 또 다른 부모입니다.

별 말씀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든든합니다.

5. 그래도 어려운 공동육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만 버리면 나

머지는 모두 살면서 배우고 풀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고도 합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춤추지 못하고 떠난 한 가족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 가족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돕지 못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가족을 두려움으로 밀어 넣은 오류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로 인해 우리의 배움과 성장이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던집니다.

영차를 떠나면서... [idbird, 2005-07-27,151]

지난 겨울 해린.유노를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저희 품으로 데려 오기로 결정한 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가? 애들이 잘 적응할까?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애 엄마의 결심이 커 무작정 애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시내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서 어린이집을 기웃거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딱히 같이 고민할 만한 주위 사람이 없는 지라 막막했지요. 그러는 중 영차어린이집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상담 차 방문했을 때 백구가 계셨는데, 아이들도 모두 밝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본인의 일처럼 들어주시는 백구를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 여기가 좋겠다"하고 애들 보금자리로 결정했죠.

해린. 유노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떨어져 저희와 지내면서도 적응을 잘 했고 영차에 가서도 빨리 다른 애들과 어울려 지내는 보니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이사장님을 비롯 여러 영차의 터줏대감적인 창립멤버님들의 도움 속에 공동육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같이 성실한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군요. 각자의 사회생활로 바쁘기도 하고 피곤도 할 텐데 항상 편안한 모습으로 조합원 모두가 한 가족처럼 스스럼없이 지내는 모습이 어쩔 그리 좋아 보이던지...

저나 애 엄마는 성격이 활발하거나 다른 이에게 쉽게 다가서는 성격이 아니라 항상 부러워 했고 소극적인 자세로 조합 생활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같은 조합원이지만 다른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더부살이를 하는 느낌도 들고, 과연 시간이 지나 한 가족처럼 편안해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조합원과 같이 우리 몫을 다하지 못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지요. 수동적인 자세로 조합 활동을 하다보니 즐거움과 보람보다는 조합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의 마냥 자기일인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영차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5월 초에 공동육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공동체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동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 부부에게는 공동육아는 다른 이들의 노력에 기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연말까지 공동육아를 해 보는 것이 나은 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건 너무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탈퇴계를 제출하게 되었죠. 너무 쉽게 영차어린이집에 들어와 너무 쉽게 영차어린이집을 떠나는 모습에 다른 영차 조합원들께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들과 상의하지 못한 부분과 속단으로 영차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고개 숙여 죄송한 맘을 전합니다.

영차어린이집 조합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도움과 배움을 가지고 떠납니다. 감사하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왠지 미안한 맘이 앞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백구, 바다, 기쁨, 해님.. 해린이와 유노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린이와 유노에게 영차식구들이 보여주셨던 믿음과 사랑은 저희 아이들이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더 좋은 보금자리로, 조합원간의 끈끈한 정으로 보람과 행복을 함께 느끼는 영차어린이집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접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가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가을이 곧 오겠지요.

한줄 답변 :

1. sun: 떠나는 그 안에 또 나름의 많은 고민이 있었군요. 그런 고민이 같이 나뉘지지 못하고 떠나게 되서 많이 아쉽습니다.

2. chaosyem: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순간도 눈물이 앞서는군요, .. 유노가 안겨 웃는 모습도 떠올르고, 해린이 웃는 모습도 아른거립니다...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헤어짐은 목을 매게 합니다..보고 싶습니다.. 친구 유노를 기억하는 순혁이처럼 우리도 기억합니다.. 오고 싶을 때 그리움이 일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3. gladay: 우연히 해린 유노네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말씀대로 연 말까지 지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함께 고민을 나눌 기회 조차 별로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떠나는 이유의 절반은 조합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같은 말그미방 해린, 친누나처럼 소은이를 따르던 유노가 많이 그리울 것 같네요.

4. 풀꽃: 해린네가 부담을 느끼신 건, 책임감이 너무 컸던 탓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각자 역량과 여건과 체력, 등등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었을 텐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함께 더 친해지지 못하고 헤어짐이.

5. 서연맘: 이 더위가 다 가기 전에 꼭 한번이라도 또 만날 수 있길 고대합니다. 아빠들도 다함께 참여한 방모임조차 제대로 못해봤는데... 헤어지게 되어 무척 아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늘 잘 웃던 해린이도, 잘 안기던 유노도 보고 싶어요. 소담방이 텅 비어 보인답니다. 언제라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남길 바랍니다.

6. 서연맘: 해린 엄마 아빠께서 하셨던 고민들...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부담만 안겨 드린 것 같아서... 자꾸 죄송하네요. 나누면 절반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한.... 아쉬움이 계속 ...

7. 서찬맘: 수줍음과 썩썩함을 겸비한 해린이와 눈이 뿔망뿔망한 유노, 정말 보고 싶네요. 차라리 내놓고 고민을 함께 풀어내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분명 지혜를 짜내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두 분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큼니다. 그래도 분명 서로가 영차에서 얻은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해린 유노네가 남겨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어보면서 더 "말랑말랑한 공" 같은 영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

8. 서의철: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낯설음입니다. 사람과, 공간과, 이

러저런 분위기와와 낮설음. 그 낮설음을 편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해 린,유노는 막 편해진 것 같았는데 헤어지게 되어 아쉬움이 더 합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쉽게 편할 수 있는 영차가 되겠지요.

9. 반태현: 몇 번씩이나 게시판을 보다 이제야 댓글을 다네요. 아쉽다고 말하기에 너무 단편적인 감정인 것 같고 뭔가 그렇다고 가타부타 뭐라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군요(미처 정리 되지 않는 부분인지라..) 마니마니 놀러 오셨으면 좋겠군요... ps : 그리고 한가지... 왜 우리는 매번 온라인상에서만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하는지...

6. 공동육아, before and after

2000년. 콩돌이 돌 무렵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했으나 그 모임 끝 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임을 떠나던 날 밤, 마법사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콧물 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01년. 인근에 영차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기에 아이부터 등원시킨 뒤 터전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들뜬 즐거움도 잠깐, 콩돌이는 이마를 물러오고, 머리가 뜯겨 껌병이가 돼 돌아오고, 터전과 가깝다는 이유로 오며가며 맡겨진 아이들은 볼풀에 들어가 쉬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래도 아이들 접대용 볼풀을 치울 수 없어 수북한 공을 씻어 말리던 기억 역시 생생합니다.

2002년. 어설픈 제 눈에도 대충 조합 돌아가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합에 말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관계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상냥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그러던 어느 날 공동육아를 한다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그러나 어느 조합에나 잠재 된 불화의 뇌관이 평 터졌습니다. 저 역시 그 뇌관을 건드린 사람의 하나였지요, 지금도 인정하긴 싫지만. ('난 아니다'라고 하면 남편은 '맞다'고 버럭 성을 냅니다,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옳고 그름은 100 대 0의 비율이 아니라 51 대 49 라는 것. 그래서 그 2%의 변별력 안에서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가를 고민한 그해 겨울이 지난 뒤 공동육아는 더 이상 대상화 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견을 펴면서도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말하고 싶을 때 행동하게 하고, 1/n의 평등론을 버리게 하고, 터전 밖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 고민하게 하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준비하게 하는 마음의 잣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혹시 공동육아의 주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이 당신이 마련한 공동육아의 기획의도겠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고해는 때로 후발 조합원들에게 고문이 되고 족쇄가 된다는 원성도 들립니다. 어쨌거나..... 저는 공동육아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해체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육아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실컷 씹먹으면서.)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연어 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안도현의 <연어>, 은빛 연어와 강의 대화 중—

은빛 연어로 떠올대는 강 풍경! 제게 아직도, 공동육아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라는 시한부 어감의 부사를 붙이는 것은 자꾸 배경이 가려지는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귀향을 하는 연어 처럼 우리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가닿으려고 하는 냇가는 분명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공동육아는 아이뿐 아니라 아빠도 건강하게 키우는 공간이다

양 용 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

공동육아를 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의 행복은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지만 어른들도 행복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한다. 공동육아에 참여하면 부모들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다는데 행복은 무슨 행복인가 라고 말이다. 이 때 행복이란 그저 즐거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육아를 통해서 어른들이 그 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바꾸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육아를 경험한 아빠들의 변화야말로 으뜸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아빠들의 변화는 한 가정을 건강하게 바꾸어 주고 그 건강함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양성평등의식이 많이 진전되어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잘 나누어 하는 부부들도 더러 있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설사 나누어 한다고 해도 남자들은 그저 도와준다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회가 풀지 못하는 숙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자각의 기회가 주어지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주변의 문화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엄마의 제안과 노력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공동육아에 발을 들여 놓으면 아빠들도 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의 시설문제도 그렇고 조합운영을 위한 논의에도 아빠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육아문제보다는 남성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드웨어부터 접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일이라는 것이 모두 아이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아라는 문제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도 아이들의 활동이 고려되어야 하고 조합운영에 참여하면서도 아이들의 생활, 교사들과의 소통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다. 이 뿐 아니라 아빠들 간에 모여 술자리라도 갖게 되면 화제의 대부분은 아이들 이야기, 터전 이야기가 된다.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아빠들은 그간 무관심했던 자기 아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또 터전에 많이 참여하고, 다른 집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이와 공감대가 많아진다. 이 공감대는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 아빠가 아무리 아이에게 잘 해 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통의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은 직접적인 공통의 경험은 아닐지라도 아이와 이야기 나눌 거리가 참 많다. 터전에 새로 만든 시설물 이야기, 청소하면서 본 장난감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등등.

아빠들의 변화는 아이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사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동육아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빠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유아시절의 아이 볼보는 것은 대부분이 가사노동과 직결되어 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등등의 일을 하려면 음식 만들기, 빨래, 청소 등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아이에 대해서 무지했던 때와는 달리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은 이 일에도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먼저 공동육아를 시작한 아빠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크게 한 몫을 한다. 아빠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다.

아빠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건전한 아빠들의 문화가 만들어 지는 것도 공동육아의 큰 장점이다. 공동육아 부모들은 할 일이 참 많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부모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많아진다. 그런데 이 기회에 아빠들은 직장이나 일반 사회의 남성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그런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간다. 가정, 육아, 가사노동 등과는 한 발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심하면 그런 것을 많이 하면 덜 떨어진 행동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공동육아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많이들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소위 “좋은 아빠 되기” 등의 강의를 수십 번을 듣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직장동료나 동창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아이 챙기는 문제로 먼저 자리를 일어서려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이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공동육아 아빠들끼리 만나는 자리였다면 그런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만 봐도 공동육아 아빠들의 문화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 잘 키우려고 시작한 공동육아, 그러나 어른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아이를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로 인정하자는 것, 아이의 변화를 조급하지 않게 지켜 봐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자는 것, 어른들 사이에서도 민주적이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 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빠들도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 육아뿐 아니라 가사노동도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건강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꾸림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동육아가 어른들에게 가르쳐 주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6. 공동육아 관계맺기, 이렇게 하면 살맛나요

유 환 옥

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

1. 관계는 관리해야 한다

공동육아는 교육과정의 근본을 관계로 본다. 즉 구체적인 보육과 육아 프로그램들 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 조합원과 조합원, 교사와 교사, 원장과 이사회, 교사와 조합원, 교사와 아이의 관계의 건강성이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질의 80-90 퍼센트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동육아는 20-30가구가 몇 년 동안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은 공동육아의 장점이자, 또한 공동육아가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공동육아의 장점이라는 것은 공동육아가 사라져 가는 마을을 되살리는 효과를 말한다. 언제든지 편하게 마실 갈 수 있고, 일이 있을 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대 여섯 가구의 동네 엄마, 아빠가 쉽게 모여 저녁을 먹고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동네는 이제 도시에서 흔한 풍경이 아니다. 공동육아는 이런 마을을 되살린다. 마을의 부활이 주는 정서적 풍족감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의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마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은 분명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 않지만, 이 마을의 부활은 지역문화, 지역자치의 초석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상호작용의 장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은 서로가 성숙하지 못할 때 공동육아는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년이 된 초기 공동육아 어린이집 몇 년간의 경험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하는 자기 관리와 인간관계 관리가 공동육아가 넘어야 할 최대의 산임을 직관케 한다.

2. 조합원 - 교사사이,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

1) 부모 참여인가 간섭인가?

공동육아의 철학·원칙 중의 하나는 부모가 보육과 교육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운영을 직접 하고 교육 내용도 교사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이 없었다면 흙, 물, 바람이 없는 육아·교육 공간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알아서 잘 커주고 있는 야생마 같은 아이들은 형성될 수 없었다. 이 같은 형성은 교육강박증에 전염되어 있는 이 땅의 육아·교육 문화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고 새로운 육아·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저력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 참여는 교사의 권한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즉 부모 참여가 육아와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 또는 방중심의 편향된 사고와 요구를 함으로써 교사의 자율적 교육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모들이 한결같이 성숙하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같지 못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부당하고 성숙하지 못한 간섭을 차단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제는 소통의 경로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불만을 해당 교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원장이나 교사대표에게 전달한다. 원장과 교사대표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부모와 대화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교사나 교사회가 수용해야 할 정당한 불만인지 아닌지가 부모와 원장·교사 대표의 공유되는 이해 속에서 정확히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부모가 불만을 삭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불만은 삭여지지 않고 쌓여갈 뿐이다. 어느 지점에서 불만의 쌓임은 탈퇴라는 가장 부정적 결과로 끝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상호 격려와 조언, 비판에 열려 있는 의사소통의 문화를 일구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합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육아는 부모들이 직접 터전에 아이를 데리고 오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얼굴을 보는 만큼, 의사소통도 원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합도 교사도 힘에 부친다면

교사가 전문성, 교육 역량을 증진시켜갈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무이다. 그러나 공동육아가 부모들의 순수한 민간 자생력에 의존하다 보니, 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흡족하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일차적으로는 조합을 한계 속에서나마 건실하게 운영하여 아마, 최소한 월 1회의 긴 회의 보장 등의 기본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바람직한 보육환경은 공동육아가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터전을 얻고 숨에 차는 재정적 부담의 숨통을 트게 해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보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 또는 객관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적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보인다. 그래서 공동육아 부모의 노력은 조합 수준에 머무를 수 없으며 정책적 전망과 지역적, 지역연합적인 주민자치로까지 발전되어야 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합원과 교사가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 자질이 요구된다.

부모의 교사에 대한 지원이 충실치 못할 때, 선진적 보육이라는 공동육아의 차별성은 살아날 수 없고 부모의 지원 부족은 교사들의 조합에 대한 불신, 따라서 조합과 교사간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

반면에 교사는 교사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역량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라는 직분은 ‘산 교육’을 하자면 늘 어렵고 긴장되어 있어야 하는 힘든 직업이지만, 편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기능적으로 구조화시켜버릴 수 있기도 하다. ‘교사가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부모들의 뒷받침을 생산적으로 받지 못한다.’ 와 같은 소리가 간혹 나오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기 정립에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개 조합원들은 교사의 역량 부족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문제로 기다려 주는 자세를 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편 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성 요구시 부모 요구가 우리 사회의 교육 강박증을 또 다른 형태로 포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강박증적인 교육에의 요구와 대안적인 교육적 환경에 대한 요구의 경계선은 외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늘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3) 조합원과 교사, 건강하게 친하려면

조합원과 교사는 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육아의 관계에 대한 강조는 사적인 친밀관계를 조합원과 교사간의 열린 관계, 신뢰관계로 오인하게 하기도 한다. 사적인 친밀관계 자체가 관계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적인 친밀관계는 경우에 따라, 특정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 매우 좋지 않은 경우는 교사가 편이 갈리고 조합원이 어느 교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조합원도 편이 갈리게 된다. 심지어 이사가 편이 갈리기도 하고 전 이사진과 현 이사진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합 준비 기간 중의 간사가 교사가 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 점은 조합원 교사도 마찬가지다. 전자의 경우, 원장의 관리를 받게 되는 교사는 간사에서 교사로의 직위 전환을 공동운영 주체에서 피고용자로의 신분 전락으로 느끼게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원장과 교사, 조합과 교사간의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3, 4년 된 조합들에서는 교사의 총회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어, 일부 조합에서는 교사들이 총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교사가 공동 운영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찬반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안건에 대한 교사의 강력하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교사의 의견 표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교사와 조합원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조합원 갈등의 한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조합원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편향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갖는 조합원들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이나 교사가 어느 한쪽 부모만을 지지하고 있음이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교사와 조합원간의 내적인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증폭된다. 의견의 다름을 감정적 앙금이나 작의적인 윤리적 비판 없이 반대하고 인정하는 공적인 훈련을 우리 어른세대들은 받지 못했고 이는 갈등의 요인이 된다.

4) 사람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IMF에 타격을 심각하게 받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탈퇴가 줄을 잇고 보육료는 줄어들고 교사는 남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수입에 지출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의 감봉과 같은 조치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사퇴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조합원이 줄어들 경우,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교사수이다. 교사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IMF라는 상황은 조합으로 하여금 교사직을 평생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사 수 조정이 자본가의 일방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마다 결혼,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자연 퇴직이 있고, 다른 조합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 몇 달간은 돌아가면서 휴직을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조합과 교사간의 상호 조정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사려 깊고 신중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히 시간을 갖고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정을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이런 저런 갈등, 알고 보면 잘 풀 수 있다

1)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사례

○ 조합원 교사와 교사 : 조합원 교사 제도를 어린이집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비조합원 교사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조합원 교사는 아이의 담당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전

폭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아이에게 엄마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이 공존하는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게 생활한다.

○ 나이, 성향 차이에서 오는 갈등 : 나이가 많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 성향의 교사가 있는 경우, 동료 교사들은 활발한 의견교환이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교사회는 팀워크를 형성하기 어렵고 교사간의 갈등만 심화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회의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기본 틀이 결정되므로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펼 수 있고, 좋은 의견은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사회 전체, 더 넓게는 조합 전체 운영의 큰 틀을 고민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 이러한 교사를 지원하는 조합으로 발전하도록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 교사간의 사적관계 : 어떤 조직이더라도 조금 더 친한 관계라든지, 편한 사람관계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친분 관계가 일에 영향을 준다면,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교사간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교사들 간의 팀워크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생활은 질적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팀워크가 중요하므로 교사 개인의 잘잘못이 교사회 전체의 잘잘못으로 평가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도 교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2)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원간의 갈등 역시 공적 훈련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하나의 안전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 진지한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동육아에 대한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이기주의자라는 등의 평가나 인식공격이 수반되면서 상호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 논쟁은 논쟁으로 그쳐야 한다. 의견의 다름으로 인격적, 윤리적 평가나 비판, 감정적 비난이 오고 가는 것은 우리가 공동육아 이념을 말하고 실제 공동육아를 실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채울만한 자질을 함양하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지지한 안전이 부결되었다고 감정적인 반응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것은 공적 훈련 부재의 단적인 예가 된다. 공동육아의 부모 참여가 다른 보육 형태와 건강하게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적 양금 없이 논쟁할 수 있는 부모들의 공적 자질이 전제된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4부

부모교육, 어떻게 하나요

1. 부모교육 이렇게 해 보세요
2. 신입조합원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요
3. 조합운영진(이사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요
4. 조합의 주기에 따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부. 부모교육 어떻게 하나요

1. 부모교육 이렇게 해 보세요

1)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 우선 부모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 만큼 어린이집에 거는 기대와 교사들에게 거는 기대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생각들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부모들이 갖는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교육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계획단계부터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 단계부터 관심을 끌어온 교육은 참여를 높이고 내용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교육계획을 세우기 전 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잠시라도 궁금한 점을 나누어 보는 자리(예를 들면 어린이집 방별 모임이나 소위원회 모임 때)를 갖는 것도 관심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 장,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부모교육의 목표는 부모 개개인의 변화를 끌어내 어린이집과 협동조합 등 조직이 변화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연간교육활동계획이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의 경우 조합의 연간사업계획과 연계해서 1년 동안의 교육방향과 목표를 세우면 일관성 있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사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민의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하나하나가 한번 듣고 끝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된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은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상황이 변해서 교육을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미리 정해놓은 교육을 철회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제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육은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역동적인 교육시간이 되도록 섬세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시간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겠지요? 같은 내용이라도 흥미진진하게 전달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들이 교육에 흥미를 보이고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제, 강사, 교육 방식, 교육 장소, 홍보작업, 사후 평가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래 부르기, 음악, 영상물 보기 등 문화적 요소를 교육에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2) 부모교육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의 일정과 참가자들의 일정을 함께 고려해서 가능한 시기를 정합니다.

○ 일시, 주제, 강사, 장소가 정해지면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공지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합니다.

○ 교육계획이 세워지면 어린이집 홈페이지, 조합의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합니다.

○ 교육을 앞서 받아온 부모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교육 참가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교육을 주최하는 분들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소감을 들어주면 참가자들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에 교육을 적극 받아들이게 됩니다.

○ 교육에 앞서 미리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 내용을 알린다면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면 편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후에는 사이트나 소식지를 통해 교육 후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3)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1) 강연회

○ 강사를 초청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강연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이해하거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 강연회를 개최하면 효과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강연회는 교육주제가 정해지면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의 적절한 교육주제와 강사’는 교육의 효과를 배로 올려줍니다.

○ 강의를 듣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베이비시터)과 공간(이웃의 다른 어린이집)을 미리 마련해 두면 강연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강연회 후에는 꼭 평가서를 작성하여 일시, 주제, 강사소개, 장소, 강의 내용, 질의응답 내용,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 소감 등을 기록해두도록 합니다. 평가내용은 다음 강연회를 계획할 때 의미 있게 쓰이게 됩니다.

(2) 워크숍

○ 주어진 어떤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배우고 실습해 보는 집중적인 교육입니다.

○ 워크숍의 성과를 미리 알려주면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과정 중에 참가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신임 이사진 교육은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교육활동(예를 들면 놀이와 노래)을 부모들과 함께 해볼 때도 워크숍의 방식이 좋습니다.

(3) 집단 토론회와 분임토의

○ 토론회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 집단 토론회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회자는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파악하여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이나 모임에서는 토론에 적합한 사회자를 구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교육이 바라는 목적에 따라 집단 토의와 분임토의로 나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야 할 때나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때는 7-8명 정도의 작

은 단위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단토론회는 참가 인원이 20명 전후일 때는 효과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지만 30명-40명일 경우는 몇 사람이 토론을 끌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 사회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안한 토론 분위기를 만들도록 합니다.

(4) 외부강좌를 활용하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주제에 따라서는 외부 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혼자서 교육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10-15명 정도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외부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강좌를 적극 활용합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매년 특강, 또는 연속 강좌 형태로 부모교육을 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 법인의 교육을 적극 활용하면 개별 어린이집에서 들이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환경단체나 학부모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마을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4) 부모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부모교육은 조합의 교육소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 교육소위원회는 부모 3~4명(조합가입기간이 3년 이상 부모님이 참가하면 좋습니다.), 교사 사회 1~2명으로 구성합니다.

○ 교육소위원회에서는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부모교육의 모든 과정을 주관합니다.

○ 교육소위원회에서는 기획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을 기획하도록 합니다.

2. 신입조합원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새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간을 마련합니다. 처음 조합생활을 시작하는 부모들 또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입조합원 교육은 조합생활을 막 시작하는 부모들이 낯선 조합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하루라도 빨리 공동체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교육은 협동조합에 가입한 후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 조합생활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가입 2주전에는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해당 조합의 역사와 조합 생활, 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조합원 생활 수칙, 아마활동, 어린이집 하루 일과와 교육활동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여 조합생활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교육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조합원의 참여와 역할’ ‘공동육아 교육활동’ 등 공동육아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계획합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는 신입부모들이 궁금한 점이나 느낌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배부모들의 일방적인 교육의 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신입조합원교육은 교육소위원회의 주관 아래 선배조합원들과 교사가 같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처음 조합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조합원들이 교육에 함께하여 앞서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해주고 신입부모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 준다면 신입부모들에게 ‘모두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조합생활을 해온 동료’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에 참가해서 어린이집 생활이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얘기해 준다면 신입부모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조합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안정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신입조합원 안내자료와 교육자료를 만들어 신입조합원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조합에서는 상세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조합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주최하는 신입조합원교육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법인이 주최하는 신입조합원교육은 공동육아 전체 신입부모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3-4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공동육아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조합에서는 신입 조합원교육 과정의 하나로 법인 주최의 신입조합원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교육계획에 넣도록 합니다.

3. 조합운영진(이사회)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나요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의 사업을 실행하는 단위입니다. 조합 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논의, 결정하고 인사권과 재정 책임을 지는 조합운영의 핵심입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합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쇄신하고자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사회는 전임 이사회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총회에서 조합의 차기 이사회가 선출되면 신임 이사진과 전임이사진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을 계획하도록 합니다.

워크숍은 1박 2일 정도로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거나 1박의 워크숍이 어려우면 2-3회에 걸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합니다.

○ 워크숍에서는 전임이사진이 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가져 조합의 사업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합니다.

전임 이사진들은 1년 동안 했던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문건으로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계획했던 일들과 성과를 냈던 일, 다하지 못한 일, 차기 이사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특히 그 해에 개정된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적어서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협동조합 이사진의 임기는 대개 1년입니다. 이사진이 그 해에 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차기 이사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 조합의 운영진으로서 이사회 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조합운영의 중심이며 소통의 중심인 이사회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이사의 역할은 조합원의 또 다른 짐이 될 뿐입니다. 이사회 의 경험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회사도 친목단체도 아닌 자주적인 조직을 이끌어 보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갖는 중요성과 경험의 특별함을 이사진들이 인식하게 되면 훨씬 힘 있고 즐겁게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사회와 이사장이 갖는 역할을 안내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이사진이 갖추어야 할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일의 중요성은 이사진들이 계획한 사업에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진들이 해야 할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점, 사업을 집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사업 집행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극복하는 방법 등 교육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신임이사진교육에 참석합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해마다 3월에 전체 공동육아협동조합 이사진들을 대상으로 신임이사진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임이사진 교육에 참석하시면,

하나, 법인이 주최하는 신임이사진교육에 참석하면 각 이사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둘, 그 해의 공동육아 전체의 흐름을 알아 우리 조합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 여러 곳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이사진이 참가하므로 조합의 다양한 사례를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우리 조합이 잘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이사진의 긍지를 갖게 합니다.

다섯, 무엇보다 공동육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힘을 확인하고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 자부심은 앞으로 이사 역할을 수행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조합의 주기에 따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교육은 초기 조합설립과정에서 기본으로 해야 할 내용과 조합 설립 후 조합의 주기에 따라 해야 할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 이전 준비모임 때 필요한 교육

○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와 합의, 공동육아를 바라보는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는 시기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준비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교육주제로는 우리사회 유아교육의 현실과 과제, 공동육아의 이념과 교육철학,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육아공동체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선택했는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과 서로의 육아관을 확인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합니다.

○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합니다.

○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는 정기적인 독서토론 모임처럼 토론 위주의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2) 설립기(조합 설립 후 1년까지)에 필요한 교육

○ 이 시기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 공동육아어린이집의 틀을 세워 나가는 때입니다.

따라서 조합과 어린이집의 틀을 세우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미숙함이 관찰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하는 조합의 의사소통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소통에서 여러 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관계와 소통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동육아 공동체의 특성’ ‘공동육아에서의 관계 맺기’ ‘의사소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이상형으로만 생각해 왔던 교육의 지향을 현실에 적용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공동육아 교육활동의 실제’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흐름’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설립기에 있는 모든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입니다.

3) 운영기에 필요한 교육

조합의 운영기는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거나 설립 초기의 혼란스러움을 거둬들거나’ 하는 부침을 겪는 시기입니다. 조합의 운영진은 조합의 발전 정도를 잘 파악하여 지금 조합에 필요한 교육이 어느 단계의 교육인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1) 운영전반기(조합설립 후 1년~3년)에 필요한 교육

○ 조합 설립기에 조합의 운영원리를 체득한 조합에서는 기본적인 조합 운영의 틀이 완성되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합운영의 원리를 체득하지 못한 조합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공동체의 원칙과 운영원리, 사람과의 관계 맺기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틀이 안정되면 어린이집 교육활동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교육활동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사도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활문화교육’ ‘생태교육’ ‘관계교육’ ‘통합교육’ 등 공동육아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2) 운영후반기(조합설립 후 3년~5년)에 필요한 교육

초기의 설립 취지가 빛을 잃지 않도록 개원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설립의 목적을 돌아볼 때입니다. 조합의 설립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졸업을 하기 시작하고 신입조합원들이 조합원 구성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입조합원교육에 정성을 쏟아 신입부모들이 조합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기 조합원교육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생활의 각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입부모들이 조합의 구성원으로 선배조합원들과 무리없이 관계를 맺어 나가고 조합설립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규칙, 문화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별명과 반말문화, 먹을거리, 아마활동, 별금제도, 장애아통합교육, 부모참여, 사교육, 특기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지역사회와 조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설립 준비기, 설립기와 운영기를 지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조합에서는 지역사회에 어린 이집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4) 세대교체기(조합설립 4년~5년 이후)에 필요한 교육

세대교체기에 있는 조합들은 다음의 교육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 조합을 설립했던 설립 초기의 조합원들이 졸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조합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운영후반기 때 신입조합원 교육에 힘을 쏟은 조합은 조합의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 조합이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로 세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변해야 할 할 점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해 봅니다.

○ 신입조합원 교육이 부족한 조합은 신입조합원 교육에 더욱 공을 들이도록 합니다.

○ 다시 한 번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과 ‘아동관’을 돌아보는 교육을 기획합니다.

○ ‘한국사회의 교육현실’, ‘아동현실’ 등 넓은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합니다.

5) 조합의 재구성기(조합설립 10년 이후)에 필요한 교육

이 시기는 조합의 역사로부터 조합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와야 하는 시기로 조합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조합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선배들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조합 스스로 부모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외부 초빙강사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조합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졸업 조합원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등 졸업조합원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5부

부록

1. 참고 도서
2. 참고 사이트
3. 공동육아 회보 여는 글, 특집 목록
4. 보육권리선언

5부. 부록

1. 참고도서

1) 공동육아의 이념과 교육 실체에 대한 이해

-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한울, 1991
<내가 살고 싶은 세상 - 사회 운동과 나>, 정병호, “대안 교육의 길을 찾아서-야학에서 공동육아까지”, 또하나의 문화, 1994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하나의 문화, 1994
<강아지똥 선생님의 공동육아이야기>, 이철국, 내일을 여는 책, 1998 (절판)
<코뿔소 나들이 가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하나의 문화, 2000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이부미, 또하나의 문화, 2001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 류경희, 또하나의 문화, 2004
<코뿔소 쇠뜨기가 뭐야 >, 산어린이집, 잉걸, 2006
<함께 크는 삶의 시작>, 이부미 이기범 정병호 엮음, 또하나의 문화, 200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식지

2) 공동체교육

-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보리, 1997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공동체 이야기>, 하나후사 료스케, 내일을 여는 책, 1997 (절판)
<희망의 이유>, 제인 구달, 궁리, 2000
<조화로운 삶>,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 보리, 2001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민들레, 2002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에버하르트 뢰비우스, 보리
<키노쿠니 어린이마을>, 호리 신이치로, 민들레, 2001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집은 있다 >, 조희연 외, 한계레출판사, 2002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조한혜정 외, 또하나의 문화, 2006
<교육,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정병호 외, 희망제작소, 2008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정병호, 김찬호, 이수광, 이민경, (주)창비, 2008

3) 장애아동 통합교육

<공동육아>，“수진이 엄마와의 데이트”，최경애，2000년 7~8호(통권 52호)

<공동육아>，“통합교육 평가서”，이성윤，2000년 7~8호(통권 52호)

<다르게 보는 아이들>，게르다 윤，한울림，2005

<공동육아 장애아동 통합교육>，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2

<아담을 기다리며>，마사 베크，녹색평론사，2002

<사랑의 학교>，에드몬드 아미치스，꿈소담이，2002

<계간지> 함께 웃는 날

4) 성교육

<대중문화의 겉과 속>，강준만，인물과 사상사，1999

<내 아이와 나누고 싶은 성에 대한 이야기>m 리처드 & 린다，에어한울림，2000

<포르노 ALL BOYS DO IT!>，엄기호，우리교육，2000

<내 아이 마초로 키울 수 없다>，아스트리트 카이저 저/윤 진희 역，넥서스，2003

<우리 몸 우리 자신>，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 지음，또문몸살림터 엮어옮김，또하나의문화，2005

5) 생태, 환경 교육

<신갈나무 투쟁기>，차승윤 전승훈，지성사，1999

<육식，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 2>，존 로빈스，아름드리 미디어，2000

<살림의 논리>，장택희，녹색평론사，2000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헬레나 노르베리-호지，녹색평론사，2001 개정증보판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조안 엘리자베스 록 씀，조웅주 옮김，민들레，2004

<아름다운 생명의 그물>，이본 베스킨 지음 이한음 옮김，돌베개，2006

<게으른 산행>，우종영 글 홍찬표 사진，한겨레 출판，2004

6) 인간관계훈련

<엠비티아이와(MBTI)와 나의 가족 이해> 한국심리검사연구소，1994

<인간관계 개선훈련>，유동수，청년문화，1997

<자녀기질과 교육>，베블라 라헤이，생명의 말씀사

<에니어그램의 지혜 :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9가지 성격 유형>，돈 리차드 리소，한문화，2000

<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우리 아이 속마음 : 성격에 맞춘 성공적인 자녀 양육법>, 김현정역, 현경미
 디어, 2001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타스님, 대원정사, 2001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래니 어래돈도, 지식공작소, 2002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2
 <비폭력대화>, 마셜 B.로젠버그 저/ 캐서린 한 역, 바오, 2004

7) 자녀와 소통하기

<부모와 아이사이>, 하임 G. 기너트 외 공저/신홍민 역, 양철북, 2003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오사카보육연구소 씬 이학선 옮김, 보리, 2007
 <아이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 48>, 진선경 유미영 지음, 조선일보생활미디어, 2006
 <아프리카 초원학교>, 구혜경 지음, 한겨레출판, 2007

8)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발행

<저소득층 지역 어린이집 교사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사)공동육아연구원
 <공동육아에서의 절기와 세시 놀이> 공동육아교사협의회, 2002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3
 <애들아, 이야기하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를 알아가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3
 <‘보육법인 모형 개발 연구>, 여성부 연구용역보고,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3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방안>, 여성부 연구용역보고,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4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4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4
 <공동육아어린이집 보육환경 돌아보기>, 신현주 호정애,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6
 <일곱 살, 공동육아 꽃이 핀다>, 이말순 대표집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6
 <어린이들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이해>, 김경태 대표집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2006
 <공동육아 연령통합, 어울림의 시작>, 공동육아교사회 리더십과정 ‘연령통합 연구’ 모듬, (사)공동
 육아와 공동체교육, 2006
 <공동육아방과후 교육활동 사례집>, 2006 공동육아방과후 교사회, 2006
 <공동육아 꽃, 일곱 살 교육활동의 실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공동육아 노동기준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뛰노는 교사, 신나는 아이들>, 교육활동심화과정 ‘놀이와 노래’ 모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2009
 <애들아, 우리 이야기하자>, 세시와 한 해 흐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9

2. 사이트

한국아동상담센터 <http://www.adongclinic.co.kr>
 한국장애아동인권연구회 <http://www.kdcr.org>
 세이브더칠드런 <http://www.sc.or.kr> - 아동권리전문기관
 수수팔떡아이사랑모임 <http://www.asamo.or.kr>
 삼성아동교육 문화센터 <http://child.samsungfoundation.org>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http://www.ahacenter.kr>
 박물관 포탈 사이트 <http://www.serimuse.org>
 영상미디어센터 <http://www.mediact.org> - 유아미디어교육토론회, 영상제작지원 외
 놀이연구회놀 <http://www.nol2i.com> - 전래놀이, 모듬놀이, 상황별놀이, 놀이지도 안내.
 어린이도서연구회 <http://www.childbook.org>
 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edongmu.or.kr>
 한국비폭력대화센터 <http://www.krnvc.org>
 민들레 <http://www.mindle.org>
 대안교육연대 <http://www.psae.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www.safia.org> - 자녀안전교육, 안전상담, 유괴방지의

3. 회보 여는 글(권두언), 특집(시론) 목록

| 제호 | 발간년월 | 목차 | 제목 |
|------|-----------|------------------|---|
| 창간호 | 1995년 8월 | 창간사 시론 | 이론과 실천, 실험과 운동의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정병호 미래사회와 공동육아/이기범 |
| 제2호 | 1995년 9월 | 권두언 시론 | /조형 아이는 누가 키우나/박혜란 |
| 제3호 | 1995년 10월 | 권두언 시론 | - “넵뒤유, 제발...” ‘수퍼 차일드 콤플렉스’/정유성 |
| 제4호 | 1995년 11월 | 권두언 시론 | ‘좋은 아버지 운동’/정영숙 다른 사람, 다른 생각/윤현진 |
| 제5호 | 1995년 12월 | 권두언 시론 | 인간 존중의 공동육아/이기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이은선 |
| 제6호 | 1996년 1월 | 권두언 시론 | 어린이집은 효율적인 환경교육의 현장/김형국 입시전쟁을 보며/정진경 |
| 제7호 | 1996년 2월 | 권두언 시론 | 공동육아/김선주 단한 교육, 쏠리는 아이들-청소년과 대중문화/정유성 |
| 제8호 | 1996년 3월 | 권두언 시론 | 공동육아와 바람직한 어른과 아이의 관계/정병호 유아교육과 교육개혁/이종태 |
| 제9호 | 1996년 4월 | 권두언 | 아동양육도 변해야 산다/정영숙 |
| 제10호 | 1996년 5월 | 권두언 | 어린이 달과 어린이 인권/이기범 |
| 제11호 | 1996년 6월 | 권두언 |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주정일 *특집:남북어린이 어깨동무 |
| 제12호 | 1996년 7월 | 권두언 | 고집불통 할아버지와 종이 비행기/정병호 |
| 제13호 | 1996년 8월 | 권두언 | ‘96 공동육아 교사대회의 의미/이기범 |
| 제14호 | 1996년 9월 | 권두언 | 법인 설립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정병호 |
| 제15호 | 1996년 10월 | 권두언 | 줄 세우기/정유성 |
| 제16호 | 1996년 11월 | 권두언 | 성교육은 가치관 교육/정진경 |
| 제17호 | 1996년 12월 | 권두언 | 부모의 역할 열 가지/이연섭 |
| 제18호 | 1997년 1월 | 권두언 | 사람 생각하며 천천히...또 두밀리에서/정유성 |
| 제19호 | 1997년 2월 | 권두언 | 탈도(脫都)의 변(變)/성문영 |
| 제20호 | 1997년 3월 | 권두언 |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면서/한혜경 |
| 제21호 | 1997년 4월 | 권두언 포커스 기획 | 한국의 복지현실과 과제/김성곤 유아교육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신정혜 어린이 사교육 현장연구 |
| 제22호 | 1997년 5월 | 권두언 특집 기획 |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조형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한마당 어린이 사교육 현장연구 |
| 제23호 | 1997년 6월 | 권두언 기획 | 아빠와 딸과 대중문화/박성봉 어린이 사교육 현장연구1 |

| | | | |
|------|------------|-------------------|--|
| 제24호 | 1997년 7월 | 권두언 기획 | 아이들은 어디에?/정유성 어린이 사교육 현장연구2 |
| 제25호 | 1997년 8월 | 권두언 특별기고 특집 | 시카고시의 아동복지 현장을 돌아보고/정영숙 공동육아에서 대안학교까지/김노정희 제3회 공동육아교사대회 |
| 제26호 | 1997년 9월 | 권두언 | 재미 되찾기/정진경 |
| 제27호 | 1997년 10월 | 권두언 |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기범 |
| 제28호 | 1997년 11월 | 권두언 | 또래간 상호작용의 의미 되새기기/이연섭 |
| 제29호 | 1997년 12월 | 권두언 | IMF 시대의 공동육아/정병호 |
| 제30호 | 1998년 1월 | 칼럼 기획 | 첫 마음, 첫 뜻으로/정유성 먹거리 다시 생각해보기1 |
| 제31호 | 1998년 2월 | 특집 기획 | 공동육아연구원 정기총회 등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현황 진단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언 먹을거리 다시 생각해보기2 |
| 제32호 | 1998년 3월 | 특집 보육사정 기획 | 난곡 해송어린이집 폐원조치를 보면서/신정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전망 먹을거리 다시 생각해보기3 |
| 제33호 | 1998년 4월 | 특집 | 영유아 보육제도 개혁방안 심포지엄 -보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안/정병호 |
| 제34호 | 1998년 5월 | 특별기고 특집 | 생명과 조화의 땅, 갯벌을 살리자/최승국 영유아보육제도 개혁방안 심포지엄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을 통한 보육복지의 경쟁력 제고/ 이기범 -아동권리를 우선 생각하자/조흥식 |
| 제35호 | 1998년 6월 | 특집 | 공동체교육 세미나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방과후 교실 운영사례/박현숙 -초등교육과 공동체교육/이주영 -사회교육과 공동체교육/박선숙 |
| 제36호 | 1998년 7.8월 | 칼럼 쟁점 기획 | 왜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가/김은하 바람직한 유아보육,교육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김성재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김정희 공동육아교육마당, 초등교육 꼭지 시작 |
| 제37호 | 1998년 9월 | 칼럼 특집 | 물란/김정희 공동육아의 정신/정병호 아마(활동)을 알면 공동육아가 보인다/이철국 |
| 제38호 | 1998년 10월 | 특집 | 공동육아란? -자연과 공동육아 I/정병호 -공동육아의 별명 부르기과 반말문화에 대해/이부미 |
| 제39호 | 1998년 11월 | 특집 칼럼 | 공동육아란? -자연과 공동육아 II/정병호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착된 나들이/박현숙 결식 아동의 공동육아/정병호 |
| 제40호 | 1998년 12월 | 특집 | 공동육아란? -공동육아의 생명교육:나들이/김정희 -산어린이집 나들이/산집 |

| | | | |
|------|--------------|-------------------|---|
| 제41호 | 1999년 1월 | 신년사 | 공동육아 5년, 시련을 딛고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정병호 |
| 제42호 | 1999년 2월호 | | 공동육아연구원 1999년 사업계획 |
| 제43호 | 1999년 3월 | 특집 | 날적이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부미 |
| 제44호 | 1999년 4월 | | |
| 제45호 | 1999년 5월 | | |
| 제46호 | 1999년 6월 | | |
| 제47호 | 1999년 9,10월 | 공동육아 | 어린이 인권과 부모 참여, 교육의 필요성/정병호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품앗이 공동육아의 역할과 의의/이기범 일본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정착 사례-교토시 일승사보육원의 사례 *교육마당 꼭지 신설 |
| 제48호 | 1999년 11,12월 | 특집 | '99 공동육아한마당 |
| 제49호 | 2000년 1,2월 | 새해인사 | 새천년, 공동육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정병호 기자 소리 요란해도/신희준 공동육아 속에 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김기봉 을 한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신정선 |
| 제50호 | 2000년 3,4월 | 공동육아 | 아이들이 주인공인 보육을/도노히라 요시히코 |
| 제51호 | 2000년 5,6월 | 공동육아 | 2000년 3월 평양 어린이들, 그리고 공동육아/정병호 새천년을 향하여:한국의 공동육아운동의 짜임새/테시치즈 |
| 제52호 | 2000년 7,8월 | 권두언 공동육아 |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삶/정병호 좋은교육을 하는 공동육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몇가지 이야기1/이기범 |
| 제53호 | 2000년 9,10월 | 공동육아 | 좋은교육을 하는 공동육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몇가지 이야기2/이기범 *공동육아연구원 재구성 특별위원회에 바란다/유환옥 |
| 제54호 | 2000년 11,12월 | 공동육아 | 좋은교육을 하는 공동육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몇가지 이야기3/이기범 *조합형 초등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
| 제55호 | 2001년 1,2월 | | |
| 제56호 | 2001년 3,4월 | 권두언 공동육아 | 의무교육과 공동육아/정병호 1학년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이주영 |
| 제57호 | 2001년 5,6월 | 권두언 공동육아 특집 | 공동육아와 지역운동/이기범 공동육아와 지역공동체운동/김동진 공동육아 제도1 -마실이야기/현수미, 조춘애 |
| 제58호 | 2001년 7,8월 | 권두언 특집 | 아흔 아홉 번의 절망 끝에 오는 단 한 번의 희망/정유성 공동육아 제도2-‘모듬’ 산어린이 어린이총회/산어린이집 교사회 |
| 제59호 | 2001년 9,10월 | 권두언 공동육아 특집 | 모두가 ‘주인되기’ 위한 조직으로/조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하나되는 우리 2001 공동육아한마당 |
| 제60호 | 2001년 11,12월 | 권두언 특별기고 | 작게, 더 작게/이철호 21세기 보육정책의 방향 -아동중심 지원과 차등보육료/김정희 |
| 제61호 | 2002년 1,2월 | 권두언 특집 | 교육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로/김동진 초등학교, 그 낮은 세계 |
| 제62호 | 2002년 3,4월 | 권두언 | 공동육아 대중화시대의 예고 |

| | | | |
|------|-----------------|-------------------------|--|
| | | 특집 | -보육제도 활성화 방안과 공동육아의 미래/정병호 대구 부산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
| 제63호 | 2002년 5,6월 | 여는글 시론 지역을 찾아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육아 -‘그들만의 공동체’를 극복하기 위하여/양용준 공동육아제도의 활성화 방안/정병호 공동육아로 만난 사람들/이송지 |
| 제64호 | 2002년 7,8월 | 여는글 특집 | 터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로/유환옥 공동육아의 힘, 교사를 말한다 |
| 제65호 | 2002년 9,10월 | 여는글 특집 | 공동육아 대중화시대를 맞이하여/김동진 공동육아 6년, 달라진 세대 변해가는 조합/이송지 |
| 제66호 | 2002년 11,12월 | 여는글 특집 | 우리 아이들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가/황운옥 공동육아 장애아동 통합교육 그 현실과 전망 법인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양용준 |
| 제67호 | 2003년 1,2월 | 여는글 특집 | ‘사랑스런 아이들’을 위하여/조은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간다 지금의 조합운영체계 이대로 좋은가?/김길호 |
| 제68호 | 2003년 3,4월 | 여는글 특집 생각나눔 | 공동육아의 예쁜 아빠들/정병호 신입이사진위크샵 들여다보기 -해송의 역사와 공동육아의 비전/이기범 -제도화의 길목에서/정병호 정부지원에 대한 생각들/최정희 공동육아의 제도화, 그 전에 먼저 짚고 싶은 문제들/양용준 |
| 제69호 | 2003년 5,6월 | 여는글 특별기획 | 관계맺음의 본질/이말순 보육의 포괄적 서비스를 지향하며/이명희, 박현숙, 권명학 |
| 제70호 | 2003년 7,8월 | 여는글 특집 | 니 아를 나도!/박혜란 2003년, 신나는 여름교사대회를 만나다 |
| 제71호 | 2003년 9,10월 | 여는글 특집 | 지난 25년, 앞으로 25년 “해송-공동육아운동 25주년을 맞이하여”/정병호 2003 공동육아한마당 “함께 커야 함께 산다” |
| 제72호 | 2003년 11,12월 | 여는글 특집 |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이기범 2003 공동육아 앞날을 생각하는 모임 -우리가 우리에게 길을 묻는다/황운옥 -공동육아 교육의 성과/이부미 -공동육아, 현실을 보자/이송지 -공동육아, 어디로 가야 하는가?/김태희 -분과토론 : 공동육아 해법찾기 |
| 제73호 | 2004년 봄 | 여는글 특집 | 다시 새겨보고 싶은 것들/양용준 2004, 겨울교사대회 함께 가는 길 2004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업계획 |
| 제74호 | 2004년 여름 | 여는글 특집 기획 | 출발점의 불평등/양옥승 공동육아 방과후 멀리 내다보기 앞으로 10년, 공동육아의 전망을 찾아보자 -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바뀌었나/사무국 -튼튼발전기금관리규정이 나오기까지/윤경화 |
| 제75호 | 2004년 가을 | 여는글 기획 | 공동육아 평양에 첫발을 디디다/이기범 앞으로 10년, 공동육아의 전망을 찾아보자 -토론의 물꼬를 열자!/민학기 -졸업생 출자제도의 발자취/윤창준 |
| 제76호 | 2004년 겨울 | 여는글 | 공동육아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박현숙 |

| | | | |
|------|----------|----------------|---|
| | | 특집 기획 |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 제1회 국제학술대회 앞으로 10년, 공동육아 전망을 찾아보자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안내/사무국 -조합에서 이렇게 논의하면 좋겠어요/사무국 -보육권리선언 |
| 제77호 | 2005년 봄 | 여는글 특집 | 유레카! 유레카!//정병호 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육아를 꿈꾸며 -2005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체계/사무국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을 만들며/노특위 -개별조합만으로 공동육아는 실현되지 않는다/양용준 |
| 제78호 | 2005년 여름 | 여는글 특집 생각나눔 | 관계적 교육과 공동육아/이기범 공동육아 조합원의 생활문화 :우리는 이렇게 공동육아 한다 공동육아에 대한 몇가지 오해들/김경태 |
| 제79호 | 2005년 가을 | 여는글 특집 | 어깨걸고 어절씨구, 하나되는 공동육아/양용준 연대와 희망을 키우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대한 안 밖의 생각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법인에 바라는 것과 법인이 원하는 것 |
| 제80호 | 2005년 겨울 | 여는글 특집 | 꿈같은 이야기 하나/박혜란 흔들리는 공동육아방과후, 그 자리매김을 위하여 -공동육아방과후의 역사와 과제 -공동육아방과후 교사와 교육내용 -공동육아방과후의 조직현황 -공동육아방과후 자리매김을 위한 전체토론 정리 |
| 제81호 | 2006년 봄 | 여는글 특집 | 회원 모두가 어깨 걸고 마련한 새 공간의 의미/양용준 실속있고, 힘 있는 공동육아 -2006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체 사업계획 |
| 제82호 | 2006년 여름 | 여는글 특집 | 교사의 전문성과 파트너쉽/양옥승 알콩달콩, 공동육아 모꼬지 세상으로! |
| 제83호 | 2006년 가을 | 여는글 | 공동육아와 저소득계층/강석재 |
| 제84호 | 2006년 겨울 | 여는글 특집 | 월빙과 로하스/이기범 전환기 공동육아, 그 길을 찾는다 -전환기 공동육아, 그 경계를 넘어서/황윤옥 -공동육아와 공동체/양용준 -공동육아,누군가의 짐이면서 뺄이 되는 따뜻한 등짐/윤은정 -부모세미나, 이렇게 토론했다/사무국 |
| 제85호 | 2007년 봄 | 여는글 특집 | 사회가 공감하는 공동육아/황윤옥 2007, 사회가 공감하는 공동육아/사무국 -공동육아 안과 밖의 상황 -제도화와 공동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년 사업의 주요방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년 10대 사업계획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선언, 지역공동체학교 아이상 교사상 |
| 제86호 | 2007년 여름 | 여는글 특집 |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박혜란 공동육아로 자란 아이들, 잘 살고 있나? -공동육아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 14년간의 짧은이야기/이경란 -10년전 공동육아로 자란 우리 아이/황의숙 -골목을 찾아서/여을환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김태희 |

| | | | |
|------|----------|-----------|---|
| | | 연속기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밋게 함께 하는 아이들/이은경 -삶을 빛나게 하다/이화진 공동육아에게 묻는다 조합을 깨자고? 그럼 공동육아는 뭐로 하지?/황윤옥 |
| 제87호 | 2007년 가을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시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정병호 공동육아, 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윤영주 -20대를 꿈꾸게 한 공동육아를 되돌아보다/박현숙 -공동육아 교사로 살아남기/이태경 -공동육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생각/이지수 -공동육아, 안녕하고 있는가?/이철호 -사회속의 공동육아:간헐 실천과 단헐 담론 |
| 제88호 | 2007년 겨울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새롭게, 너를 새롭게/이기범 공동육아, 미래를 생각하다 -달릴수록 넓어지는 길, 달리며 땀글수록 힘이 나는 길/황윤옥 새로운 공동육아를 꿈꾸다 -대덕 「뿌리와 열매」 지역센터에서 그리는 꿈/박현숙 -국공립보육시설에서의 공동육아/윤일순 공동육아 교사, 미래를 만들다 -교사, 공동육아 주인으로 바로 서자/김경태 -대낮에 눈 뜨고 꿈꾸기/이말순 공동육아 부모, 미래를 만들다 -같이 일구고 싶은 공동육아/김우 |
| 제89호 | 2008년 봄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육아, 처음 그 자리에 다시 서서/이송지 공동육아, 돌아보고 내다본다 2008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의 주요방향 2008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대 사업 계획 |
| 제90호 | 2008년 여름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소유와 공동육아운동/양용준 사교육을 말하다 -[대답]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교육 -공동육아의 사교육 논의를 위하여/김경태 |
| 제91호 | 2008년 가을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아이, 남의 아이, 우리 아이/박혜란 공동육아의 작은 역사, 해송 -해송, 서른 살이 되다/김미아 -해송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김미아 -성장의 요람 해송체험기/조은형 |
| 제92호 | 2008년 겨울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해송, 30주년을 기념하며/정병호 공동육아, 함께 키운 아이 -인터뷰1. 황윤옥 -인터뷰2. 금강산 -보육의 공공성 해결을 위하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성과와 과제 |
| 제93호 | 2009년 봄 | 여는글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육아는 상상력이다/이송지 공동육아, 새롭게 상상하다 -2009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방향 -2009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대 사업계획 -[대답] 공동육아,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교육게임’과 공동육아/정병호 |

4. 보육권리 선언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모두들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미래도 희망도 없다. 골목마다 넘치던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어느 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부모 되기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성 역시 가정에만 머물기를 거부하고 사회참여를 의무와 권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여성에게 사회참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육도 떠맡기고 모른 채 했다.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뒤흔들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잘 키워 주기를 바라기는커녕 그냥 안전하게 맡아만 줄 곳조차도 찾기 어렵다. 혹 있다 해도 어느 곳은 너무 비싸고 어느 곳은 너무 멀고 어느 곳은 너무 열악하다.

결국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부모도 생기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부모들은 불안을 안은 채 아이들을 미흡한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교사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이다. 열악한 시설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아가며 장시간 많은 아이들을 돌보노라면 몸도 마음도 지레 지쳐 버리기 일쑤이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 되려면 부모와 교사와 국가가 한 마음이 되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키워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건에서 이러한 보육을 바란다는 건 어림없는 욕심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불가능한 과제이기만 할까? 지금 당장 우리 사회와 국가가 힘을 쏟는다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우리, 어린이와 교사와 부모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보육권리 선언(어린이)

날마다 햇빛과 바람, 물, 흙 속에서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매일 나를 안아주고, 나와 눈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친구(선생님)들을 충분히 주세요.

따뜻한 간식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 조금 다른 얼굴, 다른 말, 다른 나이의 친구들과도 함께 놀 수 있게 해주세요.

딱 짜인 시간표로 움직일 때마다 줄 세우지 말아 주세요.

여자와 남자를 옷과 놀이와 말로 구별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똑같은 옷과 가방과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글자와 숫자와 외국말을 너무 일찍 익히게 하지 말아 주세요.

화난 얼굴, 노여운 목소리, 무서운 매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 보육권리 선언(교사)

안정된 보육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한 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여 주세요.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세요.

교사들의 적절한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부모들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보육권리 선언(부모)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게 좋은 보육시설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주세요.

바람직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사들과 늘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아보육, 야간보육, 장애통합보육 같은 다양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2004년 10월 9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발행일 2009년 8월 10일 초판 2쇄
펴낸이 이송지
기 획 이송지, 이현숙
편 집 이현숙
펴낸곳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태복빌딩 201호
T. 02-323-0520 F. 02-323-1695
<http://공동육아>
gongdong@kornet.net

© 본 자료집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자료이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와 전재·배포를 금하며, 내부 교육용으로만 사용합니다.